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무속신화 연구

The Study on Korean Shamanic Myths
seen from the Viewpoint of Healing Complex

저자 조홍윤

저자 조홍윤 (Ph.D Cho Hongyoun)

건국대학교 문학박사

전) 건국대학교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전임
연구원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
임강사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무속신화 연구 조홍윤 지음

B

B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무속신화 연구

The Study on Korean Shamanic Myths
seen from the Viewpoint of
Healing Complex

저자 조홍윤

머릿말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콤플렉스의 사회’라 지칭될 만큼, 집단적·개인적인 콤플렉스에 기인한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불안과 고통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의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대인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치유의 가능성을 한국의 신화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무속신화는 풍부한 원형성을 담보한 서사로서, 한계적 인간의 형상으로 제시되는 주인공이 완전한 존재적 변모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한국 무속신화는 그 서사 속에 한계적 인간으로서 고통 받는 주인공이 그 내면에 착종된 부정적 자기인식, 콤플렉스를 치유하는 과정을 함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신체적 열등감을 원인으로 하는 콤플렉스의 전형으로서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거북이·남생이, 관계적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콤플렉스의 전형으로서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 사회적 관념을 원인으로 하여 형성된 콤플렉스의 전형으로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의 서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각 경우에 문제 되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밝히고, 그 구조적 변화를 통한 치유의 과정을 논하였다. 이때 콤플렉스의 구조를 밝히는 데는 대립구조 분석을, 콤플렉스의 치유과정에 대해서는 순차구조 분석을 통하여, 콤플렉스의 형성과 작용, 치유에 대한 서사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는 관계 대상인 아버지의 ‘무능한 존재’라는 평가를 그대로 자기 존재성 인식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존재성을 행위를 통해 내보였던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통해 존재적 근원으로서의 신성공간인 금상사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 여로에서 발견한 ‘생금(生金)’, 즉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부재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상적 환상으로 대치하고 그 증명을 위한 자기 이

상화에 매달린 것이 문제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콤플렉스는 어머니로 표상되는 현실 관계의 가치, 즉 현실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었다. 자청비의 문제는 여성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의 시선에 대응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것이 문제 되었다. 위로는 관계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아래로는 멸시와 배제의 시선을 투사하는 그녀의 관계 방식은 모든 관계를 단절 시키고 그녀를 그녀의 세계로부터 축출당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녀는 정수남을 회생시키며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를 재인식하고, 여성의 과업을 통하여 자신이 지닌 존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도령에게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어 위의 존재와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할 수 있었다. 아래로는 땅, 짐승과 관계 맺고, 위로는 하늘과 관계 맺은 자청비는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인간의 표상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차별의 논리로 인해 만들어진 남성의 형상을 벗어던지고 자기와의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세 신화의 분석을 통해 콤플렉스의 발견과 치유에 있어 한국 신화가 담보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드러낼 수 있었다. 콤플렉스의 형성에 있어서는 ‘성(聖)/속(俗)’에 대응하는 ‘이상/현실’의 대립이 기본 되며, 이는 ‘신성의 서사/세속의 서사’에 대응하는 ‘이상의 서사/현실의 서사’의 대극합일 과정을 통해 치유된다. 이는 콤플렉스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주인공이, 그 안에 이미 지니고 있던 이상적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확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한국 신화의 서사는 평범한 인간을 그 자체로 신성이 깃든 존재라 보는 원형적 인식에 기반 한 것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얽혀 고착화된 부정적 자기 인식, 즉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하여 그 치유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목 차

<p>1. 서론.....1</p> <p> 1.1. 문제제기.....1</p> <p> 1.2. 연구사 검토.....6</p> <p>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14</p> <p>2.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의 새 길.....20</p> <p> 2.1. 콤플렉스에 대한 서사적 접근과 신화.....20</p> <p> 2.2. 한국 무속신화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의 가능성.....37</p> <p> 2.3. 신화의 서사를 적용한 콤플렉스 분석의 방법.....43</p> <p>3. 콤플렉스 서사로서의 한국 무속신화 분석.....49</p> <p> 3.1.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 <숙영랑·앵연랑 신가>.....51</p> <p> 3.1.1. 거북이·남생이의 서사와 콤플렉스.....51</p> <p> 3.1.2.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구조 분석 - 타인에 의해 규정된 정체성의 수용과 고착.....56</p> <p> 3.1.3.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존재적 가치의 발견과 자기화.....64</p> <p> 3.2. 관계적 결함의 문제 : <이공본풀이>.....82</p> <p> 3.2.1. 할락궁이의 서사와 콤플렉스.....82</p> <p> 3.2.2.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구조 분석 - 관계적 결핍에 따른 좌절과 이상적 관계에 대한 환상.....88</p> <p> 3.2.3.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주어진 관계가 지닌 절대적 가치의 발견.....101</p> <p> 3.3. 사회적 관념의 문제 : <세경본풀이>.....116</p>	<p> 3.3.1. 자청비의 서사와 콤플렉스.....116</p> <p> 3.3.2. 자청비의 콤플렉스 구조 분석 - 편견이 내재화된 채 편견과 싸우는 자기모순.....123</p> <p> 3.3.3. 자청비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차이와 역할의 인정을 통한 자기와의 화해.....145</p> <p>4.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원리.....171</p> <p> 4.1. 신화 속 콤플렉스 서사의 공통적 속성.....171</p> <p> 4.1.1.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의한 콤플렉스 형성.....172</p> <p> 4.1.2. 콤플렉스에 가려진 존재적 가치 발견의 과정.....177</p> <p> 4.2. 신화를 통해 본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원리.....185</p> <p> 4.2.1. 세속과 신성, 이상과 현실의 대극 합일.....185</p> <p> 4.2.2. 대극합일의 서사체험을 통한 존재적 변화.....197</p> <p> 4.3. 한국 신화의 원리로 보는 인간 존재의 원형과 콤플렉스 - ‘현실-신성’의 서사와 인간의 본원적 가치.....200</p> <p>5.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에 대한 실제적 적용 가능성 탐색.....225</p> <p> 5.1. 대학생 집단의 사례를 통해 본 콤플렉스의 양상.....225</p> <p> 5.2. 신화를 통한 실제적 콤플렉스의 진단과 치유의 가능성.....239</p> <p>6. 결론.....245</p> <p>참고문헌250</p>
--	--

1. 서론

1.1. 문제제기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콤플렉스’이다. 지인들과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 TV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내뱉는 말 속에서, 연예프로그램의 재미나는 농담 속에서도, 심지어는 뉴스를 보도하는 앵커의 보도문에서까지 하루에 몇 번 이상은 이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현대인들의 일상을 점령하다시피 한 인터넷 공간을 예로 들자면, 하루치 인터넷 기사 목록 중 하나 이상이 개인 혹은 사회의 ‘콤플렉스’를 언급하고 있다. 콤플렉스가 일상화된 사회, ‘콤플렉스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략적인 시대상을 개괄했을 뿐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콤플렉스의 문제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 문학연구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문학의 가치가 교훈성에 있는가, 흥미유발에 있는가’ 하는 고루한 논쟁의 차원을 벗어난 문제이다.¹⁾ 문학의 가치라는 것이, 교훈으로든 즐거움으로든 당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면, ‘콤플렉스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문학이란 그들의 정신적 요구에 답할 수 있을 만한, 콤플렉스로 인한 고통의 문제에 답할 수 있을 만한 내질을 지닌 것이어야 할 것이다.²⁾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기여할

1) 이에 대하여 조동일은 문학작품이 지닌 형상적 기능과 인식적 기능을 통해 ‘쾌락’과 ‘교훈’ 양자의 가치가 문학의 각 일면임을 설명한다. 이때 쾌락에 의한 몰입을 유도하는 것은 문학의 형상적 기능이며, 교훈에 의한 자기와 세상에 대한 고찰을 유도하는 것은 인식적 기능이다. 양자의 기능은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몰입에 의한 자기발견이 없으면 비판적 인식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비판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몰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문학작품의 기능과 효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213~214면).

수 있는 문학연구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문학작품이란, 그 수용자로 하여금 작품에서 자기를 발견하여 몰입하게 하는 한편, 작품에 부딪쳐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때 수용자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삶의 과정에 누적된 경험, 상상, 희망 등을 극히 내밀한 부분까지 동원하여 자신을 발견 한다. 그리고 발견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³⁾ 문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인식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주로 인식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있는 인간 정신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요한 점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제적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발견이 인식적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이다. 콤플렉스란 ‘무의식적으로 얽혀 착종(錯綜)된 부정적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⁴⁾ 문학작품을 통하여 문제적 자기를 발견하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콤플렉스의 발견과 치유에 있어서 문학연구를 통한 길 찾기가 주요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문학을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구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학을 통하여 콤플렉스적 인간을 발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겠다. 프로이트(S. Freud)는 억눌려 억압된 욕망의 문제가 인간의 정신적 문제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콤플렉스의 형성을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에 억압된 욕망은 그 대안적인 성취를 위해 꿈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의 꿈이 대부분 소망충족적(所望充足的)인 성격을 띠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2) “당대라는 조건은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그리고 삶 자체가 그러한 영향을 받으므로 학문 또한 당대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은 지난날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학문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당대의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옛날과 같지 않다는 인식을 넘어서서 학문에 영향을 주는 현대 사회라는 환경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김대행, 『현대 사회와 구비문학 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찾기』, 박이정, 2003, 12면.

3) 조동일, 앞의 책, 212~213면.

4) 콤플렉스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심리학 연구의 선례에 따른 것은 아니다. 다양한 층위와 원리로써 논의되는 심리학적 콤플렉스 개념을 참고하고, 일반적인 콤플렉스의 양상을 고찰하여 본고에서 논의될 콤플렉스의 개념 범주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린 것이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콤플렉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2.1장을 통하여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인간의 꿈은,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표지를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창조적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그러한 꿈의 기능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백일몽(白日夢)’으로 표현하며, 작가의 억압된 욕망이 작품을 통하여 소망충족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⁵⁾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정운채는 문학작품에 인간의 억눌린 욕망이 소망충족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양상을 밝혀, 문학의 본래적 기능이 인간의 심리적인 장애를 증상으로 드러내고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한바 있다.⁶⁾ 그렇다면 문학작품이 인간의 억눌린 욕망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형성과 향유를 곧 인간의 콤플렉스가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에 얽혀있는 콤플렉스가 문학작품에 투영되어 나타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문학연구의 적합성을 담보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목할 것은 신화의 원형성이다. 콤플렉스 이론을 통하여 정신분석학의 성립을 주도한 바 있는 칼 융(C. G. Jung)은, 신화의 형상이 인간 무의식의 원형(原型, archetype)을 표상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⁷⁾ 그에 따르면 원형은 현재적 힘을 지닌 살아있는 ‘신화소(Mythologem)’이다. 이는 그것이 집단 삶의 범례,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의한다. 말하자면 신화소로서의 원형이 신화를 형성함으로써 집단의 삶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신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⁸⁾ 이는 신화의 원형이 인간의 정신적 삶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함축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신화의 원형은 그러한 심상을 경험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원형은 본능과 마찬가지로 강한 정동성(情動性)을 지니며, 무엇인가를 실현하려는 ‘힘(Kräfte)’과 ‘경향(Tendenzen)’을 보인다.⁹⁾ 여기서 ‘힘’이나 ‘경향’은 의식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오히려 의식을 끌어당겨

5) S. Freud, 김인순 역,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134~175면 참조.

6) 정운채, 「한국고전문학과 문학치료」, 『조선학보』 제183집, 조선학회, 2002, 59면.

7)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2-원형과 무의식, 숲, 2002, 108면.

8) 이유경, 『원형과 신화』, 분석심리학연구소, 2008, 96면.

9) C. G. Jung, *Theoretische Überlegungen zum Wesen des Psychischen*, in: G. W. Bd. 8, p.109, 앞의 책, 120면에서 재인용.

인간의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다. 신화는 바로 이러한 원형의 기능을 그대로 반영한다.¹⁰⁾ 신화의 원형에 접속한 인간은 본인의 가치관이나 경험세계, 본인에게 구조화되어 있는 인식의 체계나 행위방식에 구애됨 없이, 자연스럽게 신화의 원형이 추동하는 방향에 따라 인식하고 행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서사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힘, 이것이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신화의 치유적 힘’이다.¹¹⁾ 따라서 심층적 인간 정신의 원형을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는 신화 서사의 분석을 통하여,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논의되는 콤플렉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신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화가 함유하는 집단적 무의식, ‘원형’을 통해 콤플렉스 문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융은, 콤플렉스의 형성 과정에 작용하는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콤플렉스가¹²⁾, 집단적 무의식, ‘원형’을 토대로 하여 구축된다고 본다.¹³⁾ 예를 들어 한 인간이 자신의 어머니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가 지니고 있는 집단적 모성의 원형이 그의 어머니 체험과 결합하여 개인적인 모성 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콤플렉스는 인류적 경험에 의한 여러 원형의 이미지들과 개인적 경험이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렇다면 개인적인 콤플렉스의 문제라고 해도 집단적 무의식의 문제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개인의 콤플

10) 이유경, 앞의 책, 120~121면.

11) 이러한 언급에 오해의 여지가 있으리라 본다. 신화의 서사를 접하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서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원형적 신화 서사가 체험 주체의 인지와 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나, 각 체험 주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상황에 부합하는 신화 서사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거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신화의 서사에 대하여, 의식적인 저항의 정도가 심한 체험자로 하여금 오해를 견어내도록 이해를 돕는다면 그 치유의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

12) 융은 특수한 정동(情動, emotion)을 통하여 관찰될 수 있는 콤플렉스를 ‘정감(affect)이 강조된 콤플렉스’로 표현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지적되는 콤플렉스이다. 그는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이 주로 정감이 강조된 콤플렉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콤플렉스는 곧 개인적 무의식인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C. G. Jung, 앞의 책, 2002, 106면).

13) 앞의 책, 105~106면.

14) 앞의 책, 201~206면.

플렉스마다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특수성과, 집단적 무의식에 기반한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신화의 원형을 통한 콤플렉스 연구가 오히려 적절한 방안일 수 있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근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신화가 함유한 신성관념이 신화전승집단의 심층적인 의식체계를 투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⁵⁾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신은 인간의 삶과 우주에 기능하는 (개인의 육신과 자연에 기능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힘, 혹은 가치 체계의 화신(化身)이며, 신화는 인류 안에 있는 정신적 잠재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한다.¹⁶⁾ 신화가 인류의 정신적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언술은, 곧 신화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 문제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정신적 대응의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삶을 운영하는 가운데 접하게 되는 정신적 고통의 문제,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화의 서사 속에 원형적 물음과 그 해답이 녹아있으리라는 전제가 가능하다.

이때 그러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한국의 신화이다. 한국의 신화 서사는 주인공이 한계적 인간 존재로서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함으로써 완전한 존재성을 얻게 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건국신화의 경우에는 왕으로의 좌정을 통해, 서사무가의 경우에는 신으로의 좌정을 통해 그러한 과정의 서사가 완성된다. 여기서 ‘왕’과 ‘신’이라는 최종적 존재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존재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한국의 신화는 한계적 존재인 인간 주인공의 존재적 완성을 이야기하며, 한계적 인간이 존재적 완전성을 얻어가는 길에 대한 정신적 깨달음이 그 서사 속에 녹아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적 깨달음 속에서는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콤플렉스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극복과 치유에 대한 원형적 인식들이 담겨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15)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85면.

16)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61면.

신화를 콤플렉스와 그 치유에 대한 서사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콤플렉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신화의 서사를 통하여 현실적 콤플렉스의 문제를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찍이 체계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본 연구의 방향에 정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기존 연구의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어느 정도 유사한 방법론과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연구 성과들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토할 선행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심리학 이론을 통한 신화연구의 사례, 서사치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신화 연구의 사례로 나뉜다. 또한 추후 연구의 범위를 신화 일반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에 대비하여 연구사례의 검토에서 살펴볼 신화의 범주는 한국 신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신화 일반으로 확장하여 둔다.

먼저 심리학 이론을 통한 신화 연구의 사례에서, 세계 신화 일반을 범주로 하는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창재는 동아시아 신화의 분석에 있어서 정신분석학 방법론의 주체적 활용을 위해 한국의 신화 연구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예비적 지식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프로이트(S. Freud)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발전해온 정신분석학의 관점과 개념 틀에 대해 ‘소화된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점, 신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들이 각자 고유한 관점과 개념 틀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그러한 각각의 시각과 개념 틀을 신화의 해석에 다중적으로 적용하여, 동아시아 신화들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총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예비적 지식들의 활용을 통하여 동아시아 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구체적이고도 다중

적인 비교·해석이 전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김희진은 그리스의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Demeter-Persephone) 신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 인간의 ‘개성화(individuation process)’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한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상(the positive self image)’을 형성해 가는 개성화 과정, 즉 한 개인이 성숙한 존재로 변화해 가는 일은 어머니와의 공생관계에서 분리될 때에 가능한 것이기에, 어머니는 자녀가 개성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녀와의 정서적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으로써 자녀의 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개성화는 의식과 무의식 간의 유연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무의식의 영역에 가려져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성을 의식 세계로 발현시킴으로써 ‘진정한 자기상(the true self)’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임을 역설한다.¹⁸⁾

유제상은 분석심리학적 관점을 통하여 창조신화들 중에서도 ‘알’이 출현하는 창조신화를 중심으로 그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창세의 첫 장면에 놓여진 ‘알’을 무의식의 원형에 속하는 ‘알’의 모티브와 비교하여,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창조신화의 상징성을 의식적인 영역에서 이해하고자 한 시도였다. 그에 따르면 창조 신화 속 ‘알’의 상징은 원형의 투사로서 무의식에서 자아가 탄생하는 인간 정신의 발달 과정과 관련된다. 이는 인간의 의식적 자각의 기원을 의미함과 같다. 무의식의 원형인 ‘알’의 출현은 개인·인류사적으로 새로운 의식의 도약이나 재건의 조짐에 대한 인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아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침범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알’이 출현하는 창조신화들, 시조신들의 모체로서의 ‘알’을 소개하였으며 신화에 출현한 ‘알’이 ‘자기(self)’의 상징임을 이야기한다. 또한 ‘알’과 관련된 임상 자료들을 통하여 ‘알’의 상징성이 피분석자들의 무의식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알의 상징성에서 보여주는 전 과정이 내(자아, 주체, 분화됨)가 나 아닌 것(무의식, 객체, 미분화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관련되

17) 이창재, 「제1부 환장, 네러티브 신화 : 동아시아 신화 해석을 위한 정신분석 관점 및 개념 고찰」, 『기호학연구』 제15집, 한국기호학회, 2004, 233~272면.

18) 김희진, 「신화해석을 통해 본 개성화 과정 : 융 분석심리학에 근거하여」, 『독서치료연구』 제2집, 한국독서치료학회, 2006, 1~15면.

며 인간정신의 전체성을 지향하는 자기실현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논의하였다.¹⁹⁾

다음으로 살펴 볼 연구사례들은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 이론을 통한 신화 연구 가운데서도 한국의 신화를 그 범주로 하는 경우이다. 김광일은 한국 신화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의 양상을 정신분석학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문화적 조건과 관련하여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기록 신화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상징과 토테미즘(totemism) 속에 단편적으로 숨겨져 있다고 본다. 민간에 전승되는 신화나 전설에서는 극소수의 적나라한 오이디푸스 서사를 찾아 볼 수 있지만, 대개는 고도로 상징화된 토테미즘의 양상으로 숨겨진 채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전반적인 한국의 신화에서 원초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억압되어 있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한국 문화의 대가족제도, 효(孝)의 논리, 성(性)심리, 상호의존적인 대인관계 등을 꼽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경우에 따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승화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⁰⁾

김난주는 분석심리학적 견지에서 창조신화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고 창조신화의 전승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는 본토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창조신화와 가택신화, 사찰설화, 치병굿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카오스-창조’라는 서사 축의 설정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창조신화의 각 단락들이 심리학적 측면에서 전의식단계-의식단계-초경험적 세계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일월조정, 거식성, 거인성, 대식성, 의복 등의 상징적 의미, 신화 속의 갈등관계 형성과 관계회복의 문제를 ‘카오스 - 창조’의 서사 축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²¹⁾

박현순은 신화의 핵심 주제인 신화소와 신화내용의 전개를 집단무의식의 원형과 리비도의 변환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상징에 대한 확충

19) 유제상, 「원저 :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창조신화 : “알”의 상징성 중심으로」, 『심성연구』 제27집, 한국분석심리학회, 2012, 28~70면.

20) 김광일, 「한국신화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韓國文化人類學』 제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27~46면.

21)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과 비교를 통한 해석학적 방법을 통하여 신화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개인 내면의 정신현상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이에 분석심리학에서 신화를 분석하는 목적을 정신의 심층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이는 무의식에 대한 통찰의 한 방편이며, 이를 통해 의식이 지향하는 일방성에서 벗어나 전체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

윤혜신²³⁾은 라캉(J. Lacan)의 정신분석 틀을 기반으로 어머니신을 낳은 신화적 주체의 시선과 표현 방식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대의 어머니신화를, 신화적 주체가 대타자인 어머니를 상호주체적 시선으로 이해하여 은유와 상상의 방식으로 구성된 서사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자면 각기 다른 존재인 ‘어머니’와 ‘산’이, 신화적 주체의 시선에 의해 은유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보는 방식이다. 또한 어머니신의 형상을 자기 완결적인 완벽한 어머니, 주인공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어머니, 배우자의 켈러스를 회귀하는 ‘결핍된 어머니’ 등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이러한 어머니신들의 형상은 각각 그러한 시각을 지닌 신화적 주체의 시선이 투사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선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단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유아의 시선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라캉의 관점에 의하면 ‘웅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셋째 단계에 위치한 유아 시선의 국면을 보여주며, ‘유화’와 ‘정견모주’는 모자의 이자(二者)관계적 시선을, ‘서술성모’는 첫째 단계 유아의 시선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세계의 신화 일반으로부터 한국 신화의 범주에 이르기까지 심리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화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화가 함유한 원형의 상징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그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에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에 의한 신화연구는, 주로 신화 향유자들의 인식이 신화의 상징으로서 녹아 들어있는 양상을 밝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의식의 발전 과정을 통한 심리적 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콤플렉스의 치유를 목적

22) 박현순, 「수로왕 탄생신화의 심리학적 분석-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7집, 한국심리학회, 2005, 75~95면.

23) 윤혜신, 「어머니신을 낳은 신화적 주체의 시선과 표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구비학회, 2013, 37~72면.

으로 하는 신화연구의 기반으로 의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이 지닌 한계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본다. 신화 텍스트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상징들에 초점을 둔 나머지, 전체적인 신화 서사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는 전체적인 서사의 국면을 따라 ‘개성화’의 과정이 논의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서사의 흐름을 따르고는 있으나, 앞뒤의 서사적 맥락을 연결 짓기보다 ‘개성화’라는 의식적 발전과정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서사적 완결성을 지닌 신화 텍스트의 의미는, 신화의 상징과 서사적 맥락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었을 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닌 상징 이해의 깊이를 공감하면서도, 것처럼 깊이 있는 원형 상징의 이해에 더하여 깊이 있는 서사적 의미의 구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서사치료의 관점을 바탕으로 수행된 신화 연구 사례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신화를 대상 범주로 한 연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희진은 융(C. G. Jung)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의 페르세포네 신화를 분석함으로써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치료 과정을 고찰하였다. 특히 모성 원형의 플렉스와 관련하여 자기애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긍정적인 자기상을 분열시키는지 탐색해 보고,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성화 되는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치유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하였다. 논의에 따르면 사람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적든 자기애적 성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치우치면 장애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성화 과정이 바로 무의식 영역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의식 영역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도약을 통해 진정한 자기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개성화 과정을 통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치유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유연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의식 영역의 통찰은 다른 사람 즉, 심리치료자와의 공감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써, 이에 따라 내담자를 돕는 심리 치료자들의 역할이 주요함을 이야기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²⁴⁾

송지원은 그리스의 <프쉬케 이야기>를 활용하여, 상담 장면에서 내담

자에게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내면의 여성성 발달과정을 탐색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쉬케 이야기>의 여성성 발달과 통합과정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러한 탐색의 과정을 기반으로 여성성 발달측면의 여대생 상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나타난 독특한 체험들의 의미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드러난 여성성 발달과정의 공통 요소는, 첫째로 개인적 욕구의 자각과 유지, 기존 정체성과의 분리, 내면의 어두움에 대한 인식, 남성적 요소와의 통합, 그리고 새로운 자아상의 출현이었으며,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여대생 내담자에 대한 상담에서 여성성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담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²⁵⁾

제시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융 심리학에 기반 한 원형 비평의 기법들이 활용된 예로서, 앞서 제시된 정신분석학 범주의 논의가 지닌 한계들을 그대로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서사'에 대한 고려가 더해진다면 서사 그 자체의 전달과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의식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신화를 범주로 하여, 그 치료적 의미를 논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신동훈은 한국의 신화 중에서도, 특별히 무속신화가 지니고 있는 치료적·문학적 힘에 대해 논하면서, 그러한 힘을 담보하는 서사적 성격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것은 '나의 삶의 표상으로서 서사', '문제를 숨김없이 노출하는 서사', '긍정과 포용을 통한 승화적 극복의 서사', '원형적 상징에 기초한 지속적 감응의 서사'로서의 성격이다. 또한 문학치료를 무속신화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로써 '치료 대상', '텍스트의 적용', '치료의 방법과 과정'의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무속신화가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갖춘 치료 서사임을 강조하면서 심리적 문제를 지닌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사임을 확인하였다.²⁶⁾ 이 논의는 한국의 신화 서사가 지니고 있는 치료적 힘을 확인할 수

24) 김희진,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치료과정고찰 : 융 심리학에 근거한 페르세포네 신화분석」, 『어문집』 제11집, 평택대학교, 1998, 701~716면.

25) 송지원, 「<프쉬케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성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여대생 상담에서의 적용」, 『학생생활연구』 제24집,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1, 31~51면.

26) 신동훈, 「치유의 서사로서의 무속신화 - 그 문학치료학적 힘에 대한 단상」, 『문학치료연구』 제

있고, 그 구체적인 작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기반으로 삼을 만하다. 제시된 서사적 성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콤플렉스 치유의 방법론이 개발 될 수 있다면, 한국의 신화서사를 통한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병주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원형적 이미지를 통하여 여성의 개성화와 자기실현의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청비 신화를 통하여 원형적 상징들을 재(再)체험하는 맥락에서,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치유의 과정과 심리 치료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자청비 신화가 현대 여성들이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원형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삶의 지혜와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고, 특히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삶의 전형이 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자신의 운명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개척해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지혜의 여신 자청비는 삶의 비전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다.²⁷⁾ 이는 앞에서 살펴본 페르세포네나 프쉬케의 개성화 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없다. 또한 자청비의 신격을 특별히 '지혜의 여신'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한국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들은 '지혜'의 표상이 될 만한 자질들을 모두 지니고 있다. 원형비평의 한계가 여기에서 또 한 번 드러나는 듯하다. 그가 논의한 자청비의 개성화 과정과 과업의 수행은, 자청비가 아닌 다른 여신들의 경우에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분석들을 그대로 바리데기의 개성화 과정에 적용한다고 해도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리라 여겨진다. 자청비 서사만이 가진 특질들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어야, 자청비와 같은 문제 상황에 직면한 이들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은희는 <세경본풀이>를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무속신화

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21~42면.

27) 김병주, 「여성신화 <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집, 한국심리학회, 2010, 561~585면.

가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가 지닌 부모 의존적 태도가 문제 되어 그녀의 모험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을 밝히며, 자청비가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마지막 모험에 임하여서야 드디어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며 모험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자청비의 성장담을 담고 있는 무속신화 <세경본풀이>는 부모 의존도가 높은 치료 대상자에게 스스로 지각하지 못했던 현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²⁸⁾ 자청비가 부모 의존적 태도를 지녔다고 분석된 사례는 아마도 이 경우가 최초가 아닐까 한다. 자청비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의미부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맥락적 분석이 서사의 세세한 국면이나 자청비의 형상에 대한 충분한 고찰로 이어지지 못한 듯하다. 이러한 연구사례의 고찰을 통해, 신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서사의 세세한 각 국면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의 분석이 주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박재인은 북한의 <주몽신화>와 남한의 <주몽신화>를 비교 분석하고 북한의 관점을 문학치료학적으로 이해하면서 남북한 연구의 서사적인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남한에서는 유화의 신적인 면모에 주목하거나, <주몽신화>에서 드러난 유화의 삶 전반에 주목하여 가부장제 사회 속에 수난을 인내하며 살아하는 여성 개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북한에서는 영웅을 양육한 현숙한 어머니의 전형으로 예찬하여, 그녀가 이루어낸 양육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은 주체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숨은 영웅의 특성에 부합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양육의 방식 및 훌륭한 어머니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확인하였다. 즉, 이 논문은 남북한 모두에 전승되고 있는 신화 속 인물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서사적 소통을 이룩할 수 있는 이해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²⁹⁾ 이러한 연구는 ‘집단적 콤플렉스’의 치유에 대한 의미 있는 사유라

28) 이은희, 「무속신화의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연구: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경본풀이>의 활용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7집,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3, 223~253면.

할 수 있다. 신화가 내포한 원형적 인간 삶의 의미는, 개개인의 인간 삶에 대한 정신적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가 놓인 전체 세계의 조건에 대한 인식이 그 바탕에 놓여있다.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신화적 사유의 체계를 구명하고자 한 것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집단’, ‘사회’의 문제에 대한 신화의 치유적 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신화’와 ‘정신’,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사례를 통하여 분명히 지시되는 연구의 방향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콤플렉스의 구조를 구명해낼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되, 콤플렉스의 구조를 드러냄에 있어 섬세한 서사의 국면을 놓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각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를 구명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서사 구조 분석이라 할 수 있는 대립구조와 순차구조 분석을 통하여 서사의 맥락과 주인공의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한국의 신화 서사가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치유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개별 신화 주인공의 사례를 통해 그에 부합하는 현실적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방법을 구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신화 서사가 지닌 치유적 성격, 그러한 성격을 담보하는 한국 신화의 원리까지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점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한국 신화의 원리와 그러한 원리를 통해 구현된 서사의 체계로서도 콤플렉스 일반의 문제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원리를 밝혀낼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구의 방향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본고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신화이다. 한국의 신화는 건국

29) 박재인,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양육”의 덕문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고찰」, 『겨레어문학』 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173~202면.

신화로 대표되는 문헌신화와, 무속신화로 지칭되는 구비신화로 구분된다. 양자의 경우가 모두, 한계적 인간이 왕이나 신으로 좌정하는 존재적 완성의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나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건국신화의 경우에는 주로 국가의 창건을 주도한 개국시조의 서사로서 역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³⁰⁾ 그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평범한 대중의 신앙체계 안에 머물러 있던 무속신화의 경우에 비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하게 띠 수 밖에 없다고 본다.³¹⁾ 그러므로 보편적 인간 삶의 문제에 대한 원형적 인식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무속신화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논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신화 중에서도 무속신화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제주도 지역의 본풀이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된 무가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그 중에서도 주인공의 콤플렉스적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자료를 주요 텍스트로 삼는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논의의 전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며, 다음으로는 그것이 한국의 신화 서사를 통해 연구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하여 신화의 서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사적 연구방법론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우선, 신화의 서사를 콤플렉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콤플렉스를 근대적 정신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는 ‘고대인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었는가’하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신화의 완전성을 신봉하는 입장에서는 ‘신화의 주인공들이 콤플렉스적 존재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표할 것이다. 이에 2.1을 통해서 신화 일

30) 서대석, 앞의 책, 3~4면.

31) 건국신화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현철,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1~19면 참조.

반을 대상으로 신화가 콤플렉스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검증해보도록 한다. 그러한 검증의 과정으로서 우선 본고에서 논의될 콤플렉스의 개념 범주를 확정하고, 이를 통하여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대상 자료로 삼아 그러한 콤플렉스의 양상을 찾아보는 작업이 수행 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신화가 형성되고 그 체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는 양상을 밝히고, 그러한 신화 속에 나타난 콤플렉스의 형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신화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의 적합성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화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에 대한 한국 신화 서사의 적합성 문제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2.2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한국 신화의 서사가 지닌 특수한 자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 중에서 한국의 신화 서사가 지닌 특수성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특수성이 한국 신화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를 가치롭게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신화 서사의 어떠한 특성이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의 착목점을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3을 통해서 한국 신화의 서사가 함의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하여, 그에 접근하기 위한 서사적 분석의 방법을 고찰해본다. 이에 신화 주인공의 서사를 통해 콤플렉스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서사적 콤플렉스 연구 방법을 설정한다. ‘콤플렉스(complex)’라는 개념은 본디 정신분석학 연구에 뿌리를 둔 것인 바, 콤플렉스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의 고찰에는 그 개념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배제될 수 없을 듯하다. 이에 콤플렉스의 발견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S. Freud)가 말하는 콤플렉스의 구조, 그에 기반하여 나름대로의 콤플렉스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으로써 신화와 문학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융(C. G. Jung)의 콤플렉스 구조, 현대인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 평가되는 아들러(A. Adler)의 콤플렉스 구조를 개괄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심리학자들이 말한 콤플렉스의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그 콤플렉스 구조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탐색해 보고, 그러한 핵심

요소들로 각 신화 주인공이 지닌 콤플렉스 구조를 구명할 분석틀의 설정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측면에서 한국 신화의 서사를 분석해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의 확인이 마무리 될 것이다.

3장을 통해서는 한국 신화의 주인공 중에서도 콤플렉스적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화 주인공의 서사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의 서사를 이루고 있는 대립구조와 순차구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우선 주인공으로 하여금 문제적 모습을 보이도록 만드는 콤플렉스의 구조가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한 콤플렉스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갈등의 양상을 확인하기 용이한 대립구조의 분석이 주요하리라 본다. 주인공과 갈등관계에 놓인 존재로 인해 형성되는 외면의 대립구조,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형성하는 내면의 대립구조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중 핵심이 되는 것으로써 콤플렉스의 구조를 드러내도록 한다. 핵심적인 대립구조를 통해 콤플렉스의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는, 2.3장에서 콤플렉스의 개념을 통해 추출한 분석틀이 사용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밝혀진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 구조가 주인공의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 치유와 극복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지를 고찰한다. 서사의 진행에 따른 콤플렉스 구조의 변화를 탐지하는 것에는 순차구조의 분석이 주요할 것이다. 이렇게 심리학 적인 분석의 기준과 구조분석의 방법론을 결합함으로써 주인공의 콤플렉스 구조와 그 변화 과정을 정밀하게 드러내고, 신화의 서사가 함의하고 있는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과정을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설정될 것이다.

3장의 분석 대상으로 삼을 자료는, 주요한 현실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하여 그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신화 자료로 선정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2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콤플렉스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현대인의 콤플렉스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기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상 집단에서 문제시 되는 세 유형의 콤플렉스 문제가 도출되었다. 수집된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둘째로는 ‘관계적 결함의 문제’, 셋째로는

‘사회적 관념의 문제’로 정리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각 소장을 구성하고, 각각의 유형에 전형이 되는 세 가지 신화자료, <숙영랑·앵연랑신화>,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신화의 주인공이 형상화하고 있는 현실적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의 방안을 도출하고,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문제 연구의 전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의 분석이 각각의 콤플렉스 유형에 대응하는 개별 신화 서사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4장을 통해 논의될 것은 3장의 분석 결과에 토대한 신화 서사 일반에 대한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 설정된 세 유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화를 통한 콤플렉스의 해결이라는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국 신화의 일반 원리와 그것을 담보하는 서사체계를 도출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한국 신화의 원리 그 자체로서 이해 가능하도록 일반론적 연구 방법론과, 그 콤플렉스의 구조가 정밀하게 분석되도록 할 개별 신화 서사에 대한 세부적인 서사 분석의 방법론이 완성되게 된다. 이로써 한국 신화의 서사를 통해 현실적인 콤플렉스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현실의 콤플렉스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논의를 일단락 짓게 된다. 5장을 통해 진행될 현실 적합성의 검증과정은, 본 연구의 설정을 위해 조사된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200여 명의 콤플렉스 사례에의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된다. 본고의 연구 방법론 설정은 3장에서 개별사례에 대한 콤플렉스 구조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4장의 일반론으로 이어지는 귀납적 방식으로써 ‘개별 신화 서사의 분석 방법론 설정 → 신화 서사 일반에 대한 방법론 설정’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실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신화 서사의 적용 문제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세부적 단계로 깊이 파고드는 연역적 방식을 사용함이 옳다고 보인다. 4장에서 도출된 한국 신화의 원리와 서사체계에 맞추어 그 세부적인 국면을 3장의 논의 틀로 확인해보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에 5장의 논의는 신화 서사 일반의 원리와 개별 서사의 세세한 국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북이·남생이의 서사, 할락궁이의 서사, 자청비의 서사를, 그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현실의 사례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된다. 그러한 논의는 현실 적용 가능성의 확인이 목적인만큼, 3장 내용과의 지나친 중복을 피하여 간소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검증에 이르기까지 기대한 대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본 연구의 결과가 현실적인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실효적 치유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2.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의 새 길

2.1. 콤플렉스에 대한 서사적 접근과 신화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연구에 앞서, 먼저 ‘콤플렉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범주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기존의 정신분석학 분야 연구를 통해 정립된 콤플렉스 개념은 그 형성원리와, 심리적 문제로서의 범주 및 층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콤플렉스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심리학 논의를 통하여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이트(S. Freud)의 경우에는 콤플렉스의 형성을 유아기 성욕의 억압 문제로서, 인간 보편의 자아형성 원리로 본다. 이 경우 초기의 억압문제가 적절하게 극복되지 않았을 때 지속적인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리로 이해한다.³²⁾ 융(C. G. Jung)의 경우에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에 개인의 무수한 정감적 경험이 결합된 형태으로써, 개인 무의식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용 그 자체가 콤플렉스인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무의식의 영역에서 부정적 경험의 기억들이 계열화되었을 때, 유사한 상황을 통해 그러한 기억을 자극받음으로써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부정적 정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문제적이라 본다.³³⁾ 아들러(A. Adler)의 경우에는 ‘열등감’이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고 인식과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 작용한다는 열등 콤플렉스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누구에게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부분이 있으며, 그 열등성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이 인간의 성격형성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는 열등감에 고착되어 과도하게 위축되는 상황,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과대보상의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 병적인 우월감이나 지배욕, 폭력적 성향을 띠게 되는 상황을 문제적으로 본다.³⁴⁾

32)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자아와 이드」,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3, 371~407면.

33)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1-정신요법의 기본 문제, 숲, 2001, 227~242면.

이후로도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콤플렉스 개념들이 명명되고 발표되었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위의 세 콤플렉스 이론을 각 사례에 맞추어 변주하는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각 콤플렉스 개념의 층위도 모두 제각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S. Freud)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가 인간 보편의 발달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에 반해, 쇼아지(M. Choisy)의 파에톤 콤플렉스(phaeton complex)³⁵⁾는 어린 시절의 애정결핍에 의한 특수한 경우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자가 각각 하나의 콤플렉스 개념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문제의 층위는 전혀 다른 것이다.

콤플렉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고찰한 바,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콤플렉스의 개념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치되지 않는 기존 원리와 개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참조하여 나름대로의 범주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에는 콤플렉스의 특성 그 자체에 주목한 범주의 설정이 실효적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을 통하여 그에 대해 정의해 보자면, 콤플렉스란 ‘무의식적으로 얽혀 고착된 부정적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콤플렉스는 의식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실제 인간은 콤플렉스를 자극 받으면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 그에 융(C. G. Jung)은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개인 무의식의 내용 그 자체를 콤플렉스라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콤플렉스의 범주를 한정한다.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는 ‘아픈 곳을 건드렸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그 ‘아픈 곳’이란 욕망의 억압과 관련될 수도 있고, 과거의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으며, 열등감일 수도 있다. 이처럼 ‘아픈 곳’을 자극받았을 때, 무의식적인 정동이 일어난다는 점이 콤플렉스가 무의식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방

34) Alfred Adler, 라영균 역, 『인간 이해』, 일빛, 2009, 73~75면.

35) M. Choisy, Le complexe de Phaéton, *Psyché*, 5, 1950, pp.715-731; 박금주, 『마음에 박힌 못 하나』, 쌤앤파커스, 2014, 192면에서 재인용.

36) ‘콤플렉스(complex)’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com’과 ‘plectere’의 합성어로서 ‘짜여진 것’, 또는 ‘얽혀 복잡한 것’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것처럼 무의식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콤플렉스의 성격을 말해준다. 박아청, 『인간이해를 위한 개념들』, 『사회과학논총』 제18권 1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49면.

증한다. 따라서 콤플렉스 주체는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콤플렉스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콤플렉스 반응 경험의 축적에 의한 피상적 인식일 뿐이다. 콤플렉스의 무의식적인 특성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의식 차원에서 뚜렷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³⁷⁾

콤플렉스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에 의식적인 통제가 어렵다. 의식적인 통제가 어렵기에,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같은 자극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슬픔을 느끼거나, 분노하거나, 위축되거나, 회피하는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러한 콤플렉스 반응들은 당사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영위나 인간관계의 운영에 있어서 필연적인 불편과 고통을 초래한다. 그러한 불편과 고통을 경험한 이들은 그와 같은 반응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다짐하지만, 이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콤플렉스의 고착성을 보여준다. 콤플렉스는 유사한 자극에 유사한 반응으로, 언제나 같은 작용을 일으키도록 심리 주체를 고착시킨다. 그러므로 콤플렉스가 근본적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⁸⁾ 이처럼 콤플렉스가 무의식성과 고착성을 띠는 것,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유사한 불편과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인간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정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³⁹⁾

인간은 누구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 경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정적 경험에 의한 불쾌감이나 정서적 충격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정한 인식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부정적 경험을 초래한 자신의 어떠한 부분이 그 원인으로서는 구조의 핵을 이룬다. 예

37) 슈츠(D. Shultz)는 콤플렉스를 의식으로부터 분열되어 마음의 어두운 영역에서 독특한 존재를 영위하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psychic energy)로서, 이로써 언제든지 의식에 의한 작업을 저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 보았다(D. Schultz, *Intimate friends, dangerous rivals: The turbulent relationship between Freud and Jung*. Los Angeles: Jeremy Tarcher, 1990, p.148). 또한 의식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이 힘은 막강한 파괴력을 보인다(C. A. Meier, *Die Empirie des Unbewussten*, Zuerich: Rascher Verlag, 1968, pp.89-90).

38) 정승아, 『콤플렉스는 나의 힘』, 좋은책만들기, 2012, 129면.

39) 앞의 책, 129~133면 참조.

를 들어 욕망의 억압에 의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면 그러한 억압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욕망, 혹은 반대로 자신의 욕망이 실현될 수 없게끔 하는 사회적 관념이나 관계 대상의 존재가 부정적 경험의 원인으로 인식될 것이다. 또 열등감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러한 경험을 초래한 자신의 열등한 부분이나, 그러한 열등감을 경험하게 한 대상이 원인으로 인식될 것이다. 외상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는, 외상적 사건을 초래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반대로 외상적 사건 그 자체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자신의 주변 세계, 또 자신에게 외상적 경험을 안긴 가해자가 원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객관적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신 그 자체에 대한 인식만을 뜻하지 않는다.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속에 놓인 자신,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놓여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경험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든, 당시의 상황이나 세계, 관계대상에 있든 그 부정적 경험의 원인은 결국 현실적 자신의 면모일 수밖에 없다.

그처럼 부정적 경험의 원인자로서 구조의 핵으로 자리한 현실적 자신의 면모에 여러 부정적 경험의 심상이 결합됨으로써, 자신의 존재 혹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자기 인식이 유사 상황에 대한 심리적 반응 방식을 결정한다. 문제는 유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그러한 부정적 경험의 원인이 온전히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는 나에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무의식적 판단이, 부정적 경험에 대한 심리적 처리과정에서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 면모를 원인자로 자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 안에 그러한 부정적 면모가 실재하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인식 주체가 무의식적으로 그 부정적 면모를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인식은 자기 존재성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콤플렉스를 ‘열등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 의한 것이라 본다.⁴⁰⁾

40) 김충렬은 열등의식이나 열등감이 다른 감정보다 강한 강도를 지닌 점,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콤플렉스를 열등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충렬, 「한과 콤플렉스의

그러한 구조 핵에 유사한 부정적 경험의 심상들이 결합되면서, 부정적 경험에 의한 정서적 고통과 충격이 클수록, 유사한 경험이 되풀이될수록 자신의 현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커진다.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수록 심리적 반응의 강도 또한 커지고, 결국 의식적인 행위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작용된 부정적 자기 인식이 의식의 영역에 심리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심리적 주체를 그에 고착되도록 할 때에 콤플렉스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행위의 방향성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콤플렉스의 핵에 놓인 부정적 경험의 원인, 자신의 현실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이 의식차원에서 과도한 위축이나 슬픔의 감정, 회피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반대로 그에 대한 분노나 거부가 과도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콤플렉스는 그 영향이 커질수록 의식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생긴다. 콤플렉스를 지닌 이들이, 그들을 자극하고자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타인의 발언이나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들의 콤플렉스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더라도 콤플렉스와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자극이 주어지면, 그에 반응하여 위축되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성은 콤플렉스의 힘이 클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결국 콤플렉스는, 핵이 되는 부정적 원인자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강도를 키우는 부정적 경험의 심상, 자신이나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라는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착종(錯綜)된 심리적 얽힘이다. 그러한 콤플렉스는 무의식에 자리 잡고 구조적으로 작용한다. 그럼으로써 의식적으로 인식될 수도 통제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사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콤플렉스 반응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콤플렉스란, 이처럼 인간 누구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스키마(schema)로서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정적 자기 인식을 뜻한다.

병리적 비교와 상대적 대안, 『신학과실천』 28호, 한국실천학회, 2011, 477면). 이는 열등감으로 대치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콤플렉스 개념에 대하여, 양자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엄연히 구분되어야 함을 논하는 맥락으로 언급된 것이다. 그러한 견해를 인정하지만, 필자는 콤플렉스가 열등감과 유사한 양상을 띠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위와 같다고 본다.

그러한 콤플렉스가 정신적인 병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콤플렉스는 분명하게 그 주체의 행위방식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 실제로 콤플렉스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삶의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신적 성장이 그러한 콤플렉스의 문제를 해소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평생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콤플렉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대체 왜 저럴까’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고약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주변과의 끝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나,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며 고난을 자초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해결의 순간까지 겪어야 할 고통과 불편을 당연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를 통하여 자신의 콤플렉스를 직시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음으로써, 스스로는 인식하기도 어려운 자신의 콤플렉스를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해나갈 기회를 제공한다면, 콤플렉스로 고통 받는 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 어쩌면 평생이 될지도 모를 그 시간을 건강한 삶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희망으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가장 포괄적일 수 있는 범주의 콤플렉스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처럼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콤플렉스를 드러내기 위해 적합한 것이 ‘서사(narrative)’적 이해이다. 바르트는(R. Barthes) 모든 시간과 장소, 사회에 서사가 존재하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모든 계층과 인류 집단이 상호간의 소통을 이루었음을 지적한다.⁴¹⁾ 이처럼 서사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상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서사는 시간적으로 유의미한 에피소드들로 인간의 경험을 조직하는 인지적 과정의 결과물이기에,⁴³⁾ 서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은, 전체적인 인지 과정과 그에 결부된 사유

41) Roland Barthes,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narrative", *Image, Music, Text*, trans. Stephen Heath, New York: Hill & Wang, 1977, pp.79~80.
 42) 이정은, 「내러티브 분석의 이론 동향」, 『내러티브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박이정, 2014, 15면.
 43) Donald E. Polkinghorne, 강현석 외 역,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2009, 19면.

를 고스란히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의 인지적 역할과 소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우에는, ‘서사적 맥락 위에서만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⁴⁴⁾ 그렇다면 신화에 투영된 콤플렉스의 구조를 살피는 일도 서사적 이해를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장구한 시간동안 수없이 많은 전승자들에 의해 인간의 제문제에 대한 사유가 이루어지고 조직화된 것이 신화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연적 인간 정신의 문제인 콤플렉스에 대한 사유, 인간의 내면에서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한 원형적 인식 또한 신화 속에 서사적으로 조직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화의 서사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으로 주인공의 콤플렉스가 어떠한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콤플렉스의 구조가 드러난 상태에서, 그것이 서사의 국면을 따라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치유와 극복의 단계에 도달하였는지를 구명해 낼 수 있다면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을 위한 방법을 서사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콤플렉스에 대한 서사적 이해는, 신화의 체험자가 자신의 콤플렉스를 서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불명확한 여러 현상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여 인지할 때에 그 실체를 보다 뚜렷이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이 유사한 상황의 경험을 통해 망각된 기억을 자극받고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서사적으로 인지된 신화의 콤플렉스적 형상을 통하여, 신화의 체험자 또한 자신의 내면에서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콤플렉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화가 보여주는 서사적 국면에 따라 콤플렉스의 치유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신화체험자는 신화의 서사에 비추어 현재의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치유의 단계를 인식하고, 앞으로의 치유 방향에 대하여 서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고의 대상이 될 콤플렉스의 개념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서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하는 일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

44)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 치료, 2007, 303면. 이 경우의 ‘서사’는 앞뒤의 맥락이 모두 갖추어진 완결된 형태가 강조되는 맥락에서 ‘epic’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그러한 의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narrative’로 이해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면 남은 문제는, ‘과연 신화가 인간의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신화나 상징이 무엇에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전해진 상징이나 신화의 의례는, 인류의 역사적 상황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한계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답한다.⁴⁵⁾ 여기서 말하는 한계상황이란 거대한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의식이며, 이러한 한계상황의 발견과 인식이 신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화적 사유의 가장 근저에서 신화가 만들어지는 원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거대한 우주에 압도된 연약한 인간존재로서의 부정적 자기 인식, 즉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생성에 작용하는 힘이 인간의 콤플렉스라고 한다면, 콤플렉스에 대한 인간의 원형적 인식이 신화의 형상에 녹아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신화를 통하여 인간의 콤플렉스를 구명할 수 있다고 하는 본 연구의 전제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구체적인 신화의 사례를 통하여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가 신화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은 이들이 떠올리게 되는 장면은 하얀 대리석 기둥으로 이루어진 고대 그리스 신전의 모습과 그러한 시공간 속에 역동하는 여러 신과 인간의 형상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그리스·로마 신화의 사례를 통하여, 신화에 투영된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그리스·로마의 신화 자료인 헤시오도스(Hesiodos)의 『신통기(Theogonia)』⁴⁶⁾를 살펴보면, 세계의 시작과 신들의 탄생을 이야기함으로써

45)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40면.

46) 본고에서 참고한 『신통기』의 역본은 김원익에 의해 옮겨진 『신통기-그리스 신들의 계보』(민음사, 2003)이다. 역자가 대본으로 삼은 것은 독일 레클람(Reclam)사에서 출간된 그리스어와 독어 대역판 Hesiod, *Theogonie, Werke und tage*, Übersetz und hrsg. von Otto Schönberger, Stuttgart, 1999와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그리스어와 영어 대역으로 출간된 헤시오도스 전집 Hesiod, *Homeric Hymns. Epic Cycle Homeric*, trans by Hugh G. Evelyn-Whi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이다. 해당 자료는 그리스어 원문을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그 충실한

써 전체적인 신화 체계의 바탕을 구성하는 창세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창세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고대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화를 형성하고 노래하도록 만든 초기 인류 집단의 콤플렉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통기』에 제시된 창세의 첫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넓은 젓가슴을 지닌 가이아가 있었는데, 그 가이아는 눈 덮인 올림포스 산과 넓은 길이 많이 나 있는 대지의 가장 깊은 곳, 칠흙같이 어두운 타르타로스에 거하고 있는 영생불멸하는 모든 신들의 든든한 처소였다. 그 다음에 에로스가 생겼는데, 이 에로스는 영생불멸하는 모든 신들 중 가장 아름다운 신이었으며,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머릿속의 이성과 냉철한 사고를 압도하며 다리의 힘을 마비시키는 신이었다. 카오스에서 에레보스(암흑)와 어두운 밤의 신 닉스가 나왔으며, 닉스에서 다시 아이테르(대기)와 헤메라(낮)가 나왔는데, 이들은 에레보스와 사랑으로 수태된 닉스가 낳은 자식들이었다.

처음에 가이아는 자신을 꼭 덮어주어 성스러운 신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크기로 우라노스(하늘)를 만들어냈다. 계속해서 가이아는 계곡이 많은 산지에 살고 있는 요정들의 사랑스러운 처소인 오레(산)를 낳았다. 또한 그후 그녀는 출산에 필요한 사랑을 나누지 않고 물이 부풀어오르며 폭풍우가 이는 황량한 폰토스(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를 낳았다.⁴⁷⁾

위의 내용을 보면 태초의 혼돈(混沌)인 카오스(chaos)로부터 대지인 가이아(Gaia)가 탄생하며 세계가 시작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세계의 시작태인 ‘혼돈’이란 말 그대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인식이 만들어낸 형상일 것이다. 태초의 인류에게 있어 그들의 터전이면서도 실제적인 위협의 대상이었던 세계는 거대한 미지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낮과 밤의 교차, 기후의 변화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인간의 존재 조건을 변화시키는 세계가 종잡을 수 없는 혼돈 그 자체로 인간에게 인식되고 형상화 된 것이다. 이에 인류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혼돈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식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자신들을 옥죄는 미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을 것이다.

독어, 영어 대역판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본을 번역한 것으로서 『신통기』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47) 앞의 책, 29~30면.

그에 따라 인간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그들이 딛고 서있는 ‘대지’의 존재를 최초의 신격으로 설정하고 숭배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신화는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인류의 콤플렉스를 반영하고 있다. 압도적인 세계에 직면한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인류 정신의 억압기제로 작용하던 미지와 공포의 대상을 이해와 숭배의 대상으로 대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정감을 얻기 위한 정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신들이 자연 그대로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류를 움짱달짝 못하게 엮매었던 어둠의 존재가 에레보스(Erebus)와 닉스(Nix)의 신격을 갖게 되고, 그들로부터 인간의 생존 조건인 대기와 낮, 아이테르(Aether)와 헤메라(Hemera)가 탄생한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둠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 조건을 탄생시킨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별도의 형상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형상이 신격으로 좌정했다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초기 인류의 정신 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들의 정신적 억압기체인 자연 그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공포를 벗어나려 했던 인류의 정신이, 점점 그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러한 욕망은 두 차례에 걸친 신들의 자리바꿈에 의해 1세대의 자연 신들이 그 자리를 내어주고, 2세대를 거쳐 3세대의 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의 설정을 통해 드러난다. 첫 번째 신위의 교체와 2세대 신들의 등장에 대하여 헤시오도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가이아와 우라노스로부터 나온 모든 자식들은 하나같이 끔찍하고 거대한 모습이었으며 처음부터 아버지를 소름끼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을 모두 대지의 자궁 속에 가두어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만행을 즐겼다. 그러나 거대한 대지는 오장육부가 뒤틀린 듯 신음을 토하게 되었으며, 결국 사악하고 교활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회색빛 철의 원료로 큰 낫을 만들어 그것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가슴에 원한이 사무쳤기 때문이다.

“너희들, 극악무도한 아버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너희 아버의 범죄에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부끄러운 짓을 할 생각을 품은 자는 너희 아버이기 때문이

다.”

가이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두들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던 덩치 큰 크로노스가 용기를 내서 곧바로 고결한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저는 이름값조차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끄러운 짓을 할 생각을 품으신 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윽고 하늘 우라노스가 밤을 대동하고 와서 욕정에 불타 대지를 감싸며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뒤덮었다. 그러자 아들 크로노스가 은신처에서 튀어나와 왼손으로는 아버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크고 길며, 날카로운 톱니가 달린 낫을 잡고 아버지의 남근을 재빨리 잘라 뒤로 던져 날려버렸다.⁴⁸⁾

인류의 숭배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자연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때때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언제나 인간의 소망에 반하는 것이었고, 이에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숭배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한 인간에게 최초로 발견된 가능성은 ‘시간’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이 영원할 수 없고, 태양이 그 자리를 달에게 내어주듯, 위대한 자연도 시간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인간은 첫 숭배의 대상이었던 자연 신들을 ‘시간’을 상징하는 크로노스(Cronus)의 반역을 통해 폐위하기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2세대 신들에 이르러 그들이 자연 그대로가 아닌 별도의 형상을 갖게 된다는 점이며, 그들의 형상이 거대화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⁴⁹⁾ 이는 제어되지 않는 자연에 지친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찾아내기에 골몰하는 단계에서, 그들 자신의 형상을 통한 자연의 정복을 꿈꾸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류의 무의식적 욕망은 3세대 신의 좌정에 이르러 1차적인 완성을 보게 된다.

레이는 크로노스의 완력에 못 이겨 훌륭한 자식들, 즉 헤스티아, 데메테르, 그리고 황금 신발을 신고 있는 헤라, 동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지하세계의 강력한 하데스, 거대한

48) 앞의 책, 32~34면.

49) 2세대 신들인 티탄(Titan) 신들은 거인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소리로 지축을 흔들며 대지를 뒤흔드는 자인 포세이돈 그리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가 천둥소리로 광활한 대지를 벌벌 떨게 하는 영리한 제우스 등을 낳았다.

거대한 크로노스는 이 모든 자식들이 성스러운 자궁에서 어머니의 무릎으로 나오자마자 하나씩 먹어치웠다.(중략)

거대하고 사악한 크로노스는 가이아의 영리한 제안에 속고 이 아들의 피와 힘에 눌러 다른 자식들을 토해 내서 되살렸다. 크로노스는 맨 먼저 자신이 마지막에 삼켰던 돌을 토해냈다. 제우스는 그 돌을 파르나소스 산 기슭에 있는 성스러운 휘토의 넓은 길이 있는 대지 위에 세워 놓았다. 그것은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대한 하나의 징표였으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인간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표시였다.⁵⁰⁾

크로노스에 의해 탄생한 3세대 신들이 아버지인 크로노스에 의해 먹혀 사라지게 되는 것은 모든 존재를 필멸로 이끄는 시간의 불가역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크로노스에 대항하여 신들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제우스(Zeus)의 존재는 시간의 속박을 벗어던진 불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티탄신족을 밀어내고 신위를 차지한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의 형상은 인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연의 거대한 힘을 무너뜨리는 시간의 힘,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형 신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존재성으로써 거대한 자연의 속박을 깨뜨리고 시간의 굴레마저도 벗어던지고자 하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2세대 티탄 신의 계보에서 ‘천둥·번개·벼락’을 상징하던 퀴클롭스(Cyclops)⁵¹⁾가 제우스의 권위 안에 복속되는 것도 자연 그 자체의 숭배에서 벗어나 그 주관자를 숭배하는 것으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주관자인 신이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엿볼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제우스의 형제나 자녀들로 설정된 3세대와 4세대 신들이 인문적인 활동이나 인

50) 앞의 책, 57~60면.

51) 퀴클롭스(Cyclops)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자녀로서, 브론테스(Brontes: 천둥), 스테로테스(Steropes: 번개), 아르게스(Arges: 벼락) 삼형제를 지칭하는 복수형의 별명이다. ‘퀴클롭스’의 뜻은 ‘둥근 눈’으로, 그들에게 존재했던 한 개의 둥근 눈을 지칭하는 것이다. 천둥을 의미하는 존재들이 하나의 눈을 지녔다는 것은 자연의 맹목적인 폭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 형제는 훗날 제우스에게 투신하여 그의 천둥을 버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우스는 또한 아버지의 형제들인 하늘의 자식들을 우라노스가 마음의 눈이 멀어 묶어두었던 무시무시한 사슬에서 풀어주었다. 그들은 제우스의 은혜에 고마워한 나머지 거대한 가이아가 전에 숨겨두었던 천둥과 연기 나는 번개와 눈부신 벼락을 제우스에게 주었다. 제우스는 그것으로 인간과 영원한 신들을 다스린다.” 앞의 책, 60면.

간적인 덕목을 상징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화로와 화덕의 신인 헤스티아(Hestia), 농경의 신 데메테르(Demeter), 직조의 신 아테나(Athena),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Hepaistos) 등의 경우가 인간의 인문적인 활동을 상징하는 경우이며, 지혜의 신인 아폴론(Apollon)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덕목을 상징하고 있는데⁵²⁾, 이는 인간의 문명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힘을 통해 세계를 정복해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로마 신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세계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 욕망간의 갈등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시간마저 거스르는 완전한 존재, 3세대 신격의 형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인간적인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프로이트 식으로 얘기하면 세계라는 초자아(super ego)와 인간의 욕망(id)이 갈등하여 자아(ego)를 형성하게 되는 메커니즘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공포의 세계에 직면한 연약한 인간의 부정적 자기인식, 콤플렉스에 의한 것이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신화의 변주도 부정적 자기인식에 대한 인간의 거부나 분노가, 인간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자연-인간’의 관계 전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신화를 형성하는 원심으로 작용하는 것도 인간의 콤플렉스이며, 그것을 변주하며 신화의 체계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것도 인간의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화의 형성에 인간의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콤플렉스적 형상을 통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단편적인 예로써, 신화 속에서 완전한 존재로 그려져야 할 신들의 형상마저도 지극히 인간적인 콤플렉스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크로노스와 제우스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욕망하는 인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욕망을 잘

52) 호메로스, 천병희 역, 『일리아스』, 숲, 2007, 725~736면 참조.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자식에게 위협을 느끼고 제거하고자 하는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형상에서는 거세 콤플렉스적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신들의 형상에서마저도 인간 정신을 형성하는 욕망과 억압의 양상이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우스의 모습을 살펴보면, 존재 소멸의 공포에 대한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메티스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나 이 메티스가 눈이 빛나는 여신 아테나를 임신했을 때에, 제우스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충고대로 교활하게 달콤한 말로 메티스를 속여 자신의 몸속에 가두었다.....(중략) 제우스는 두 번째 아내로 몸에서 광채가 나는 테미스를 맞이했는데.....(중략) 오케아노스의 딸로 외모가 아주 사랑스러운 에우튀노메는 제우스에게서 뺨이 예쁜 세명의 우미의 여신인 아글라이아, 에우프로쉬네, 사랑스러운 탈리아를 낳았다.....(중략)그 다음에 제우스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메테르의 침실로 갔다.....(중략)그 후 제우스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지닌 므네모쉬네를 사랑하였는데.....(중략) 레토는 아이기스 방패를 지닌 제우스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이폴론과 활을 쏘기를 좋아하는 아르테미스를 낳았는데.....(중략)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헤라를 화려한 신부로 선택했는데.....(중략)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는 제우스와 성스러운 침대를 같이 쓰고...(중략)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는 제우스와 사랑하여.....(중략)알크메네는 구름을 모으는 자인 제우스와 사랑하여 힘센 헤라클레스를 낳았다.⁵³⁾

위의 인용은 여신들과 인간 여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술한 여성을 취하여 아이를 낳는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든 존재를 소멸하게 하는 ‘시간’의 상징 크로노스에 대항하여 불멸의 상징이 된 제우스는, 자신의 불멸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끝없이 성애(性愛)에 집착하고 있다. 자신의 존재성을 이어받은 후손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어 존재성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그에 인간은 필멸자로서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인해 후손을 얻기 위한 성애에 집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대목을 통해서, 필멸의 존재로서 후손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지속시키려 하는 인간의 콤플렉스가, 성애에 집착하는 제우스의 형상을

53) 헤시오도스, 김원익 역, 앞의 책, 84~90면.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미(美)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의 형상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에 관한 인간의 콤플렉스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세계에서 아프로디테는 미(美), 성애(性愛), 다산(多産)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존재이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Theogony)』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하여 바다에 던진 생식기가 거품(aphros)으로 화(化)하여 그 거품 속에서 탄생한 존재로 그려진다.

크로노스가 낮으로 잘라서 육지로부터 큰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로 던져버린 남근은 오랫동안 큰 파도에 표류하였는데, 그 영생불멸하는 고깃덩이 주변에서 점차 하얀 거품이 일더니, 그 안에서 소녀 하나가 생겨났다. 처음에 소녀는 신성한 퀴테라 쪽으로 표류하던니, 나중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퀴프로스 섬으로 갔다. 고귀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신이 물에 오르자, 그녀의 가냘픈 발 주변에서는 신선한 풀이 돌아났다. 신들과 인간들은 그녀를 아프로디테, 즉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 혹은 아름다운 왕관을 쓴 퀴테레이아라고 불렀다. 아프로디테라고 한 것은 그녀가 거품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며, 퀴테레이아라고 한 것은 그녀가 퀴테라로 갔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그녀를 퀴프로스에서 태어난 여신, 혹은 남근을 좋아하는 여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녀가 파도가 높게 이끄는 퀴프로스 섬에서 물으로 올랐기 때문이며, 또한 남근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신들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러자 에로스가 그녀를 수행하고 아름다운 히메로스는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다. 처음부터 그녀는 이런 명예를 갖고서 인간들의 불멸과 신들 사이에서 여자들의 흥취물 없는 한담과 미소와 유혹, 달콤한 욕망, 포옹과 애무 등의 영역을 담당하였다.⁵⁴⁾

‘하늘’을 상징하는 우라노스의 생식기가 생명력의 상징인 바다에 떨어져 그 마찰을 통하여 인 거품이 아프로디테를 낳는다. 그 탄생의 과정부터가 우주적인 성애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생식기와 바다의 마찰로 생긴 하얀 거품은, 성애의 과정을 통해 분출되는 정액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의 존재는 성애를 통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상징하는 ‘미(美)’는 성애의 대상으로 하여금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으로서의 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인간들의 불멸’을 담당하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성애를 통하여

54) 앞의 책, 35~37면.

생산된 후손의 존재를 통하여 영속성을 확인받는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그녀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필멸자로서의 부정적 자기 인식을 지닌 인간은, 그러한 콤플렉스로 인해 자신의 존재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성애의 욕망을 불리일으키는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다시 아프로디테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칭송받는 프쉬케의 존재는, 미의 화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닌 권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에 프쉬케에게 ‘가장 추악한 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라’는 저주⁵⁵⁾를 내리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에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집착을 볼 수 있다. 또 스스로 미의 여신이면서도 명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 아름다움을 얻어 몸에 바르려는 모습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죽음 충동에 맞닿은 집착을 보여주기도 한다.⁵⁶⁾

또 아프로디테의 반려가 ‘추(醜)’의 대명사인 헤파이스토스라는 점과, 그를 끄찍하게 여겨 늘 피하고자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추함에 대한 공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프로디테의 반려가 헤파이스토스로 설정된 것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늘 추함에 대한 공포와 짝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도 ‘완전성’을 뜻하는 신화 속 신의 형상이 오히려 완전한 콤플렉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압도적인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의 콤플렉스로 인해 형성된 신화가, 그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도 인간 삶의 정신적 문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콤플렉스의 양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찍이 프로이트(S. Freud)는 그리스·로마의 신화 속 오이디푸스(Oedipus)의 형상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

55) 아프로디테는 그러한 저주를 실행토록 하기 위해 에로스를 내려 보내지만, 프쉬케의 아름다움에 반한 에로스로 인해 그 저주를 실현시키지는 못한다.

56) 아프로디테의 명령으로 명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찾아가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받아오던 프쉬케는,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몸에 조금 바르려는 생각으로 상자를 열었다가 상자 속에서 나온 죽음과도 같은 잠에 잠식당한다. 이러한 서사에서, 죽음의 충동에 상응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다.

s complex)를 개념화함으로써 정신분석학 연구의 발전을 주도한 바 있다.⁵⁷⁾ 그리고 그러한 선례를 좇아 이후의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심리학 분야에서는 신화의 형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주인공의 이름으로 수많은 콤플렉스들을 명명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선례는 신화의 서사를 통한 인간의 콤플렉스 연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혹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심리학 연구의 선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분명하다. 고도의 추상성을 띤 인간의 콤플렉스를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신화 속 주인공의 이름으로 명명함으로써, 콤플렉스라는 불가사의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실체화하였다는 점이다. 대상이 분명치 않은 연구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콤플렉스가 이름 그대로의 복잡 난해한 추상적 대상으로 남아있다면, 그 치유와 극복을 위한 연구는 요원한 일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추상적 대상인 콤플렉스를 구체적 형상으로 응결시킨 심리학 연구의 성과는 선구자적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그러한 심리학 연구의 선례는 인간이 지닌 다양한 콤플렉스의 양상들이 신화 속에 뚜렷한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신화가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원형적 문제의식을 함유한다는 본고의 전제에 긍정적인 답이 된다.

그러나 심리학적 콤플렉스 연구들이 지닌 한계도 분명하다. 프로이트 이후로부터 심리학에서 콤플렉스의 원형으로 다루어진 신화의 서사들은 대개가 실패와 좌절의 서사이다. 따라서 그와 관련한 콤플렉스의 연구도 주로 그 양상을 드러내고 그러한 콤플렉스를 통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진단해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경우에도, 어머니와 결연한 오이디푸스의 서사는 어머니(혹은 아버지)와의 결합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설명하고, 눈이 먼 채로 떠돌게 되었다는 서사의 결말은 제어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위험성을 보여줄 뿐이다. 오이디푸스의 서사에도, 그와 관련한 연구에도

57) Sigmund Freud, 김인순 역,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311~321면.

그 극복과 치유에 대한 실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심리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를 논하는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개별적인 내담자들의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통해 내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의 형상을 찾아 그러한 콤플렉스를 명명한다. 따라서 신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내담자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형상 그 자체일 뿐이며, 그 치유와 극복은 적절한 상담과 약물 처치 등 신화의 서사가 아닌 현실 차원의 문제로 넘겨진다. 그러므로 심리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한계란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굳이 그러한 한계를 지적하는 이유는, 인간의 콤플렉스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그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해 내는 신화 주인공들의 서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패와 좌절의 서사가 아닌 성공과 극복의 신화 서사를 통해 콤플렉스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2.2. 한국 무속신화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의 가능성

신화를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본다. 상담심리학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콤플렉스의 실체를 내담자가 인지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콤플렉스는 의식의 아래에 침잠해있는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며, 그것이 무의식의 영역에 속해 있기에 콤플렉스 반응을 촉발하는 자극이 있을 때에, 의식 차원에서는 제어하기 어려운 강렬한 정감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⁵⁸⁾ 따라서 그 실체를 인지한다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불가지의 영역에 존재하던 콤플렉스를 의식의 내용으로 동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의 영역으로 동화된

58) C. G. Jung, 앞의 책, 2001, 229~232면.

콤플렉스는 당사자가 그것을 자극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의식적인 제어의 노력으로 문제적 반응을 억누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신화의 형상은 인간이 지닌 콤플렉스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콤플렉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표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신화를 통한 콤플렉스의 연구는 신화의 형상을 통해 인간의 콤플렉스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 의의를 다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콤플렉스의 명명에 신화 속 주인공의 형상을 사용했던 프로이트의 연구나, 그 이후로 이어진 상담심리학 상의 콤플렉스 연구를 넘어서는 지점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상담심리학자들이 새로운 콤플렉스를 발견하여 명명할 수 있는 신화적 비유들을 찾아내어 제공하는 시종의 역할을 자처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행한 것은 단순히 콤플렉스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치유와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신화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현설은 동아시아의 남매혼 신화를 통하여, 근친상간 금지의 문제로서 인간의 윤리적 억압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문제를 자연의 이법으로써 우회하고 넘어서는 신화적 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⁵⁹⁾ 비록 남매의 결연 과정과 결연 후의 이물(異物) 출산을 통하여, 강박적 금기의 문제가 끈질기게 결부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남매의 결합이 인류의 시조라는 복락(福樂)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생존과 번영이라는 인간 삶의 문제)이라는 전제하에 오이디푸스적 금기의 위반을 일면 긍정하고 있는 전복적 사고가 신화의 서사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⁶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형성과 근친상간 금기의 내면화에 의한 해소의 과정은 사회적·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발달에 근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이처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콤플렉스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59)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1) -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 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제 1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201~221면.

60) 앞의 논문, 201~207면.

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과도한 욕망의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경우에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남매혼 신화에 대한 이해는, 과도하게 자신의 욕망을 억누름으로써 고통 받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한계적 존재성에 의해 고통 받는 인간이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신화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신의 반려가 되어 신성을 획득하게 되었던 수메르 신화의 두무지(Dumuzi)⁶¹⁾, 제우스의 아들이자 헤라의 시험을 이겨내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신의 반열에 오른 헤라클레스(Hercules), 에로스와의 사랑을 지켜냄으로써 죽음을 이겨내고 신의 반열에 오른 프쉬케(Psyche)의 이야기, 고행을 통하여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붓다(Buddha)로 좌정한 석가모니(Sakyamuni)의 경우처럼, 인간의 한계상황 인식을 통해 만들어져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신화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깨뜨린 존재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한계 극복의 신화 서사를 통하여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신화이다. 한국의 신화, 그 중에서도 무속신화로 지칭되는 일군의 신화에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니게 되는 여러 가지 콤플렉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그러한 고난을 극복해낸 결과로써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많은 서사들이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 ‘오늘이’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닌 근원적 고통을 형상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오늘이는 자기 존재의 문제성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잃어버린 자신의 근원을 찾아 신성한 존재로의 존재적 변화를 이루게 된다.⁶²⁾ <바리데기>의 주인공 바리공주도 이름 그대로 부

61) 두무지의 경우에는 그 본래의 존재성이 인간인가 신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래에 인간이었다는 전제에서라면 그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깨뜨린 존재로서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62)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서 주인공 ‘오늘이’가 여행을 통해 신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고찰은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학』 제23집, 남도

모에게서 버려진 존재로서, 자기 존재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저승으로의 구약행(救藥行)을 통해 무조신(巫祖神)으로서의 존재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밖에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 <차사본풀이>의 강림도령 등,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으로서의 완전한 존재성을 얻게 되는 주인공들이 대다수의 한국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왕의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를 통해 이승과 저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사가 매듭지어지는데, 이들 또한 천상신인 아버지와 지상의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닌 인물이었다. 말하자면, 세계의 탄생을 노래하는 창세신화에서부터 한계적 존재인 인간이 완전성을 지닌 신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국 신화에서 말하는 ‘신성(神性)’이란 ‘완전한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⁶³⁾

신동훈은 이러한 한국 신화의 서사를 곧 인간의 삶에 대한 서사로 이해하면서, 그 성격을 ‘표상성, 직접성, 포용성, 원형성’의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⁶⁴⁾ 이를 콤플렉스 연구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러한 성격들이 곧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에 대한 연구대상으로서 한국 신화가 지닌 가치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첫째, ‘표상성’은 한국 신화가 보편적 인간 삶의 문제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문제들은 주인공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한국 신화의 주인공들은 절대적 신성의 존재로서 그려지지 않는다. 보통의 인간과 다를 것 없이, 오히려 보통의 경우보다 더 절박하게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려지는 것이 그들이다. 전형적인 인간의 형상으로서 그들이 직면하여 풀어나가는 삶의 문제들은, 평범한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 마주하게 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민속학회, 2011, 409~436면을 통하여 자세히 다룬바 있다.

63) 한국 신화에 나타나는 신성관념과 인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줄고,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에서 투박하게나마 논의한 바 있다.

64) 신동훈, 앞의 논문, 34~36면 참조.

겪게 되는 그것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으로써, 선명하게 한계적 인간 삶의 모습들을 그려내는 것이 그들의 서사이다.

이러한 표상성은 한국 신화, 그 주인공의 서사를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인간적인 고민에 번민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한계적 인간으로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신화의 표상성은, 곧 서사의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콤플렉스를 발견하게 하는 ‘콤플렉스의 표상’으로서 한국 신화가 지닌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접성’은 한국 신화가 인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서사임을 의미한다. 한국의 신화는 인간의 내밀한 욕망과 갈등, 추악한 본성 등 인간의 모순적 내면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그 서사를 접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한다. 원하는 각도로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이라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녹화되어 있는 ‘몰래카메라’처럼, 스스로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적나라한 내면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보통 스스로의 콤플렉스를 알고 있다는 듯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콤플렉스 반응 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피상적 인식에 그칠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콤플렉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⁶⁵⁾ 그러한 면에서 모든 모순적 내면의 문제를 감춤 없이 드러내는 한국 신화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던 자신의 적나라한 콤플렉스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신의 콤플렉스를 직시하게 된 충격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스스로의 콤플렉스를 인지하고 그것을 의식에 통합시키는 일은 그 자체로 치유의 단계로 들어서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인식적 과정이다. 한국 신화의 ‘직접성’은 이처럼 주요한 콤플렉스 치유과정이라 할 수 있는 콤플렉스 발견의 과정에 기여할, ‘콤플렉스 발견의 서사’로서의 자질을 말해주는 것이다.

65) 정승아, 『콤플렉스는 나의 힘』, 좋은책만들기, 2012, 130면.

셋째, ‘포용성’은 서사의 체험자들이 그 자신의 문제를 포용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전술한 바, 한국 신화가 ‘콤플렉스의 표상’, ‘콤플렉스 발견의 서사’로서 기능한다고 하였다. 이는 서사를 체험하는 이들이 자신의 부정적 면모를 그대로 인지하게 됨을 뜻한다. 그런데 스스로의 문제를 인지한 인간이 주로 취하는 의식적 태도란,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하거나 그러한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양극단의 모습이기 쉽다. 이러한 인식적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한국 신화의 포용성이다. 한국 신화가 그 서사를 체험하는 이들의 문제를 노출시킬 때에, 매체로 작용하는 것은 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신화의 주인공이란 곧 신성의 존재이다. 따라서 신화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를 발견하게 된 이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피해야 하는 치부로 여기지 않는다. 신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발견된 콤플렉스란, 신화의 주인공이 그러했듯 신성한 삶으로의 이행을 위해, 보다 완성된 존재로서의 삶을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부정적인 형상으로 제시된 주인공이라 해도, 신화 서사의 체험자들은 이미 그가 신성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보여주는 부정적 삶의 모습이 신성으로의 길 위에 놓여있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인식된 자신의 콤플렉스 문제도 주인공의 서사를 지표로 삼아 풀어낼 수 있는 삶의 한 과정으로 인식될 뿐이다. 콤플렉스를 풀어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지겠으나, 체험자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주인공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콤플렉스의 치유를 위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의 서사적 행보를 따라, 자신의 문제를 서사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한국 신화의 ‘포용성’이다. 따라서 한국 신화의 ‘포용성’은, 곧 ‘콤플렉스 극복을 위한 정신적인 힘’, 나아가 ‘콤플렉스 극복의 서사’로서의 자질이다.

넷째, ‘원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본다. 전술 하였던 신화의 원형을 체험함으로써 그 원형이 내면화 된 후에는, 원형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무의식적인 작용을 통하여 의식적인 인간의 성격과 행위의 변화를 추동한다.⁶⁶⁾ 이처럼 신화의 원형은 마치 콤플렉스와도 같이 인간의 의식에 작용한다. 따라서 풍부한 원형성

을 담보한 한국 신화를 통해 콤플렉스 문제가 극복되고 나면, 콤플렉스 대신 신화의 원형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형성’은, 극복된 콤플렉스 문제에 다시금 고착되지 않도록 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콤플렉스의 형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콤플렉스 방지의 서사’로서 한국 신화가 지닌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신화는 이처럼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감당 할 수 있는 자질들, ‘콤플렉스의 표상, 콤플렉스 발견의 서사, 콤플렉스 극복을 위한 정신적인 힘, 콤플렉스 극복의 서사, 콤플렉스 방지의 서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 이는 한국 신화의 서사를 통해 콤플렉스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물론 그 치유와 극복의 가능성까지를 탐색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한국 신화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인격 → 신격’으로의 존재 변화는, 신성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주인공의 서사를 통하여, 서사를 체험하는 이들이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화를 체험함으로써 콤플렉스적 존재인 우리들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해나가는 신화 주인공의 형상, 그에 투영된 우리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 치유와 극복을 위한 힘, ‘신성’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에 한국의 신화를 콤플렉스와 그 치유에 대한 서사로 이해하고, 그 서사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 신화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삶에서 콤플렉스를 치유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들을 면밀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콤플렉스의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 치유와 극복을 위한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3. 신화의 서사를 적용한 콤플렉스 분석의 방법

한국 신화의 서사가 콤플렉스의 양상을 드러내고 그 극복과 치유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였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66) 이유경, 앞의 책, 120~121면.

구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 신화를 콤플렉스의 서사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콤플렉스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무의식적으로 얽혀 작동된 부정적 자기인식이 콤플렉스이며, 그 작용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신화 주인공의 내면에서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콤플렉스에 대하여, 그 작용 구조를 가지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틀을 설정함으로써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조의 축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다시 콤플렉스의 형성 원리에 대한 정신분석학 연구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 이후로 콤플렉스의 형성 원리에 관한 진지한 고찰이 정신분석학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고, 수많은 내담자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구축된 콤플렉스 이론의 성과 또한 실효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화의 서사를 통한 서사적 콤플렉스 연구에 있어서도,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콤플렉스 구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선구자적 위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⁶⁷⁾

인간의 콤플렉스가 형성되는 원리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발견이 이루어졌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프로이트의 분석 작업에 의해서였다. 그는 콤플렉스의 형성이 유아기성욕의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의 경우,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욕망(본능: id)은 아버지(초자아: super ego)라는 장애로 인해 억압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발생하게 된다(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욕망의 대상과 억압의 대상이 반대로 나타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의식(자아: ego)은 억압의 대상인 아버지와 자신의 동일시를 강화하거나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반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억압된 욕망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어린아이가 자람에 따라 억압기제의 역할은 교사나 다른

67) 이러한 고려는 본고의 콤플렉스 논의가 기존의 콤플렉스 개념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논의가 될 위험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서사적 연구에 초점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연구 성과의 고려는 논의의 근거를 제시하는 일에 한정됨을 밝힌다.

권위적 인물에 의해서 계승된다. 그들의 명령과 금제는 자아 이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양심의 형태로 도덕적 검열을 계속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본능의 욕망과 그것을 억압하는 초자아, 양자의 영향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자아의 작용을 통하여 정신적인 삶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삶 전반을 구성하는 정신적 과정의 메커니즘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불완전하게 해소된 경우라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수 있으며, 신경증이나 각종 정신질환의 원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유아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형성과 이후의 삶을 통한 계승은 인간의 보편적 과정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정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⁶⁸⁾

프로이트가 말한 콤플렉스의 형성원리에 따르면, 콤플렉스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다.⁶⁹⁾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해당하는 이드(id)와 그에 대한 억압기제로 작용하는 초자아(super ego)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아(ego)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아는 원초적 콤플렉스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작동방식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정해진 작동방식에 따라 이후로 발생하는 욕망과 억압의 문제를 승계하여 처리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이때 콤플렉스 형성의 한 축을 이루는 초자아는 양심이나 도덕의 검열 기제로 작용하는 ‘세계’의 관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의 관념은 부모나 교사, 혹은 권위자라는 ‘관계 대상’을 통하여 자아에 작용한다. 콤플렉스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이드는 본능적 욕망의 주체인 ‘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의 욕망이 자아에 작용함으로써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이처럼 ‘세계’와 ‘나’라는 양축이 ‘자아’라고 하는 자기 인식기체에 의해 조합되고 있는 것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콤플렉스의 문제를 욕망과 억압의 측면에서만 다루었던 프로이트와는

68)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앞의 책, 371~407면.

69) 프로이트의 경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설명하는 과정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콤플렉스 형성 원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억압되어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융은 유아기의 모든 정감적 사건(affective event: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였던 사건)들이 하나의 콤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되었던 콤플렉스는 그와 관련 있는 정신요소나 이미 존재하는 콤플렉스를 만나지 못하면, 감정적 색조를 잃고 하나의 기억 덩어리로 무의식에 남게 된다. 그러다가 그러한 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계열성을 띄는 다른 콤플렉스를 만나 재활성화 되면, 그것은 콤플렉스의 원인이 된 정감적 사건을 강화시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콤플렉스를 강화시킨다.⁷⁰⁾

융의 콤플렉스 형성 원리에 따르면, 천차만별의 경험이 각각 인간의 콤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⁷¹⁾ 말하자면 인간의 무의식이 응어리진 것 그 자체가 콤플렉스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불가지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정감적 색조가 강조된 콤플렉스가 특정 자극에 대하여 강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에 그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되어, 그 반응을 콤플렉스 반응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융의 주장에 따라 콤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분석해보자. 모든 정감적 사건들이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콤플렉스를 이루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오는 자극,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받게 되는 자극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콤플렉스는 세 개의 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관계의 대상’을 통해 받는 자극과 순수하게 ‘외부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자극, 그리고 인식 주체로서의 ‘나’의 무의식에 자리한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 대상으로서의 ‘나’에 의해 발생한 정감적 사건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주체로서의 ‘나’의 정감적 반응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아들러(A. Adler)의 경우에는 콤플렉스의 형성이, 스스로의 신체적 열등감에 대한 인식,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관계 대상과의 비교를 통한

70) C. G. Jung, *The Psycogenesis of Mental Diseas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140.

71) C .G. Jung, 앞의 책, 2001, 105~106면.

열등감의 인식에 의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누구에게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체기관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능력이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개인의 문제로 귀속되는 열등감의 문제는 ‘기관 열등감’으로 보는데, 이러한 기관 열등감에 대하여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이나 취약한 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개발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무의식적 움직임을 취한다고 본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년 시절에는 형제와의 비교를 통해, 혹은 부모의 요구 수준에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사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속 집단과의 비교 및 소속 집단의 요구 수준에 자신을 비교한 결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 받으려는 무의식적 움직임이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⁷²⁾

이 경우에 콤플렉스의 구조를 이루는 것은 기관 열등감을 형성하는 인식주체로서의 ‘나’에 의한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판단과, 사회적 열등감을 형성하는 ‘사회’ 속에 속한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주체로서의 ‘나’의 판단이라는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를 세분화하면, 직접적인 인간관계의 대상인 ‘관계의 대상’, 사회적 제도나 관념으로서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외부의 세계’의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관계의 대상’과 ‘외부의 세계’가 ‘나’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세 축의 기준점을 통하여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 기준점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나’의 어느 부분에 대한 인식주체로서의 ‘나’의 인식이 무의식적인 열등 콤플렉스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콤플렉스의 형성원리를 살펴본 결과 공통된 구조의 축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각각의 경우에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 주체로서의 ‘나’, ‘관계의 대상’, ‘외부의 세계’의 판단이나 반응이 있고,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주체로서의 ‘나’, ‘관계의 대상’, ‘외부의 세계’의 자극이나 요구, 억압이 설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계의 대상-나’, ‘외부의 세계-나’, ‘나-나’의 관계구조를 인간의 콤플렉스를 형성

72) Alfred Adler, 앞의 책, 73~75면.

하는 세 가지 축으로 삼아서, 신화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본고에서 의도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서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에게 형성되어 있는 콤플렉스의 구조가 서사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가고, 치유와 극복의 지점에 다다른지 살펴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흐름만을 고려한 분석은 자칫 서사의 주요 국면과 주인공의 형상이 나타내는 의미를 놓칠 우려가 있음을 선행연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콤플렉스 구조의 구명은 콤플렉스적 양상을 나타내는 주인공의 서사에 대한 대립구조 분석을 통해 정치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러 대립요소들의 추출을 통해 그 중 콤플렉스의 중핵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 대립구조를 중심으로 세 관계 축에 따른 콤플렉스 구조의 형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콤플렉스 구조의 변화과정을 살핌에 있어서도 서사의 국면에 따른 순차구조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서사의 순차적 연결이 나타내는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에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면에 대하여 콤플렉스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핌으로써 신화의 주인공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사적 분석 틀의 준비를 통해, 신화 주인공의 서사로 형상화된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 그 치유와 극복의 방법을 발견해 내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의미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건져 올릴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콤플렉스에 관계된 것인 만큼 경우에 따라 기존의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논의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본고의 서사적 연구에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본고의 관심은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서사적 연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신화 서사의 분석에 착수하도록 한다.

3. 콤플렉스 서사로서의 한국 무속신화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신화의 서사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천차만별의 콤플렉스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콤플렉스를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논의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겠으나, 상황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형성되고 그만큼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현실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해 그 전체를 다루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 신화 중에서 ‘인간 → 신’의 존재변화 과정을 보이는 모든 신화를 다루는 것도, 그것이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한은 실효가 없다고 보인다.

본고의 목적은 신화의 서사를 통하여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현실의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콤플렉스의 구조와 그 변화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서사를 선택하여 연구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과, 현실의 콤플렉스 문제 해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다루는 일이 관건일 수 있다고 본다.

그에 필자는 서울·경기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2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나의 콤플렉스’라는 주제의 글쓰기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수합된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가장 문제적으로 드러나는 세 계열의 콤플렉스를 항목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표본 집단의 선정은 연령별,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 집단은 사회적으로 학생으로서의 지위와 사회진출 준비생으로서의 지위를 지닌 중간자적 위치에 놓여있으며,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특성상 전국 각지의 재원들이 군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표본자료의 통계 결과가 어느 정도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 상황에 적합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과제의 제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콤플렉스의 개념에 대

한 강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나의 콤플렉스’에 관한 글쓰기 과제를 수합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불편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콤플렉스의 유형을 집계한 결과⁷³⁾, 전체 학생(204명)의 55.9%⁷⁴⁾에 해당하는 114명의 학생들이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를 호소하였다.⁷⁵⁾ 다음으로는 전체의 31.8%에 해당하는 65명의 학생이 관계적 결함의 문제를 이야기하였고⁷⁶⁾, 이어서 8.8%에 해당하는 18명의 학생이 사회적 관념의 문제를 원인으로 삼았다.⁷⁷⁾ 3.4%에 해당하는 기타 유형을 이야기한 학생은 7명이었다.⁷⁸⁾

집계된 결과에 따라 현실에서 실제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원인으로,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관계적 결함의 문제’, ‘사회적 관념의 문제’를 설정할 수 있겠다. 각각의 항목은 앞서 콤플렉스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로서 언급된 세 축, ‘나-나’, ‘관계의 대상-나’, ‘외부의 세계-나’ 중 하나씩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는 ‘나-나’의 관계를 콤플렉스의 중심축으로 하여 구조될 것이고, ‘관계적 결함의 문제’는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가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념의 문제’도 ‘외부의 세계-나’를 그 중심으로 하리라 본다면, 표본 통계를 통하여 설정된 콤플렉스의 세 항목이 각각 콤플렉스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세 축 중 하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설정된 항목들은, 앞으로 본고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콤플렉스의 구조를 살피는 서사적 연구를 위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73) 집계된 유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콤플렉스의 유형 중 한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귀납적으로 묶은 것일 뿐, 유형이 제시된 상태에서 학생들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74) 해당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

75) 114명의 학생 중 56명의 학생이 얼굴의 생김새에 대한 열등감을 문제로 꼽았으며, 31명의 학생이 비만이나 비만의 경험으로 인한 고통을 문제로 삼았다. 키, 다리 굵기, 피부, 손과 발의 생김새 등 신체 부위에 대한 불만족을 토로한 학생은 20명이었으며, 장애인으로서 열등감을 지니게 된 경우도 6명이 있었다.

76) 65명의 학생 중 26명의 학생이 편모가정의 문제, 19명이 편부가정의 문제, 14명이 양친과의 불화를 문제 삼았고 6명의 학생이 양친의 부재로 인한 콤플렉스를 토로했다.

77) 18명의 학생 중 8명이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6명의 학생이 남성으로서 요구되는 완벽주의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형제의 맏이로서 완벽주의의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도 2명이 있었고, 혼혈인으로서 사회적 차별을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도 2명이었다.

78) 왕따로 인한 외상 2명,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사회공포증의 경우가 3명 있었고, 본인은 콤플렉스가 없다고 답한 경우도 2명이었다.

3.1.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 <숙영랑·앵연랑 신가>

3.1.1. 거북이·남생이의 서사와 콤플렉스

<숙영랑·앵연랑 신가(淑英郎·鶯蓮娘 神歌)>는 함경도 지역에서 연행되던 서사무가(敍事巫歌)의 일종으로, 장님으로 태어난 거북이와 앓은뱅이로 태어난 남생이 형제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장애를 치유하고 혼수성인으로 좌정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신화이다. 혼수성인이란 어린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기원의 대상이 되는 신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는 병(病)과 그 치유에 대한 신화적 인식이 녹아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숙영랑·앵연랑 신가>는 벌써 오래전에 소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⁷⁹⁾ 이는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이본 자료가 다양하게 전승되지 않고 있다는 점,⁸⁰⁾ 본디 함경도 함흥 지역의 무가이므로 현재 그 제차 및 전승양상을 알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⁸¹⁾ 연구의 기반으로 삼을 만한

79) <숙영랑·앵연랑신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다만 서사적 유사성에 대한 논의에서 잠깐씩 언급되거나(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땅북극 - 베를 갈라 저승길을 닦아주는 곳』, 열화당, 1985, 70~90면;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제32집, 한국민속학회, 2000, 151~194면), 불교 설화의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을 살피는 논의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졌을 뿐이다(신호립,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225~256면).

80) 손진태가 1926년에 함흥에서 김쌍돌이의 구연 내용을 채록한 <숙영랑·앵연랑 신가>가 있고(손진태, 『조선신가유편』, 동경 향토연구사, 1930, 7~67면), 이와 유사한 자료로서 평안도 강계에서 손진태가 채록한 전명수 구연 <데석님 청배>(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5, 태학사, 1981, 276~280면), 임석재와 장주근이 1965년 채록한 강춘옥본 <혼쉬굿>에 <황천혼시>와 <숙영랑·앵연랑 신가>가 결합된 형태로 조사된 바 있다(문화재관리국 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집, 한국인문과학원, 1998, 375~380면). 그밖에 <숙영랑·앵연랑 신가>를 현대어로 재구성하여 <거북이와 남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김태곤의 저서(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216~220면)가 있으며, 최원오와 신동훈의 저서에도 현대어로 재구성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신화』, 여름언덕, 2004, 181~186면;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4, 294~299면). 김태곤과 최원오, 신동훈이 참고한 자료는 김쌍돌이본 <숙영랑·앵연랑 신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데석님 청배>의 경우, 서사의 마지막에 오늘이 좌정한 신적이 농산의 풍요와 관계된다는 점이 서사적 완결성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혼쉬굿>의 후반에 제시된 거북이 남생이의 서사는 <지성이면 감천> 설화가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화 서사로서의 완결성이 두드러지며 가장 먼저 채록된 자료이기도 한 김쌍돌이본 <숙영랑·앵연랑 신가>를 주요 텍스트로 삼아 논의할 것이다.

81) “이 세 작품은 곳에서 불리는 서사무가로 함경도 및 평안북도 지역 외에서는 발견되지 안흔다는 점에서 주목되었지만, 채록과정에서 연행 환경이나 곳의 제차(祭次), 음악 등 콘텍스트

선행연구의 존재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가치가 재고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도록 한다.

<숙영랑·앵연랑 신가>는 부모인 숙영선비와 앹연각시의 결연과정, 자식을 보지 못한 부부가 기자치성(祈子致誠)을 드리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전체 분량의 반가량 될 만큼 길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논의의 맥락상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역시 거북이와 남생이의 콤플렉스 형성과 치유에 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다.⁸²⁾ 따라서 거북이와 남생이의 서사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그 서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1) 숙영선비와 앹연각시가 혼기가 차서 성대하게 혼인을 치러 풍족하게 산다.
- (2) 부부가 나이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생금(生金) 한 봉을 가지고 가서 점을 보니, 정성을 드려야 자식을 보겠다고 한다.
- (3) 부부가 안애산 금상사에 가서 갖은 정성을 드리고 동침하니 그 달부터 태기가 있었다.
- (4) 첫 아이를 낳았으나 눈을 뜨지 못하므로, 화를 내며 이름을 거북이라 짓고 유모에게 맡긴 채 돌보지 않는다.
- (5) 이어 둘째 아이를 낳았으나 꼽추에 앓은뱅이라, 화를 내며 이름을 남생이라 짓고 유모에게 맡긴 채 돌아보지 않는다.
- (6) 부부는 화병을 못 이겨 죽고, 형제만 남아 있는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부모의 많던 재산도 다해 거지가 된다.
- (7) 형제가 밥을 빌러 다녀도 거두어 먹이는 이가 없다.
- (8) 남생이가 말하길, 부모가 자신들을 얻기 위해 정성을 드렸던 금상사에 가서 부처를 만나보자고 하니, 거북이는 남생이를 업어 다리 노릇을 하고 남생이는 눈 노릇을 하며 길을 떠난다.
- (9) 금상사 어귀에 이르자 연못에 생금이 떠 있었으므로 남생이가 금덩이를 건져가자고 하였으나 거북이가 ‘가져봐야 쓸 수나 있겠느냐’며 만류하고는 돌이 절에 들어간다.
- (10) 절에 들어가니, 부처가 불목하니에게 이르길 그 아이들이 생기느라 절에 생금탑을 쌓았으니 글공부를 시키고, 세 끼니를 쌀밥으로 잘 지어 먹이라고 한다.
- (11) 불목하니가 일이 많아진 것을 탓하며 부처 모르게 아이들을 괴롭힌다.

(context)적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의 유사성을 지적한 연구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호립, 앞의 논문, 246면.

82) 이야기의 서두에 부모의 결연담이나 거북이와 남생이를 얻기 위한 기자치성에 대하여 길게 서술되고 있는 것은, 결연과정과 기자치성에 대해 관습적인 상투구를 나열하곤 하나는 한국의 구비문학적 전통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제목도 <거북이와 남생이>로 하는 것이 옳겠으나, 채록 당사자가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

- (12) 아이들이 불목하니의 괴롭힘을 벗어나려고 연못에 있는 생금에 대해 이야기한다.
- (13) 불목하니가 나가보니 큰 구렁이만 있으므로 아이들을 더 괴롭힌다.
- (14) 아이들이 나가보니 본래대로 금이 있어, 그것을 불전에 안고 들어온다.
- (15) 아이들이 금을 안고 들어오자 절이 춤을 추고, 부처와 절 안에 금칠이 입혀진다.
- (16) 부처가 거북이의 눈을 뜨게 하고 남생이를 일으켜 세운다.
- (17) 아이들은 세상에 나와 여든한 살까지 잘 살다가 죽어 혼수성인이 된다.

제시된 대로, <숙영랑·앵연랑 신가>는 ‘소경’과 ‘앓은뱅이’로서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주인공인 거북이와 남생이를 통하여 서사가 진행된다. 형제의 부모는 나이 마흔이 가깝도록 자식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귀한 예물로서 기차치성(祈子致誠)을 드려 아이를 낳았으나, 태어난 자식이 장애를 안고 있음을 인지하고는 화병으로 죽고 만다. 그에 남겨진 형제는 부유했던 부모의 유산으로 ‘놓고 먹고, 놓고 쓰는’ 삶을 살다 결국 유산을 탕진하고 거리로 나왔게 된다.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형제는 자신들을 접지하였던 생불성인(生佛聖人)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업고 업힘으로써 한 사람은 다리가 되고 한 사람은 눈이 되어 생불성인이 있는 안애산 금상사(金祥寺)를 찾아가고, 결국 그곳에서 형제는 그들이 지닌 신체적 장애를 치유하고 혼수성인으로 좌정한다.

이처럼 <숙영랑·앵연랑 신가>는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북이와 남생이가 그 장애를 치유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치병(治病)을 관장하는 혼수성인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라는 병을 고친 주인공들이, 병을 관장하는 신성으로 좌정하게 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서사와 주인공이 좌정하게 된 신직과의 상관성이 미약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⁸³⁾ 이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주인공인 거북이와 남생이가 그들의 서사를 통하여 해결하게 되는 문제가 일반적인 질병(疾病)에 대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를 병(病)의 한 양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혼수성인으로 좌정하게 되는 맥락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83) 신호람, 앞의 논문, 249~259면.

신체적 장애는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리 완전한 치유가 어렵다. 의료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도, 신체적 장애의 문제는 완치될 수 없는 천형(天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물며 의료 기술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근대 이전의 상황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신화의 향유자들이 거북이·남생이 서사를 통하여 효험을 기대한 것은, 신체적 장애의 완전한 치유라기보다 그로인한 심리적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깨달음의 측면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면에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혼수성인으로 좌정한 거북이와 남생이의 서사를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에 대한 콤플렉스 극복의 신화 서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거북이와 남생이가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곧 신체적 열등감에 기반한 콤플렉스를 지녔노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의 서사를 통하여 콤플렉스적 형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거북이·남생이의 서사를 콤플렉스의 서사로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 콤플렉스란 무의식적으로 얽혀 고착된 부정적 자기 인식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거북이와 남생이의 내면에 착종된 부정적 자기 인식이 그들의 성격이나 행위방식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양상이 확인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에 대하여는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남으로써, 그들의 부모인 숙영선비와 앵연각시의 기대는 좌절되고, 자신들의 자녀를 유모의 손에 맡긴 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다 결국은 화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에 까지 이른다. 거북이와 남생이의 입장에서는 ‘나의 장애가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결정적으로는 ‘나의 장애가 부모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인식들이, 그들의 내면에 신체적 장애를 원인으로 한 심리적 억힘을 만들게 된다.

거북이와 남생이의 부모가 형제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말은, ‘장애를 가진 자식을 어디에 쓰랴’하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유연이 되었다. 그로 인해 형제의 내면에서는 부모의 애정에 대한 기

대가 좌절된 부정적 심리 경험, 부모의 죽음에 의한 강력한 심리적 충격의 경험이, 그 원인으로 여겨지는 자신들의 신체적 장애와 결합하여, 그들 스스로 신체적 장애를 지닌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 부정적 인식의 내용은, 부모가 그들을 인식한 내용 그대로 ‘무능무용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인식으로 수용함으로써 형제는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스스로를 무능의 존재로 인식하게 된 형제는, 그러한 무의식적 인식에 따라 삶을 운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신체적인 부자유를 이유 삼아 부모들이 남긴 유산을 ‘놓고 먹고, 놓고 쓰는’ 삶의 방식을 일관하는, 마치 식물과도 같은 형제의 형상이 바로 그러한 콤플렉스의 작용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하여 형제는 유산의 소멸과 함께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고 스스로의 존재적 위협을 초래한다.

물론 신체적 장애를 지닌 경우에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문제에서조차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제의 삶의 방식을 콤플렉스의 작용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부자유가 말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방관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 결국 신체적 열등감으로 인한 콤플렉스, 스스로를 무능무용한 존재로 여기는 형제의 부정적 자기인식이, 형제를 그러한 삶의 방식에 고착되도록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북이·남생이의 서사를 신체적 열등감을 원인으로 하는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해내는 두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장애’, ‘외모의 추함’ 등,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콤플렉스에 대한 치유의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이제부터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주인공 거북이·남생이의 서사를 통해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로 인한 콤플렉스의 구조와 그 변화, 치유와 극복의 과정까지를 면밀히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3.1.2.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구조 분석

- 타인에 의해 규정된 정체성의 수용과 고착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문제와 그 변화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먼저 거북이·남생이의 내면에 형성되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사단락 (1)~(3)에는 첫 아이인 거북이를 얻게 된 숙영선비와 앵연각시가 어렵게 얻은 자식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열달만에誕生하니,
발가한男子가났소아,
잘났기도잘났소,
함씩엿해해가듯고,
함씩엿해달이듯고,
天下一色이아기,
잘났기도잘나고,
貴하기도貴하오⁸⁴⁾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 “한쪽 옆에는 해가 돋은 듯하고, 한쪽 옆에는 달이 돋은 듯” 빛이 났다고 하는 표현은, 오랜 세월 아이를 기다려온 숙영선비와 앵연각시에게 있어 출산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서사단락 (4)~(5)에 제시되었듯이, 부부가 그토록 기다려온 아이가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음이 밝혀지게 된 까닭이다.

그아기三日이되여도, 눈을안써와,
첫일해되여도눈을안이써와,
세일해되여도눈을안이써와,
석달이되여도눈을안이써와,
그적에大監님과夫人님이,

84) 손진태, 앞의 책, 49면.

빗질가튼손^ㅅ질노쌍을쌍^ㅅ치며,
 山川도無情하다,
 聖人도고이업다,
 人間榮華를보렷더니,
 압못보는판수子息을무엇하겠니.
 이애기이름을짓되는, 거북이라고,
 乳母불너乳母주고
 애기세쌀이되엿소아,
 또一氣同품하니,
 또아기서럽하와,
 ...(중략)...
 사흘만에애기를香물에沐浴식히자고,
 등을만지니, 등곱쟁이오,
 다리를만지니, 함짝다리짜르오, 안즌뱅이오
 大監님과夫人님이心思를쳐쓰다가,
 乳母를불너줄적에,
 일흠을남생이라고,⁸⁵⁾

첫째 아이는 삼일, 열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다가도록 눈을 뜨지 않는다. 그때에야 비로소 부부는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음을 인식하게 된다. 나이 마흔에 얻은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첫 아이의 장애를 인식하게 되자, 유모를 불러 아이의 양육을 맡겨버리는 부부의 모습에서, 반전된 기대에 의한 절망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이어 둘째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부부는 새로운 기대로 절망을 씻어낼 수 있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절망이 둘째 아이에 대한 더 큰 기대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마침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으나, 둘째 아이는 등에 혹이 불거져있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앓은뱅이였다. 그렇게 아이들의 신체적 장애를 인지하는 순간 숙영선비와 앵연각시 부부는 아이에게 걸었던 기대만큼이나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부부가 기대했던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 ‘이상’이라고 한다면, 거북이·남생이의 출산은 부정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상적 아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장애를 가진 아이로 인한 ‘절망’으로 화하는 과정이 거

85) 앞의 책, 50~53면.

북이와 남생이의 출산 과정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고 하겠다.

○ 숙영선비·앵연각시의 내면

이상 / 현실 = 이상적 자녀상 / 현실의 자녀,
 건강한 아이 출산 / 장애아 출산,
 기대 / 절망⁸⁶⁾

자녀의 장애를 인식하게 된 부모의 경우, 1차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함께, 부모로서 내면에 품고 있던 이상적인 자녀상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 ‘자녀의 죽음’에 준하는 절망감이 엄습하게 된다.⁸⁷⁾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게 된 숙영랑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자녀상의 이상이 높게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상적 자녀상의 상실에 의한 충격이 그만큼 더 강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한 감정은 2차적으로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 분노의 내용이란 첫째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아 그 대상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⁸⁸⁾ ‘빗질 하듯 땅을 치며’, 아이들을 접지받기 위해 기자치성을 드렸던 ‘산천’, ‘성인’들을 원망하는 모습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분노를 표출하는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느낀 충격과 절망, 분노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거부적인 부모(rejecting parents)’⁸⁹⁾의 양육태도를 보이게끔 한다. 숙영랑 부부는 흉하고 괴상한 생김새를 빗대어 아이들의 이름을 ‘거북이·남생이’라 짓고, 유모에게 떠넘긴 채로 양육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장애아의 부모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육의 태도이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86) 본고에서는 논의의 중간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서사분석의 결과로 도출되는 의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는 항목 표지, ‘·’는 소항목 표지, ‘/’는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표지, ‘-’는 계열관계를 나타내는 표지, ‘→’는 상태의 변화나 순차, 방향성을 나타내며, ‘=’는 앞뒤로 연결된 항목의 상동성을 나타낸다.

87) 신현기,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정과 부모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 6집,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3, 228면.

88) 앞의 논문, 229면.

89) 앞의 논문, 231면.

극도로 낮아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극-반응’의 상호작용을 기대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들은 아이의 발전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무용지물로 생각하게 된다.⁹⁰⁾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숙영랑 부부의 ‘거부적인 부모’로서의 인식은, “앞 못 보는 자식을 무엇 하겠니”라고 하는 발언에 드러나고 있다. ‘장애를 지닌 이 아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를 지닌 이 아이는 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것처럼 무능(無能)의 존재, 무용(無用)의 존재로서 아이들을 인식한 부모는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 부모의 발언

“앞 못 보는 자식을 무엇 하겠니” = 무능무용한 존재라는 인식

서사단락 (6)에 이르러 부모들은 결국 화병을 못 이기고 죽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器物은 億十萬財⁹⁰⁾데,
父母들이火病이들어다죽소야,⁹¹⁾

표현 그대로 심화(心火)를 못 이겨 죽음을 맞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상징적인 이해도 가능하다. 부모가 거북이·남생이를 무능무용(無能無用)의 존재로 여기고 양육을 포기하는 순간, 거북이·남생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부재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부모의 죽음

실제 / 상징 = 죽음 / 양육 포기 = 부모의 부재

90) 앞의 논문, 231면.

91) 손진태, 앞의 책, 53면.

이처럼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북이·남생이를 그들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방식은, ‘거부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무능무용(無能無用)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거북이와 남생이가 그러한 부모의 가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점이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아동의 자아(self) 형성에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평가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본다.⁹²⁾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그대로 자녀에게 수용되기 쉬우며, 자녀는 부모의 평가 기준을 수용하여 자신을 판단하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거북이와 남생이의 경우에도 그들 부모의 평가를 수용하여, 자신들을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로 평가하고, 무능무용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마치 식물과도 같은 삶의 방식에 고착되게 된다.

가애들이그器物을
늦코먹고, 늦코쓰고,
미구에가난뱅이되엿소야,⁹³⁾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모의 유산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택한다. 부모의 평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 내린 것이다. 부모의 평가기준을 수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의 준거로 삼고, 이를 통하여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삶을, 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내면화한 모습이라고 하겠다.

거북이·남생이로서도 건강한 신체를 타고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애정과 보살핌을 받는 것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 부모를 절망케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상황이다.⁹⁴⁾ 그러한 현실 인식으로 인한 절망감이 거북이와 남생이로 하여금 ‘무능한 존재’라는 부모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

92)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5, 257면.

93) 손진태, 앞의 책, 53면.

94) 실제이든 상징적인 죽음이든 그들의 신체적 장애가 부모의 부재, 곧 ‘죽음’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적 이상에 비교하였을 때에도, 그들의 현실적 존재성은 지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거북이·남생이의 내면

이상 / 현실 = 건강한 신체 / 신체적 장애,
 부모 기대 충족 / 부모의 절망,
 부모의 사랑 / 부모의 죽음



현실 인식으로 인한 절망 →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모의 평가 수용 →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 →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삶

그렇게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 거북이·남생이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놓고 먹고, 놓고 쓰는’ 동안에 결국은 부모가 물려준 재물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스스로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거북이·남생이에게 있어 유산의 소멸은 존재유지의 위기에 준하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북이·남생이가 선택한 방법은, 부모의 유산으로 살아가던 이전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스스로 생계를 도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과는 다른 유능(有能)하고 유용(有用)한 타인의 존재에 기대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혈수업시, 둘이손목을붓들고,
 밥비러먹어려갓서나,
 그宅에서病身들을
 엇제그저거더먹이라,
 다시오지말어라.⁹⁵⁾

스스로의 손으로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 일은 거북이·남생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능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그리

95) 앞의 책, 53면.

하여 부모의 유산에 의지했듯이, 그들은 유능한 타인의 아량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북이와 남생이가 최초로 맞닥뜨린 외부의 세상은, 그들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성 그대로 그들을 인식한다. “병신들을 어찌 그저 걷어 먹이라”라고 하는 집주인의 반응은, 그들의 장애를 인식해서라기보다는, 그 집의 대문을 두드려 밥을 빌어먹으려한 거북이·남생이의 의도에 대응한 것이었다.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이 인식한 존재성 그대로를 세상에 나타내었기에,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세상의 평가도 그들 자신이 보여주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거북이·남생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적 인식, ‘무능한 존재’라는 자기인식을 통해 존재유지의 위기라는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지금까지 거북이와 남생이가 신체적 열등감으로 인해 콤플렉스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존재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까지의 서사를 살펴보았다. 그러한 콤플렉스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부모 숙영선비·앵연각시의 평가, 그러한 평가를 수용한 거북이·남생이의 자기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거북이와 남생이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이상적인 아이의 출산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현실에 의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평가를 거북이와 남생이가 수용하게 된 것도 자신의 존재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좌절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거북이와 남생이의 콤플렉스를 이루는 핵심적인 대립구조는 ‘이상/현실’의 대립일 것이다.

○ 핵심 대립구조 = 이상 / 현실

• 숙영선비·앵연각시의 내면

이상/현실 = 이상적 자녀상 / 현실의 자녀,
 건강한 아이 출산 / 장애아 출산,
 기대 / 절망,
 행복한 삶 / 죽음
 ↓
 아이에 대한 무능무용의 존재라는 평가

• 거북이·남생이의 내면

이상 / 현실 = 건강한 신체 / 신체적 장애,
 부모 기대 충족 / 부모의 절망,
 부모의 사랑 / 부모의 죽음



현실 인식으로 인한 절망 →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모의 평가 수용 →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 →
 무능무용한 존재로서의 삶 → 존재적 위기

이러한 핵심 대립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체적 열등감으로 인한 거북이와 남생이의 문제적 자기인식, 콤플렉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다. ‘관계의 대상’인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라는 ‘현실’을 인식한 충격과, ‘이상적인 자녀상’의 붕괴에 의한 절망과 분노로 인해 ‘거부적 부모’로서의 입장을 취하게 되고, 거북이와 남생이를 ‘무능한 존재’로서 인식한다. 이에 대하여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들의 ‘이상적 존재상’과는 달리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 부모의 죽음을 초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 절망감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그대로 자기 인식의 기준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렇게 수용된 부모의 판단기준으로 ‘나’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나’는 무능한 존재로서 확정되고, 무능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한 자기평가의 영향력은 ‘외부의 세계’에서 조우한 집주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존재라고는 해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유능한 타인의 아량에 기대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를 표상하는 집주인은 ‘나’의 자기평가를 수용하여, 그 역시 ‘나’를 무능자로서 판단 내리게 된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라는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평가는 ‘관계의 대상 → 나 → 외부의 세계’로 연쇄적으로 수용되어 결국 ‘외부의 세계 → 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은 콤플렉스의 구조를 한 마디로 ‘부정적 평가 수용의 연쇄 구조’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연쇄적으로 수용·순환되며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누

적시키게 되는 콤플렉스의 구조가 거북이 남생이를 극단의 존재적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3.1.3.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존재적 가치의 발견과 자기화

거북이·남생이가 자신의 존재적 문제성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신성(神性)’을 획득함으로써 완전한 존재적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옴아매어 극단적인 존재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던 콤플렉스가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거북이와 남생이의 서사를 따라서 각각의 국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로 인한 콤플렉스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사의 주요 국면에 나타난 거북이·남생이의 행위가 그들의 콤플렉스 구조 변화에 주는 영향이 확인될 수 있다면, 신체적 열등감을 그 내용으로 하는 콤플렉스 문제의 치유와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북이·남생이가 집주인에게 의탁하기를 실패한 이후로, 그들의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주요 국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순차가 될 수 있다.

- A 금상사(金祥寺)로의 여행 결심
- B 금상사로의 여정
- C 금상사에서의 삶
- D 장애의 치유와 현실 복귀
- E 혼수성인(昏睡性人)으로의 좌절⁹⁶⁾

A에 해당하는 서사는 (7)~(8)단락을 거쳐 제시되고 있다. 부모의 유산이 탕진되고, 다른 의탁처를 찾는 것에도 실패한 형제는 중대한 위기 상

96) 본고에서는 서사의 순차구조에 대하여, 각 순차에 대한 표층서사를 'A, B...'로, 표층서사가 의미화 된 단계를 'A', B'...'로, 이를 콤플렉스의 측면으로 재정리한 단계를 'A', B'...'로 나타내도록 한다.

황에 봉착한다. 무능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유능한 타인의 자비에 의해서만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여겼던 형제가, 타인에의 의탁을 거부함으로써 존재의 유지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분기점이 생긴다. ‘원래의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인간은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 깊은 절망과 슬픔이 때때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남생이와거북이大門뵈게나와서,
둘이울엿소아,⁹⁷⁾

위에는 의탁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형제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 울음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막막함에 더하여,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되어 멸시받는 설움, 멸시를 받으면서도 타인의 자비를 구해야만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 등이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울음 = 생계의 위협에 대한 막막함, 무능의 존재성에 대한 회의

형제는 그토록 무능한 자기 존재가 슬프고,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자신이 슬퍼서 울다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다르게 살 수는 없는가?’하는 의문은 ‘나는 다르게 살 수 없는 존재인가?’하는 의문과 맞닿아 있다.

○ 무능의 존재성에 대한 회의 → 무능의 존재성에 대한 의문

부모의 평가, 세상의 평가를 고스란히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던 거북이·남생이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존재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97) 앞의 책, 54면.

곱쟁이말이,
우리생긴안애山金祥절에가서,
이망불부체·금양불부체
人間指導하는生佛聖人.⁹⁸⁾

제시된 대로, 형제는 자신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부모가 정성을 드린 바 있는 금상사(金祥寺)에 찾아가갈 생각을 하게 된다.⁹⁹⁾ 원문에 드러난 남생이의 발언이,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의탁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명분이 있는 곳을 찾아가 의탁을 하려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그들의 의도는 삶의 방식에 궁극적인 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상사(金祥寺)로의 여행

새로운 의탁처 탐색 / 존재성에 대한 의문 해소 = 존재성 유지 / 존재성 재확인

그러나 자구를 자세히 풀어보면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생이의 발화에 등장하는 존재는 총 둘이다. ‘이망불’과 ‘금양불’은 ‘인왕불(仁王佛)’과 ‘금강불(金剛佛)’의 와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둘은 모두 사찰의 산문을 지키는 금강역사(金剛力士)를 지칭하는 말이다. 금강불이 지

98) 앞의 책, 54면.

99) <숙영랑·앵연랑신가>의 전반부에는 거북이·남생이를 얻고자 금상사를 찾아가 생불성인에게 기차치성을 드리는 숙영랑·앵연랑 부부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宮숨을가리니,
積德을드리고, 功德을드려야,
子息보겠다고,
(중략)
안애山金祥절에차저가서,
이망佛부체, 그망佛부체,
人間指導하는生佛聖人,
거기가서석달열흘을祈禱하소,
앞의 책, 46~47면.

닌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남생이의 발화에 등장하는 최후의 존재가 생불성인(生佛聖人)임을 고려하면, 남생이가 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존재는 생불성인으로, 금강불은 생불성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거치게 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불성인의 역할이 ‘인간을 지도하는(人間指導)’ 것이라면, 남생이의 목적은 생불성인을 만나 살아갈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얻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가는 곳이 그들의 연원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성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 금상사(金祥寺)로의 여행 = 존재성에 대한 의문 해소를 통한 존재성 재확인

이로써 ‘A 금상사로의 여행 결심’ 순차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규정되고 내면화된 무능의 존재성으로 인해 거북이와 남생이는 존재유지의 위협에 직면한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들이 내면화한 부모의 평가, ‘무능한 존재’라는 인식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된다. 그에 따라 자신들의 존재적 근원이 되는 금상사로의 여행을 통해, 자신들을 짐지한 생불성인을 만나 자신들의 존재성을 확인하고자 길을 떠나기로 한다. 그러므로 A의 서사는 ‘존재성에 대한 의혹과 확인을 위한 여행’으로 의미화 될 수 있겠다.

A' 존재성에 대한 의혹과 확인을 위한 여행

이를 다시 콤플렉스의 서사 측면에서 의미화한다면, 금상사로의 여행은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들의 존재성을 새로이 인식할 준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성을 새로이 인식할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A의 서사는 ‘존재성 재확인 필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A" 존재성 재확인 필요 인식

‘B 금상사로의 여정’ 단계에 이르러 형제는 존재성의 재확인을 위한 여행을 시작함으로써 중요한 발견에 이르게 된다. 금상사까지의 여정을 위해 움직일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무능의 존재성을 벗어나 유능의 존재성을 얻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거북이말이,
나는압히어두어, 엇지가갸니.
다리뻑이는 「나는엇지거러가갸소」.
솨쟁이말이 「뉘이나를업소새」,
형이막대진결내취고,
쑥쑥소리난대로가새.¹⁰⁰⁾

앞이 보이지 않고 걸을 수 없어서, 혼자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제였다. 그러한 형제가 업고 업힘으로써,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각자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장애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시선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의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가능한 역할을 찾고 방법을 찾아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써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미약하게나마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무(全無)함’에 먼지 한 톨이라도 더 해진다면 ‘유(有)함’이 된다. 그들이 힘겹게 내딛은 한 걸음의 가능성은 그들의 존재성 자체를 완전히 변모시킬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금상사로의 여행

이전 / 이후 = 장애에 대한 집중 / 장애 외의 부분에 대한 집중,
무능 / 유능

100) 앞의 책, 54면.

그러므로 금상사행 길을 나선 거북이와 남생이의 앞에 놓인 삼거리의 형상은 그들이 내딛는 걸음에 따라 변화에 나갈 그들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을에무지계내리벗치와,
東쪽은靑大路에푸른질리오,
南쪽은赤大路에붉은질리오,
西쪽은白大路에흰질리오.¹⁰¹⁾

제시된 부분에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에 따라 동쪽으로는 청색, 남쪽으로는 적색, 서쪽으로 백색의 길이 뻗어있는 형상이 그려지고 있다. 청색이 오행(五行)가운데 목(木)을 의미하며, 생명력을 뜻한다면, 적색은 화(火)에 해당하여 생성과 창조, 정열, 애정, 적극성 등을 나타낸다. 또 백색은 금(金)을 의미하며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한다. 이때 제시된 세 방향을 제외한 북방(北方)에 형제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방이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전통이 있음을 고려한다면,¹⁰²⁾ 한 몸이 되어 나아가기 시작한 형제의 앞에 뻗어있는 청색, 적색, 백색의 길은 식물과 같은 삶,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형제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형제의 행보에 따라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형상이라 볼 수 있겠다.

○ 삼거리의 형상 =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의 가능성

따라서 거북이와 남생이가 여행의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능무용의 존재성을 탈피하고 유능유용의 존재성을 획득할 존재적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1) 앞의 책, 55면.

102) 죽음의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북망산천(北邙山川)이라 이야기되는 전통을 고려한 것이다.

○ 여행의 방법 발견 = 유능유용의 존재적 가능성 발견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단계일 뿐, 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서사단락 (9)에 해당하는 ‘생금(生金)의 발견과 포기’의 과정을 통해 아직도 문제적 자기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어구에드러가니,
蓮塘놓히잇소아, 그눔혜
북개가튼生金이둥둥써맹긴다.
남생이눈이밝어니,
거북이성님, 이눔혜,
북개가튼生金이잇서니, 그것건지자.
관수성이 「우리무순福趾를가져,
그것을건지면씩이갯너냐,
본치말고드러가자」.¹⁰³⁾

형제가 금상사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남생이는 근처의 연못에 떠있는 둥그런 생금(生金)덩이를 발견한다. 그러나 금덩이를 눈앞에 두고도 형제는 ‘건져서 썩힐 일이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만 금덩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만다. 금을 건져 봤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썩힐 것이라며 자기비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능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완전히 깨버리지 못한 형제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신들은 생금덩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인식, 자신들의 존재성이 생금만큼의 가치를 지니지 못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형제가 자신들의 힘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은 식물과도 같은 죽은 존재성에서 삶의 가능성을 획득해나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한 여정의 막바지에 발견하게 된 생금의 존재는 의미심장하다. ‘생금을 발견했다’는 것의 의미는 그들의 삶이 생금과도 같이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3) 앞의 책, 55면.

발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북이와 남생이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 자신들이 생금과 같은 존재적 가치를 지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생금(生金)의 발견 = 존재적 가치의 발견

이처럼 형제가 발견한 ‘생금(生金)을’ 그들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시각에는 서사 내적인 근거가 있다. 서사의 초반부에 숙영선비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신묘한 능력이 있는 복술가를 찾아가 문복을 하고, 아이 낳을 방도를 물으며 그 복채로 생금 한 봉을 사용한다.¹⁰⁴⁾ 그러한 문복의 결과로 거북이와 남생이가 점지된 상황을 고려하면, 그들의 존재적 근원인 금상사의 어귀에서 발견한 생금을 들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특히, 거북이와 남생이의 탄생과정에는 그들의 존재성이 훼손될만한 금기의 위반이나 과오가 제시되지 않는다.¹⁰⁵⁾ 그러한 점에서, 비록 들의 외형은 신체적 장애를 지닌 모습이지만 그 존재적 가치는 그들을 얻기 위해 사용된 생금의 가치에 온전히 비견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발견된 존재적 가치에 대하여, 형제는 그것을 자신들의 존재성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일생동안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살던 형제는,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여 여행을 시작하며 겨우 약간의 성취를 맞

104) 나의이宅으로올적에,
慶尙道아랫역헤,
妙한卜術이잇답디다,
거귀가八字宮숨이나무러보오.
生金一封을가지고,
大監님이견마라는말을타고,
종자래기정매들이,
영청들이사칭광에갓소아,
앞의 책, 45~46면.

105)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전반부 서사를 살펴보면, 숙영선비와 앵연각시의 결연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가 갖추어져 아무런 흠결없이 부부의 결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북이와 남생이를 점지받기 위하여 문복을 하고, 문복의 결과에 따라 금상사의 생불성인에게 기차지성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될 만한 금기의 위반이나 과오가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바리데기>에서 바리 부모의 결연과정에서 문복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금기의 위반이 드러나는 점이나,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치성의 제물이 모자랐다가 치성을 드린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과오가 제시되는 것과 구분된다.

보았을 뿐이다. 스스로가 아주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조금의 확신을 얻었을 뿐, 자신들의 존재가 생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생금을 건져 소유하려 했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돌아서고 마는 것은, 스스로 발견한 존재적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주저하는 형제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생금(生金)의 포기 =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 미비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형제는 우선 자신들의 존재성 확인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금상사로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B 금상사로의 여정’ 순차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금상사로 가기 위한 여행의 방법을 모색하던 거북이와 남생이는 업고 업힘으로써, 처음으로 유능한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의 발견은 금상사 어귀에서 생금을 발견함으로써 절정을 이룬다. 금상사 어귀에 놓여있던 생금이야말로 처음 형제가 점지되도록 한 생금의 가치, 그들의 안에 숨겨져 있는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비록 자신들의 존재적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한 형제는 생금의 획득을 포기하지만, 그들이 금상사로의 여정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한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B의 서사는 ‘여행의 방법 발견 및 생금(生金)의 발견’으로 정리될 수 있겠고, 이를 거북이 남생이의 콤플렉스에 대한 것으로 의미화 하자면 ‘존재적 가치의 발견’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B' 여행의 방법 발견 및 생금(生金)의 발견

B'' 존재적 가치의 발견

‘C 금상사에서의 삶’ 순차에 이르러 금상사 안으로 들어간 형제는 생불성인(生佛聖人)이 아닌 불목하니와 대면하게 된다. 형제의 여정은 생불성인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그와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형제가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결부된

다고 할 수 있다.

절에드러가니, 불목이넛터서며,
부체님의일어나, 부체말이,
가이들이생기너라고,
우리절에生金塔을쌌코했서니,
가이들을남문초당에드려안치라,
글공부를식혀라.
한날에白飯을세번씩하여먹여라.¹⁰⁶⁾

생불성인은 형제의 처우를 묻는 불목하니에게 “그 아이들이 생기느라고 우리 절에 생금탑(生金塔)을 쌓았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 형제의 부모가 기자치성을 드릴 당시에 많은 제물을 봉헌했음을 뜻한다면, 형제들을 초당에 머물게 하고, 글공부를 시키며, 좋은 음식을 잘 먹이도록 하는 뜻이 그 되갚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엄청난 제물이 봉헌되었음을 알게 된 형제는, 자신들의 탄생을 위해 투입된 비용만큼이나 자신들의 존재가 가치로울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인식할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숙영랑·앵연랑 부부가 봉헌한 제물은 생금으로 탑을 쌓을 만큼 많았다고 할 수 없다.¹⁰⁷⁾ 그렇다면 보다 상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생불성인이 접지한 형제의 운명 그 자체가 생금탑과 같은 존재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는 말, 형제의 탄생을 접지되고 그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금탑이 세워지는 과정과 같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절 어귀의 연못에 떠 있는 금을 보고도 형제는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못했다. ‘생금 덩어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인식, 자신들의 존재

106) 앞의 책, 56면.

107) 당시 부부가 봉헌한 제물은 백미 서 말 서 되, 황초 다섯 근, 소(素)초 다섯 근, 대초 다섯 근, 황지 다섯 근, 소지 다섯 근, 대지 다섯 근이었다.
白米를서말서되를씨어라,
黃초닷斤, 소취닷斤,
대취닷斤, 黃紙닷斤,
소지닷斤, 大紙닷斤,
열닷斤갓초야가지고,
앞의 책, 47면.

성에 비해 생금은 과분하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생금 덩어리를 애써 외면하고 절에 들어온 형제에게, 생불성인은 그들의 존재성이 생금탑과 같다고 말하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제공한다. 이러한 생불성인의 이야기를 들은 형제는 앞서 지나쳐 온 생금 덩어리를 떠올리며, ‘어쩌면 나의 존재가 생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인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생불성인의 확인을 통해서도,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 생불성인(生佛聖人)의 확인 = 존재적 가치의 발견

‘글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특정한 능력을 개발하여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키워나가고, 지닌 바의 능력으로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인간 삶의 과정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세상에 증명하며, 자신의 존재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거북이와 남생이는 능력의 개발과 훈련, 과업의 수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경험과 준비 없이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또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부모의 평가와 스스로의 존재인식에 의한 결과이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삶의 과업 수행으로 인한 성취의 경험도 보유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으며, 어떠한 존재적 가치도 키워나갈 수 없었다.

그러한 거북이와 남생이가 글공부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능하고 유용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를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된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거북이와 남생이에게 있어서 신체적 능력을 개발하고 신장시키며, 그와 관련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형제에게 글공부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그들 형제가 지닌 신체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는 정신의 영역에 관한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가기 위한 수행의 과정인 것이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들로서도 감당이 가능한 삶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관한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존재적 가능성을 찾아갈 방편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심각한 콤플렉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들에게, 정신영역의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 지닌 유용성은 더욱더 분명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거북이와 남생이는 생불성인의 확인을 통해 생금과 비견될 존재적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고, 글공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나가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이 지닌 가능성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만을 품은 불목하니에게 구박을 당함으로써, 형제는 다시 자기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빠진다.

불목이너머甚해서,
부체몰어기쭈더려주었다.
아이들말이, 우리울적에,
늑해生금이잇섯시니,
그것을견저가지라.¹⁰⁸⁾

귀한 아이들이니 잘 대우 하라는 생불성인의 말을 통해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들이 생각보다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생불성인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불목하니가 그에 대한 불만으로 아이들을 구박함으로써 아이들이 발견한 가능성은 다시금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찰의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불목하니에게조차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형제는, 자신들이 발견한 연못의 생금덩이를 불목하니에게 양보하기에 이른다. 앞서 말한 대로, 연못에 뜬 생금이 거북이와 남생이 형제의 존재적 가능성을 상징한다면, 불목하니의 구박으로 인해 그것을 양보하려 하는 형제의 모습은 자신들의 존재성을 긍정하기 시작했던 그들이 다시금 그 존재적 가능성을 의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불목하니에 대한 상징적인 이해도 가능하다. 존재적 가능성을 받

108) 앞의 책, 56면.

견한 거북이와 남생이가 그것을 자신의 존재적 가치로 확신하려 할 때, 그러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불목하니의 존재는 그들 자신의 콤플렉스의 형상일 수 있다. 금상사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발견한 생금을 그들 자신의 의혹으로 포기하였듯, 금상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존재적 가능성을 발견한 형제를 가로막는 불목하니의 형상은, 결정적인 인식 극복의 단계를 가로막는 내면의 콤플렉스가 거북이와 남생이를 억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 불목하니

실제 / 상징 = 억압적 관계 대상 / 콤플렉스의 형상

그러나 불목하니가 나가 확인한 생금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금구렁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에 거북이와 남생이는 연못의 생금을 재확인하기에 이른다.

三千중이나가보니,
生금이금구리되여서,
한닥지한을에붓고,
한닥지쌍에붓고,
아이들울더두들겨주었다.
아이들이나가서보니
亦是本來金이어늘,
그금을안고드러왔소야,
불전에안고드러오니,
절이움슬움슬춤을추야.
부체를鍍金하고, 절안을鍍金하니,¹⁰⁹⁾

다시 확인하게 된 ‘생금’은 다른 이들에게는 구렁이로 보일 뿐이었다. 거대하고 흉포한 구렁이의 형상이 하늘과 땅에 닿아있는 모습은,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그들의 내면세계를 파

109) 앞의 책, 56~57면.

괴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리라 본다. 불목하니의 눈, 콤플렉스에 가려진 눈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생금과 금구렁이의 형상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다.

○ 생금(生金)

거북이와 남생이 / 타인 = 생금 / 구렁이 = 존재성의 획득 / 존재성의 포기

이제 연못의 생금 덩어리가 오로지 자신들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거북이와 남생이는 그것을 품에 안고 절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절이 ‘움슬움슬 춤을 추면서’ 도금이 되고 생불성인 또한 금빛으로 빛나게 된다. 이로써 거북이와 남생이의 존재성에 대해 ‘생금탑을 쌓았다’라고 한 생불성인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결국 ‘C 금상사에서 삶’은 생금의 재발견과 획득이라는 사건을 핵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형제의 존재를 생금에 비유한 생불성인의 말도, 형제가 수행한 글공부의 과정도 형제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C의 서사는 ‘생금(生金)의 재발견과 획득’으로, 이를 형제의 콤플렉스 변화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존재적 가치의 확인’이라고 정리될 수 있겠다.

C' 생금(生金)의 재발견과 획득

C'' 존재적 가치의 확인

거북이와 남생이의 존재적 근원인 금상사의 밖에 놓여있던 생금이 형제의 손으로 금상사 안으로 옮겨짐으로써 절과 생불성인을 도금하였다는 서사는 의미심장하다. 본디 금상사 안에 있어야 할 생금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B 금상사로의 여정’에서부터 ‘C 금상사에서 삶’에 해당하는 서사를 거북이와 남생이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형제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이, 그들의 내면 공간을 상징하는 금상사 안에 놓이게 됨으로써, 다시 말해 그들이 직접

움직여가며 확인한 존재적 가치가 그들에게 내면화됨으로써, 그 내면이 금빛으로 빛나게 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상사 안쪽으로 생금 덩어리를 안고 들어왔을 때에야 생불성인을 만나게 되는 상황도 상징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형제가 금덩이를 안고 금상사를 들어왔을 때 비로소 생불성인이 도금되었다는 것은, 형제가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확신하고 자기화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생불성인의 존재도 빛을 발하게 됨을 말한다. 그렇다면 금상사의 안에 거하고 있는 생불성인의 존재 그 자체가 거북이와 남생이가 내면적으로 획득해야 할 완전한 존재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금상사(金祥寺)

외부의 세계 / 내면의 세계 = 존재적 근원 / 정신적 근원

○ 생금(生金)의 위치

금상사 밖 / 금상사 안 = 존재적 가치 불신 / 존재적 가치 확신

○ 생금(生金)

거북이와 남생이 / 타인 = 생금 / 구렁이 = 존재성의 획득 / 존재성의 포기

○ 생불성인(生佛聖人)

외부의 신성 존재 / 내면적으로 획득해야 할 완전한 존재상

따라서 ‘D 장애의 치유와 현실 복귀’ 순차에 이르러,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들이 획득해야 할 존재상과 대면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장애가 치유되는 상황도 상징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장애의 치유’라는 것을 실제로 눈을 뜨거나 등과 다리가 펴지는 기적과도 같은 치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거북이와 남생이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체적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 신체적 장애는 유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없는 상태로의 전환이다. 이는 실제적인

장애의 치유라기보다 장애에 대한 인식상의 극복이라고 봄이 옳겠다. 그들 형제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능유용의 존재’로서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지니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존재성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살게 되었다면,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빛을 비추었을 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야말로 ‘인간을 지도하는 생불성인’의 역할을 신체적 장애에 굴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를 극복한 거북이와 남생이는 인간세상으로 돌아가 여든한 살까지 장수하게 된다.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자신이 획득한 생불성인으로서의 존재상을 내보이며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장애에 구애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내보임으로써 신체적 장애의 문제에 대한 극복한 화신으로서, ‘E. 혼수성인으로서의 좌정’ 순차에 이르러 신직에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¹⁰⁾

따라서 D의 서사는 ‘생불성인과의 대면을 통한 완전한 존재상 획득’, 콤플렉스의 측면에서는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D' 생불성인(生佛聖人)과의 대면을 통한 완전한 존재상 획득

D"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이르게 되는 ‘E 혼수성인으로서의 좌정’ 순차는,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 자리매김’, 콤플렉스의 측면에서는 ‘콤플렉스의 극복’이라고 정리될 수 있겠다.

E'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 자리매김

110) 신호림은 거북이와 남생이의 신직 좌정이, 서사 내적 개연성 없이 제시되어 <숙영랑·앵연랑신가>가 타 지역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전승력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한다(신호림, 앞의 논문, 249~259면). 그러나 콤플렉스의 극복 과정으로서 거북이와 남생이의 서사를 재조명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서사가 그들이 좌정하게 된 신직에 연결될 개연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데석님 청배>나 <훈취곳>의 후반부 서사에서는 이러한 내적 개연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적어도 <숙영랑·앵연랑신가>의 서사는, 신화 서사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E" 콤플렉스의 극복

지금까지 거북이와 남생이가 금상사로의 여행을 결심한 이후로 부터의 서사를 핵심적인 국면들로 나누어 각 순차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다. 그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A' 존재성에 대한 의혹과 확인을 위한 여행 = A" 존재성 재확인 필요 인식

B' 여행의 방법 발견 및 생금의 발견 = B" 존재적 가치의 발견

C' 생금의 재발견과 획득 = C" 존재적 가치의 확인

D' 생불성인과의 대면을 통한 완전한 존재상 획득 = D"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

E'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 자리매김 = E" 콤플렉스의 극복

이 중 콤플렉스의 치유 과정을 의미하는 항목을 추려 그 순차를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제시될 수 있다.

A" 존재성 재확인 필요 인식

B" 존재적 가치의 발견

C" 존재적 가치의 확인

D"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

E" 콤플렉스의 극복

부모로부터 규정된 무능의 존재상을 자신의 존재상으로 수용함으로써, 거북이와 남생이는 존재유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에 A"의 단계에서, 형제는 자신들의 존재성이 과연 부모의 평가 그대로인지 ‘유능의 존재’로서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를 느낀다. 그로써 자신들의 존재적 근원, 혹은 정신적 근원인 금상사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된다.

B"의 단계를 통해 거북이와 남생이는 ‘유능의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각자가 가능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함께 금상사로의 여행, 혹은 존재적 가능성을 찾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수행할 방법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그러한 여행의 가운데,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형제는 그 생금을 포기하고 만다.

이제 C" 단계에 이르러 거북이와 남생이는 금상사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곧 그들의 내면 탐색이 정신적 근원에까지 접근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곳에는 형제를 생금의 가치에 비유하는 생불성인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그들의 존재적 가치를 의심케 하는 불목하니의 억압도 존재한다. 이때 불목하니의 존재는 그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콤플렉스의 형상에 대한 상징일 수 있다. 형제는 금상사에서 정신적인 수양을 계속해가며, 생불성인의 목소리와 불목하니의 억압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과 의혹 사이에서 번민하던 형제는 불목하니의 눈으로는 생금 덩어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콤플렉스로 가려진 눈이 아닌 온전한 성찰의 시각으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였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형제는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을, 그들의 존재적 근원이자 정신적 근원인 금상사의 안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금상사와 생불성인, 형제의 내면적 근원공간, 형제가 획득해야 할 완전한 존재상이 생금의 빛으로 빛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D" 단계에 이르러, 거북이와 남생이는 생불성인과 대면하게 되고, 완전한 존재상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그들이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것을 자기화함으로써 구애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곧 인간을 지도하는 생불성인의 모습인 것이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그러한 존재적 확신을 지니고 현실로 복귀하여 생을 영위함으로써, 그들은 E" 단계에 이르러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거북이 남생이의 콤플렉스가 완전히 극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시된 단계 중, 거북이 남생이의 콤플렉스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A"와 C"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A" 단계의 콤플렉스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전술한 바, 거북이·남생이의 자기 존재 인식이, 관계의 대상인 부모의 부정적 평가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러한 자기 존재 인식을 외부 세계에 내보임으로써 다시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악순환적 콤플렉스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콤플렉스의 악순환이 거북이·남생이로 하여금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거북이·남생이는 그 문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성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의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연쇄적 순환의 첫 고리가 끊어진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는 부모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첫 번째 자리에서 물러나고, 형제는 스스로의 존재성을 재평가할 준거를 찾을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기차치성을 받아 그들의 탄생을 점지한 금상사의 생불성인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존재성을 재확인 할 새로운 준거를 얻고자 한 것이다. 이때 그들을 무능 무용의 존재로 주저앉게 만들었던 자기 인식의 절대적 전제가 영향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형제는 미력하나마 그들로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생불성인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무능의 존재에서 유능의 존재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유능한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찾은 형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조금씩 확인해나간다. 그러한 확인의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형제는 결국 ‘생금’으로 상징되는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C" 단계에 이르러 생금의 존재적 가치를 확신하여 자기화 한다. A" 단계를 통해 끊어진 평가수용 연쇄의 첫 번째 고리로 인해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준거가 필요했던 거북이와 남생이는, 이제 생금과 같은 존재적 가치를 평가수용 연쇄의 첫 번째 고리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외부의 세계로 발현되는 형제의 존재성도 생금의 가치를 띠게 되고, 그로 인한 외부의 세계의 평가는 다시 형제에게로 수용되어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3.2. 관계적 결합의 문제 : <이공본풀이>

3.2.1. 할락궁이의 서사와 콤플렉스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큰굿의 체계에서 ‘초공맞이’에 이어지는 ‘이공맞이’ 혹은, ‘불도맞이’ 재차에 연행되는 서사무가로서, ‘주화관장신(呪花管

掌神)’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신화이다. 제주도 큰 곳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주요한 신화 텍스트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공본풀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서사적 계통을 탐색하는 연구, 구비서사시로서의 위상에 대한 연구, 여성학적 관점의 연구, 의례와 제차에 관한 종교학적·민속학적 연구, <이공본풀이>의 특징 화소라 할 수 있는 ‘주화(呪花)’에 관한 연구나, 친부탐색 화소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의 것이었다.¹¹¹⁾ 이처럼 풍성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이공본풀이>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구명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한국 신화의 주인공들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거친 행동 양상을 보이는 주인공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¹¹²⁾ 그에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 콤플렉스에 집중된 본고의 논의를 통해 그러한 아쉬움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공본풀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고, 그로

111) <이공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8, 서울대학교 국문학 연구회, 1968; 장주근, 「서사무가의 시원과 민속문예사상의 위치」, 『한국문화인류학』 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사재동, 『불교계국문소설의 형성과정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강정식, 「제주도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김대숙,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윤찬주,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이수자,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오대혁,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의 전승관계」, 『불교어문논집』 6, 한국불교어문학회, 2001;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정진희,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노영근,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 『어문학논총』 2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학회, 2010 등이 있다.

112)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자는 <이공본풀이> 서사에 나타난 주인공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를 콤플렉스의 측면에서 논의한 바 있다(참고, 「콤플렉스 극복 서사로서의 <이공본풀이> 연구」,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회, 257~286면). 그러나 당시의 논의는 할락궁이의 문제적 행위 양상을 심리학 상의 개념인 ‘파에톤 콤플렉스(Phaethon complex)’에 단순 대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서사적 측면에서의 콤플렉스 연구’라는 위상에 크게 미흡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다만 당시의 고민이 본 연구를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인해 채록된 이본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음은 확인된 이본의 목록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3-1. <이공본풀이> 이본 목록

번호	자료	구연자	출전 및 기타 사항
1	이공본푸리	박봉춘	『조선 무속의 연구』 상, (적송지성·추엽음, 1937)
2	이공본풀이	현금순	『제주도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강정식, 1987)
3	이공본	조흥대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4	이공본	고산용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5	이공본풀이	한생소	『제주도 큰곳 자료』, (1994)
6	이공본	미상	『풍속무음』, (현용준, 1994)
7	이공본풀이	이승순	『제주도무속신화』, (문무병, 1998)
8	이공본풀이	이중춘, 김윤수	『한국음악』 31, (강정식, 2000)
9	이공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2001)
10	이공본풀이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현용준, 1980)
11	이공본풀이	이용옥	『이용옥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2009)

본고의 논의는 목록에 제시된 자료 중 안사인본 <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의 이본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안사인본 <이공본풀이>는 다른 이본 자료에 나타난 화소를 두루 포괄하면서도, 서사의 진행과 내용의 제시가 명료하다는 이점이 있다.¹¹³⁾ 또한 본고의 주요 관심 사항인 주인공 할락궁이의 심리적 갈등의 양상, 그에 따른 문제적 행동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고의 논의를 위한 중심 자료로써 손색이 없다고 보인다. 우선 안사인본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간략하게 제시한다.¹¹⁴⁾

113) 이와 관련하여 안사인본 <이공본풀이>가 조사자와 구연자에 의해 다듬어진 흔적이 보이므로 주요 자료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구연자 안사인은 1959~1967년間に 현용준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사무가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출간에 큰 힘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한 의욕적인 작업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사와 표현들이 다듬어졌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구연자 안사인은 당시 제주도의 ‘큰심방’으로서 충분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가 계승하여 다듬은 <이공본풀이> 역시 충분한 공신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여타의 이본에 비해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영똥한 서사가 덧붙이지 않고 과도한 표현은 자제한 경향이 있어 논의를 풀어나가는 주요 자료로 삼을만하다.

- (1) 김진국과 임진국이 기자 치성을 통해 원강도령과 원강아미를 낳고 구덕혼사로 배필을 맺는다.
- (2) 원강도령과 원강아미가 혼인하여 나이 20에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이때 원강도령이 서천꽃밭에 꽃감관 벼슬을 살러 가게 된다.
- (3) 부부가 서천꽃밭으로 가던 중에 원강아미가 발병이 나서 함께 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을 자현장자의 집에 중으로 팔고 떠나라 한다.
- (4) 원강도령이 원강아미를 장자 집에 팔고 떠나며,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본메(증표)를 남긴 채 떠난다.
- (5) 남겨진 원강아미는 장자의 동침 요구를 거절해가며 할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 (6) 장자에게 갖은 시련을 당하며 자라던 할락궁이는, 어머니 원강아미를 위협하여 아버지인 원강도령의 소재를 알아낸 후 서천꽃밭으로 떠난다.
- (7) 자현장자가 자신이 기르던 개 천년둥이를 보내 쫓게 하지만, 할락궁이는 원강아미가 싸준 메밀범벅으로 장자의 개를 따돌린다.
- (8) 길을 가던 할락궁이는 무릎까지 잠기는 물, 등까지 잠기는 물, 목까지 잠기는 물을 지나 서천꽃밭에 이른다.
- (9)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나무 위에 올라간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에 물을 대는 연못에 자신의 피를 떨어뜨리고, 이에 부정을 탄 연못이 마르는 기사(奇事)가 일어난다.
- (10) 연못의 변고에 놀라 찾아온 원강도령이 정체를 묻자, 할락궁이는 자신이 아들임을 밝힌 후 증표를 내어 인정받는다.
- (11) 원강도령이 할락궁이에게 물을 세 번 건너왔느냐 묻고, 그것이 원강아미가 장자로부터 재차 삼차의 위협을 견뎌가며 죽어간 상징임을 설명한다.
- (12) 할락궁이가 원강도령으로부터 수레멸망약심꽃과 도환생꽃을 얻어 장자일가를 몰살하고 어머니를 되살린다.
- (13) 원강아미와 할락궁이 모자가 서천꽃밭으로 들어간다.

제시된 바와 같이 <이공본풀이>의 서사는, 악독한 자현장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할락궁이가 자현장자의 집을 벗어나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찾아감으로써, 꽃밭에서 얻은 주화(呪花)의 힘으로 자현장자에게 복수하고 그의 손에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천꽃밭의 꽃감관이라는 신직에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할락궁이의 서사에는 그 서사를 접하는 이들을 불편하게

114) 현용준, 앞의 책, 123~131면.

만드는 장면들이 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고문을 자행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은, 필자 본인의 경우에도 그러했지만, 그 장면을 접하는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심리를 유발한다. 콩을 볶던 뜨거운 가마솥에 어머니의 손을 넣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아랑곳없이 그 손을 누르며 아버지의 행방을 토설하게 하는 광기(狂氣)에 가까운 그 모습에 섬찟함마저 느끼게 된다.

또한 복수를 위해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수레멸망약심꽃으로 장자 일가를 몰살시키는 할락궁이의 모습은 신화적 상징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면이 있다. 어머니를 죽인 직접적인 원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현장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일가권속(一家眷屬)을 말 그대로 멸족을 시키는 그의 모습에서 과도한 분노와 복수심에 젖어 있는 할락궁이의 형상을 그리게 된다.

그러한 장면들에서 엿볼 수 있는 할락궁이의 과도한 잔인성과 공격성은, 그의 무의식에 착종된 콤플렉스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그의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공본풀이>의 주인공 할락궁이는 ‘친부의 부재’라는 관계적 결핍의 상황에 놓인 인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공본풀이>의 서사는 그러한 결핍의 상황으로부터 추동된 할락궁이의 행보를 통해 전개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 드러나는 할락궁이의 공격성·잔인성의 문제는, ‘친부의 부재’라는 관계적 결핍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한 부정적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인식이 구조화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할락궁이가 태어나 인식한 자신의 현실은 자현장자의 노비로 있는 홀어머니 슬하의 삶이다. 한 마디로 ‘아비 없는 노비의 자식’으로서의 결핍된 현실이 그가 인식한 자신의 현실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의 현실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의 경험을 누적시켜야 했던 할락궁이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부재’라는 부정적 현실의 원인을 통해 자신의 현실적 괴로움을 위로받을 방법을 찾게 된다. 바로 비어있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상적 아버지에 대한 환상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있기에 부정적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으나, 반면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기에 자신의 존재적 근원인 아버지의 존재를 이상적 환상으로 채워 넣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할락궁이는 그 내면에 착종된 부정적 자기 인식에 대하여, 그에 대한 거부의 반응으로써 ‘사실 나는 이처럼 비천한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존재의 아들인지 모른다’라는 환상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재하는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 결부된 이상적 자기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할락궁이는 이상적 자기상을 증명하기 위한 인정투쟁에 고착된다. 이상적 자기상의 증명에 집착하게 된 할락궁이에게 있어서, 이상적 자기상의 획득에 장애가 되는 현실은 거부감과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할락궁이는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상기시키는 자현장자의 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된다. 또한 부정적 자기 존재성을 환기시키는 어머니의 존재도, 할락궁이에게는 배제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때 ‘배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외면하고 피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할락궁이에게 있어서 이상적 자기상의 증명을 방해하는 어머니의 존재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존재 증명의 장애물으로써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까지 이른다. 장자의 집을 떠나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뜨거운 솥에 지지는 할락궁이의 형상은, 그와 같은 할락궁이의 콤플렉스가 작용한 결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할락궁이의 서사에 드러나는 콤플렉스의 양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공본풀이>의 구송에 이어지는 ‘이공맞이’ 제차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단에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이공맞이’ 제차는 제의 참가자들의 ‘전상’을 몰아내는 의미를 지닌다.¹¹⁵⁾ 현용준에 따르면, ‘이공맞이’에서 내몰고자 하는 ‘전상’이란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그러한 일을 하는 마음. 즉 갑자기 평상시와 달리 음주, 도박, 절도 등 나쁜 일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그러한 마음.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신을 말하기도 함.”이라고 설명된

115) 요계 다 전상이라고나. 요 전상이 이간주당(此家內住堂)에 들인 열두품문 주었고나. 요 전상을 내놀리자. 전상머리 내놀리자. 머리아피(頭痛) 전상머리 내놀리자. [신갈접하고, 고리동반을 풀어] 썩어나라! 썩어나라!, 현용준, 안사인본 <이공맞이>, 『제주도무속자료사건』, 신구문화사, 1980, 190면.

다.¹¹⁶⁾ <이공본풀이>의 구송을 통해 이공신인 할락궁이의 힘을 빌어 ‘이공맞이’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 전상, 즉 ‘비정상적인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한 전상을 할락궁이가 몰아낼 수 있는 근거는, 할락궁이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마음 상태를 몸소 극복해낸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 중에서는 <이공본풀이>의 서사와 제차의 상관성이 미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¹¹⁷⁾ 이는 할락궁이의 서사가 스스로의 ‘전상’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식적인 통제하에 놓여있는 정상적인 심리와 대비하여, 의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콤플렉스는 비정상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상’의 극복, 즉 콤플렉스의 극복에 대한 서사로서 할락궁이의 서사를 이해하였을 때, 서사와 제의의 상관성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이공본풀이>의 서사, 관계적 결합의 상황을 해결하고 신성을 획득해나가는 할락궁이의 서사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할락궁이의 내면에서 심리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밝히고, 그러한 콤플렉스의 구조가 서사의 흐름과 할락궁이의 행보에 따라 변화해 가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관계적 결합의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에 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3.2.2.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구조 분석

- 관계적 결핍에 따른 좌절과 이상적 관계에 대한 환상

<이공본풀이>의 서사에서 할락궁이가 겪게 되는 관계적 결합의 문제는 서사단락 (5)~(6), 원강아미와 함께 장자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과정에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아버지가 없는 노비의 소생으로서 겪게 되는 멸

116) 앞의 책, 192면.

117) “이공본풀이는 실제 굿의 기능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 경우 이공본풀이는 의례로서보다는 풍부한 내용의 사실을 중시하는 문학적인 흥미를 맛보기 위해서 모인다고 할 수 있다.”, 신연우, 앞의 논문, 237면.

시와 위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할락궁이의 대응을 통하여 그의 심리적 갈등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할락궁이의 심리적 갈등을 콤플렉스의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심리적 문제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콤플렉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할락궁이를 추동하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서 콤플렉스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것은 ‘친부의 부재상황’이다. 어머니 원강아미를 위협하여 아버지인 원강도령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를 찾아 떠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할락궁이 서사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부의 부재가 할락궁이를 추동하는 심리적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친부의 부재라는 관계적 결함의 상황에 대한 할락궁이의 의식적·무의식적 상황인식이 할락궁이의 행위로 이어지는 맥락을 추적함으로써 그 콤플렉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할락궁이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의 전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할락궁이의 부모인 원강도령과 원강아미는, 부모들의 ‘구덕혼사’에 의해 정당하게 짝지어진 부부이다. 이렇게 맺어진 부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강아미가 할락궁이를 잉태한 상태로 부부가 서천꽃밭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원강아미가 유태(有胎)를 가져 아기는 태독ᄃᄂ 뵈 뵈 때 서천꽃밭(西天花田) 꽃감관(花監官)으로 살레가게 뵈여간다. 원강아미 원강도령이 서천꽃밭으로 올라갈 때 원강아미는 아기는 태독ᄃᄂ 베여놓고 밭은 콩ᄃᄂ실ᄃᄂ 불물어져, 밭에 발병(足病)이 난 걸을 수가 엇었고나. 가당 날이 정글민 인간처(人間處)가 엇어지고 어욱 폐기 쪼뽀에 어욱폐기 으지 삼양 그날 밤을 새여가명 가는 것이 흐를날(一日)은 정글아지고, 몸은 고단아여 걸을 수 엇어지니 밤유예홀 디가 엇어 췍제낭 가질 으지(依支)삼고 그날 밤을 새여가는 지, 천왕독(天皇鷄)이 목들르고 지왕독(地皇鷄)이 목을 들러가난, 원강아미 말을 흐뵈,

『저 독은 어디서 우는 득이리까?』

원강도령이 말을 흐뵈,

『저 독은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년들어 만년장제 칩(萬年長者家) 독 우는 소리가 뵈다』

『남인(男人)남아 남인남아, 난 이제 더 걸을 수가 엇이메 저 독 소리 나는 장제칩(長者家)이 강 날 풀아 뵈 가기 어찌흐네까?』¹¹⁸⁾

두 사람이 가는 길은, 세속의 현실을 벗어난 신성공간으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 원강도령과의 동행을 감행하던 원강아미는 발이 콩구슬 같이 부어올라 걸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른다. 결국 원강아미는 여정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단 내리고, 남편에게 자신을 자현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아 달라 부탁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결정의 순간으로부터 원강도령과 원강아미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원강도령의 길이 신성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상(理想)’의 길이라면, 원강아미의 길은 태중의 아이와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現實)’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원강아미가 이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현실의 삶을 택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나약함을 문제시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였다면 신성한 공간으로 진입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의 존재적 변모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이후로 원강아미가 ‘중’이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하여 자현장자의 집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도 스스로의 나약함이 가져온 결과로 이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강도령과 원강아미의 엇갈림과 이별은, ‘원강도령/원강아미 = 이상/현실, 떠남/남겨짐, 초월(超越)/전락(轉落), 자기실현/포기’의 대립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원강아미의 선택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그려지는 원강아미의 형상은, 전반적으로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성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이고 강한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⁹⁾ 안사인본 <이공본풀이>에는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나, 이용옥본 <이공본풀이>를 참고하면 가난한 원강도령(사라도령)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의지를 꺾고 혼인을 감행하는 원강아미의 모습이 그려진다.¹²⁰⁾ 현실적인 조건에

118) 현용준, 앞의 책, 123~124면.

119) 강정식, 앞의 논문, 287면; 신연우, 앞의 논문, 240면.

120) 사라도령
중진을 오나
대번칙이 대답하여 간다.

아랑곳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내는 강하고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절대적 강자로서 동침을 요구하는 자현장자의 손길을 지혜롭게 피해나가는 과정도 나약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¹²¹⁾ 그렇다면 원강아미가 ‘현실(現實)’을 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중의 아이를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모색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²⁾

그렇다면 이상 세계의 삶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상을 내려놓고 비천한 존재로서의 삶을 선택한 원강아미의 행위는, 가족을 내버려두고서 이상을 쫓아가버린 원강도령의 선택보다 오히려 숭고한 면이 있는 것이다.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서천꽃밭으로의 여정을 감행하였다면, 원강아미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복중 아이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원강아미’에게 있어서 ‘이상’의 길은 자기 자신과 태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현실’은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동적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장성시켜 아버지에게로 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머무른’ 것으로 이해해야

“아이구 애야 그 집이 가난허곡 서난허곡~, 영 현 집이 강 어떻 살티?” “아버지야 그동안, 아버지 곁은 말을 잊습데가? 법당(法堂)에 간 수록 드려 오명, 무시거엔 곁습데가? 구덕헌서헌 건 누겼네까?”

잘 살아도 나 팔저(八字)고

못 살아도 나 복력(福力)이난

“나~, 사라도령안티, 시집 가오리다에-.”

“어서 걸랑 기영 허라.”,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170~171면.

121) 그날 처낙부떠 초이경(初二更)이 당헌난 제인장제가 원강암이신디 「몸허락을 허라」 허여 간다. 『이 고을 풍습(風習)은 어찌하나 모르웨 우리 믈을 풍습은 벤 아기가 나사 몸허락을 허는 법입네다.』

『어서 걸랑 그리 허자.』

벤 아기가 나고 보니....(중략)....그날 밤부떠 제인들어 제인장젠 몸허락을 허라 하니,

『이 고을 풍습(風習)은 어찌하나 모르웨 우리 믈을 풍습은 나은 아기 열다섯 십오세가 웨여사 몸허락을 허는 법입네다.』

『어서걸랑 그리 허자.』, 현용준, 앞의 책, 126면.

122) 이상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이상을 택하는 것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문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이상보다는 현실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그 대다수의 삶을 모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정열의 부족이나 인내심의 부족,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이유 등, 현실을 택하는 많은 경우가 적당한 ‘타협’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숭고한 ‘희생’인 경우도 있다.

할 것이다. 자현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는 ‘전략’도,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존전략’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눈앞에 놓인 이상 세계로의 길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실현의 ‘포기’가 아닌 숭고한 ‘희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원강아미가 서천꽃밭으로의 여정을 포기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대립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원강도령과 원강아미의 대립

이상 / 현실 = 떠남 / 남겨짐,
초월 / 전략,
자기실현 / 포기

○ 원강아미의 내면 대립

이상 / 현실 = 죽음 / 삶,
떠남 / 머무름,
초월 / 생존
자기실현 / 자기희생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할락궁이는 자현장자의 집에서 ‘아비 없는 노비의 자식’이라는 위치로 태어난다. 원강아미가 선택한 현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든, 할락궁이가 태어나 자라며 인지하게 된 현실이란, ‘자현장자의 집’이라는 세계 속에서의 자기 삶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상전의 폭압에 노출된 ‘비천함’,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관계적 결함’의 삶이었다. 이때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결국은 아버지 원강도령의 부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비천함’은 ‘관계적 결함’에 종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괴로움에 못 이겨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다음의 장면에서, 할락궁이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비천함’ 보다는 ‘관계적 결함’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락궁이가 열다섯 나는 혜연 어머님 보고 말을 하듯,
『어머님아 어머님아,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갔오리까?』
『제인장제가 너의 아버지가 돼버린다.』¹²³⁾

아버지의 존재를 묻는 할락궁이에게 원강아미는 “자현장자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대답하지만, 할락궁이는 믿지 않는다. 원강아미의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할락궁이가 자신의 곁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말한 것이겠으나, 이미 할락궁이는 ‘자현장자는 아버지일 리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한 판단의 과정은 이용옥본에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라면 이렇게 괴롭힐 리가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흐를날은 비가 축축하게 오곡
심신허난, 혼자만 이리 생각 저리 생각허난 게므로 우리 아방인덜, 날 영 뉘 벌역을 시
기리야¹²⁴⁾

정리하자면, 원강아미가 할락궁이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선택한 ‘현실’은, 할락궁이가 인식한 결핍의 ‘현실’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 현실(現實)에 대한 인식

원강아미 / 할락궁이 = 안전한 출산과 양육 / 결핍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의 자리에 상전이 놓인 상황에서, 친부의 애정과 지지 대신 상전의 증오와 억압을 받아야 했던 할락궁이는, 장자의 괴롭힘이 더해갈수록 자신에게 결핍된 아버지의 존재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할락궁이에게 ‘아버지의 부재’라는 관계적 결핍의 문제는, 할락궁이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초래한 원인으로 인식되는 동

123) 현용준, 앞의 책, 126면.
124) 허남춘 외, 앞의 책, 178면.

시에, 그러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 아버지의 부재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 /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가능성

부모의 존재가 자녀의 존재적 근원을 상징한다고 할 때, ‘아버지의 부재’라는 관계의 결핍은 할락궁이에게 ‘존재적 결핍’으로 인식될 수 있다. 부재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관계 대상으로 어머니의 존재가 있으나, 할락궁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자리에 위치한 원강아미는 자현장자의 종으로서 할락궁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확인해주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비어 있는 아버지의 자리는 상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 자리가 비어있기에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존재상을 얼마든지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S. Freud)의 ‘가족 로맨스(family romance)’에 따르면,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아이는 자신이 입양아이거나 의붓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부모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일 것이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던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그들이 지닌 어떠한 흠결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무의식적 심리 작용에 의한다.¹²⁵⁾ 아들러(A. Adler) 또한 그러한 아동의 심리에 주목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자라지 못하거나 현실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아이들은, 자신의 친부모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어느 날 자신의 진짜 부모, 높은 지위와 명성을 지닌 진짜 부모가 나타나 자신을 데려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²⁶⁾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환상의 아버지를 채워 넣을 자리가 이미 비어있으므로, 이상적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더욱 쉽게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상적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그의 존재적 결핍으로 인한 억눌림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125) S. Freud, Der Familienroman der Neurotiker, 1909; S. Freud,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1997, 197~202면에서 재인용.
126) 알프레드 아들러, 라영균 역, 『인간이해』, 일빛, 63면.

더 큰 심리적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부모와의 관계적 결함을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환상으로 채우려 하는 아이는, 이상화된 부모의 존재성을 그 자신의 존재로 증명하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 결국 모든 아이들 보다 우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성과를 보이기 위해 조바심을 낸다. 그리고 그러한 조바심은 과도하게 예민한 성격, 공격적인 성격으로 발현된다. 끝없이 자신에게 과도한 과업을 부여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인정투쟁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¹²⁷⁾ 문제는 이상적 부모의 존재가 '실제'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환상'이라는 점에 있다. 실상으로 한정되지 못하는 환상의 경계는 무한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존재로 이상적 부모에 대한 환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증명의 노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할락궁이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원강아미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묻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나타낸다. 부정적인 현실 속에 부재하고 있는 아버지가 이상적인 존재이기를 갈망하며, 그 존재성을 자신의 존재성과 동일시함으로써 현실에서 확보되기 어려운 자존감을 혈통에 기대어 얻으려는 맥락이다. 그리하기에 부재함으로써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이상적 자기상의 모델로서 추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서사 전반에 걸친 여러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들을 엿볼 수 있다.

○ 아버지의 존재

부재 / 환상 = 결핍된 존재성 / 이상적 자기상,
원망 / 추구

다음은 박봉춘본 <이공본푸리>에서 할락궁이가 장자로부터 받게 되는 억압이 '과업'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127) J. 모리스 저, 박웅희 역, 『콤플렉스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성바오로출판사, 1997, 160~161면.

장자가더쾌롭게하겠다하야, 좁씨한섬을주며
깊은산중에남을베여서밭을멘들고
하를에다뿌리라하니
깊은산중에서남을베고밭을멘들더니
대뚝이와서, 나무를끈코밭을가라주니
씨를뿌리고도라와서, 장자의게말한즉
장자말이오날은고초일이라잘못뿌렸스니
좁씨를다시주서오라하니
할락궁이가조밭에가서보니
계엄의떼가모여드러, 한곳에모여두었스니
깎버하야갓고오니, 장자말이
좁씨를세여본즉, 좁씨한방울이부족하니
다시가서찾어오라하니
장삼계엄이가물고왓스니, 갓고가서드리고¹²⁸⁾

제시된 부분은 자현장자로부터 '나무 오십 바리 하기', '새끼 오십 동 꼬기'라는 과중한 과업을 받은 할락궁이가 이를 수월하게 해낸 후에, 장자의 심술이 더해져 더욱 과중한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현장자는 할락궁이 모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애초에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과업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할락궁이가 탁월한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내자, 점점 더 어려운 과업을 부여함으로써 할락궁이를 괴롭힌다. 그럼에도 할락궁이는 조력자(돼지, 개미)의 도움을 통해 그 모든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신화의 주인공들에게 불가능한 과업이 부여되고, 그러한 과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화소는 흔히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소는 신화의 주인공이 지닌 자질을 보여주기 위해 안배되는 신화적 장치로써 이해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에 집중하였을 때엔 다른 맥락으로의 이해도 가능하다.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 부여되어도 기어코 해내고 마는 집착적 인정투쟁의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용된 내용을 보면, 장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반항이나 절망의 과정 없이, 주어진 임무에 당연하다는 듯 착수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28) 적송지성·추엽옹,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91(1937년 초판), 262면.

관계적 결함으로 인한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채워 넣고, 그 존재성을 자신의 성과로 증명하고자 하는 심리적 작용이 인정투쟁의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현장자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가능하다. 할락궁이의 콤플렉스가, 스스로에게 과도한 과업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통해 존재성을 증명 받고자 하는 행동방식을 유도한다면, 자현장자의 존재는 실제의 인물로서 할락궁이의 억압적 관계대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할락궁이가 스스로를 과도한 인정투쟁으로 몰아가도록 하는 콤플렉스의 형상 그 자체로도 이해 가능하다.

○ 과업 수행

억압에 대한 대응 / 인정투쟁

○ 자현장자

실제의 인물 / 내면의 형상 = 억압적 관계대상 / 콤플렉스

아버지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겁박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에서는, 이상적 아버지의 존재에 집착하는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흐를날은 그랑비가 슬슬 노리는 날,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나 한뼘 보까줍서.”
 (중략)
 “어머님아 어머님아 저 올래에 누게 오란 불림수다. 어서 나고 오라 봅서.”
 저 올래에 나고 보니 아무도 엇어지고, 할락궁이는 콩 짓단 배수기를 정짓방석 알레레
 곱져두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콩이 문딱 캄시메 흔저 짓입서.”
 배수기를 못 좇안 이레저레 허여가난,
 “아이고 어머님, 콩이 문딱 캄수게 손으로라도 흔저 짓입서.”
 손으로 짓젠 흐난 할락궁이가 어멍 손을 꼭 누르뜨멍,
 “어머님아 어머님아, 이제도 바른 말 못흐쿠가? 우리 아버지 간 딜 곶아줍서.” 129)

129) 현용준, 앞의 책, 111~112면.

제시된 인용의 내용은, ‘효행서사시(孝行敍事詩)’¹³⁰⁾로 정의되기도 하는 <이공본풀이>의 한 장면으로서는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으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강렬한 욕망, 신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결단력 등으로 이해하고자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문을 자행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은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한 할락궁이의 조바심이 공격적 행동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이해 가능하다. ‘친부의 부재’라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상세계의 아버지를 찾는 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할락궁이의 모습, 이상적 아버지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꽤론에 가까운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원강아미는 할락궁이의 안전을 위해 아버지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하지만, 할락궁이는 그러한 어머니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다. 앞서 말한 바 원강아미의 현실인식과 할락궁이의 현실인식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실(現實)에 대한 인식

원강아미 / 할락궁이 = 안전한 양육의 공간 / 존재적 결핍의 공간

결국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세계 속의 아버지를 통한 존재성의 증명에 집착하게 되면서, 할락궁이는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할 위험을 안게 된다. 이상적 아버지상에 대한 환상으로, 그에 걸맞은 이상적 자기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무모한 도전과 성취욕이 현실적인 자기 존재를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손 노라. 곶아 주마”

13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101~102면.

손을 노난, 어머니가 말을 하듯,
 “너의 아버지는 서천꽃밭 꽃감관 꽃생인이 돼여진다.”
 “어머님아, 계건 내 아버질 찾아가커메 어머니가 죽는 혼이 셔도 나 간 덜 이르지 맙
 셔.” 131)

제시된 내용을 보면, 할락궁이는 자신이 떠남으로 인해 원강아미가 죽음을 맞게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¹³²⁾ 그러나 “어머니가 죽더라도 내 간 곳을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비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신화적 맥락으로 이해하면, 현실의 여러 제약을 무릅쓰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¹³³⁾ 그러나 이를 콤플렉스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맥락은 달라진다. 이상세계의 아버지로 표상되는 이상적 자기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어머니로 표상되는 현실적 삶의 기반을 완전히 배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 할락궁이의 내면

어머니 / 아버지 = 현실 / 이상 = 존재적 결핍 / 존재의 증명 = 배제 / 추구

지금까지 원강아미와 원강도령의 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부터 할락궁이가 심리적 문제로 인해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결과 문제의 시종에 놓인 핵심적 대립구조가 ‘이상/현실’의 대립임을 알 수 있다.

131) 현용준, 앞의 책, 112면.

132) 이러한 견해와 맞닿는 견해로서, 장자의 가족을 몰살시킨 할락궁이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눈에 띈다(정진희, 앞의 논문, 8~9면). “이러한 집단 학살이 왜 일어나야 했던가?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위해 복수를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는 ‘효행’의 관점에서 이해한 기존의 해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살이 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라면 그 복수의 칼끝은 할락궁이 자신을 향해서도 겨누어져야 한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뜨거운 철판에 지지는 불효를 저질렀고, 부친탐색의 길을 떠나면서 차마 죽을지언정 장자에게 자신이 간 곳을 이르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명령’하여 죽음의 동기를 제공한 할락궁이가 아닌가?”

133) “하늘의 선택을 받아 신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길은 더더지고 마침내 주저앉게 된다. 포기하고 나아 비로소 길이 열린다.”,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4, 127면.

○ 핵심 대립구조

이상 / 현실 = 이상적 아버지 / 아버지의 부재,
 이상적 자기상 / 결핍된 존재성,
 아버지 / 어머니,
 집착 / 배제

이와 같은 ‘이상/현실’의 대립을 통하여 할락궁이의 콤플렉스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자현장자의 집이라는 현실의 세계에 놓인 할락궁이는 ‘외부의 세계-나’의 축에서 자현장자의 억압으로 인해 스스로의 존재적 결핍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관계의 대상-나’의 축이 내포한 ‘아버지의 부재’라는 관계적 결핍에 의한 것이었다. ‘관계의 대상-나’의 축에 실존하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는 자현장자의 종으로써 자신의 결핍된 존재성을 부각시킬 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 그러한 판단으로 할락궁이는 아버지가 부재하고 있는 관계 대상의 자리에 ‘이상적 아버지’라는 가상의 관계를 대치한다. 이는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을 통해 존재적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작용이다. 가상의 관계가 새로이 설정됨으로써, 그러한 가상의 관계를 축으로 할락궁이의 자기인식의 근거로 작용하는 ‘나-나’, ‘관계의 대상-나’, ‘외부의 세계-나’의 이상적 관계 축이 배치되게 된다. 문제는 이상적 관계 축에서의 ‘나’와 현실적 관계 축에서의 ‘나’가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러한 갈등의 상황에 놓인 ‘나’가 자신의 결핍을 자극하는 현실의 관계 축을 부정하고, 이상적 관계 축을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나’의 현실적 삶의 기반이 파괴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가상으로 설정된 ‘이상적 아버지’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한 인정투쟁일 뿐이다. 따라서 이상적 아버지가 환상으로 존재하는 한, ‘나’의 인정투쟁도 끝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의 세계가 ‘나’의 존재적 결핍을 자극할수록 ‘나’는 이상적 아버지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나’의 존재 증명에 장애가 되는 현실의 상황은 분노를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이상적 아버지의 존재성을 ‘나’의 존재성으로 증명하는 것에 방

해되는 ‘현실’ 그 자체를 배제하고, ‘나’의 존재성을 증명해 줄 ‘이상’, 이상적 아버지와 그에 연원하는 이상적 자기상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행동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3.2.3.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주어진 관계가 지닌 절대적 가치의 발견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할락궁이는 동경하던 아버지의 이상 세계에 도달하여 아버지의 존재성을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한다. 할락궁이가 아버지와 조우하여 얻게 된 힘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주화(呪花)의 힘이였다.¹³⁴⁾ 그것은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자기상에 부합하는 권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쥐어진 초월적인 주화의 힘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할락궁이는 꽃의 힘으로 자현장자의 온 가족을 미친 듯이 웃게 하고, 비탄에 빠뜨리기도 하며, 결국은 서로에 대한 미칠 듯한 증오로 상잔하도록 한다.

아버님 이르는 냥 악십꽃광 환생꽃을 아전 장제칩일 오라시난 죽일팔로 둘러가니 할락궁이 말을 하네,

“제가 죽는 건 소원이 었이나 삼당 웨당이나 다 불러다 주옵소서. 현실 말이 있으리다.”

“어서 결랑 그리하라.”

삼당 웨당 다 못아드니 웃음웃을 꽃을 노았더니 환천 웃음 벌어진다. 싸움꽃을 노았더니 싸움으로 벌어진다. 땀망꽃을 노았더니 삼당 웨당이 다 죽어간다.¹³⁵⁾

이는 할락궁이 본인에게는 통쾌한 복수의 과정일지 몰라도 그 힘의 작

134) 서천꽃밭이나 그 속에 핀 주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지만, 선학들의 견해들을 종합하였을 때, 적어도 서천꽃밭의 꽃이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사의 다양한 감정과 국면들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135) 현용준, 앞의 책, 114면.

용은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자의 손에 죽음을 맞은 어머니를 꽃의 힘으로 살려낸다. 이는 할락궁이의 힘이 축복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할락궁이가 얻게 된 주화의 힘은 사용하기에 따라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양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주화(呪花)의 힘

파괴 / 회복 = 죽음 / 생명 = 양날의 검

그가 얻은 힘이 이처럼 양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콤플렉스일 수는 있으나, 콤플렉스에 의해 추동된 자기 발전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매우 위태로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할락궁이의 경우에, 그가 자현장자의 집을 떠나온 방식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떠남 그 자체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가 언제까지고 자현장자 아래 머물렀다면, 결국은 아무런 가능성도 실현하지 못한 채 결핍의 삶을 이어가다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장자의 집을 떠나움으로써 그는 신성을 얻고 그의 콤플렉스를 극복할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레몽제(Lucille Iremonger)는 어린 시절에 애정 결핍을 겪은 아이들이 그때 촉발된 욕망을 바탕으로 성공의 절정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끊임없는 이상적 자기상의 획득 노력과 강박을 통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이다.¹³⁶⁾ 그러나 콤플렉스의 발현을 통해 성공의 절정에 도달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삶에서 여러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의 심리적 문제가 더 큰 사회적 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¹³⁷⁾

이처럼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136) J. 모러스, 앞의 책, 161면.

137) 독일의 히틀러,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곽금주, 『마음에 박힌 못 하나』, 쌤앤파커스, 2014, 194~198면).

자칫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상적 아버지를 통해 이상적 자기상을 실현하는 것에 집착했던 할락궁이의 경우에도, 자기 현실을 배제한 무리한 이상의 추구가 자기 파괴적 행동양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는 것이다. 이는 할락궁이가 얻게 된 주화의 힘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매우 위태로운 힘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할락궁이는 그토록 위태로운 힘을 얻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그 힘을 사용함으로써 신성을 획득하는 결말에 이른다. 이러한 할락궁이의 성공은 그의 콤플렉스가 성공적으로 극복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현장자의 집을 떠난 할락궁이의 여정을 통하여 그의 콤플렉스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를 추동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계적 결함의 문제에 대한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에 유의미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현장자의 집을 떠난 이후로 전개되는 할락궁이의 서사는 다음과 같은 순차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A 서천꽃밭을 향한 고난의 여정
- B 서천꽃밭에의 진입과 아버지와의 조우
- C 어머니의 죽음 확인
- D 자현장자에 대한 복수와 어머니 재생

제시된 순차에 따라 각 서사 분석을 통해 각 서사가 지닌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할락궁이가 지닌 콤플렉스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밝혀보도록 한다.

‘A 서천꽃밭을 향한 고난의 여정’에 대한 서사는 서사단락(7)~(8)에 걸쳐 제시된다. 할락궁이가 떠난 것을 알게 된 자현장자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보내어 할락궁이를 뒤쫓게 하는데, 그 내용은 조흔대본 <이공본>에 상세히 드러난다.

“천리통아,
신산만산 한락동일 강

물엿 오라 죽여볼게.”
천리통은 한락동이 조름에
조차가단, 한락동인 떡을 아산 네끼명,
“떡이나 먹으라.”
천리통은 그 촌떡을 먹어놓난
물그리완, 물먹으레 가분 새엔
한락동인 그딜 넘겨가난,
천리통은 그대로 집이 돌아오란¹³⁸⁾

위의 인용은 장자가 보낸 천리둥이의 추격을 할락궁이가 어떻게 따돌리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천리둥이가 뒤까지 바짝 추격해오자 할락궁이는 원강아미가 만들어준 떡을 던져준다. 던져준 떡은 특별히 소금을 많이 넣어 만든 것으로서, 집어먹은 천리둥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이에 할락궁이는 추격을 피한다. 이후로 장자는 다시 만리둥이를 보내어 할락궁이를 잡아오도록 하지만,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개에게 던져준 ‘떡’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자현장자의 집을 나서기 전, 할락궁이는 원강아미에게 ‘생가루 다섯 되에 소금 다섯 되를 넣어’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¹³⁹⁾ 특별히 소금을 많이 넣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천리둥이와 만리둥이의 추격을 받게 될 상황을 미리 예측한 할락궁이가 그에 대비하여 지혜를 짜낸 것이라 하겠다. 할락궁이의 남다른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떡을 만들어 낸 것은 원강아미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 떡은 할락궁이의 지혜와 원강아미의 솜씨가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떡

할락궁이의 지혜 / 원강아미의 솜씨

138)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78면.
139) 생가루 다섯 되에 소금 다섯 되 놓왕
떡향여 즐센 향연
앞의 책, 78면.

원강아미와 자신의 합작품인 떡을 통해 천리둥이·만리둥이의 추격을 뿌리친 할락궁이는 길을 가다가, 무릎까지 빠지는 물, 등까지 빠지는 물, 목까지 빠지는 물을 건너가게 된다.

가다보난 독막립 친 물이 있어져 그 물 넘어가고 가다 보난 즈동 친 물이 션 그 물 넘어간고 가다 보난 목 친 물이 있어전 그 물 넘어가난 서천꽃밭이 근당한다.¹⁴⁰⁾

세 번 물을 건너면서, 할락궁이는 그러한 물이 가로 놓인 연유에 대해 별달리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장애로 여기고 건널 뿐이다. 하지만 할락궁이의 여정에 가로 놓인 세 물은, 할락궁이가 간 곳을 이르지 않기 위해 원강아미가 세 번에 걸쳐 장자의 위협을 견뎌내다가 죽음을 맞은 것을 상징한다.¹⁴¹⁾

○ 세 물

현상 / 의미 = 여정의 장애 / 어머니의 죽음

이로써 ‘A 서천꽃밭을 향한 고난의 여정’에 대한 서사의 의미를 고찰해 본다. 여정의 시작부터 할락궁이는 천리둥이·만리둥이의 위협에 처하지만, 미리 준비해 둔 떡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이 떡은 분명 할락궁이의 지혜를 통해 준비된 것이지만, 또한 원강아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떡을 던져 맹견의 추격을 따돌리던 할락궁이는 자신의 예측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통쾌한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어지는 서사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떡을 만들어준 원강아미의 노력을 떠올리지는 못하였을 듯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원강아미의 조력이 없었다면 할락궁이가 그 위기를 넘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 물’의 상징이다. 길을 가던 할락궁이에게 앞에 놓인 물은 장애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물은 할락궁이

140) 현용준, 앞의 책, 112면.

141) 세 번의 물이 원강아미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할락궁이가 조우한 원강도령에 의해 알려지게 된다. 그에 대한 인용은 해당 서사의 분석시에 제시하도록 한다.

의 안전을 위해 대신 죽어간 원강아미의 애정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할락궁이가 자현장자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어머니의 존재는 자신의 결핍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애’로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 어머니는 할락궁이의 안전을 위해 이상세계로 가는 여정을 포기하고, 비천한 존재로서의 현실을 선택하였던 ‘애정과 희생’의 상징이었다. 그러한 어머니가 결국에는 할락궁이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할락궁이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현장자의 집에서든, 서천꽃밭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할락궁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만큼이나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A 서천꽃밭을 향한 고난의 여정’에 대한 서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조력으로 인해 여정의 위기를 극복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볼 수 있다.

A' 어머니의 조력을 통한 위기 극복과 그에 대한 미지(未知)

실상 자신을 위한 어머니의 조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은 자현장자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다. 할락궁이를 위해 원강아미가 선택한 ‘현실’은 할락궁이에게는 존재적 결핍의 삶일 뿐이었다. 그러나 할락궁이가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현실’은 할락궁이의 성장과 안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A의 서사는 할락궁이가 외면하고 떠난 ‘어머니의 현실세계’가 지닌 가치를 발견하고도 그러한 가치를 모르는 할락궁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비록 그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의 가치가 할락궁이의 눈에 발견되고 인지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A의 서사는 ‘현실의 가치 발견’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A" 현실의 가치 발견

‘B 서천꽃밭에의 진입과 아버지와의 조우’에 대한 서사는 서사단락(9)~(10)을 통해 제시된다. 할락궁이는 ‘세 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 물을 건너 서천꽃밭에 다다르게 되는데, 실상 꿈꾸던 이상세계로 진입하여 아버지 원강도령을 만난 순간에도, 할락궁이의 심리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서천꽃밭 쉬양버들 상가지 우의 올라 보니 궁예청덜 서천꽃밭 물주노랜 연못디 물 잉으레 오라시난 상손가락을 잡아 무꺼 입으로 껴물어네 즈지피를 삼식방을 연못데레 털어 지우난 부정이 만하여 연못이 좇아진다.¹⁴²⁾

제시된 인용은, 할락궁이가 아버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가락에 피를 내어 서천꽃밭에 물을 대는 연못에 흘려보내자 연못이 부정을 탔다는 내용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현실에서는 주재하였던 원망의 대상이자, 이상세계의 환상으로서 동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하여, 할락궁이의 심리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아버지

현실 / 이상 = 부재 / 환상,
원망 / 동경

아버지를 찾아가 그 이상적 존재성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멀고 험한 길을 달려 왔으나, 막상 당도하고 보니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천꽃밭에 당도하여 바로 아버지를 찾지 않고 수양버들 위에 숨어드는 할락궁이의 모습이 그러한 심리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주의를 끌기 위해 자신의 피를 연못에 흘려 넣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할락궁이의 피가 섞여 들어간 연못이 말라버리는 기사(奇事)가 일어난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인용에서는 “부정(不淨)이 만하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를 찾는 할락궁이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인해 그 피가 저주의 성격을 띠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흥대본 <이공본>에는 할락궁이의 피가 섞인 물을 꽃밭에 주자 서천 꽃밭의 꽃들이 모두 시들어버리는 상황이 그려지기도 한다.

142) 앞의 책, 112면.

물을 떠단 꽃에 주난
꽃은 점점 옮겨간다.¹⁴³⁾

서천꽃밭의 다양한 꽃들은 인간의 삶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한 꽃들이 할락궁이의 피에 의해 시들어버린다는 것은, 아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할락궁이에게 꽃의 힘이 전달되었을 때 인간 세계의 과멸이 도래할 것이라는 상징일 수 있다. 결국, 아버지를 찾기는 찾았으며 할락궁이의 심리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느가 내 즈식이 분맹헝다.”
꽃감관은 스완을 불르고,
“나 먹단 식스상이나
이리 출려오너라.”
한락동인 말을 흐길
“아방이 받단 식스상을
받으라흐불로
어뎡 그 식스상을
받을 수가 십네까.”
“어뎡헝난 못받으켰고?”
“금시상 날 적이
아방 독막립에 앓안 흐번 놀아보도 못헝디
상을 받을 수가 십네까?”
“계건 내 독막립 우티
올라 앓이라.”
한락동인 사라도령 독막립에
올라앓안 똥오줌을 싸는 시늉,
벨벨 조세를 문헝연
식스상을 받은 후젠¹⁴⁴⁾

위의 내용에서는 아버지와 조우한 할락궁이의 퇴행적 행동이 드러난다.

143) 진성기, 앞의 책, 79면.

144) 앞의 책, 78~79면.

할락궁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한 원강도령이, 할락궁이로 하여금 자신의 상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지만, 할락궁이는 이를 거부한다. 이는 아직까지는 원강도령을 아버지로서 받아들이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강도령의 무릎에 앉아 놀며 대소변을 지리는 시늉을 하는 등, 갓난아이와 같은 퇴행적 행동을 한 후에야 원강도령의 상을 받고, 그를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아버지의 지지와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할락궁이에게 있어서 그 결핍의 경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신을 결핍의 존재로 여기게 한 아버지의 부재, 그로 인해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애정을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락궁이는 자신이 꿈꿔왔던 만큼의 애정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한 연후에야 원강도령을 아버지로 인정한다. 비로소 환상으로만 존재하던 아버지가 실제의 관계대상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다.

○ 아버지

현실 - 부재하는 원망의 대상 / 이상 - 환상적 동경의 대상
 ↓
 실제의 관계대상

그러므로 B의 서사를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할락궁이가 아버지에게 대한 심리적 갈등의 과정을 거쳐, 아버지를 실제의 존재로서 자신의 관계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B' 실제 존재로서의 아버지를 통한 관계의 빈자리 채움

물론 이상적인 환상으로만 존재하던 아버지가 실제의 존재로서 관계의 빈자리를 채웠다는 것만으로 할락궁이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로 관계의 대상이 된 아버지의 존재가,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을 자신의 존재성으로 증명하기 위한 끝없는 자기 이상화를 멈추게 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계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할락궁이의 콤플렉스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B" 콤플렉스 해결의 기반 마련

할락궁이가 조우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보다 상징적인 이해도 가능하다. 원강도령의 존재는 실제 인물로서 존재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세계의 커다란 진리로서 존재하는 대부(大父)의 상징일 수 있는 것이다. 인간 만사의 원리가 꽃으로 피어나는 서천꽃밭의 관리자라는 것도, 보편적 인류의 위대한 아버지로서 원강도령이 지닌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던 할락궁이가 인간사의 진리를 접하게 되고, 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존재적 기반으로 삼게 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원강도령의 존재가 실제의 인물인지, 아니면 세계의 보편적 진리인지의 여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롤모델, 혹은 존재의 기반으로서 할락궁이의 아버지의 자리에 위치하여 할락궁이가 지니고 있던 콤플렉스의 해결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C 어머니의 죽음 확인’에 대한 서사는 서사단락(11)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를 찾아올 때에 독립 친 물이 었어냐?”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초대김 받은 물이로다. 준동 친 물 었어냐?”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이대김 받던 물이로다. 목 친 물이 었어냐?”
 “이십데다.”
 “그것이 느네 어머님 삼대김 받은 물이로다.”¹⁴⁵⁾

위를 보면, B의 서사에서 할락궁이가 여정의 장애로만 여겼던 ‘세 물’이, 할락궁이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145) 현용준, 앞의 책, 113면.

드러나고 있다. 자현장자의 집에 머물러있는 동안 할락궁이의 눈에 보인 어머니는 상전의 위세에 억눌린 초라한 모습이었다. 할락궁이에게 있어서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의 결핍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장애’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할락궁이에게는 고통의 현실 세계인 자현장자의 집도, 자신의 결핍된 현실을 비추는 어머니의 존재도 떠나가야만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원강아미는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장자의 끊임없는 동침 요구를 지혜로 극복하였으며, 장자가 풀어놓은 사나운 개로부터 할락궁이의 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떡을 마련해 주었다.¹⁴⁶⁾ 또한 인 용에 제시되었듯, 할락궁이의 안위를 위해 재차 삼차로 이어지는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던 강한 어머니였다. A의 서사에 드러나듯이, 할락궁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강아미는 죽음에 이르도록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였으며, 할락궁이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최고의 애정을 이미 그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서천꽃밭으로 향하던 할락궁이는 무릎까지 빠지는 물, 등까지 빠지는 물, 목까지 빠지는 물이 가로 놓인 상황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가 늘 이어져 왔지만, 콤플렉스로 인해 눈이 가려진 할락궁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을 상징한다. 그러한 미지(未知)의 상황이 결국은 아버지 원강도령을 통해 깨어지게 된 것이다.¹⁴⁷⁾

○ 어머니

결핍의 증거 → 애정과 희생의 화신(化身)

결국 ‘C 어머니의 죽음 확인’ 서사는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과도한 이

146) 떡은 할락궁이가 먼저 모친에게 요청한 것이므로 위기를 예측한 할락궁이의 타고난 지혜나 신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할락궁이의 발상이 원강아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강아미가 할락궁이의 지혜나 신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반임을 보여준다.

147) 이러한 점에서 원강도령의 존재를 세계의 보편적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상 추구라는 미몽(迷夢)에서 벗어난 할락궁이가, 언제나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었던 어머니의 애정과 희생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C' 어머니의 애정과 희생에 대한 깨달음

할락궁이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애정과 희생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 존재의 기반이자 삶의 기반으로 어머니의 현실세계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C의 서사는 ‘현실의 가치 이해’로 정리될 수 있겠다.

C" 현실의 가치 이해

‘D 자현장자에 대한 복수와 어머니 재생’ 서사는 서사단락 (12)를 통해 이야기된다. 그중 ‘장자의 징치’에 대한 내용은 이 장의 첫 머리에 제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어머니의 재생’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머리 그찬 청대왔디 데껴불고 준동 그찬 흑대왔디 데껴두고 독막립 그찬 청새왔디 데껴서난 어머님 빼를 도리도리 묻어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아이, 봄즙이라 오래도 잤저.” 머리 글겨, 어머님이 살아온다.¹⁴⁸⁾

어머니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에 구애됨 없이 아버지의 세계로 떠났던 할락궁이었다. 그러한 할락궁이가, 어머니의 현실세계로 돌아가 장자를 징치하고 어머니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은, C의 서사를 통하여 존재적 결핍의 증거로서 여겨졌던 어머니와, 결핍의 세계로 여겨졌던 ‘현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할락궁이는 아버지가 전해 준 꽃의 힘,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힘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었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

148) 앞의 책, 114면.

다는 말과 같다.

○ 꽃의 힘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힘 =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힘

이는 자기 삶의 기반이 되는 현실의 관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어머니를 회복시킴으로써 자기 삶을 온전히 재구성하게 되는 과정이다.

실상 어머니 원강아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할락궁이 본인의 문제였다. 과도하게 이상적 자기상을 추구하며, 결핍으로 인식되는 현실세계를 배제하고 외면해버림으로써, 할락궁이의 현실적 관계 대상인 어머니 또한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죽였다는 장자의 존재는, 앞서 언급한대로 할락궁이의 내면에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콤플렉스 그 자체가 형상화 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레벌망약심꽃으로 자현장자를 정치하는 할락궁이의 모습은, 이상적인 자기상의 구축을 위한 끊임없는 연마의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의 힘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된다. 앞서 '이공맞이' 제차에서 비정상적인 심리인 '전상'을 몰아내는 힘을 할락궁이의 서사로부터 끌어오는 이유로, 할락궁이야말로 '전상', 즉 비정상적인 심리인 콤플렉스의 극복을 이루어낸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현장자의 존재는 할락궁이가 자신의 내면에서 몰아낸 '전상' 그 자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할락궁이가 전상을 몰아낸 내력으로써 '이공맞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 자현장자

외부의 억압기제 / 내면의 콤플렉스 = 전상

○ 장자의 정치

복수 / 콤플렉스의 파괴 = 전상을 몰아냄

그렇다면 D의 서사가 의미하는 것은 현실적 관계기반의 회복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 현실적 관계기반의 회복

할락궁이는 C의 서사를 통해, 자신이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적 관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적 삶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할락궁이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을 억눌러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게 만들었던 자현장자, 즉 콤플렉스의 형상을 파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삶의 기반이 되는 현실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배제되었던 현실의 관계를 온전히 재구성하게 되는 순간, 즉 어머니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할락궁이는 온전히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D'' 콤플렉스의 극복

이와 같은 서사의 전 과정을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 어머니에 의한 위기 극복과 그에 대한 미지(未知) = A'' 현실의 가치 발견

B' 아버지를 통한 관계의 빈자리 채움 = B'' 콤플렉스 해결의 기반 마련

C' 어머니의 애정과 희생에 대한 깨달음 = C'' 현실의 가치 이해

D' 현실적 관계기반의 회복 = D'' 콤플렉스의 극복

이 중 콤플렉스의 변화과정에 대한 항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 A" 현실의 가치 발견
- B" 콤플렉스 해결의 기반 마련
- C" 현실의 가치 이해
- D" 콤플렉스의 극복

할락궁이의 콤플렉스는 관계대상의 부재로서 존재적 결함의 원인이 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으로 대치하고, 이상적 자기상으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도한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에 따라 존재적 결함을 확인하게 하는 현실의 관계는 무가치한 것으로 배제되기에 이른다. 이는 A"의 단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관계, 어머니의 존재로 대변되는 ‘현실’이 그의 삶에 기여하고 있음을 할락궁이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써 그러한 콤플렉스가 작동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B" 단계에서 아버지와 조우하고 환상으로 대치되던 관계의 빈자리가 채워짐으로써 할락궁이의 문제로 작용하던 이상적 자기상의 과도한 추구가 멈추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콤플렉스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상태라고 하겠다. 그에 따라 이상만을 추구하던 할락궁이가 현실의 관계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고, C"에 이르러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애정과 희생을 깨닫게 된다. 이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관계가 지니고 있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D"의 과정에서 콤플렉스가 온전히 극복되게 된다.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현실적 관계기반의 가치, 주어진 관계가 지닌 절대적 가치의 발견과 깨달음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과정이 되는 C"의 과정과 그 전제가 되는 B"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콤플렉스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관계의 대상-나’의 축에 비어 있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으로 대치함으로써, 그 자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가상적 ‘이상의 관계 축’과 실재하는 ‘현실의 관계 축’이 대

립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할락궁이는 ‘현실의 관계 축’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인식에 대한 거부로 ‘이상의 관계 축’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기제로 삼음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B"의 과정을 통해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으로 대치되었던 아버지의 자리가 실제로 채워지게 된다. 이때 그 자리를 채우는 아버지는 실존의 인물일 수도, 삶의 과정에서 얻은 지혜나 진리일 수도 있으나, 단순히 ‘매우 위대한 존재’일 뿐 그 실체는 모호했던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과 달리, 실제의 삶을 운용하기 위한 모델로서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가상의 존재로 인해 파생된 ‘이상의 관계 축’과 실재하는 ‘현실의 관계 축’이 통합될 여지가 생긴다.

그에 따라 할락궁이는 배제와 외면의 대상이었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새롭게 자리 잡은 아버지 상이 실재하는 ‘현실 세계의 관계 축’에 어울리는, 현실적 삶의 운용에 적합한 역할모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발견된 어머니의 존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자신의 삶이 영위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을 통해 꿈꾸었던 결핍이 없는 관계가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새로이 배치된 아버지의 자리를 중심으로 ‘현실의 관계 축’이 ‘이상의 관계 축’ 방향으로 이동·통합된다. 자신의 현실에 주어진 관계가 지닌 절대적 가치를 인식한 할락궁이에게 있어서,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현실이 곧 자신이 꿈꾸던 이상의 세계였던 것이다.

3.3. 사회적 관념의 문제 : <세경본풀이>

3.3.1. 자청비의 서사와 콤플렉스

<세경본풀이>는 제주도 큰굿의 체계에서 ‘시왕맞이’ 다음인 열일곱 번째 제차에 구연되는 서사무가로서,¹⁴⁹⁾ 그 서사는 농경신과 오곡의 기원은

149) 현용준, 앞의 책, 6면.

물론 생산 양식 사이의 충돌과 조정, 나아가 가부장제 하에서 일어나는 젠더 사이의 갈등과 화해의 문제까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¹⁵⁰⁾ 농경신의 내력을 읊어가는 제차인 만큼 해당 제차가 농산의 풍요를 기원함은 물론이다. 그러한 <세경본풀이>에 대하여,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료 목록과 대강의 서사를 개관함으로써 논의의 기반을 삼도록 한다. 다음은 확인된 <세경본풀이>의 이본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2 <세경본풀이> 이본 목록

번호	자 료	구연자	출전 및 기타 사항
1	세경본푸리	박봉춘	『조선 무속의 연구』 상, (적송지성·추업음, 1937)
2	세경본풀이	안사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현용준, 1980)
3	세경본풀이	개작본	『한국인의 신화』, (한상수, 1980)
4	세경본풀이	한행수	『한국구비문학대계』 9집 1책, (현용준, 1991)
5	세경본	강을생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6	세경본	이달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1991)
7	서경본(西境本)	문정봉	『풍속무음』, (문창현, 1994)
8	세경본풀이	강순선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집』, (문무병, 1998)
9	세경본풀이	강순선	『한국음악』 31, (강정식, 2000)
10	세경본풀이	강순양	『제주도 큰굿 자료』, (문무병, 2001)
11	세경본풀이	고대중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2001)
12	세경본풀이	이용옥	『이용옥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2009)

제시된 이본 중에서도 핵심적인 화소들을 두루 포괄하여 여타의 이본들을 대표할 수 있으면서, 풍부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달춘본 <세경본>이다.¹⁵¹⁾ 이에 이달춘본을 중심으로 여타의 이본을 참고하여 본고의 논의를 진행해가고자 한다. 다음은 이달춘본 <세경본>의 서사를 단락으로 제시한 것이다.

(1)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늦도록 아이가 없어 기자치성을 드렸으나 시주가 모자라 딸이 접지 되고 자청비가 태어난다.

(2) 자청비가 하녀의 땀에 빠져 주천강 연못에 빨래 하러 갔다가 문도령을 만나고, 그를

150)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도연구회, 2011, 103면.

151) 선행 연구에서 대표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이본이기도 하다.

따라 남장을 하고 글공부를 하러 떠난다.

(3) 자청비는 문도령과 같은 방에서 3년을 거하며 글공부를 하다가, 천상으로 돌아가는 문도령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여성임을 밝힌 후에, 자신의 방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그를 떠나보낸다.

(4) 문도령을 기다리던 자청비가, 문도령을 보게 해준다는 정수남의 꾀에 빠져 겁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정수남을 죽인다.

(5) 정수남을 죽인 일로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구해 정수남을 되살린다. 그 과정에서 서천꽃밭의 말쑤딸아기와 약혼한다.

(6) 정수남을 살려온 자청비를 꾀이하게 여긴 부모가 다시 자청비를 쫓아낸다.

(7) 쫓겨난 자청비는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 댁 베를 짓는 일을 하다가, 문도령의 혼삿 베에 자신을 알리는 글을 남겨 문도령이 찾아오도록 한다.

(8) 찾아온 문도령의 손을 자청비가 바늘로 찌르자 문도령은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자청비는 할멈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9) 쫓겨나 중이 되어 떠돌던 자청비는 선녀들을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도령이 있는 천상으로 올라간다.

(10) 천상에 도착한 자청비가 문도령의 약혼자인 서수왕딸아기와 칼선 다리를 건너는 경쟁을 한다.

(11) 경쟁에서 이긴 자청비가 문도령의 짝이 되고, 자청비의 소문을 듣고 욕심을 낸 이들이 문도령을 해치고 자청비를 욕보이려 음모를 꾸민다.

(12) 음모를 알게 된 자청비가 문도령으로 하여금 미리 피하도록 조언을 하지만 문도령의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

(13) 자청비는 문도령의 시신을 찾아와 방 안에 눕혀두고, 욕보이려 몰려온 이들을 지혜로 물러가게 한다.

(14) 서천꽃밭에 다시 찾아간 자청비가 말쑤딸아기를 통해 환생꽃을 구해 문도령을 살리고, 자기 대신 문도령으로 하여금 셋째딸아기의 남편 노릇을 하도록 한다.

(15) 문도령이 말쑤딸아기와 지내며 자청비를 잊고 지내자, 자청비는 편지를 써 문도령을 돌아오도록 하지만, 거꾸로 말을 타고 돌아오는 문도령의 모습에 실망한다.

(16) 자청비가 시부모에게 문도령의 행실을 고하고 떠나겠다고 하자, 시부모는 오곡의 씨를 내려준다.

(17) 자청비가 정수남을 데리고 천상에서 받아온 오곡의 씨로 농사를 지으러 다닌다.

(18)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하세경으로 좌정한다.

<세경본풀이>의 서사는 전체적으로 주인공 자청비가 문도령에 대한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겪는 고난의 과정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끝내는 문도령과의 결연을 통해 지상의 존재로서 천상의 존재성을 획득하는 존재 변화의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한 서사가 이어지는

중에 주인공 자청비의 당차고도 능동적인 행동방식이 돋보이는데, 여성의 몸으로서 남성 인물인 문도령·정수남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청비가 보여주는 여성성에 관심을 둔 논의가 선행 연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된다.¹⁵²⁾

152) <세경본풀이>에 대하여는 구비서사시로서의 문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 종교·민속학적 관점의 제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주인공 자청비가 중세경으로 좌정하게 되는 결말에 대한 신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 등장인물에 주목한 캐릭터 특성 연구 등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있었으나,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청비의 ‘여성성’에 주목한 논의였다. <세경본풀이>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의 대강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권 3호, 일지사, 1982;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수자, 「농경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8; 서경립, 「濟州 神話와 女性의 位相-<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4,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1998;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 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길태숙, 「<구령당당신선비>, <세경본풀이>, <발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16, 열상고전연구회 2002; 이수자, 「제주도의 마블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 『역사민속학』 19, 역사민속학회, 2004;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홍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집, 겨레어문학회, 2006; 신태수, 「세경본풀이 세계관적 기저와 담론구조」,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심치열, 「제주도 서사 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양민주,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男裝)의 기능과 의미 - 여성영웅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 중(中)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임보연, 「<세경본풀이>와 <양산백전>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의미연구」, 『고향논집』 44,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종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김병주, 「여성신화<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권4호, 한국심리학회, 2010; 권복순, 「자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조현설, 앞의 논문, 2011;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 배달말학회, 2012;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자청비가 지닌 콤플렉스의 문제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자청비는 그 출생에서부터 결핍을 지닌 존재로 제시된다. 그녀가 여성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자청비의 부모가 그녀를 잉태하기 위해 기자치성을 드릴 당시 정해진 분량의 제물을 다 바치지 않은 까닭으로 이야기되는 맥락이다. 제물의 모자람은 곧 자청비의 존재성에 대해 ‘모자란 것’으로 인식하는 세계의 시각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모자람의 증거가 ‘여성’으로서의 존재태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청비를 둘러싼 세계가 여성인 그녀에게 투사하고 있는 편견의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자청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편견의 시각을 투사하는 세계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누적시키게 된다. 그러한 부정적 경험의 심상들이 여성으로서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착종되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을 고착시킨다. 이에 자청비는 그에 대한 거부의 반응으로써 자신이 모자란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증명의 이상에 집착하게 된다. 말하자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에 억압 받게 된 자청비가, ‘나는 여성이어도 남성에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맥락으로 그 서사가 추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자청비는 문도령과 정수남으로 대변되는 남성들과의 관계, 이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자면 남성으로 대변되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위방식을 취한다. 문도령과의 경쟁, 글공부, 달리기, 심지어는 소변 멀리 누기의 경쟁에 있어서도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자청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견 남성에 못하지 않은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자청비의 모습이, 남성지배의 논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열위의 존재로 인정하고 움츠러드는 것보다 더 건강한

신식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2; 이유경, 「巫俗神話에 나타난 女性 正體性 探索의 樣相과 意味」, 『어문연구』 1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試論)」, 『여성문학연구』 30권, 여성문학연구회, 2013; 이은희, 「무속신화의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연구회, 2013; 이은희,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 ‘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 연구」,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정진희, 「풍농(豐農)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등이 있다.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관계적 우위, 경쟁의 우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현하는 존재성이 여성으로서의 그것이 아닌 남성성이라는 점이다. 앞서 나열된 글공부, 달리기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소변 멀리 누기에 이르기까지, 남성성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경쟁을 통해 존재증명의 이상에 매달리는 자청비의 모습은 완전한 남성의 형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본에 따라서는, 그녀가 남편인 문도령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서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 또한 그녀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세계에 내보이는 존재성이 여성성이 아닌 남성성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이다.

그녀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현하는 것이 본래적 존재성인 여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이라는 점에서,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얽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부정적 심리 경험을 누적시키는 자신의 여성성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청비의 행동방식이 고착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에게 투사된 사회적 편견을 내재화한 채 사회적 편견의 대상으로서 받는 억압에 저항하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편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대상을 위와 아래의 존재로 평가하여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 아래의 존재로서 평가되는 자청비는 자신의 존재증명을 위해, 그녀 보다 우위로 평가되는 존재인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시종일관 우위를 점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한다. 반대로 그녀에 비해 아래의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수남에 대해서는 멸시와 배제의 시선을 투사하며, 정수남의 강간 시도라는 하극상에 대하여는 청미래 덩굴로 그를 찢어 죽임으로써 가차 없는 응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녀의 모든 행위는 내재화된 편견의 논리로써 시종일관 모든 관계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적 우위를 증명하는 일에 집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청비에게 있어서 지상의 남성은 어울리는 짝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청비는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천상의 남성,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초월하는 최고의 남성인 문도령과의 결연을 추구한다. 특히 서사의 말

미에 이르러 문도령에게 실망한 자청비가 지상으로 내려옴으로써 중세경으로 좌정하는 맥락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자청비의 서사 전반에 원심으로 작용하던 문도령에 대한 애정이, 실상 자청비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자청비에게 있어서 최고의 남성인 문도령의 존재란, 어쩌면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해 줄 최고의 조명(照明)이었는지 모른다.¹⁵³⁾ 따라서 자청비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힘은 문도령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 존재증명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청비의 모습이 남성지배의 사회 질서 내에서 차별의 대상이자 억압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그녀가 지닌 심리적 얽매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청비의 행동이 결국 문도령으로 하여금 그녀를 멀리하도록 만든다. 또한 자신을 겁탈하려 하는 정수남을 가차 없이 처단하고 관계적 우위를 지켜냄으로써, 자청비는 ‘부정한 아이’로 인식되어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기에 이른다. 그녀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함에도, 그러한 행위방식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자청비의 모습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작용하여 그녀의 의식적 성격과 행위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적 얽매임, 콤플렉스의 존재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관념에 의한 차별의 대상으로서, 무의식적으로 고착된 부정적 자기 인식을 극복해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해냄으로써 신성을 획득해가는 자청비의 서사를 통하여, 사회적 관념을 원인으로 하는 콤플렉스 문제에 관한 극복과 치유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53)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결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오세정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오세정, 앞의 논문, 281면). “자청비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지상적 여성이 아니다. 남성에게 종속되어 남성과 결합해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스스로 대지의 자생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결별을,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문도령의 존재성에 기대어야만 했던 자청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이상 문도령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게 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3.2. 자청비의 콤플렉스 구조 분석

- 편견이 내재화된 채 편견과 싸우는 자기모순

<세경본풀이>의 서사 전반을 이루는 것은 문도령과의 결연을 성취하기 위한 자청비의 고군분투와 좌절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청비로 하여금 문도령과의 결합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녀의 심리, 그녀가 그러한 심리적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청비의 심리적 문제로 작용하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야기의 첫머리에 놓인 자청비의 출생에 관한 화소부터 살펴볼 수도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자청비는 그 부모의 기자치성에 의해 점지되지만, 정성이 부족한 탓에 딸로서 점지된 것으로 이야기 된다. 다음은 그에 대하여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에 제시된 내용이다.

『대감(大監)님아, 대감님아, 백근결량(百斤斤量)을 법당(法堂)에 왕 저울립서,
대추남 꼬까마귀저울로 저울렀더니 혼 근(一斤)이 부족(不足)하면 백근이 못내차 아흔아홉근이 돼여진다.
『대감님아 대감님아, 백근(百斤)이 차아시민 남즈생불(男子生佛)이 탄생 홀 듯한 디 백근이 못내 차난 예즈식(女子息) 탄생시점시메 어서 집진국땅 들어강 하궁일(合宮田)을 받아그네 부배간(夫婦間)이 천상배필(天上配匹) 무읍소서.』¹⁵⁴⁾

위에 따르면, 기자치성의 제물로 백 근(百斤)의 제물이 바쳐져야 함에도, 아흔아홉 근의 제물이 바쳐짐으로써 그녀가 여성으로 태어나게 된 상황을 알 수 있다.¹⁵⁵⁾ 이러한 화소에 대해서는 신화가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여성을 남근이 결여된 존재로 보는 남성우월주의적 시각이 드러난다고 봄이 보통이다.¹⁵⁶⁾ 그러한 시각은 서사 내적으로도

154) 현용준, 앞의 책, 318면.
155) 이본에 따라서는 부모가 제물이 아까워 물래 덜어낸 경우도 있고, 그에 더하여 본래 기자치성을 드렸어야 할 절이 아닌 가까운 절에서 치성을 드린 이유로 딸이 점지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 되고는 있으나, 결국 '정성이 부족하여' 자청비가 딸로 점지되었다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하겠다.
156) 김병주, 앞의 논문, 566면.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제물로 점지된 존재'란 것이, 자청비가 태어나고 자란 그녀의 세계가 그녀를 인식하는 내용이다. 그녀의 세계가 그녀를 '모자란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족한 제물로 인해 갖게 된 '여성'이라는 존재태가 바로 그녀의 '모자람'을 뜻하게 된다는 것이다.

○ 기자치성의 제물

백 근 / 아흔아홉 근 = 완전함 / 모자람 = 남성 / 여성

그렇다면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결합을 그토록 강하게 욕망하게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최고의 남성과 결합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희구의 과정으로 말이다. 문도령과의 결합을 추구하는 자청비의 욕망이 이처럼 자연스러운 심리적 작용을 따르고 있었다면 그녀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문제의 지점을 찾는 노력은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도령과 관계를 맺어가는 자청비의 행동방식을 세세하게 살펴본 때에, 앞서 살핀 거북이·남생이, 할락궁이와 다를 바 없는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문도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청비가 취하는 행동방식을 보면, 문도령을 순수한 애정의 대상이나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보단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다음은 글공부를 위해 문도령과 동행한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경쟁에 골몰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나는 강을생본 <세경본>의 한 대목이다.

즈청빈
물허벅에 물을 질어 놓완
허벅바위레 즈음을 걸쳐 놓고
이불 두 새에 궂다 놓완
“이걸 것지민
공비가 낙방이 된다.
이걸 것지지 말라.”
문도령은 진정이 고정으로
그 말을 들은 혼착 괴아로 누영,
괴아로

오금 종애라 칭칭 자려도
 돌아눕질 아니하고
 즈청비는
 그레 돌아누영 썩썩
 저레 돌아누영 썩썩
 즈을 자고
 식전글을 받지레 가민
 문령은 즈자명
 물허벅 것지지 말쟁 흔게
 즈 달레여 놓난
 정신이 웃어
 글이 낙방이 되고
 즈청빈 실피 자 놓난
 글을 활활 하니 받져¹⁵⁷⁾

위의 내용을 보면, 문도령을 경쟁의 상대로 의식하고 있는 자청비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청비는 물동이에 젓가락을 놓고 자신과 문도령의 사이에 둔 다음, “이것을 건드리면 낙방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문도령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도록 하여 익일의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술책이다. 의도대로 문도령은 졸음에 겨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충분히 잔 자청비는 맑은 정신으로 수월하게 글공부를 성취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문도령에게 이기고자 하는 자청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에서의 승리’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자청비가 집착하고 있는 문도령의 존재 의미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반려라기보다, 자기 존재의 증명 수단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조명(照明)이 아닌가 생각된다.

○ 문도령에 대한 인식

존재적 결핍을 채워줄 반려 / 자기 존재 증명의 수단

말하자면 자신을 모자란 존재, 결핍된 존재로 바라보는 세상에 자신이

157) 진성기, 앞의 책, 275면.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가, 존재 증명의 수단이 되는 문도령에 대한 집착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도령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서당’의 공간은, ‘여성’으로서 자청비가 지닌 존재적 결핍을 의심하는 세계의 시선에 대응하여, 문도령과의 경쟁에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청비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다. ‘서당’의 세계를 표상하는 ‘선생’이 자청비를 의심하여 시험하고자 문도령과 경합하도록 하고, 자청비가 경합에 승리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는 서사가 일관되는 것이다.

“예자는 종애가 무거왕
 뒤 떨어진다
 남자는 종애가 거배왕
 앞테레 내싼다.”
 드름을 짓건 보난
 문두령이 떨어지여.
 이젠 스장이 말을 하되
 “짐도령광 문두령이
 씨름이나 하여보라.”
 예즈명 남즈명을
 분맹이 알아 보젠
 씨름을 시기난
 문두령이 땀번 지여
 “지영 하여도 짐도령은
 예즈로 나타나는디
 것도 이상하디?
 지영 말알
 오좁이나 굴길락 하여
 심백하여 보이라.”
 (중략)
 대불통을 하문에 꼭기 대연
 오좁을 장식치명 글기난
 열두 방축방을 슬랑 낸겨
 문두령은 오좁을
 장식치명 글기난
 으둑 방축방을 제우 낸겨

이제는 스장이
상급을 주는구나.¹⁵⁸⁾

제시된 대로 시험의 내용은 ‘달리기’, ‘씨름’, ‘오줌 멀리 갈기기’ 등으로
써, 이는 ‘여성’으로서 자청비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다. 자청비는 이러한 시험에 대응하여 문도령에게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결국은 선생으로부터 상을 받기에 이른다. 모
자란 존재,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는 인정이 ‘상(賞)’이라는 증거물로 표상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의심하는 세계에 대
응하여,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증명하는 노력은 긍정적인 일면이 있다.
‘여성은 남성에 뒤떨어지는 존재’라는 편견에 위축되지 않고 남성에게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나가고 있는 것
이다.

문제는 자청비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세계에 내보이고 있는 형
상이 여성이 아닌 남성의 형상이라는 점이다.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
재성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위로 인식되는
남성의 존재가치를 획득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표층적
로 사회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이
지만, 심층적으로는 스스로의 여성성을 배제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신
을 억압하는 사회적 편견에 종속되게 하는 모순을 만든다.

○ 남성의 형상을 통한 문도령과의 경쟁

표층 / 심층 = 사회적 편견에의 저항 / 사회적 편견에의 종속

보두앵(C. Baudouin)은 프로이트(S. Freud)가 제시한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의 맥락에서, 여성이 선척적으로 남성의 신체적 요소(성기)를 부러워
하는 심리를 통해 남성성을 강하게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
다.¹⁵⁹⁾ 이러한 논의 자체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내포한 것일 수 있
으므로 좀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남성의 사회적 우위가 확고한 사
회 상황, 반대로 여성의 열등함에 대한 편견적 인식이 강한 사회 상황에

158) 진성기, 앞의 책, 276~277면.

159) C. Baudouin, *The mind of Child: a psychoanalytical study*, George Allen & Unwin Ltd:
First English Edition, 1933, p.142.

놓인 여성들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아들러(A. Adler)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경
험한 여성들이 남성적인 성격을 내면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항의 선택지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 속에서 여
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에 노출된 여성이 여성성의 발현을 포기하고
남성성을 획득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의 여성들
은 유달리 활동적이거나 포부가 크며 성취욕이 강하다. 남자 형제나 남자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고, 주로 남자들이
선택하는 활동을 선호하는데, 무엇보다 운동을 좋아한다. 이들은 인간관계
에 있어서,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거나
상대보다 우월한 입장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기 쉬우
며, 그 관계 자체도 깨어지기 쉽다. 한 마디로 이들은 자신에 대한 남성의
잘못된 태도를 그대로 남성들에게 되돌림으로써 보상받으려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⁶⁰⁾

자청비의 경우에도 남성적인 행동방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한 대로 서당에서 남성의 형상으로 문도령과의 경쟁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이고, 자신을 겁탈하고자 한 정수남의 폭력에 ‘살해’라는 극단
의 폭력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그러하다. 정수남을 죽인 후 “하루에 콩 석
섬 날 맡같이 하는 정수남이 낫다”며 자청비를 몰아붙이는 부모에게, 정
수남이 하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행동도 같은 맥락에
서 이해 가능하다. 특히 서천꽃밭의 셋째딸아기와 관계 맺을 때의 자청비
는 완전한 남성의 존재성을 통해 세계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자청비

본래적 존재성 / 존재성의 현시(顯示) = 여성 / 남성

이처럼 여성으로서 남성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청비는, 그 관계 맺음
에 있어서 술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삼년 글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문도령은 자청비가 처음 주천강에서 마주쳤던 여인임을 알게 된

160) Alfred Adler, 앞의 책, 123~135면.

다.

(소리)우리~ 누이동생으로 허연~, 이디서 우리가 만난 가시난

이 물에서~ 글 공부허멍

연삼년 동안 산 거, 모욕(沐浴)이나 시원이 (말)우리가 허여동 가는 게 어떻허우짜?”
“것도 맞인 말이우다 경 허건 읍서 모욕이나 허게.”, “난 양, 문도령신디 모든 걸 다
이겨부난, 난 옷통에서 허커메, 문도령은 나신디 디 지었수께, 알통에 강, 몸을 금읍씨
에.”

(중략)

글 삼계(三字)를 백연, 물 우이서 알통더레 보내엿구나에-

내리는 물이난

‘문도령아

아이고 요 멍청헌 문도령아

연삼년 동안 흐 방에서 즈을 자곡 흐 이불, 쏘뽀에서 살아도

남자 여자 구별 못 허는 문도령아.’ 161)

제시된 내용은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목욕을 제안하고, 버드나무 잎에 자신의 정체를 적어 아랫물에 목욕중인 문도령에게 띄워 보내는 이용옥본 <세경본풀이>의 한 대목이다. ‘버드나무 잎’은 처음 문도령에게 물을 떠 주며 그 위에 띄워두었던 것으로, 문도령으로 하여금 자청비와의 첫 만남을 상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재미있는 점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남성-남성’의 관계로 형성된 자신과 문도령의 관계를, ‘남성-여성’의 관계로 재설정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자청비의 모습이다. “내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므로 위쪽에서 목욕을 하겠다.”고 말하는 자청비의 모습은, 새로이 설정되는 관계에서도 우위에 서고자 하는 자청비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목욕 제안

자청비 / 문도령 = 윗물 목욕 /아랫물 목욕,
관계적 우위 / 관계적 열위

자청비의 정체를 알게 된 문도령은 정신없이 그녀를 좇아 그녀의 집까

161) 허남춘 외, 앞의 책, 250~251면.

지 따라 들어간다. 그렇게 따라 들어온 문도령에게 자청비가 요구하는 것은, 남성을 집에 들인 일을 부모에게 들키지 않도록 여성의 모습으로 변장하는 일이다.

어느 동안 여복방에 눌러들어 여자 옷 앓안, 올레 간 남자 옷 벗겨두언 여자 옷 입어
입찌놓안, 여자로 변장(變裝)시건, 이녀 구들더레, 돌아왔언 들어간다에-162)

여성의 옷을 입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부모에게 남자를 방에 들인 일을 들키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를 보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상대적 열위에 놓인 여성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이처럼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에 서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문도령을 여장(女裝)시킴

표층 의도 / 심층 의도 = 부모를 속임 / 관계적 열위 강요

그리하여 둘은 자청비의 방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163)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문도령은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남기고 천상으로 올라가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연삼년 눈속이던 사랑을 풀어 누었더니 천왕독(天皇獨)이 목을 들러 날이 새게 뉘여가
니 자청비가 말을 흐뉘

『설은 도련남아, 날이 새게 뉘여시니, 설은 도련남아, 어서 행차(行次) 때가 뉘여시니
노각성즈부줄로 옥황(玉皇)으로 올라갑서,』

서로 갈려살 때 꼭씨 흐 방울을 내여 주멍

『이 꼭씨 싱거그네 꼭씨 을앙 타게 뉘 때 내 아니 오건 죽은 중 알라.』

『어서 걸랑 그럽소서.』

상동냥 흥얼레기 흐 착씩 거건 본매 두어두고 노각성즈부줄로 문도령 하늘옥황 올라간

162) 앞의 책, 253면.

163) 이본에 따라서는 둘이 같이 밤을 보내되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육체적 결합의 누앙스가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그것이 표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춘남녀가 단둘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자연스러운 이끌림이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다.

다.

즈청비는 녹는 스랑방 뒤창문 앞의 꼭씨를 싱겼더니 불리 난디 송애(筍) 나, 송애 난디 줄이 번어 꼭이 올고 익어가도 문도령은 돌아올 중 모르는 구나.¹⁶⁴⁾

제시된 내용은 둘이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지는 장면에 대한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의 한 대목이다. 문도령은 박씨를 건네주며 “이것을 심어 박이 열고 그 박을 타기 전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한다.¹⁶⁵⁾ 그러나 약속한 때가 지나도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는다. 천상에 올라간 문도령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잇는 것에 대하여, 천상과 지상의 대립체계가 유표화 하는 신분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지상의 존재인 자청비가 천상의 문도령과 재회하기 위해서는 존재적 비약의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¹⁶⁶⁾ 그러나 자청비의 심리적 문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을 듯하다. 문도령과 3년을 같이 지내는 동안 자청비가 일관한 태도는 능력의 우위를 보이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여성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낸 자청비가 주천강 연못에서 물을 떠주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알게 된 문도령이 그녀에게 이성의 욕망을 느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고, ‘남성-남성’의 관계에서 ‘남성-여성’으로 관계의 재설정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자청비는 자신의 우위를 계속하여 지키려 한다. 문도령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겪은바 언제나 자신을 억누르려 하던 그녀의 태도가 유지되는 한 그 관계의 지속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문도령이 선부른 열정에 내뿜은 맹세를 그대로 지키지 않았던 맥락은, 심리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자청비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도령의 입장에서 자청비가 지닌 여성적 아름다움은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녀가 지닌 남성성은 회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 자청비에 대한 문도령의 인식

여성성 / 남성성 = 욕망의 대상 / 회의의 대상

164) 현용준, 앞의 책, 329~330면.

165) 이본에 따라서는 복숭아 씨를 건네주며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전에 돌아오겠노라 약속하기도 한다.

166) 오세정, 앞의 논문, 275면.

자청비의 관계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자청비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녀는 사회적으로 ‘모자란 존재’로 인식되는 여성의 역할을 거부한다.

『어머님아, 나도 삼천선비광 글공부 가기 어쩔네까?』

『지집년이 글공뵈라 혼 게 뵈일러나?』

즈청비가 말을 흐뵈

『어머님아, 여즈식도 글공뵈 허여두민 기일제숯(忌日祭祀)때 축지방(祝紙榜)을 날로 써 올릴거 아님네까?』¹⁶⁷⁾

제시된 내용은 문도령을 따라 글공부를 가기 위해 자청비가 그의 부모를 설득하고 있는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의 한 대목이다. 글공부를 하러 떠나겠다는 자청비에게 “여자 아이가 글공부는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부모의 반응과, 그에 굴하지 않고 “부모님 제사에 지방이라도 쓰련다.”는 말로써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자청비의 대답이, 여성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모의 입장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청비의 입장에 의한 갈등의 일면을 보여준다.

○ 글공부에 대한 입장

부모 / 자청비 = 반대 / 관철,

여성의 역할 요구 / 여성의 역할 거부

또 정수남을 죽인 자청비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서도,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하는 부모와 남성성을 추구하는 자청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해당 대목에 대한 강을생본 <세경본>의 인용이다.

“어머님아 어머님아!

정이웃인 정수남인

행실이 불량헌연

죽여두언 오랏쑤다.”

(중략)

흐로 콩 석섬 가는

167) 현용준, 앞의 책, 322면.

나 종 2저 오라.
 (중략)
 즈청빈 어멍안티
 생야단을 들어 놓고
 치매각을 외우 느다 건우질러
 용매길 둘러지고
 쇠를 들고 세경땅이 밧을 갈아
 (중략)
 “어머남아, 어머남아
 좁씨 석 섬 문 건우와
 오랏쭈다.”
 “지집년이, 남도 날세
 어멍 좁쌀 빼영 갈았당
 모도와 올 수가 싯겠느냐?
 느 맹으로
 “아무디나 나고 가라.” 168)

제시된 내용에는 자신을 겁탈하려한 정수남을 자청비가 죽인 것에 대하여 부모가 ‘먹을 농사짓는 정수남이 너보다 낫다. 죽이기는 왜 죽이느냐?’하고 반응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사람을 죽인 자청비의 남성적 행동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도 있으나, 비천한 신분이지만 남성인 정수남이 상전이지만 여성인 자청비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인식 또한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는 부모의 시각이기도 하지만, 부모로 표상되는 현실세계의 시각을 대변하기도 하는 것이다.168)

○ 부모의 시각 = 부모로 표상되는 현실 세계의 시각

정수남 / 자청비 = 하인 - 열위 / 상전 - 우위
 ↓
 남성 - 우위 / 여성 - 열위

168) 진성기, 앞의 책, 291~292면.

169) “정수남은 끊임없이 자청비를 겁탈하려고 한다. 문도령을 만나게 해준다는 핑계로 자청비를 굴미굴산으로 유인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추행을 자행하는 데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수남은 하인이지만 상전인 자청비를 핍박한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정수남이 성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계급보다 성적 위계가 우선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이 작동의 바탕에는 강력한 남성중심적 의식이 깔려 있다.” 조현실, 앞의 논문, 105면.

자청비는 자신의 안전보다도 정수남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부모에게 반발하여, 자신이 정수남의 역할까지도 대신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밭으로 나가 정수남이 하던 농사를 몸소 해 보이는 일이다.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농사일을 완수하고 돌아온 자청비가 자랑스레 그 사실을 고해도, “계집아이가 거짓을 고한다.”라며 믿지 않고, 자청비를 쫓아내기에 이른다. 그녀는 남성보다 남성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 하였으나, 그녀에게 여성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은 부모로 표상되는 세계의 질서에서 추방당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여성성을 배제하고 남성성의 발현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할수록 자청비와 세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존재가치의 증명

여성성 - 배제 / 남성성 - 발현
 ↓
 세계와의 갈등 심화

자청비가 지닌 심리적 문제가 가장 적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정수남과의 관계에서이다. 문도령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청비의 눈에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하인 정수남의 존재는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다음은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눈에 거슬리는 정수남에게 굴미굴산에 가 나무라도 해오라 채근하는 대목이다.

『정어신정수남아 추잡하고 누추(陋醜)하게 비근다리2치록 먹어놓고 일도 엇언 바짓허리 뒤집어놓고 너사농만 흐겠느냐? 다른 집의 수벨감 수장남덜 오늘날도 굴미굴산 들 어간 질로 죽은 삭달남 주워 시꺼 쉼머리엔 아진배기 신달리 꼽아놓고 어렷떠렁 오는 거 오죽 보기 좋겠느냐?』170)

두툽상어처럼 먹어대며 일은 하지 않고 이 잡는 일로 소일하는 정수남은 자청비의 눈에 비루하고 거친 모습으로 비쳐진다. ‘추잡하고 누추하다’

170) 현용준, 앞의 책, 331면.

라는 표현에서 자청비가 정수남을 바라보는 경멸의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자청비가 회구하는 문도령의 모습과는 극히 대립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청비의 시각에서 본 문도령과 정수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남성 관계 대상에 대한 자청비의 인식

문도령 / 정수남 = 천상 / 지상,
 상 / 하,
 우월 / 열등,
 훌륭한 / 비루함,
 회구 / 멸시

자청비가 정수남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선은, 그녀가 정수남을 대하는 태도로서 드러난다. 아래의 존재, 열등하고 비루한 하찮은 존재로서 정수남을 인식하고 있기에,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존재일 뿐이다. 죽은 나뭇가지라도 꺾어오라며 정수남을 밖으로 내모는 자청비의 행위는 그러한 경멸의 시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한 경멸의 시선이 결국은 정수남의 공격을 불러오고, 그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일로 이어짐으로써 자청비로 하여금 그녀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축출당하도록 만든다.¹⁷¹⁾

그렇다면 자청비가 지닌 심리적 문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단순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를 내면화한 자청비의 남성성 발현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차별의 논리’ 그 자체가 문제이며, 그러한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자청비의 행위 방식이 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여성성을 억누르면서 남성성을 발현한다. 이는 사회적 차별의 논리로서 자기 자신을 차별하게 되는 자가당착적 행위이다. 또한 신분에 차별을 두는 사회적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하여 하인인 정수남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고 경멸한다. 이

171) 신동훈에 따르면, 자청비의 눈에 비친 정수남의 누추한 모습은 일 못하는 짐승, 먹을 것을 전해주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탐탁지 않은 가축과 땅(정수남)을 외면하고 하늘(문도령)만 바라보는 인간(자청비)에 대한 가축과 땅의 공격이, 자청비에 대한 정수남의 집간 시도로 형상화된다고 보았다. 신동훈, 앞의 논문, 130~131면.

또한 사회적 편견,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로써 자청비를 향한 사회적 편견, 그녀가 그에 저항하기 위해 내면화한 편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를 이루는 존재들을 우월하고 열등한 것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차별의 논리 그 자체이다. 이것이 자청비에게 내면화 됨으로써 그녀의 서사를 통해 ‘천상/지상’, ‘상전/하인’, ‘남성/여성’의 대립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사회적 편견

차별의 논리 = 우월 / 열등,
 천상 / 지상,
 상전 / 하인,
 남성 / 여성

○ 자청비의 내면

우월 / 열등 = 문도령 / 정수남,
 문도령 / 자청비,
 자청비 / 정수남,
 천상 / 지상,
 남성성 / 여성성

기실 정수남의 존재는 자청비가 그토록 경멸하고 하찮게 여길만한 것이 아니다. 자청비에게 있어 정수남은 운명적으로 연결지어진 삶의 동반자인 것이다. 정수남과 자청비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박봉춘본 <세경본푸리>에 잘 드러난다. 여기서는 둘의 탄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탄생하였다는 것은 자청비와 정수남이 운명적으로 엮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서사의 결말에 자청비와 정수남이 농경의 동반자가 되어 각각 중세경과 하세경으로 좌정하는 맥락도 그러하다.

이러한 둘의 운명적 관계를 신화적 맥락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중세경으로 좌정하는 자청비는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마소를 부려 농산을 일구는 ‘인간’을 표상한다. 그렇다면 하세경으로 좌정하는 정수남은 인간의 아래서 농경을 돕는 ‘가축’, 혹은 ‘땅’을 표상한다고 하겠다.¹⁷²⁾ 가축은 인간

에 의해 먹여지고 보살피짐으로써 인간에게 유용한 힘을 제공하도록 길들임 받는 존재이다. 또 땅은 인간의 손에 골라지고 경작되어짐으로써 산물을 내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정수남은 자청비가 품고 가야할 동반자로서 언제나 자청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청비는 자신이 돌보아야할 정수남을 더럽고 비루하게 여겨 방관하면서, 천상의 문도령만을 바라본다. 말하자면 정수남이 상징하는 것은 자청비가 벗어나고픈 비루한 '현실'일 수 있으며, 희구의 대상인 문도령이 상징하는 것은 '이상'일 수 있겠다.

○ 남성 관계 대상의 상징 의미

문도령 / 정수남 = 이상 / 현실

정수남이 표상하는 현실, 땅과 가축에 대한 자청비의 방관이 가져온 결과는 정수남의 거친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마당에 앉아 먹어대기만 하는 정수남의 모습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황폐하여 아무것도 생산해 낼 수 없는 땅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자청비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한다. 돌봄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망기한 채 하늘만 바라보며, 알아서 움직여 일을 하는 가축, 저절로 산물을 내는 땅이 되기를 바라는 태도이다.

결국 그러한 태도는 '아래'에서부터의 반격을 불러오게 된다. 자청비의 체근에 못이긴 정수남은 소 아홉 마리와 말 아홉 마리를 몰고 굴미굴산에 들어가 마소를 묶어두고 낮잠만 자다가 굶겨 죽이고 만다. 그리고 굶어 죽은 소와 말을 모두 먹어 치워버린다. 자신이 돌보아야 할 '아래'의 존재에 대한 의무는 망각한 채, 알아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생산해 내도록 하는 일방적인 요구가 화로 돌아온 셈이다.¹⁷²⁾

말과 소를 모두 먹어버린 정수남은, 벗겨낸 소가죽과 말가죽에 들고 간 도끼까지 모두 잃고 돌아온 뒤에, 그 핑계로 문도령이 선녀들과 노는 모

172) 자청비의 중세경 좌정과 관련한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는 줄고,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신화의 공간인식 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60면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신동훈은, '상인-신-하늘'로서의 문도령과 '하인-동물-땅'으로서의 정수남 사이에서 양자의 관계를 풀어내는 '농부'의 표상으로서 중세경 자청비의 상징을 해석한 바 있다. 신동훈, 앞의 논문, 123~138면.

173) "그러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 아래의 낮은 존재가 반격을 가해온다. 명령받은 것을 바치는 대신 아홉 마리 말과 소로 상징되는 인간의 소유물을 빼앗아간다." 앞의 논문, 131면.

습을 구경하다 잃었노라 이야기한다. 문도령을 보았다는 정수남의 말에 혹한 자청비는 정수남을 따라 굴미굴산에 올라가는데, 그 이동과정에 보이는 정수남의 태도는 자청비를 상전으로 여기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은 해당 부분에 대한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의 내용이다.

정수남이 물 드러세우명 물 안장 지울 때 비인 구쟁잇달살 허나를 물 등(馬背)에 노안
물 안장을 지와놓고

『상전남아, 다 뒤편수다. 어서 나옵서.』

즈청비가 물 안장 우(上)의 올라타젠 허난 물이 성식을 내명 들러퀸난

(중략)

『상전남아, 이 정심(點心)을 지(負)옵소서. 내 물 안장 그릇을 내오리다.』

『어서 걸랑 그리하라.』¹⁷⁴⁾

정수남은 자청비가 타고 갈 말을 준비하여 안장 안쪽에 조개껍데기 하나를 넣어두고, 자청비가 말에 오르면 조개껍데기에 찢린 말이 성을 내도록 준비한다. 뜻한 대로 되어 정수남은 말을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말에 앉아 길을 가고, 자청비는 정수남 대신 점심 보따리를 들고 따라가게 된다. 분명 자청비는 상전이고 정수남은 하인이건만, 정수남의 꾀에 의해 둘의 입장이 뒤바뀐 모습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 구도의 역전이 낫설지 않다. 자청비의 우위에 서려하는 정수남의 모습이,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했던 자청비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핀 바, 자청비는 여성인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차별적 논리에 맞서서, 문도령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또 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하인인 정수남도 자신을 하찮고 더럽게 여기는 자청비의 차별적 논리에 맞서서, 자청비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 맥락일 수 있다.

○ 열위로 인식되는 존재의 관계적 우위 의도

문도령(우위) / 자청비(열위) → 자청비의 우위 의도

174) 현용준, 앞의 책, 336~338면.

자청비(우위) / 정수남(열위) → 정수남의 우위 의도

결과적으로 자청비가 맞서고자 자신의 무기로 삼은 차별의 논리가, 정수남에게 투사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오게 되는 맥락이다. 이때 정수남에게 있어 그 공략의 지점이 되는 것은 ‘여성-남성’의 관계로서의 자청비와 자신의 관계이다. 앞서도 말한 바, 자청비가 놓인 현실 세계의 인식에 따르면 둘의 우열 관계는 묘한 구석이 있다. 신분상으로는 상전인 자청비가 우위에 놓이지만, 성별에 대한 인식으로는 남성인 정수남이 우위에 놓이는 것이다.

○ 정수남과 자청비에 대한 현실 세계의 인식

정수남 / 자청비 = 하인 - 열위 / 상전 - 우위
 ↓
 남성 - 우위 / 여성 - 열위

따라서, 자청비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수남은 ‘여성-남성’의 관계로써 자기 존재 증명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자청비와 관계를 맺으며 ‘남성’으로서 우위를 점하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자청비에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는 자청비를 겁탈하려는 시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자청비를 상전으로 인식한다면 불가능한 시도이다. 관계적 열위에 있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정수남으로 하여금 자청비를 침범할 마음을 품게 하였던 것이다. 고립된 상황에서 저항할 힘이 없는 자청비의 손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허리를 안고, 가슴을 만지고자 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 육체적 힘이 모자란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강자의 횡포에 다를 아니다. 것처럼 표층적으로 정수남의 욕망투사 행위로 보이는 겁탈 위협의 이면에는, “너는 약한 여성이니 너의 마음과는 상관 없이 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자청비의 약함을 노려 여성으로서의 열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자신을 차별적 논리로 제단하여 하찮게 보는 자청비에게, 똑같은 차별의 논리로써 응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청비는 한 발 물러나기를 선택한다.

정수남의 요구대로 여성으로서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마치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정수남아, 기영 용심만 내지 말곡, 서산(西山)에 헤 점시메 오늘 처낙(今夜) 밤유이(留依) 흐게 도롱담이나 다왕 움막이나 짓게.』 (중략) 안으로 불 비치는 고맏마다 정수남이 소왕소새 비여단 열고망 막으민 즈청빈 안에서 다섯고망 빵 조롭데레 끌아 앓곡 (중략) 기영저영 흐는 게 먼동인동 계면천지(開明天地) 북아간다.

정수남인 더군다나 동서(東西) 퍼짜허여가난 즈청비가

『정수남아, 기영 성식을 내지 말앙 물뜰래나 뱃겨당 깃랑그네나 무릅(膝)이나 베영 누라. 머리엿 너나 잡아주마.』 (중략) 정수남인 무정(無情) 눈에 잠이 들어간다.

윤의 보난 멩게낭자왈 시난 멩게낭 코지 브수완 웨귀(左耳)로 느단귀(右耳)레 나오게 잡아 질렀더니 정수남인 얼음산(氷山)에 구름 녹듯 죽어간다.¹⁷⁵⁾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자청비가 이리저리 말을 돌려 피하자, 정수남은 ‘팔죽 꿇듯’ 화를 낸다. 그대로 그 요구를 묵살하였다간 자청비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에 자청비가 “같이 누울 움막이라도 짓자”고 정수남을 달래니, 정수남은 그녀가 자신의 요구를 수락한 것으로 알고 신나게 움막을 짓는다. ‘움막’은 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상징하는 것으로, 움막을 짓도록 하는 자청비의 말은 정수남에게 둘 사이의 ‘남성-여성’으로서의 관계가 정식으로 맺어지도록 하자는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익일 아침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자청비의 꾀였다. 정수남이 역새를 뜯어다가 열심히 움막의 구멍을 막으면, 자청비는 그 역새를 빼내어 자리에 깔고 앉는 방식으로 움막의 완성을 방해한다. 정수남이 움막 짓기에 열중함으로써 자청비와 ‘남성-여성’으로서의 관계 기반을 형성하고자 노력한다면, 자청비는 정수남이 형성한 ‘남성-여성’으로서의 관계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 움막 짓기

정수남 / 자청비 = 구멍을 메움 / 구멍을 만듦,
 관계기반 형성 / 관계기반 파괴

이는 정수남의 욕망을 받아들이는 체하며, 직면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175) 현용준, 앞의 책, 342~344면.

기만이다. 그에 정수남은 다시 ‘팔죽 꿇듯’ 분노한다. 여기서 더 이상 그를 자극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에 자청비는 정수남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눕도록 하여 안심시킨 후 그 귀에 청미래덩굴을 찢러 죽이기에 이른다. 감히 자신을 침범하려한 열위의 존재를 가차 없이 제거하는 방식이다.

차별의 논리에 대항하여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자청비가, 그러한 차별적 시선을 정수남에게 투사하고, 정수남은 또 그에 맞서 차별의 논리로써 자청비를 침범하려 하였다. 그리고 자청비는 다시 차별의 논리를 통하여 정수남을 처형하기에 이른다. 앞서 문도령에 대립하는 정수남의 존재성이 자청비의 현실을 표상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정수남이 죽게 되는 맥락은,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삶이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파괴해 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¹⁷⁶⁾

○ 정수남 살해 = 자신의 현실 파괴

그렇다면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해함으로써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도, 자청비 스스로 자신의 현실적 삶의 기반을 파괴해버린 상황이 상징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모의 집에서 쫓겨남 = 현실적 삶의 기반 파괴

지금까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자청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자청비의 서사를 통해 탐색해 보았다.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여성으로 태어난 자청비를 ‘모자란 존재’, ‘결핍된 존재’, 그리하여 열위에 놓여야 할 존재로 보는 현실세계의 논리에, 자청비는 남성성을 발현함으로써 남성

176) 정수남의 겁탈시도와 자청비의 응징에 대하여 조현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조현설, 앞의 논문, 105면). “이 극단적 대립은 목축과 농경의 갈등이 제주 사회에서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성지배 하의 남녀 갈등이 적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이 경험했던 사회적 억압과 그 억압을 넘어서려는 내면의 목소리 또한 강력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젠더의 갈등 측면에서 이해한 논의로써, 여성으로서 자청비가 경험한 억압이 공격적인 행위방식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이해할 만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성적인 차별의 문제에서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자청비와 정수남 양자가 서로를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이처럼 극단적인 대립의 문제로 번져나가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뒤떨어지지 않는 자신을 증명하고 관계에서 우위에 위치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대항한다. 이는 편견의 논리로 편견에 맞서는 방식으로서, 본질적으로 그러한 편견의 논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여성/남성’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자청비를 바라보는 차별의 논리 그 자체가 문제이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기 존재증명의 논리로 삼은 자청비의 내면 심리가 더 큰 문제이다. 그러한 점이 드러나는 것은 정수남과의 관계에서이다.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자청비는, 비루한 아래의 존재 정수남을 멸시하고 방관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수남은 똑같은 차별의 논리로써 여성인 자청비를 남성의 힘으로 범하려 한다. 그에 자청비는 감히 자신을 침범하려 한 아래의 존재를 가차없이 처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정수남이 지닌 상징성이다. 정수남은 자청비와 운명적으로 연결지어진 존재로서, 자청비가 보듬어 안아야 할 현실의 동반자이다. 신화적 맥락으로 보자면, 인간인 자청비가 농경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가축과 땅이 정수남이 의미하는 바였다. 결국 자청비는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인 여성성을 억누르고, 자신이 품어야 할 아래의 존재인 정수남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현실적 삶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자청비의 심리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서사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핵심적인 대립구조를 통하여 밝혀보도록 한다.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임으로써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가기 까지, 서사의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립구조는 ‘우월함/열등함’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청비를 인식하는 사회적 차별의 논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월함/열등함’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의 논리는 구체적으로 ‘남성/여성’, ‘상전/하인’, ‘천상/지상’의 대립으로 나타나며, ‘여성’, ‘하인’, ‘지상’에 대한 ‘남성’, ‘상전’, ‘천상’의 우위로 이야기된다. 이는 다시 자청비에게 내면화되어 ‘문도령/정수남’, ‘천상/지상’, ‘상전/하인’ ‘남성성/여성성’으로 대립된다. 이 중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문도령’, ‘천상’, ‘상전’, ‘남성성’이며, 이것이 자청비의 존재증명을 위한 ‘이상’으로써 그녀가 추구하는 항목들이 된다.

○ 핵심 대립구조

• 사회적 편견 = 차별의 논리

우월 / 열등 = 천상 / 지상,
상전 / 하인,
남성 / 여성

• 자칭비의 내면

이상 / 현실 = 존재증명 / 사회적 편견,
우위 / 열위,
문도령 / 정수남,
천상 / 지상,
상전 / 하인,
남성성 / 여성성

자칭비는 그녀의 세계에 의해 그 출생부터가 ‘정성이 모자란 결과’로 평가된다. 그 ‘모자람’이란 자칭비가 지닌 ‘여성’으로서의 존재태에 결부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외부의 세계’는 자칭비를 ‘열등한 존재’로 판단내리고 ‘나’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려 모든 관계에서 ‘우위’를 잡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로써 ‘외부의 세계-나’의 관계축은 대립적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자칭비와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축을 형성하는 존재들, 문도령, 부모, 정수남 등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세계’의 시각을 ‘나’에게 투사하는 표상들로서 이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관계의 대상은 문도령과 정수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칭비와 ‘남성-여성’의 관계를 이루어 각각, ‘이상’과 ‘현실’, ‘천상’과 ‘지상’, ‘우위’와 ‘열위’의 대립적 가치를 표상한다. ‘천상’의 존재이자 ‘우위’의 존재인 문도령과 이루는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 축은, ‘나’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본질인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최고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상’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최고의 남성에게 기대어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자기 존재를 통한 존재 증명이라고는 볼 수 없

다. 더하여 최고의 남성인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여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행위가 문도령과 이루는 ‘관계의 대상-나’의 축을 단절시키기에 이른다.

정수남과 이루는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 축에서, ‘관계의 대상’인 정수남은 ‘하인’으로서 ‘열위’의 존재로 자칭비에게 인식된다. 실상 정수남은 자칭비의 현실적 삶의 바탕을 이룰 ‘땅’, ‘가축’의 표상으로서 그 자체로 자칭비의 ‘현실’을 표상하기도 한다. 문제는 자칭비가 내면화된 차별의 논리로 인해 그를 하찮게 여기고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그에 정수남은 자칭비가 자신에게 투사한 그대로의 방식으로, ‘남성’으로서 ‘여성’인 자칭비에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그러한 행위가 자칭비로 하여금 그의 존재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칭비가 내면화한 차별의 논리가 스스로 자신의 현실적 삶의 기반을 파괴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이처럼 자칭비의 무의식에서 경험적 자기 인식의 판단 기제로 작용하는 ‘외부의 세계-나’,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 축은 모두 극심한 대립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나’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란, ‘외부의 세계’가 나를 평가하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나’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 차별의 논리를 수용하여, 자신의 ‘여성성’을 억누르고,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남성성’을 통해 ‘외부의 세계’, ‘관계의 대상’에 대응한다. 이는 자기 증명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자신의 열등감이 자극될수록 차별의 논리는 더욱더 내면화되고, ‘외부의 세계’와 ‘관계의 대상’에게 차별의 논리를 투사하여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큰 갈등을 빚어낸다. 정수남의 겁탈위협에 살해로 보복하고, 그로 인해 부모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귀결은, 그녀가 내면화한 차별의 논리와, 외부로 향한 차별의 논리 투사가 가져오는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도령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정수남과의 관계까지 그녀가 관계 맺은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의 집’으로 표상되는 세계로부터 배제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3.3.3. 자청비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

- 차이와 역할의 인정을 통한 자기와의 화해

희구의 대상인 문도령은 천상으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고 부모의 집에서 쫓겨난 상황,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현실적 삶의 기반이 붕괴해버린 존재적 위기 상황에서 자청비의 문제 해결 과정은 시작된다. 그리고 술한 우여 곡절을 겪으며, 결국은 신직에 좌정함으로써 그녀의 서사는 결말을 맺는다. 세계로부터 축출당한 존재로부터 신으로의 좌정까지, 그 역변의 과정 속에서 자청비의 콤플렉스 극복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정수남을 죽이고 부모의 집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중세경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청비의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 나타난 서사의 국면을 따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한다.

자청비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에 해당하는 서사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A 정수남 재생
- B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이 됨
- C 천상으로의 진입과 문도령과의 결연
- D 문도령의 죽음과 재생
- E 지상으로 내려와 중세경으로 좌정

우선 ‘A 정수남 재생’ 순차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본다. 부모의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우선 정수남을 되살리는 일에 착수한다.¹⁷⁷⁾ 앞서 말한 바, 현재 자청비가 놓인 상황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고, 발붙일 곳이 없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수남을 살리고자 하는 자청비의 의도는 세계와의 화해 시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된 자청비가, 그녀가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문제, ‘정수남 살해’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계와의 화해를 시도하려는 의도로써 ‘정수남 재생’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자청비가 자신을 거부한 세계와 화해할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177) 강을생본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을 되살리는 서사가 후반부의 문도령을 되살리는 상황 앞에 제시된다. 이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청태산 마귀할멈(주모할멈)을 만나 수양딸이 되는 상황이 앞서게 되지만, 여타의 이본들에서는 가장 먼저 정수남을 살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한 반성의 결과일지 모른다.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에는 정수남을 죽인 것에 대한 부모의 질책에 대해 “그 중 하는 일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는 자청비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 년아, 저 년아 남도 낫져. 지집년이 사름을 죽이다니 너넨은 놈의 집의 씨택(씨宅) 가민 그만이며, 그 중은 살려두민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오뎡은 허여 준다.』

『부모님아, 기영하민 내 그 중 하는 일을 다 하오리다.』

『어서 걸랑 그리하라. 어디 보져, 허여 지카.』

벨진 밧디 좁씨 닻말 닻뉘(五斗五升) 칠세오리 빼여놓고 쯤청비아피 다 좃어 오렌 흐난 눈물로 드릴 노명 방울방울 좃는 것이 닻말 닻뉘 칠세 오리 좃단 보난 좁씨 흐방울이 간 곳 었어, 이 구석 저 구석 좃아도 못 좃안 밧도 밧기 나오단 보난 게예미놈이 좁씨 흐 방울 물어아전 도뻬기 나오라시난

『말 모른 버리지야, 너도 나 간장을 테우느냐?』

좁씨 흐 방울을 빼여앗안 준둥이를 불러부난 그 때에 낸 법으로 게염지 준둥이가 그는 법입네다.¹⁷⁸⁾

정수남을 죽인 일을 부모에게 고하자, 부모는 “너는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정수남은 우리 먹을 농사를 짓는다.”라며 자청비를 나무란다. 앞서서 그 말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청비에게 있어서도 그 말이 여성인 자신을 비하하는 말로 인식된 듯하다. 곧바로 자신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며 맞서는 자청비의 모습을 보면, 그 말에 여성인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해냄으로써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얼핏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비취질 수 있는 부모의 말은, 실상 ‘아래의 존재’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을 내포한 것일 수 있다. 누군가의 아래,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존재들의 움직임이 바로 인간 사회를 존속케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⁷⁹⁾ 따라서

178) 현용준, 앞의 책, 345~346면.

179) 신동훈은 이 대목에 대하여 “자기를 범하려 드는 중을 죽인 자식에 대한 반응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여성에 대한 깊은 편견이 개재돼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보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저 부모의 말 그대로다. 실제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 아래의 존재들이다. 하인, 짐승, 그리고 땅. 그것을 죽여 없앨 때 사람들의 바탕은 사라진다. 그러니 그러한 죽음이란 부정한 일,

」부모의 말은 여성인 자청비가 남성인 정수남을 죽인 것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지만, 차별의 논리로써 아래의 존재인 정수남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차 없이 제거해버린 자청비의 행위방식에 대한 질책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삶을 통한 차별의 경험으로 인해 콤플렉스가 형성되어 있는 자청비는, 부모의 발언이 지닌 양자의 가능성 중 후자의 것을 인지할 수 없다. 콤플렉스가 자청비의 의식을 견인하고 있기에, 양자의 의미 중 그녀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전자의 의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언제나 되풀이된 반응이 일어난다. 바로 남성인 정수남이 하던 일을 몸소 해보이려는 시도이다.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자청비에게 있어서 하찮은 정수남의 일이란 별로 어려울 것 없는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우습게만 보이고 하찮게만 보였던 정수남의 일을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았을 때, 그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눈물로 다리를 놓으며’ 한 발씩 움직여 밭에 뿌려진 다섯 말 다섯 되 칠세 오리의 좁씨를 찾아나가는 일이고되고 지난한 일이었다. 좁씨 한 방울을 찾지 못해 허우적거리다가 좁씨를 물어간 개미와 실랑이 하면서, 우습게만 보았던 정수남의 삶, 그가 상징하는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를 몸소 깨달았던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흘린 ‘눈물’이란 깨달음의 눈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¹⁸⁰⁾

요망한 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신동훈, 앞의 논문, 132면). 차별의 논리를 통하여 아래의 존재를 멸시하고 배제하는 일이 인간의 현실적 삶의 바탕을 파괴하는 일일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80) 이에 대하여 신동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모한테 질책을 당한 자청비는 정수남이 하던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며 좁씨를 뿌렸다가 걷는 일에 나선다 이는 씨앗을 파종했다가 추수하는 행위를 표상하는 것일 터인즉, ‘농사’에 해당하는 일이 된다. 만만하게 여겼던 그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면서 움직였지만 자청비는 끝내 마지막 한 알을 찾지 못했다. 그 상태에서 자청비는 ‘눈물로 다리를 놓으면서’ 서천꽃밭으로 떠나게 되거니와, 필자는 이 대목에 심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 눈물이란 얼핏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로 보이지만, 실은 회한과 깨달음의 눈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아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다. 늘 자기 아래 있으면서 무언가를 만들어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저 ‘하인-짐승(가축)-땅’은 기실 이 세상에 있어 자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며 가치로운 존재였던 터였다. 그것을 아득히 모른 채 기고만장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존재가 자기 자신이었다. 쏟아지는 눈물. 세계관의 극적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된다. 이제 비로소 자청비는 저 아래로 손을 내밀어서 그간 자신이 경시하고 거부해왔던 것들을 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다.”(신동훈, 앞의 논문, 132면) 이는 자청비가 정수남의 일을 대신 수행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보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차별의 논리를 깨뜨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도 의미 있는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깨달음은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현실이 지닌 가치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문도령은 ‘이상’을 의미한다면, 정수남은 벗어나고 싶은 ‘현실’을 의미함을 지적하였다. 아래의 존재인 정수남을 통해 형상화 되는 현실은, 자청비가 살아내야 할 열위의 여성으로서의 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를 깨닫는 일은, 열등한 것으로 보고 배제하였던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다시 생각할 계기가 된다. 또한 여성의 본질을 지닌 자신이 남성성의 발현을 통해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고의 남성인 문도령과 경쟁하면서, 투박하고 비루한 정수남은 경쟁의 상대로도 여기지 않았던 자청비였다. 그러나 남성 중에서도 가장 하찮다고 여긴 정수남의 역할마저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좁씨를 뿌리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 자청비는 깨닫게 되었을지 모른다.

○ 눈물

깨달음 =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
현실이 지닌 가치,
여성성이 지닌 가치
남성성을 통한 자기 증명의 한계

그렇다면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에서, 쫓겨남의 과정 없이 자청비가 스스로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을 찾아가는 맥락도 이해 가능하다.¹⁸¹⁾ 것처럼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에 대한 깨달음, 현실이 지닌 가치에 대한 깨달음, 스스로 억눌러온 자신의 여성성이 지닌 가치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청비는 자신의 인식적 과오를 돌아보게 되고, 그 수정을 통해 세계와 화해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자청비가 스스로의 밭로 집을 나서 서천꽃밭으로 향하였던 맥락은 그와 같다고 본다.

그렇게 당도한 서천꽃밭의 상황이란 부엉이가 울어 꽃들이 시들어가는

181)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을 되살리는 과정 전에 부모에게서 쫓겨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배치는 다른 이본들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이지만, ‘현실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의미 맥락은 오히려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인다.

파국의 상황이었다.

남즈행착 출려아전 타단 뭉 둘러타고 눈물로 드릴 노명 알(下)엿 ㅁ을(里)을 들어사단
보난 어린아이 셋(三)이 부영샐 ㅎ나 놓고 싸움싸움 허염시난(중략)

즈청빈 부영샐 아전 알(下)엿 ㅁ을 황세곤간 서천꽃밭디 부영샐 데껴두고 멩암(名衙) ㅎ
장을 드렸더니 황세곤간이 나오란 보고

『어딿 도련(道令)이 뉘웁데까?』

『그런 게 아니라 서천꽃밭(西天花田)을 지나가단 보난 부영새가 놀암시근테 뭉 우희서
살(矢) ㅎ 대를 쏘았더니 맞안 서천꽃밭디 떨어지근테 부영새 살(矢)이나 좃아가젠 집안의
들었수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네까? 우리 집의 이 밤 저 밤 뉘민 부영새가 뭉팡돌(下馬石)에
얏앙 울어가민 우리 집안 승엄 주고 서천꽃밭 뉘망(滅亡)을 주웁네다. 그 부영샐 맞혀 주
민 우리 집의 사우를 삼으리다.』

『어서 걸랑 그럽소서.』¹⁸²⁾

제시된 것은 해당 부분에 대한 안사인본 <세경본풀이>의 내용이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을 향하는 길에 세 아이가 부영이 한 마리를 두고 서로 갓갓노라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를 본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환생화를 얻을 꾀를 낸다. 아이들의 부영이를 자신이 사서 서천꽃밭에 던져두고, 부영이를 잘 잡는 명사수 행세를 하여 서천꽃밭에 머무르고자 함이다. 그것은 서천꽃밭에 저주 받은 부영이가 울어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자청비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에 대한 인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녀가 저주 받은 부영이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봉춘본 <세경본풀이>를 보면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이자 왼쪽 귀에서 삐죽새, 오른쪽 귀에서 부영이가 나왔다는 내용이 제시되는데, 서천꽃밭에서 울음을 통해 저주를 내리는 부영이가 정수남의 원령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청비는 원령으로 화한 정수남의 울음이 서천꽃밭에 저주를 내리고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그 해결자로서 서천꽃밭에 들어가 환생화를 얻을 계획을 짜낸 것이다.

여기에서 서천꽃밭에 내린 저주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서천꽃밭이란 인간 만사의 의미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공간이다. 정수남의 원령이 화한 부영이가 원한의 울음을 토함으로써 서천꽃밭의 꽃들이 시들어간다는 것은, 정수남이라는 존재, 자청비가 놓인 현실의 표상을 그녀의 손으로 죽
182) 현용준, 앞의 책, 345~347면.

임으로써 그녀가 살아가야 할 현실의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¹⁸³⁾

○ 부영이의 저주

현상 / 의미 = 서천 꽃밭의 꽃이 시듦 / 자청비의 현실 세계 붕괴

따라서 자청비의 손으로 정수남을 되살린다는 것은, 곧 서천꽃밭의 회복을 의미한다. 서천꽃밭의 회복과 정수남의 재생은 별개의 사건으로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의미 맥락상으로는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자신이 부정하였고 그로 인해 그로부터 축출당한 자신의 세계와 화해함으로써 자신의 현실 세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것은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아래의 존재와의 관계를 재설정함을 의미한다.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겼던 아래의 존재, 정수남이 지닌 가치를 재인식 하고 그와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그녀 안에 공고하게 자리 잡았던 차별의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수정됨으로써, 열위의 것으로 인식하여 자기 안에 억누르고 배제하였던 자신의 존재적 본질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말과 같다.

○ 정수남을 되살림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정 → 자신의 존재적 본질 인정

자청비가 자신의 존재적 본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맥락은, 서천꽃밭의 회복을 위한 그녀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은 이달춘본 <세경본>에서 서천꽃밭에 저주를 내리는 부영이, 정수남의 원령을 잡기 위한 자청비의 행위가 제시된 부분이다.

183) “생명을 표상하는 신비의 꽃들이 피어있는 서천꽃밭에 흠뻑이 내려 멸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천꽃밭의 꽃들이 죽는 상황이란 곧 이 세상의 생명이 퇴색하고 소멸하는 상황의 상징이 된다.” 신동훈, 앞의 논문, 131면.

그날 밤은 자청비가
 이 밤 저 밤 새가 되던
 옷을 흔들만 입던 나간 있던
 부엉새가 돌아오던
 옷을 문들래기 벗던
 꽃밭 가운데 간 누어시던
 부엉새가 자청비 뱃뒤레 완
 앓이던
 자청빈 부엉새 폭기 심던
 쌀을 꼬주완 율데레 맺겨두고¹⁸⁴⁾

자청비는 정수남의 원령인 부엉이를 불러내리기 위해 옷을벗고 여성의 몸을 내보인다. 관계 맺음에 있어서 언제나 남성성을 발현하며 그 관계를 지배하려 하고,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하였던 자청비가, 여성으로서의 본질을 가리던 남성의 옷을 벗고 여성의 몸을 드러냄으로써, 꾸며진 남성의 형상이 아닌 여성적 본질로써 관계맺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¹⁸⁵⁾ 그녀가 외부에 내보이고 있던 남성성은, 곧 그녀에게 내면화된 차별의 논리가 의식적인 성격과 행위방식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남성의 형상이 아닌 여성적 본질로써 관계맺음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수남을 아래의 존재로 보는 차별의 논리가 아닌 존재 그대로에 대한 포용의 자세를 통해 온전한 관계맺음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관계 맺은 정수남은 더 이상 ‘아래의 존재’가 아닌 공존의 대상이자 동반자가 된다. 천하고, 더럽고, 추하고, 낮은 존재로서 배척하고 멸시할 때에는 거칠고 흉포한 모습으로 달려들었던 그가,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려 하니 그 관계는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관계로 거듭난다. 그러한 관계는 훗날 중세경과 하세경의 관계로 이어져 온 세계에 생명의 기운이 깃들게 하는 것이다.

184) 진성기, 앞의 책, 251면.

185)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부엉새가 된 정수남의 뉘를 불러내어 자기의 맨 젓가슴에 내려앉게 한다. 그렇게 정수남의 맺힌 원은 풀리고, 자청비의 손에는 환생꽃이 들린다. 그 환생꽃이란 곧 자청비의 내면에 피어오른 포용과 생명의 기운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동훈, 앞의 논문, 132~133면.

○남성의 옷 / 여성의 몸 = 남성성 / 여성성,
 차별의 논리 / 존재 그대로에 대한 인식

여기서 정수남의 원령인 부엉이를 다시 죽인다는 것이, 정수남에 대한 폭력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부엉이는 소멸되어야 할 존재이다. 원한의 형상으로서의 부엉이가 죽어야만 되살린 정수남을 통해 현실과의 화해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자청비가 여성으로서의 본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열위나 결핍의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정수남에게도 그 존재 그대로의 가치가 있듯, 자신의 여성성도 그 자체의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가 관계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재생된 정수남이 거칠고 흉악한 이전의 정수남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말이다.¹⁸⁶⁾

그러므로 부엉이를 죽인다는 것은, 세계가 강요했고 스스로 내면화한, 여성성에 대한 내면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함을 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이 포용의 존재로서의 여성적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내면에서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내면의 콤플렉스를 형성하던 차별적 인식을 제거하고, 존재 그대로가 지닌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부엉이 살해 =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 차별적 인식 제거
 ↓
 정수남 재생 = 여성성에 대한 인식 재구성 = 존재 그대로에 대한 인식

그러나 자신의 존재적 본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그녀의 걸모습은 남성의 옷을 입고 있다. 열위의 존재,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깨어지고, 자신의 여성적 본질이

186)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였지만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되살린다. 되살릴 뿐만 아니라 정수남의 성품을 바꿔놓는다. 되살아난 정수남이 말고삐를 잡고 ‘하던 행실(行實)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존재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조현실, 앞의 논문, 107면.

지닌 힘은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나, 우위의 존재,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보다 우위로 인식되는 남성의 형상을 자청비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은 자청비가 완전한 남성의 입장에서 서천꽃밭 주인대감의 말쑤딸아기와 결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도령님 덕택으로 생일
 든 심어졌수다.
 그 은공을 다 갚을 수가
 었수다.
 우리집 말쑤딸에 장개들기
 어떻게우짜?”
 (중략)
 자청빈 과거하례 나가명
 말쑤딸애기신디 꽃귀경을
 못하고 가난 섭섭하덴
 하는구나.
 (중략)
 자청빈 툇툇 꽃을 타단
 우머니 쏘곶데레 담는구나.¹⁸⁷⁾

제시된 내용을 보면, 자청비는 정수남을 살릴 환생꽃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말쑤딸아기와 결연하고 있다.¹⁸⁸⁾ 결국은 여성적 본질이 지닌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면서도, 자기 외부로 향한 남성성의 발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생꽃을 얻어 정수남을 되살림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현실세계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자청비의 화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부모의 세계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청비의 콤플렉스 문제는 분명

187) 진성기, 앞의 책, 251면.

188) 이에 대하여 말쑤딸아기의 존재를 자청비가 통합시켜할 여성 원형으로 보고, 남성의 페르조나(persona)를 지닌 자청비가 자신의 여성 원형인 말쑤딸아기와 조우하게 된 것으로 보는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김병주, 앞의 논문, 573면). 그 논의의 맥락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개인의 꿈과 신화를 동질의 것으로 보고 원형 상징의 분석에 초점을 두는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그 논의에 있어서 서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자청비의 콤플렉스에 대한 서사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인지하면서도 말쑤딸아기를 자청비의 여성 원형으로 보는 시각을 취하지는 않는다.

해결의 길로 들어섰으나, 부모로부터 귀환을 거부당하는 것은 아직 그녀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A 정수남 재생’ 서사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정수남을 죽임으로써 현실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청비는, 자신의 과오를 되짚어 해결함으로써, 자신이 배척하고 그리하여 자신을 내친 현실 세계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는 차별의 논리로서 떨치고 배척했던 ‘아래의 존재’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것이었다. 비록 정수남을 되살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청비의 부모는 그녀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가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모든 존재를 위와 아래로 구분 짓는 차별의 논리 중에서도 ‘열위’,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수정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A의 서사는 1차적으로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정’으로 의미화 할 수 있겠다.

A'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정

자청비가 아래의 존재로 여기고 배척하였던 존재는, 궁극적으로 자청비 자신이다. 사회적으로 열위의 존재로 인식되는 자신의 여성성을, 존재 증명의 이상에 저해되는 것으로 여기고 남성성을 발현해온 것이 자청비의 일관된 행위방식이다. 그러나 정수남 재생과정을 통하여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수정됨으로써, 자청비 스스로는 자기 안에 억눌렀던 여성성,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콤플렉스 서사의 측면에서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정’은 다시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A"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 수정

‘B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이 됨’ 순차의 서사는, 서사단락 (7)~(8)을 통해 제시된다. 부모의 집에서 다시 쫓겨난 자청비는 “눈물로 세수 하듯” 울면서 발 가는 대로 떠돌게 된다. 떠돌던 자청비가 하룻밤 유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린 것은 문도령의 혼수 베를 짜고 있는 청태산 마귀할멈의

집이었다.

“질 넘어가는 소녀가 당혹네다.
 흐룻밤만 요 무똥이나때나
 훗술 빌립서, 잣당 갈쿠다.”
 “어서 결랑 기영 흐여.”
 (중략)
 할망이 말을 흡을,
 “즈청비랑 우리집의
 수양딸로 삼아시민 줄키여.”
 즈청비가 말을 흐되,
 “어서 결랑 기영 흡서.”
 즈청빈 수양어명 삼으난
 지껴지고
 물 부름씨, 때 부름씨
 배치는 부름씨 흐는구나 189)

제시된 내용은 이달춘본 <세경본>의 해당 대목이다. 하룻밤만 의탁하겠노라는 자청비를 안으로 들이고 그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할멈은 자청비를 수양딸로 들일 뜻을 내비친다. 의지할 곳 없던 자청비는 기뻐하며 할멈을 수양어머니로 받아들이고, 물심부름을 하고, 끼니를 마련하고, 할멈이 베를 짜는 일을 도와가며 살게 된다. 여기서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로 살게 되는 과정이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만하다. 할멈의 집에 들어간 자청비는 할멈의 ‘수양딸’로 살아가며, 완전한 여성의 모습으로 ‘물심부름’, ‘끼니 마련’, ‘베 짜기’ 등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이는 할멈의 집이라는 공간이 자청비의 여성성 성장을 위한 수행의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수양딸 노릇(물심부름, 끼니 마련, 베짜기) = 여성의 역할 수행
- 청태산 마귀할멈의 집 = 여성성의 성장을 위한 수행 공간

A의 서사에서 자청비는 여성적 본질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그 힘

189) 진성기, 앞의 책, 252~253면.

을 자신의 힘의 일부로 받아들였지만, 온전히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자청비가 할멈의 수양딸로, 완전한 여성으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존재적 힘을 키워나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한 여성적 힘의 훈련은 단절되었던 관계를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자청비의 베 짜기를 통해, 그녀는 천상으로 떠나버린 문도령과 재회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¹⁹⁰⁾

『어머님아, 이 비단은 무슨 거 홀 비단어우까?』
 『이 비단은 하늘옥황 문왕상(文王星) 문도령(文道令) 서수왕의 장개(杖家) 가는 디 흥셋 비단(婚事緋緞)이 돼여진다.』
 즈청비가 눈물을 다르르 흘르명 마곳이 돼여가난
 『가련하다 가령비 즈청하다 즈청비.』
 일름 삼제(名三字)를 새겨두고
 (중략)
 주도할망이 노각성으로 하늘옥황 문도령신디 올라가 문도령아피 내여노난 문도령이 삼 식번(三番) 털뜨려보단 말을 흐뉘
 『이거 누게 짠 비단어우까?』
 『주년국땅 즈청비 짠 비단이 돼여진다.』
 (중략)
 『기영호건 날날 스오시민 즈청비를 만나키엿 일러주옵소서.』¹⁹¹⁾

앞서 문도령이 자청비를 떠나가게 된 맥락을,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자청비가 취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로 이야기한 바 있다. 문도령과의 결연을 존재증명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희구하면서도, 그 관계 맺음에 있어서는 경쟁의 우위를 통해 지배적인 위치를 지키려하는 남성적 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문제시 된다 본 것이다. 위의 존재에게는 우위를 점하려 하고 아래의 존재는 멸시하고 배제하는 것이 자청비가 내면화한 차별의 논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가 여성적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을 키워나감으로써 문도령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인다. 자청비가 짠 ‘혼수비

190) “자청비는 할망의 수양딸이 되면서 천상의 문도령의 혼수에 쓸 비단을 같이 짜게 된다. 여기에서 할망이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혼수 비단은 자청비의 여성성을 요구하는 결과물로 이들 재회의 직접적인 매개물이 된다.” 김병주, 앞의 논문, 572면.
 191) 현용준, 앞의 책, 351~352면.

단'이라는 여성적 행위의 결과물이 문도령에게 전해짐으로써, 문도령으로 하여금 자청비가 키워 낸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신을 지배하려 하고, 이기려 드는 자청비가 아닌, 자신을 포용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청비는 문도령에게도 희구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자청비의 여성성을 확인하자 곧 지상으로 내려 올 결심을 하는 문도령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둘의 극적인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방문 너머 그림자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가늠하다가 결국 둘은 다시금 엇갈리고 말았던 것이다.

“자청비야, 이 문을
나 문도령이여.”
“문도령이 뜰밧건
문틈으로 손을 내밀아 봅서
문도령은 문틈으로
손을 내민
귀신 생인을 굽갈라보젠
자청비는 바놓으로
문도령 송가락을 찢러본다.
그영혼
문도령은
“아가기여!”
흐명, 송가락을 확 빼연 보난
자주피가 불끈 난다.
“에이, 부정혼 년 혼군”
문도령은 흥쌔배를 7전
옥황으로 도올라간다.¹⁹²⁾

창호지 문 밖으로 어스름한 그림자가 비치며 “문도령이니 문을 열라.” 하는 말소리가 들려온다. 이에 자청비는 ‘귀신이 사람으로 둔갑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틈으로 손을 내밀라하여, 바늘로 그 손가락을 찢른다.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의 형상으로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상황은, 서로에 대한 의혹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로 흐릿하게 비쳐 보이는 상대방이 자신

192) 진성기, 앞의 책, 253~254면.

이 희구하는 그 사람이 맞는 것인지, 아니라면 한낱 허상일 뿐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일 것이다. 자청비가 짠 비단을 보고 그녀의 여성성에 이끌려 찾아온 문도령은 자청비를 부른다. ‘내가 생각하는 여성, 포용의 존재라면 어서 나를 받아들여라.’ 하는 확인의 과정이다. 그에 대해 자청비는 손을 내밀도록 하여 바늘로 찢른다. 약간의 해코지를 상대방이 참아 넘길 것인지, 그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이내 확인은 끝난다. 문도령이 찾아온 자청비는 여성으로서의 자청비이건만, 자신을 시험하는 자청비는 억압적으로 자신을 이기려 들고 지배하려 하던, 자신이 떠나온 그 날의 자청비였다. 아직 ‘위의 존재’에 대한 그녀의 차별적 인식은 그대로인 상황인 것이다. 확인을 마친 문도령은 부정하다 말하며 떠나갈 뿐이고, 그렇게 문도령을 떠나보낸 자청비는 마귀할멈으로부터도 쫓겨나게 된다. 다시금 자청비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이다.

○ 창문에 비친 그림자 = 의혹의 형상

• 문도령의 의혹

자청비 = 여성성 / 남성성
자신을 포용 / 자신을 억압

• 자청비의 의혹

문도령 = 참음 / 참지 않음,
자신의 우위 / 자신의 열위

이제 B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볼 수 있겠다. 자청비는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로서 여성적 역할을 수행해 가며 자신의 여성성을 성장시키게 된다. 이는 정수남 재생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여성성의 성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녀가 수행한 여성적 역할 수행의 결과물, 혼수 비단을 통하여 문도령이 다시금 자신을 찾아오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비록 문도령

과의 재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으나, 그녀의 여성성 성장이 그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볼 때에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B의 서사는 ‘여성적 역할 수행을 통한 여성성 성장’으로 의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B' 여성적 역할 수행을 통한 여성성 성장

자청비에게 있어서 여성성이란, 그녀의 본래적 존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적 역할 수행을 통한 여성성 성장’은 다시 ‘본래적 존재성의 성장’이라고 정리 될 수 있겠다.

B'' 본래적 존재성의 성장

‘C 천상으로의 진입과 문도령과의 결연’ 순차에 대한 서사는 서사단락(9)~(11)을 통해 진행된다. 마귀할멈의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울고 있는 선녀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천상에 진입하여 문도령과 결연하게 되는 과정이 이야기 되고 있다. 이 서사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자청비가 선녀들의 조력으로 천상에 오르는 대목이다.

흐를날은 삼도전거리예 궁녀 시네(宮女侍女) 앓아 비새궂썩 울엄시난 자청비 말을 하웨 『느넬덜은 어찌허여 이디 앓아 우느냐?』
『아기씨 상전(上典)남아 우리는 하늘옥황 궁녀(宮女)롭서 문도령님이 인간에 느려사 주년국땅 자청비하고 알(下)엿넬의 글공부 가 올 때, 자청비 몸모욕허려난 물이나 떠오민 물맛이나 보키엔 허여노난 어디가 자청비 몸모욕허여난 물인지 못찾안 비새궂썩 우옵네다.』
『설운 이야기 나가 자청비 뉘여진다. 나 몸모욕허여난 물 거려주건 느넬덜광 궂썩 노각성자부줄로 옥황의 올려줄티야?』
『어서 걸랑 그럽소서.』 193)

무엇보다도 먼저 주목되는 점은, 자청비가 직접 문도령을 찾아 나선다는 점이다. 버드나무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글을 써서 흘려보내고, 혼수 비단에 글을 써서 보냄으로써 언제나 문도령으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오도록 만들었던 자청비가 제 스스로 문도령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두

193) 현용준, 앞의 책, 353~354면.

번의 이별을 경험한 자청비의 태도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오게 함으로써 관계적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포용적 자세로 돌아선 것이라 하겠다. 이는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던 이전의 방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포용의 태도로 먼저 상대방을 감싸 안는 자청비의 모습은 그녀의 존재적 본질인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문도령을 향해 가는 자청비가 여성의 존재성을 발현하고 있음은 자신이 목욕한 물을 매개로 하늘에 오른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목욕물을 걸러준다는 것은 자신을 가리고 있는 겉치레를 벗어 던지고, 본래의 몸 그대로를 물에 담가 그 물에 자신의 본질이 깃들게 함이다. 이를 통하여 천상으로 나아감은 곁에 두른 남성의 형상을 내던지고, 자신의 본질인 여성성을 통하여 문도령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자청비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자청비의 천상진입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적 본질을 통한 이상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 천상진입 = 여성적 본질을 통한 이상세계 진입

결국 문도령과 극적으로 재결합을 이루었으나, 정식으로 문도령의 반려가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문도령에게는 서수왕딸아기와의 혼인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문도령과 정식으로 결연하기 위해서는 죽음과도 같은 시험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쉬은자(五十尺) 구덩이 파놓고 솥 선섬 불을 질러 칼싼다릴 노아노난 (중략) 자청빈 비옥(翡翠) 궂썩 얼굴에 주춧궂썩 눈물을 연세지듯 허여가명 발에 신었던 백녹보선 벗어두고 궂썩 궂썩 발로 칼싼다리 우(上)의 올라산다. (중략) 흐 발은 땅에 놓고 흐 발은 칼싼다리 우(上)의 이실적이 술착하게 발뒤치기가 베여지난 자청비가 땅 알레레 느려사명 속 치멧각으로 썩기 쓸었더니 속치메가 버물어지는구나.194)

오십 척의 구덩이를 파고 오십 섬의 솥에 불을 붙여 그 위에 놓인 칼싼다리를 건너는 일은 죽음의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를 인간인 자청비가 천상의 존재와 결합하기 위해 죽음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존

194) 현용준, 앞의 책, 356~357면.

재적 변모를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⁹⁵⁾ 그에 칼선 다리를 건너온 자청비는 이전의 그녀와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다.¹⁹⁶⁾ 그 극적인 존재적 변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여성으로서의 본질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맥락은 칼선 다리를 건너는 중에 자청비의 발꿈치가 베여 난 피가 여성의 월경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성의 월경은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뜻하는 바, 생명을 그 안에 품는 기적이야 말로 여성적 본질이 지닌 위대한 힘의 표상인 것이다. 이에 비로소 자청비는 꿈꾸던 이상, 문도령과의 결연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가 지닌 본질인 여성성을 완전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힘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문도령이라는 이상의 존재를 반력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칼선 다리의 시험

존재적 변모 = 여성적 본질의 완전한 실현

그렇다면 ‘C. 천상으로의 진입과 문도령과의 결연’은 1차적으로 ‘여성성의 완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본래적 존재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C' 여성성의 완성

C'' 본래적 존재성의 완성

맥락상으로 여기서 결말지어져야 할 것 같은 자청비의 서사는, 예상과 달리 다른 국면으로 이어진다.¹⁹⁷⁾ 이야기의 시종 일관을 문도령과의 결연

195) 이를 계의적 맥락에서 사면의 입사의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이 이루어진 논의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양민주, 앞의 논문, 237면.

196) 길태숙은, 지상적 존재인 자청비가 신적 존재인 문도령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녀가 칼선 다리를 통과하는 시험을 치르는 것은, 자청비의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특별한 능력을 보여야 하는 시험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길태숙, 앞의 논문, 292면.

197) 이에 대하여 오세정은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탐색 가치를 찾았고, 서사의 거의 전 과정에서 문도령과의 온전한 결합을 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시련을 견디고 난관을 헤쳐온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 결말에 와서 주인공 자청비가 탐색하는 최종가치가 변하면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의 흐름이 다른 국면으로 흐르게

을 통한 자기증명의 이상 실현을 위해 달려온 자청비의 서사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진정한 자기증명이란 누군가의 존재성을 통하여 대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옳직한 자기의 존재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D 문도령의 죽음과 재생’의 서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자기증명의 과정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D의 서사는 서사단락 (12)~(14)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자청비를 욕심내어 문도령을 살해한 이들을 지혜로써 물리치는 자청비의 모습이다. 자청비가 자신을 욕심내는 이들의 음모를 예견하여 ‘잔치에 가거든 술을 한 잔도 받지 말라’고 하자, 문도령은 이를 잘 지켜 위험을 벗어나는가 싶더니 거지(혹은 노파)가 주는 술을 방심하고 받아 마심으로써 중독되어 죽음에 이른다. 이에 문도령의 시신을 확인한 자청비는 그 시신을 방 안에 눕혀두고 등이나 젓가락을 문에 달아두어, 그 소리가 마치 잠자는 문도령의 코골이처럼 들리도록 한다. 강을생본 <세경본>을 보면, 문도령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한 청년들은 자청비를 욕보이려 찾아와 우선 문도령의 생사여부를 확인한다. 그에 자청비가 방에서 잠이 들어있노라 답하고, 청년들이 소리를 들어 확인해보니 과연 코고는 소리가 난다. 그에 청년들은 독이 든 술을 먹어도 죽지 않는 문도령이 장사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한다. 문도령이 깔고 앉는다는 무쇠방석과, 즐겨 먹는다는 무쇠수제비를 접한 그들의 공포는 더욱 커진다. 그대로 자청비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문도령이 깨어날까 두려워진 청년들은 급히 자리를 떠나고 마는 것이다.¹⁹⁸⁾

여기서 보이는 자청비의 모습은, 자신의 지혜로써 위험을 물리치는 힘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그 힘이 제대로 청년들에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문도령의 살아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고의 반력을 맞아 최고의 여성성을 증명해내고, 자신이 지닌 힘을 통해 청년들을 물리치고 있으나 그 힘이 옳직한 자청비의 존재성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문도령을 다시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자청비가 지닌 힘

되는 양상을 지적한 바 있다. 오세정, 앞의 논문, 270면.
198) 진성기, 앞의 책, 258~259면.

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정수남을 되살림으로써 자각한 여성성의 힘이, 이제는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의 생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커져 있는 것이다. 그에 자청비는 더 이상 남성성에 기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청비는 죽음의 상태에 이른 문도령을 되살림으로써, 비로소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되살아난 정수남이 더 이상 ‘아래의 존재’가 아니었듯, 되살아난 문도령 또한 더 이상 ‘위의 존재’로서 자청비의 존재성을 증명해 줄 표상이 아니다. 자청비가 정수남 그대로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삶의 동반자로 포용하였듯, 문도령 또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단이나 경쟁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도령 그대로의 존재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래의 존재’와 ‘위의 존재’로 나누어 대상을 인식하는 차별의 논리가 완전히 수정됨으로써, 자청비는 스스로의 존재성이 지닌 가치를 온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서천꽃밭 말쑤딸아기의 남편으로 문도령을 보내는 맥락은, 약속의 이행이라는 표층의 의미 속에, 자신이 세계에 내보였던 남성으로서의 형상을 완전히 지우고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 문도령의 재생 =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정

○ 문도령을 서천꽃밭으로 보냄

표층 / 심층 = 약속의 이행 / 자신의 남성 형상 제거

그렇다면 ‘D 문도령의 죽음과 재생’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는, ‘차별적 인식의 완전한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인하여 자청비는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이 지닌 힘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D의 서사는 다시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리 될 수 있겠다.

D' 차별적 인식의 완전한 수정

D''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

D의 서사가 의미하는 대로, 자청비가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기에, ‘E 지상으로 내려와 중세경으로 좌정’ 순차로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 E의 서사는 서사단락 (15)~(18)을 통해 제시되는데, 서천꽃밭 말쑤딸아기의 남편 노릇을 하던 문도령이, 자청비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자청비는 편지를 써서 문도령을 책망하고, 이에 놀란 문도령은 급히 자청비에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문도령이 급한 마음에 말안장을 거꾸로 지워 거꾸로 말을 타고 온 것이 문제였다. 그것이 말쑤딸아기에게로 기운 문도령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 자청비는 망설임 없이 문도령과의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다.¹⁹⁹⁾

○ 거꾸로 탄 말

급히 돌아오려는 마음 / 말쑤딸아기에게 기운 마음

기실 자청비의 서사를 일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열위의 존재,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문제는 D의 서사를 통해 거의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청비가 내면화된 차별의 논리를 벗어나 스스로의 본래적 존재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문도령의 존재는 더 이상 자청비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한때는 문도령이란 존재 자체가 자청비의 존재증명의 이상을 표상하였으나,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존재성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그 자신의 존재성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문도령이 지닌 절대적 지위는 유명무실해진 것이었다.

그에 자청비는 자신이 떠나온 지상의 세계로 돌아가 중세경으로 좌정하게 된다. 그녀가 문도령을 떠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오곡의 종자를 받고 농신인 중세경으로서의 신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문도령과의 관계를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199) 진성기, 앞의 책, 261~262면.

것이다. 오묘한 존재성을 지닌 여성 자청비에게, 더 이상 지상의 현실은 비루한 것이 아니며, 이상적 삶도 저 먼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녀의 삶 자체가 현실이며, 이상인 완전한 삶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E 지상으로 내려와 중세경으로 좌정' 서사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자청비 자신의 삶을 통한 존재의 증명, '진정한 자기 존재의 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E' 진정한 자기 존재의 증명

그리고, 이를 자청비의 심리 측면에서 이해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콤플렉스의 극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E" 콤플렉스의 극복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박봉춘본 <세경본푸리>에 제시된 자청비의 계보에 관한 내용이다.

세경조부는동해바당김진국노불이
세경조모는서해바당조진국노불이
세경부친은수영대장누비저상
세경모친은천저석궁외딸아기²⁰⁰⁾

제시된 내용을 보면, 자청비의 조부 대는 '노불이'로 표현되고 있다. '노불(老佛)'은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老子)'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佛)'를 묶어 지칭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늙은 부처'를 의미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더라도, 그 말이 신성한 존재에 대한 지칭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자청비의 조부모는 동해와 서해를 각각 관장하는 바다의 신격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¹⁾ 따라서 자청비의 조부 대에 이루어진 신성한 존재간의 결합이 자청비 부친의 탄

200) 적송지성·추엽음, 앞의 책, 273면.

201) 설화의 인물들은 나름대로의 일정한 공간에 위치하는데, 이 공간은 그들의 본질적 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247면.

생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²⁰²⁾ 그러나 부모의 대에 이르러서는 '수영대장', '천저석궁 외동딸'의 인간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²⁰³⁾ 이와 같이 2대에 걸친 출생내력은, 본래 신성에 근거한 자청비의 존재성에서 신성이 탈각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자청비는 신성에 근원한 존재로서 신성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문도령은 천상의 존재로서 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구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임을 생각해보면,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결합을 그토록 강렬하게 욕망하게 되는 것도 이해 가능하다. 자청비에게 있어서 문도령과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은, 신성한 존재와의 결합을 통해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자청비가 중세경에 좌정하게 되는 것은, 그녀가 문도령을 떠나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이다. 그렇다면 그 신성은 세대를 거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상의 현실을 살아가며 '잊혀져간' 본질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²⁰⁴⁾ 이는 사회적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자청비가 자기 자신을 결핍의 존재로 여겼으나, 차별의 논리를 벗어나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천상의 존재와 결합함으로써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한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는지 모른다. 물론 문도령에 대한 회구와 그로 인한 추동으로 인해, 자청비의 서사가 신성의 방향으로 나아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녀가 염원하던 신성은 애초의 생각대로

202) 안사인본 <세경본푸리>에서는 자청비의 조부 세대가 '천황제석', '지황제석'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천상계와 지상계의 신성한 결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세경 하르방(祖父) 천황제석(天帝釋)

세경 할망(祖母) 지황제석(地皇帝釋)

세경 아방(父) 김진국 대감

세경 어명(母) 즈지국부인, 현용준, 앞의 책, 315면.

203) 조부모가 각각 동해와 서해를 관장하는 신격인 것에 비해 아버지가 '수영대장'이라 지칭되는 것은, 세대를 계승하여 그 영역을 물려받으면서도 신성은 탈각되어 가는 양상을 띤다. 어머니가 '천저석궁 외동딸'이란 것도 마찬가지이다. '천저석궁(天低石宮)'은 하늘 아래의 돌 궁전, 즉 지상 왕국을 의미하는 듯하고, 그렇다면 자청비의 어머니는 지상왕국의 공주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4)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경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서술이다 신화는 세경신 자청비의 할아버지가 '천왕(천황)제석'이고 할머니가 '지왕(지황)제석'이라고 말한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고귀한 존재, 하늘과 소통하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자청비였다. 자청비의 일련의 서사는 그 태생적 신성성을 발현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동훈, 앞의 논문, 137면.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기의 본질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냈듯, 그녀는 깨닫지 못한 신성이 이미 그녀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도령을 떠난 온전한 자기 자신의 삶, 지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자칭비는 신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자기 안에 감추어진 신성은 온전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 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칭비가 부모의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의 서사를 핵심적인 국면들로 나누어 각 순차의 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다. 그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A'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정 = A" 존재적 본질에 대한 인식 수정
- B' 여성적 역할 수행을 통한 여성성 성장 = B" 본래적 존재성의 성장
- C' 여성성의 완성 = C" 본래적 존재성의 완성
- D' 차별적 인식의 완전한 수정 = D"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
- E' 진정한 자기 존재의 증명 = E" 콤플렉스의 극복

이 중 콤플렉스의 치유 과정을 의미하는 항목을 추려 그 순차를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제시될 수 있다.

- A"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 수정
- B" 본래적 존재성의 성장
- C" 본래적 존재성의 완성
- D"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
- E"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

남성지배 질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논리가 자칭비에게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칭비는 남성에게 못하지 않은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행위방식을 일관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증명의 노력은 기실 자신을 향한 차별의 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칭비는 차별의 논리를 투사하며 '위의 존재'를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승리함으로써 스스로가 '위의 존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아래의 존재'는 멸시하고 배제하는 행위방식을 일관하게 된다. 이것

이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존재증명의 노력이 더해갈수록 스스로의 본래적 존재성은 더욱 위축되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지속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의 집'으로 표상되는 현실세계로부터 추방되기에 이른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형성된 자칭비의 콤플렉스가 그녀를 문제적 행위방식에 고착되도록 함으로써 존재적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에 A"의 단계에서 자칭비는 그녀를 현실로부터 추방되도록 한 핵심적인 과오를 수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수남의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아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결과이다. 이로써 자칭비는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이 수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점은 '남성의 옷'을 벗어던진 '여성의 몸'으로써 정수남의 원령을 끌어안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말쑥딸아기와 결연하는 남성의 형상을 통해서, 그녀가 지닌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내면화된 차별의 논리라는 콤플렉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칭비의 귀환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B"의 단계를 통해 자칭비는 본래적 존재성을 성장시킬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는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이 되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한 본래적 존재성의 성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녀가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인 여성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물, 혼수 비단을 본 문도령이 그녀를 다시금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칭비는 문도령에게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이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도령을 떠나 가게끔 한다.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행위는 자신의 관계적 우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칭비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그에 자칭비는 다시 청태산 마귀할멈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문도령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두 번의 실패 경험은 자칭비의 행위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C" 단계에 이르러 자칭비는 관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닌 포용의 태도로써 문도령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녀의 태도 변화를 상징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담근 물, 그녀의

여성성이 갖는 목욕물을 통해 천상으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결국 그녀가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유지하던 남성적 행위방식이 아닌, 본래적 존재성인 여성성을 통하여 꿈꾸던 문도령과의 재회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문도령과의 결연에는 칼선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존재변모의 과정이 과제로 주어지지만, 그녀가 본래적 여성성을 통해 천상에 진입하였듯, 여성성의 완성을 통하여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로써 문도령과의 결연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 자청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기 존재의 증명이라 할 수 없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은, 타인의 존재가 아닌 오롯한 자신의 존재성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D" 단계로의 이행은 필연적이다. 문도령에 기댄 존재증명이 아닌 자청비 자신의 존재로서 존재증명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힘은 문도령을 되살리는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정수남을 되살림으로써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하였듯, 문도령을 되살림으로써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하게 되고, 이는 존재 그대로에 대한 인정을 통한 차별의 논리 극복으로 이어진다. 비로소 각각의 존재들이 지닌 차이와 역할을 인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스로 억압하고 배제하였던 본래적 자기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자청비는 스스로 억눌렀던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가 획득한 존재증명의 이상을 실현할 힘이란,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다. 자신의 존재성을 확신하고 자신과의 화해를 이룬 자청비에게 더 이상 남성의 형상은 불필요하다. 말쑤딸아기에게 문도령을 보내는 행위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던 남성의 형상이 더 이상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최고의 반력으로서 문도령이 지니고 있던 절대적 가치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시종일관 존재증명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악전고투하였던 자청비가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존재증명의 수단이었던 문도령의 존재는 그 의미가 퇴색된다. 자청비가 미련 없이 문도령을 떠나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E" 단계에 이르러 자청비는 자신을 추방하였던 지상의 현실 세계로 귀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래적 자기 존재로서 지상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녀가 진정으로 꿈꾸었던 자기 존재의 증명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시된 단계 중, 자청비의 콤플렉스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A"와 D"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먼저 A" 단계의 콤플렉스 구조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 차별의 대상으로서 자신을 억누르는 사회적 관념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청비는 그녀를 향한 차별의 논리를 자신의 무기로 내면화한다. 그로써 그녀의 모든 관계가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다 정수남의 재생과정을 통하여 자청비는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래의 존재'로 치부하여 억눌렀던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 여성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본래적 여성성을 통해 문도령과의 결연하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끊어진 '관계의 대상-나'의 축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정수남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나-나'의 관계축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고, '나-나'의 관계축이 회복되기 시작함으로써 또 다른 중요한 '관계의 대상-나'의 축인 문도령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D" 단계에 이르러서는 문도령의 재생과정을 통하여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함으로써 그녀의 차별적 인식이 완전히 수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차별의 논리가 제거됨으로써 '나-나'의 관계축이 온전히 재건되며 자기와의 화해를 이룰 수 있었고, 이는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을 지닌 자청비에게 더 이상 세계의 차별의 논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더 이상 관계의 대상을 위와 아래의 존재로 구분하지 않고 존재 그대로의 차이와 역할을 인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타인의 시선에 구애됨 없이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의 내면에서 자기 인식의 기제로 작용하는 '외부의 세계-나', '관계의 대상-나', '나-나'의 관계축이 온전히 재건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자청비의 콤플렉스는 완전히 극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원리

4.1. 신화 속 콤플렉스 서사의 공통적 속성

앞에서는 세 가지 한국 신화 <숙영랑·앵연랑 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통하여, 현대인을 괴롭히는 여러 콤플렉스의 문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되는 세 콤플렉스의 유형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실마리를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적 결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의 관계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념의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의 논리를 벗어나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콤플렉스를 치유하고 극복해나가는 서사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써 거북이·남생이의 서사, 할락궁이의 서사, 자청비의 서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각 경우에 해당하는 콤플렉스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스스로의 콤플렉스를 극복해나갈 방향은 지시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상 현실의 삶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양상이란,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앞에 제시된 세 가지의 길이 그 중 많은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타의 콤플렉스 문제, 혹은 근본적인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지점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분석된 세 가지 신화 서사를 통해서,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에 관한 서사적 일반원리를 도출해 볼 수는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제 세 유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콤플렉스 일반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신화 서사가 담보할 수 있는 치유와 극복의 원리를 밝혀보도록 한다. 이는 말하자면 콤플렉스 일반의 문제를 감당하고 풀어낼 수 있는 한국 신화 일반의 서사에

대한 연구방법론의 구상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숙영랑·앵연랑 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거북이·남생이, 할락궁이, 자청비의 서사가 지닌 공통적 속성이다. 이에 우선 3장의 분석결과에 토대하여 세 신화 속 주인공의 서사에 드러나는 콤플렉스의 구조, 콤플렉스 극복 과정의 측면에 나타난 공통적 속성을 드러내보도록 한다.

4.1.1.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의한 콤플렉스 형성

먼저 세 신화 주인공의 서사에 드러나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비교하여 그 공통적 속성을 밝혀보도록 한다. 이는 콤플렉스의 형성에 대한 신화적 일반원리를 찾아가기 위한 방편이다. 각 신화의 분석에서 콤플렉스 구조를 드러내는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핵심 대립구조의 분석이었던 바, 콤플렉스 형성에 대한 신화적 일반원리를 서사적 측면에서 밝히기 위한 공통 속성의 탐색 또한, 공통적 대립구조에 대한 고찰에 기반 한다.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경우,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구조 형성에 핵심적인 대립구조를 이루었던 것은 ‘이상/현실’의 대립이었다. 거북이와 남생이의 부모로서 ‘관계의 대상-나’의 죽을 형성하는 숙영선비와 앵연각시는 ‘자녀의 장애’라는 ‘현실’을 인식한 충격과, ‘이상적인 자녀상’의 붕괴에 의한 절망으로 거부적 부모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거북이와 남생이를 ‘무능한 존재’로서 인식한다. 이에 대하여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들의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고 애정과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서의 ‘이상적 존재상’과는 달리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 부모의 죽음을 초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 절망감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부모의 평가를 그대로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때 그러한 부정적 자기 인식의 근거에 놓이게 되는 것은 ‘나’에게 존재하는 ‘신체적 장애’이며, 그것은 ‘이상/현실’의 대립구조에서 ‘현실’의 계열인 ‘신체적 장애 - 부모의 절망 - 부모의 죽음 - 무능무용의 존재성’의 첫 항목으로 놓인다.

형제는 그렇게 부모의 판단기준으로 ‘나’를 인식함으로써 ‘나’를 무능한

존재로서 확정하고, 무능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 그러한 부정적 자기인식의 영향력은 '외부의 세계'에서 조우한 집주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신체적 장애를 지녔다고는 하지만,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유능한 타인의 아량에 기대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외부의 세계'를 표상하는 집주인은 '나'의 자기인식을 수용하여, 그 역시 '나'를 무능자로 인식한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용한 존재'라는 거북이·남생이에 대한 평가는 '관계의 대상 → 나 → 외부의 세계'로 연쇄적으로 수용되어 결국 '나'의 방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은 순환과정을 통해 누적된 부정적 경험의 심상들이 거북이와 남생이의 콤플렉스를 강화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신체적 장애라는 '나'의 면모에 결부된 부정적 자기인식, '무능한 존재'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자극되고 강화됨으로써, 형제의 '이상'인 '건강한 신체 - 부모 기대 충족 -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 - 유능유용의 존재성'은 배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북이·남생이는 자신의 '현실'에 위축됨으로써 극단의 존재적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를 이루는 핵심 대립구조

[이상 - 건강한 신체 - 부모 기대 충족 -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 - 유능유용의 존재성 - 배제
대립
현실 - 신체적 장애 - 부모 절망 - 부모 죽음 - 무능무용의 존재성 - 추구

<이공본풀이>의 경우에도,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형성에 핵심이 되는 대립구조는 '이상/현실'이다. 자현장자의 집이라는 현실의 세계에 놓인 할락궁이는 '외부의 세계-나'의 축에서 자현장자의 억압으로 인해 스스로의 존재적 결함을 강하게 인식한다. 그것은 '관계의 대상-나'의 축이 내포한 '아버지의 부재'라는 관계적 결함에 의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관계의 대상-나'의 축에 실존하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는 자현장자의 종으로서 자신의 존재적 결함을 부각시킬 뿐이다. 이처럼 할락궁이에게 '존재적 결함'이라는 부정적 자기인식을 강화하는 '현실'은 '아버지의 부재 - 비천한 지위'로 계열화 할 수 있다.

'존재적 결함'이라는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인해, 할락궁이는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기제를 작동시킨다. 아버지가 부재하고 있는 관계 대상의 자리에 '이상적 아버지'라는 가상의 관계를 대치하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을 통해 존재적 결함을 채우고자 하는 무의식의 작용이다. 가상의 관계가 새로이 설정됨으로써, 그러한 가상의 관계를 축으로 할락궁이의 경험적 자기 인식 기제로 작용하는 '나-나', '관계의 대상-나', '외부의 세계-나'의 관계 축이 '이상'적 차원에서 새로이 배치된다. 이때 이상적 관계축의 형성에 관계하는 '이상'은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 - 이상적 자기상'으로 계열화 된다.

문제는 이상적 관계 축에서의 '나'와 현실적 관계 축에서의 '나'가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러한 갈등의 상황에 놓인 '나'가 자신의 결핍을 자극하는 현실의 관계 축을 부정하고, 이상적 관계 축을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나'의 현실적 삶의 기반이 파괴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가상으로 설정된 이상적 아버지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한 인정투쟁일 뿐이다. 따라서 이상적 아버지가 환상으로 존재하는 한, '나'의 인정투쟁도 끝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이 존재적 결함이라는 '나'의 부정적 자기인식을 자극할수록 '나'는 '이상'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이상'과 대립되는 현실의 상황은 분노를 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이상적 아버지의 존재성을 '나'의 존재성으로 증명하는 것에 방해되는 '현실' 그 자체를 배제하고, 나의 존재성을 증명해 줄 '이상'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행동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 할락궁이의 콤플렉스를 이루는 핵심 대립구조

[이상 -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 - 이상적 자기상 - 추구
대립
현실 - 아버지의 부재 - 비천한 지위 - 배제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의 경우에, 그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대립구조는 사회적 차별의 논리에 해당하는 '우월/열등'의 대립이다. 그리고 그러한 '우월/열등'의 대립이, 자청비의 내면에서는 '이상/현실'의 대립

으로써 자청비의 서사를 추동한다. 자청비는 그녀의 세계에 의해 그 출생부터가 ‘정성이 모자란 결과’로 평가된다. 그 ‘모자람’이란 자청비가 지닌 ‘여성’으로서의 존재태에 결부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외부의 세계’는 자청비를 ‘열등한 존재’로 판단내리고 ‘나’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려 모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청비에게 있어서의 ‘이상’이란, 것처럼 사회적 편견의 대상으로서 ‘열등한’ 존재로 제단되는 자신의 존재성에 대하여 열등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의 증명’이다. 그것을 위하여 자청비가 추구하게 되는 ‘이상’의 항목은 ‘우위 - 문도령 - 천상 - 상전 - 남성성’이다. 반대로 사회적 편견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열등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현실’의 항목은 ‘열위 - 정수남 - 지상 - 하인 - 여성성’으로 계열화되어 그녀로부터 배제된다.

존재증명을 위한 ‘이상’의 추구로 인해 자청비의 ‘외부의 세계-나’의 관계 축은 대립적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자청비와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 축을 형성하는 존재들, 문도령, 부모, 정수남 등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세계’의 시각을 ‘나’에게 투사하는 표상들로서 이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관계의 대상은 문도령과 정수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청비와 ‘남성-여성’의 관계를 이루어 각각, ‘이상’과 ‘현실’, ‘천상’과 ‘지상’, ‘우위’와 ‘열위’의 대립적 가치를 표상한다. ‘천상’의 존재이자 ‘우위’의 존재인 문도령과 이루는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 축은, ‘나’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본질인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최고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상’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최고의 남성에게 기대어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자기 존재를 통한 존재 증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하여 최고의 남성인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여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행위가 문도령과 이루는 ‘관계의 대상-나’의 축을 단절시키기에 이른다.

정수남과 이루는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 축에서, ‘관계의 대상’인 정수남은 ‘하인’으로서 ‘열위’의 존재로 자청비에게 인식된다. 실상 정수남은 자청비의 현실적 삶의 바탕을 이룰 ‘땅’, ‘가축’의 표상으로서 그 자체로 자청비의 ‘현실’을 표상하기도 한다. 문제는 자청비가 내면화된 차별의 논리로 인해 그를 멸시하고 배제함으로써 발생한다. 그에 정수남은 자청비

가 자신에게 투사한 그대로의 방식으로, ‘남성’으로서 ‘여성’인 자청비에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그러한 행위가 자청비로 하여금 그의 존재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청비가 내면화된 차별의 논리가 스스로 자신의 현실적 삶의 기반을 파괴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자청비의 무의식에서 경험적 자기 인식의 판단 기제로 작용하는 ‘외부의 세계-나’, ‘관계의 대상-나’의 관계 축은 모두 극심한 대립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나’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란, ‘외부의 세계’가 나를 평가하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나’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 차별의 논리를 수용하여,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인 ‘여성성’을 억누르고,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남성성’을 통해 ‘외부의 세계’, ‘관계의 대상’에 대응한다. 이는 ‘이상’의 추구, 존재증명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사회적 편견의 대상으로서 부정적 자기인식이 자극될수록 차별의 논리는 더욱더 고착되고, ‘외부의 세계’와 ‘관계의 대상’에게 차별의 논리를 투사하여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큰 갈등을 빚어낸다. 이로써 그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의 집’으로 표상되는 세계로부터 배제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 자청비의 콤플렉스를 이루는 핵심 대립구조

대립
 [이상 - 우위 - 문도령 - 천상 - 상전 - 남성성 - 존재증명 - 추구
 [현실 - 열위 - 자청비 - 정수남 - 지상 - 하인 - 여성성 - 사회적 편견 - 배제

세 신화의 주인공인 거북이·남생이, 활락궁이, 자청비의 콤플렉스 구조를 고찰한 결과, 그 모두를 관류하는 공통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각 주인공들의 서사를 움직여나가는 핵심적인 대립구조가 ‘이상/현실’의 대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각각의 경우에 주인공들의 ‘이상’에 대립되어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현실’, 신체적 장애, 아버지의 부재,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적 자기 인식의 기제, ‘나-나’, ‘관계의 대상- 나’, ‘외부의 세계-나’의 관계 축을 통한 부정적 정서 경험의 심상들이 무의식에 착종된 부정적 자기인식, 즉 콤플렉스를 형

성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콤플렉스의 작용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문제적인 성격이나 행위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의식적인 차원으로 나타나는 콤플렉스의 반응은 크게 두 방향성을 띤다. 거북이·남생이의 경우 ‘현실’에 매몰되어 ‘이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써 위축된 성격과 행위방식이 나타난다. 할락궁이와 자청비의 경우에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 그에 대한 배제와 과도한 ‘이상’에의 추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우는 거북이·남생이와 반대로 매우 공격적인 성격과 행위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세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 형성과 구조적 작용, 그것이 의식적 차원의 성격과 행위방식으로 드러나는 원리에 이르기까지 ‘이상/현실’의 대립구조로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반원리의 차원에서 신화 속 콤플렉스 서사를 연구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립구조로서 ‘이상/현실’의 대립을 이루는 의미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콤플렉스에 가려진 존재적 가치 발견의 과정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세 신화 주인공의 서사에서 콤플렉스 극복의 과정에 나타난 공통적 속성이다. 그에 대한 분석은 각 주인공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순차구조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숙영랑·앵연랑 신가>의 주인공,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거북이와 남생이 형제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A 존재성 재확인 필요 인식
- B 존재적 가치의 발견
- C 존재적 가치의 확인
- D 존재적 확신을 통한 장애 극복
- E 콤플렉스의 극복

부모로부터 판단되고 규정된 무능의 존재상을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수용함으로써, 거북이와 남생이는 존재유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이은 A의 단계에서, 형제는 자신들의 존재성이 과연 부모의 평가 그대로인지, ‘유능의 존재’로서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를 느낀다. 그로써 자신들의 존재적 근원, 혹은 정신적 근원인 금상사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된다.

B의 단계에서 거북이와 남생이는 ‘유능의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각자가 가능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함께 금상사로의 여행, 혹은 존재적 가능성을 찾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수행할 방법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그러한 여행의 가운데,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형제는 그 생금을 포기하고 만다.

C의 단계에 이르러 거북이와 남생이는 금상사 안으로 진입한다. 이는 곧 그들의 내면 탐색이 정신적 근원에까지 접근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곳에는 형제를 생금의 가치에 비유하는 생불성인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그들의 존재적 가치를 의심케 하는 불목하니도 존재한다. 이때 생불성인의 존재는 형제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 존재상, 불목하니의 존재는 그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콤플렉스의 형상을 상징할 수 있다. 형제는 금상사에서 정신적인 수양을 계속해가며, 생불성인의 목소리와 불목하니의 억압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인지와 의혹 사이에서 번민하던 형제는 불목하니의 눈으로는 생금 덩어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콤플렉스로 가려진 눈이 아닌 온전한 성찰의 시각으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였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형제는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을, 그들의 존재적 근원이자 정신적 근원인 금상사의 안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D의 단계에 이르러, 거북이와 남생이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생금으로 금상사와 생불성인, 형제의 내면적 근원공간, 형제가 획득해야 할 완전한 존재상을 생금의 빛으로 빛날 수 있게 한다. 이는 생불성인과의 대면으로 이어져 형제는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완전한 존재상을 획득하기에 이른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그들이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통해 구애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곧 인간을 지도하는 생불성인의 모습인 것이다. 거북이와 남생이는 그러한 존재적 확신을 지니고 현실로 복귀하여 현실적 삶을 영위함으로써, E의 단계에 이르러 장애 극복의 화신으로서 자리매김 한다. 이것은 곧 거북이 남생이의 콤플렉스가 완전히 극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이공본풀이>의 주인공 할락궁이의 서사에 나타난 콤플렉스 극복의 과정이다. 그 순차는 다음과 같다.

- A 현실의 가치 발견
- B 콤플렉스 해결의 기반 마련
- C 현실의 가치 이해
- D 콤플렉스의 극복

할락궁이의 콤플렉스는 관계대상의 부재로서 존재적 결핍의 원인이 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으로 대치하고, 이상적 자기상으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도한 이상 추구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에 따라 존재적 결핍을 확인하게 하는 현실의 관계는 무가치한 것으로 배제되기에 이른다. A의 단계에서 분명히 할락궁이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적 관계의 가치를 발견하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러한 콤플렉스가 작동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B 단계에서 아버지와 조우하고 환상으로 대치되던 관계의 빈자리가 채워짐으로써 할락궁이의 문제로 작용하던 이상적 자기상의 과도한 추구가 멈추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서천꽃밭 꽃감관인 아버지의 형상으로 상징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 진리,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관의 확장과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한 현실감각의 획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실체가 모호했던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과 달리, 실제의 삶을 운용하기 위한 모델로서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할락궁이의 콤플렉스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만을 추구하던 할락궁이가 현실의 관계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에 C 단계에 이르러 발견된 어머니의 존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자신의 삶이 영위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을 통해 꿈꾸었던 결핍이 없는 관계가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애정과 희생을 깨닫게 됨으로써, 현실의 관계가 지니고 있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D의 단계에 이르러, 할락궁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억압기제로 작용하던 ‘전상’, 자현장자로 상징되는 콤플렉스의 형상을 제거하고, 현실적 관계의 대상인 어머니로 표상되는 현실 삶의 기반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콤플렉스를 온전히 극복하기에 이른다. 현실의 관계가 지닌 가치를 충분히 인식한 할락궁이에게 있어서,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현실이 곧 자신이 꿈꾸던 이상의 세계이며, 그러한 현실 속의 삶이 바로 꿈꾸던 이상의 삶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의 서사에 나타난 콤플렉스의 극복과정을 고찰한다. 그 순차는 다음과 같다.

- A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 수정
- B 본래적 존재성의 성장
- C 본래적 존재성의 완성
- D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
- E 콤플렉스의 치유와 극복

남성지배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논리가 자청비에게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청비는 남성에 못지않은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존재증명의 이상에 무의식적으로 매달린다. 그런데 그녀의 존재증명 노력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향한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자청비는 내외부로 차별의 논리를 투사하며, 스스로가 ‘위의 존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아래의 존재’는 멸시하고 배제하는 행위방식을 일관하게 된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존재증명의 노력이 더해갈수록 스스로의 본래적 존재성은 더욱 위축되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지속된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의 집’으로 표상되는 현실세계로부터 추방되기에 이른다. 사회적 관념으로 인해 형성된 자청비의 콤플

렉스가 그녀의 문제적 행위방식을 유도함으로써 존재적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에 A의 단계에서 자청비는 그녀를 현실로부터 추방되도록 한 핵심적인 과오를 수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수남의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아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결과이다. 이로써 자청비는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이 수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점은 ‘남성의 옷’을 벗어던진 ‘여성의 몸’으로써 정수남의 원령을 끌어안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말쑤딸아기와 결연하는 남성의 형상을 통해서, 그녀가 지닌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내면화된 차별의 논리라는 콤플렉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청비의 귀환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B 단계를 통해 자청비는 본래적 존재성을 성장시킬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는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이 되어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한 본래적 존재성의 성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녀가 본래적 존재성인 여성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 혼수 비단을 본 문도령이 그녀를 다시금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이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떠나가게 한다.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행위는 자신의 관계적 우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청비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문도령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두 번의 실패 경험은 자청비의 행위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C 단계에 이르러 관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닌 포용의 태도으로써 문도령을 찾아 나서는 자청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녀의 태도 변화를 상징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담긴 물, 그녀의 여성성이 깃든 목욕물을 통해 천상으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결국 그녀가 일관하던 남성적 행위방식이 아닌, 본래적 존재성인 여성성을 통하여 꿈꾸던 문도령과의 재회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문도령과의 결연에는 칼선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존재변모의 과정이 과제로 주어지지만, 그녀가 본래적 여성성을 통해 천상에 진입하였듯, 여성성

의 완성을 통하여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때 여성성의 완성은 칼선다리를 건너는 그녀의 행위가 월경의 기원이 되는 맥락으로써 상징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로써 자신의 존재증명을 위하여 문도령과의 결연을 회구하였던 자청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도령과의 결연을 통한 존재증명은 진정한 자기 존재의 증명이라 할 수 없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은, 타인의 존재가 아닌 오롯한 자신의 존재성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D 단계로의 이행은 필연적이다. 문도령에 기댄 존재증명이 아닌 자청비 자신의 존재로서 존재증명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힘은 문도령을 되살리는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정수남을 되살림으로써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하였듯, 문도령을 되살림으로써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하게 되고, 이는 존재 그대로에 대한 인정을 통한 차별의 논리 극복으로 이어진다. 이로써 자청비는 스스로 억눌렀던 자신의 본래적 존재성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존재증명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녀가 획득한 존힘이란, 그와 같은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다. 자신의 존재성을 확신하게 된 자청비에게 더 이상 남성의 형상은 불필요하다. 말쑤딸아기에게 문도령을 보내는 행위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던 남성의 형상이 더 이상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최고의 반려로서 문도령이 지니고 있던 절대적 가치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자청비가 미련 없이 문도령을 떠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E 단계에 이르러 자청비는 자신을 추방하였던 지상의 현실 세계로 귀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본래적 자기 존재로서 지상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녀가 진정으로 꿈꾸었던 자기 존재의 증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세 신화 서사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에 나타나는 공통적 속성을 통해, 일반적인 콤플렉스 극복 과정을 나타내는 공통의 서사구조를 설정해본다. 세 신화의 콤플렉스 극복 과정을 살펴보면 일관된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주인공들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자신들이 머물러 있던 공간을 떠나게 된다.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 거북이와 남생이는 일관하던 무능한 존재로서의 부정적 자기 인식에 의혹을 품고, 자의적으로 금상사로의 여행을 결심한다.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을 좇아 자의적으로, 자청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서 쫓겨남으로써 타의에 의해 떠남의 과정을 겪는다. 이들이 떠난 공간은, 그들로 하여금 이상과 괴리된 현실을 경험하게 하여, 그러한 정서적 경험이 착종된 부정적 자기인식,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만든 현실의 공간이다. 주인공들은 그러한 현실을 떠남으로써, 구조적으로 유사한 부정적 경험이 계속 누적되도록 하는 현실의 조건을 벗어나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 경우에 공통된 순차로써 ‘현실을 떠남’의 순차를 설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주인공들은 여행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현실이 지닌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거북이와 남생이는 여행의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유능의 존재성을 지닐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상징하는 생금을 발견한다. 할락궁이는 ‘떡 세 개’와 ‘세 물’로 표상되는 어머니의 존재, 언제나 그의 삶의 기반이 되었던 현실적 관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자청비의 경우에도 정수남의 재생과정을 통해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아래의 것’으로 인식하여 배제하던 본래적 여성성을 키워나갈 기반을 얻게 된다. 또한 문도령의 재생과정을 통하여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수정함으로써 존재 그대로를 인정을 통해 차별의 논리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된다. 전술한 바, 콤플렉스란 무의식에 착종된 부정적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자기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현실이 지닌 존재적 가치의 발견이 콤플렉스 극복 과정의 주요한 한 단계가 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세 경우에 공통된 순차로써 ‘존재적 가치 발견’을 설정할 수 있겠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발견된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는 과정이다. 거북이와 남생이의 경우에는 생금의 가치를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로 확신하고 끌어안음으로써,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통해 자신이 발

견한 현실 관계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자청비의 경우에는 정수남과 문도령의 재생과정을 통해 차별적 인식을 온전히 수정하고 본래적 존재성을 긍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적 근원인 금상사와 생불성인을 도금하여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현실적 삶의 기반을 획득할 뜻의 힘을 얻고, 유지하여 오던 남성의 형상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존재적 가치 확신’을 공통의 순차로 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존재적 확신을 통한 현실의 삶이다. 거북이와 남생이는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지닌 채 여든 한 살까지 잘 살아감으로써, 할락궁이는 현실적 관계의 기반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자청비의 경우에는 문도령을 떠나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기 존재적 가치로 인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누적시키며 구조적으로 작용하던 콤플렉스를 다시 구조적으로 해체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콤플렉스가 완전히 극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혼수성인으로서의 좌정, 꽃감관직의 승계, 중세경으로의 좌정이다. 따라서 ‘존재적 확신을 통한 현실의 삶’과, 그에 이어지는 ‘콤플렉스의 극복’을 공통의 순차구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이 모든 공통 순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현실을 떠남
- B 존재적 가치 발견
- C 존재적 가치 확신
- D 존재적 확신을 통한 현실의 삶
- E 콤플렉스의 극복

앞 장의 논의로 도출된 ‘이상/현실’의 대립구조와, 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현실을 떠남 → 존재적 가치 발견 → 존재적 가치 확신 → 존재적 확신을 통한 현실의 삶 → 콤플렉스의 극복’의 순차구조로써 세 신화의 분석 결과를 통한 콤플렉스 서사의 일반적인 서사구조가 도출되었다. 이에 다음 장을 통해서 그러한 서사구조가 담보하는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원리에 대하여 신화의 일반원리 차원에서 조명해보도록 한다.

4.2. 신화를 통해 본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원리

4.2.1. 세속과 신성, 이상과 현실의 대극 합일

세 주인공의 서사에서 핵심적인 대립을 이루는 것은 언제나 주인공이 놓인 부정적 ‘현실’과 그에 대비되는 ‘이상’이며 이것이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 서사에서 일반적인 대립구조를 이룬다. 주인공이 놓인 현실은 주인공으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하여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내면화하도록 하고, 그러한 부정적 자기 인식에 매몰되게 하거나 그에 대비되는 이상적인 삶 속에서의 이상적 존재상을 쫓도록 추동한다.

○ 콤플렉스 서사의 일반적 대립구조

- 거북이·남생이(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현실 / 이상 = 무능의 존재상 / 유능의 존재상

- 할라궁이(관계적 결함의 문제)

현실 / 이상 = 아버지의 부재 / 이상적 아버지의 환상

- 자청비(사회적 관념의 문제)

현실 / 이상 = 사회적 편견 / 존재증명

각각의 경우에 부정적 현실 속의 정서적 경험이 주인공의 콤플렉스로 구조화 되는 과정이나, 이상적 삶과 이상적 존재상의 획득을 통해 콤플렉스가 극복되는 세부적인 과정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현실/이상’의 대립구조가 핵심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각 신화 주인공들의 콤플렉스 서사는 ‘현실’과 ‘이상’으로 대변되는 대립적인 두 계열

의 의미소를 중심축으로 하여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엘리아데는 ‘성(聖, sacré)과 속(俗, profane)’을 인간의 실존적 본질을 이루는 두 가지의 경험 양식으로 보았다. 성스러움으로의 이행은 세속적 행위의 반복을 통해 가능하며, 성스러움에 대한 희구가 없는 세속의 삶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성과 속은 별도로 존재하는 둘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다른 두 측면, 인간을 둘러싼 온 세계 안에 합일 된 두 극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성과 속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이고 극단적 양태가 하나의 사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간 존재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대극의 합일(coincidentia oppositorum)’구조라 한다.²⁰⁵⁾ 그에 따르면 인간은 종교제이나 신화와 같은 성현(聖現, hiérophanie)²⁰⁶⁾을 통하여 세속적 시공간의 작용을 멈추고, 성스러운 시공간을 경험함으로써 ‘원형(元型, archétype)’을 발견하게 된다.²⁰⁷⁾ 이때 신화의 역할은 세속적 인간을 성스러운 시공간으로 인도하는 매개체이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성스러운 시공간 그 자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교사가의 입장에서 본 신화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지만, 이를 신화 서사의 측면에서 콤플렉스 극복 서사의 원리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신화의 서사 그 자체도 ‘성’과 ‘속’이 하나의 서사 안에 포괄되어 있는 대극의 합일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신화의 서사가 이야기하는 콤플렉스 극복의 과정 또한 그러한 대극의 합일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 세 신화 주인공의 서사에 핵심을 이루는 ‘현실/이상’의 대립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실’과 ‘이상’의 대립구조가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 극복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바탕에 ‘속’에 해당하는 ‘현실의 서사’와, ‘성’에 해당하는 ‘이상의 서사’가 대극의 합일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신화 일반으로 확장하여, 신화의 이상이 곧 신성임을 생각하면 ‘이상의 서사’는 곧 ‘신성의 서사’라는 말이 된

205) 멀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글방, 1995 2003, 11~15면.

206) ‘성현’이란, “어떠한 신성한 것이 그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New York, Sheed & Ward, 1958, p.7: 앞의 책, 11면에 서 재인용).

207) 앞의 책, 61~81면.

다. 따라서 신화의 서사체계를 이루는 ‘속’과 ‘성’, ‘현실의 서사’와 ‘이상의 서사’, 양자의 대립과 합일이 곧 콤플렉스 극복의 신화 서사를 이루는 핵심 원리가 된다. 이를 신화 일반으로 확장하면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의 대립과 합일이 될 것이다.

○ 콤플렉스 극복의 신화 서사

현실의 서사 / 이상의 서사

○ 신화 일반의 서사

현실의 서사 / 신성의 서사

그렇다면 콤플렉스 극복의 신화 서사에 바탕을 이루는 ‘현실의 서사’와 ‘이상의 서사’가 대립하고 합일하는 과정이, 콤플렉스 극복 서사의 순차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한 점은 살펴 본 세 가지 사례,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세 신화의 주인공들은 그 자신의 심리적 문제, 콤플렉스의 작용으로 인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적 위기의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떠나가도록 만든다.

A 현실을 떠남

- 거북이·남생이

무능무용의 존재성에 의한 생계 위협 → 현실에서 떠나감²⁰⁸⁾

208) 거북이·남생이의 경우, 어디에서 떠나갔는지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지는 않으나 그들이 몸을 일으켜 ‘금상사’라는 신성 공간으로 떠날 때의 바로 그 자리를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할락궁이

자기 이상화를 통한 현실배제 → 현실(어머니의 공간)에서 떠나감

- 자청비

차별의 논리로 인한 갈등과 관계의 단절 → 현실(부모의 집)에서 축출

기실 ‘현실’에서 떠난다는 그 자체가 곧 ‘이상의 서사’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정적 자기 인식을 통해 ‘현실의 서사’에 매몰되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북이·남생이의 경우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떠남 그 자체가 ‘신성의 서사’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나 할락궁이의 콤플렉스는 과도한 이상 추구에 의한 현실 배제, 즉 ‘이상의 추구’ 그 자체가 문제시 된다. 자청비의 경우에도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여 자신이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존재증명의 이상 추구가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을 떠나 ‘이상’의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이상의 서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현실’에서 떠나 ‘이상’의 공간에 진입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현실 공간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내재화된 부정적 자기 인식을 극복할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이 ‘존재적 가치 발견’의 순차이며, 신화 일반으로 확장하자면 심리적 문제의 해결이 곧 완전한 존재성의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바, 그 실마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곧 ‘신성의 발견’을 의미한다.

B 존재적 가치 발견(신성의 발견)

- 거북이·남생이

여행의 방법 발견 = 존재적 가능성 발견

↓

생금(生金) 발견 = 존재적 가치의 발견

↓

생불성인(生佛聖人)의 확인 = 존재적 가치의 발견

- 할락궁이

세 물 발견 = 현실의 가치 발견
 ↓
 아버지와의 조우 = 현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조건
 ↓
 아버지를 통한 세 물 상징 이해 = 현실의 가치 이해

- 자청비

정수남의 일 =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 발견
 ↓
 정수남 재생 = 아래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정,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인식 수정
 ↓
 마귀할멈 슬하에서의 물 심부름, 식사 준비, 베 짜기 = 본래적 존재성의 성장
 ↓
 문도령 재생 = 위의 존재에 대한 차별적 인식 수정,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

위와 같은 발견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콤플렉스를 극복할 존재적 힘을 인식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발견한 존재적 가치란 것이, 그들이 진입한 서천꽃밭이나 천상 등 ‘이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현실’, 즉 본래의 자신이나 본래의 자기 관계에 깃들여 있었던 이상적 존재성에 대한 깨달음일 뿐이다. 생금(生金)덩어리를 봉헌하고 점지되었던 거북이·남생이, 신성한 존재의 아들이었던 할락궁이, 신성한 계보를 이으며 태어난 자청비 등, 그들은 본래 그 안에 ‘신성’, 즉 ‘이상적 존재성’을 지닌 이들이다. 다만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누적시키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이상적 존재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랬던 그들이 이상 공

간으로의 여행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지닌 이상적 존재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 공간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존재성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존재적 확신’을 얻게 된다. 결국 이상 공간, 신화 일반의 차원으로서 ‘신성 공간’이 상징하는 것은, ‘존재적 가치 확신’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존재적 가치 확신’을 신화 일반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곧 ‘신성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C 존재적 가치 확신(신성 획득)

- 거북이·남생이

금상사로 생금을 안고 들어 감 = 존재적 가치의 획득

- 할락궁이

서천꽃밭에서 주화(呪花) 획득 = 현실의 관계 기반 회복을 위한 힘 획득

- 자청비

문도령을 말쑤떨아기에게 보냄 = 본래적 존재성에 대한 확신

거북이·남생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생금을 품에 끌어안음으로써, 할락궁이는 장자를 징치하고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의 꽃을 손에 쥐으로써, 자청비는 스스로 열등하게 여겼던 본래적 자기 존재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문도령을 말쑤떨아기에게 보내 자신이 사용하던 남성적 형상을 벗어던짐으로써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존재적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중요한 것은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는 일이다. ‘존재적 가치 발견’과 ‘존재적 가치 확신’의 서사가 별도로 준비된 순차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이 그러한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이는 스스로를 한계 짓고, 발견된 존재적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콤플렉스의 극복은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신화 일반 차원으로는, 발견된 신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신성은 진정한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발견된 존재적 가치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주인공들은, 이상의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에 복귀하여 현실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콤플렉스의 극복을 성취한다. 현실의 삶에서 부정적 정서 경험을 누적함으로써 착종되고 구조화된 콤플렉스란, 다시 현실의 삶을 통하여 자기 존재의 확신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을 누적시킴으로써 그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는 원리일 것이다. 이를 신화 일반으로 확장하여 이야기하자면 신성을 지닌 채 현실로 복귀하여 신직에 좌절한다고 할 수 있다.

D 존재적 확신을 통한 현실의 삶(현실 복귀) → E 콤플렉스의 극복(신직 좌절)

- 거북이·남생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 장수 = 유능한 존재로서의 삶
↓
혼수성인으로 좌절 = 콤플렉스 극복

- 할락궁이

돌아가 장자를 정치하고 어머니를 희생 = 현실의 관계 기반 회복
↓
꽃감관 승계 = 콤플렉스 극복

- 자청비

지상으로 내려가 정수남과 함께 농사를 지음 = 존재 그대로의 삶
↓
중세경으로 좌절 = 콤플렉스 극복

주인공의 현실 복귀가 이루어지고 현실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거나 현실의 삶을 충분히 살아낸 이후에 콤플렉스가 극복되고 신으로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신화가 그 서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지니고 있던 존재적 가치, 즉 신성을 발견하고 획득하는 것보다, 그렇게 획득된 존재성을 통해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는 신화의 서사가 저 너머 신성공간에 대한 희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온전한 인간 삶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주인공의 '현실의 서사'는 곧 '이상의 서사', '신성의 서사'가 된다. '이상의 서사'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의 서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서사'를 온전히 함으로써 '이상의 서사'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정적 자기 인식에 가려졌던 본디의 존재적 가치를 발현하며 현실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한국의 콤플렉스 극복 신화가 내포한 대극 합일의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서사적 원리가 한국 신화를 통한 콤플렉스 극복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신화가 말하는 '신성'이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가 자신이 놓인 현실의 문제들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정신적 깨달음, 이상적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 스스로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서사의 구조를 되짚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신화에 구현된 콤플렉스 극복의 서사구조

- 대립구조 = 현실 / 이상
현실의 서사 / 이상의 서사
- 순차구조 = 현실을 떠남 → 존재적 가치 발견 → 존재적 가치 확신 → 존재적 확신을 통한 현실의 삶 → 콤플렉스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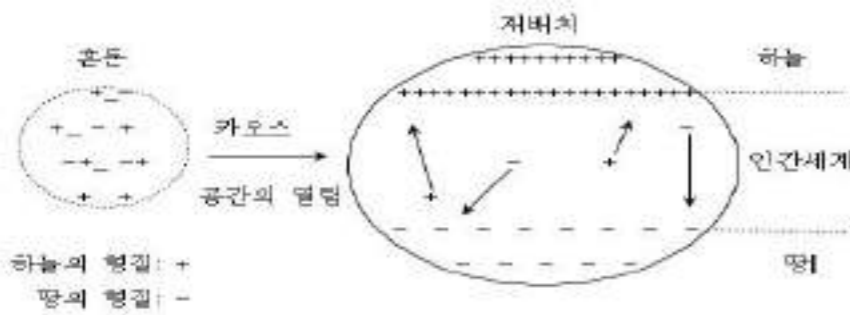
이를 한국 신화의 일반적인 서사구조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한국 신화 일반의 서사구조

- 대립구조 = 현실(속) / 이상(성),
현실의 서사 / 신성의 서사
- 순차구조 = 현실을 떠남 → 신성의 발견 → 신성 획득 → 현실 복귀 → 신적 좌절

이와 같은 서사 체계를 통하여 전개되는 신화의 서사, 현실과 이상의 공간(신성 공간)을 중흥하면서 본래의 이상적 존재성(신성)을 발견하고 획득하여 주인공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한국 신화의 서사가 추구하는 대극 합일의 원리, 세속과 신성, 이상과 현실의 대극 합일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한국 신화의 일반적인 서사체계, ‘현실공간/신성공간’, ‘현실의 서사/신성의 서사’가 한국의 신화 서사에 구현되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줄고,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 인식체계 연구」를 통하여, 소략하게나마 성속복합계(聖俗複合界)로서의 한국 신화 공간의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²⁰⁹⁾ 당시에는 한국 창세신화의 천지 분화 원리와, 하늘과 땅의 속성을 동시에 타고나 중간 매개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²¹⁰⁾ 이때 중요한 것은 천지 분화의 원리가 ‘분리’가 아닌 ‘열림’에 의한 것이었고, 그로인해 ‘천/지’의 공간이 하나의 계(界)안에 놓여있는 신화 공간의 성격을 구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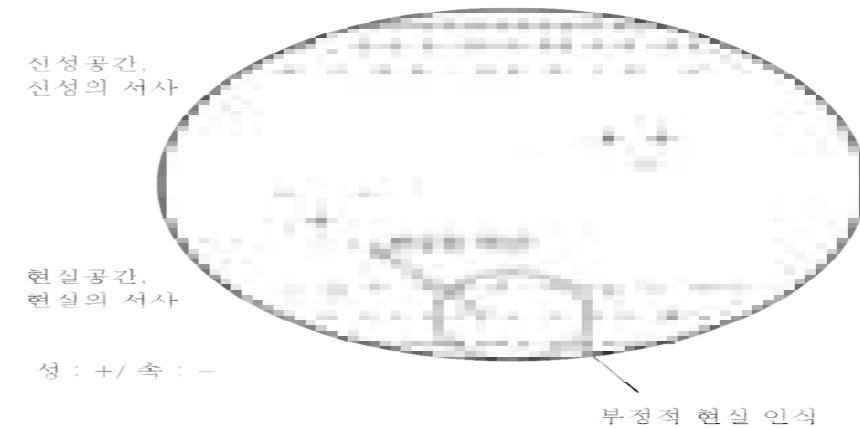


<그림 4-1> 공간의 열림에 의한 천지의 재배치²¹¹⁾

209) 조홍윤, 앞의 논문, 2011.

210) 당시의 논의에서 ‘하늘’과 ‘땅’은, ‘천/지’, ‘성/속’의 대립을 상징하는 공간적 대극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화 공간 인식의 문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와 연관됨으로써 그 의미가 재고될 수 있을 듯하다. ‘성/속’의 구분이 없는 신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현실의 서사/신성의 서사’의 합일 원리와 연결 될 수 있는 지점이 보이게 된 것이다. 지상적 현실공간과 천상적 신성공간이 하나의 계에 배치되었듯, 하나의 신화 서사 속에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가 동시에 배치 될 수 있는 것이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약간 변형함으로써 확실히 제시될 수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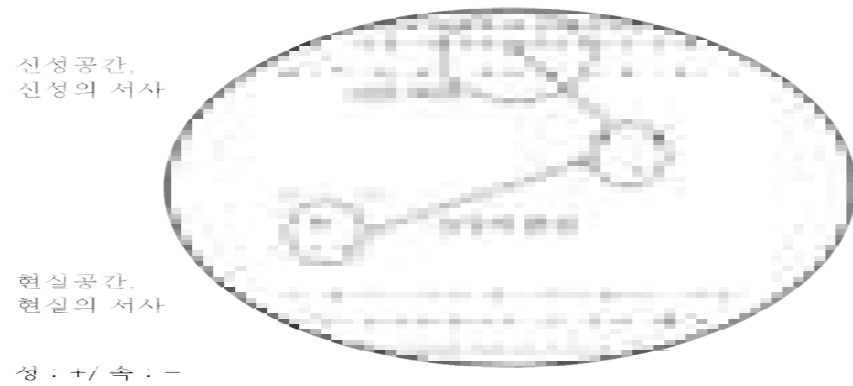


<그림 4-2>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 - 1

거북이·남생이, 할락궁이, 자청비의 서사는, 나뉜 듯 하나인 공간, 성속 복합계 속에 구현된다. 그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한국 신화의 서사는, 부정적 현실인식으로 인한 현실의 서사와, 이상적 신상의 서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세속의 서사만이 진행될 때에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신화의 주인공들은 신화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 억눌려 자신의 세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신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본고의 방향성에서 이야기하자면 콤플렉스로 인해 그 눈이 가려져 부정적인 현실의 공간만이 인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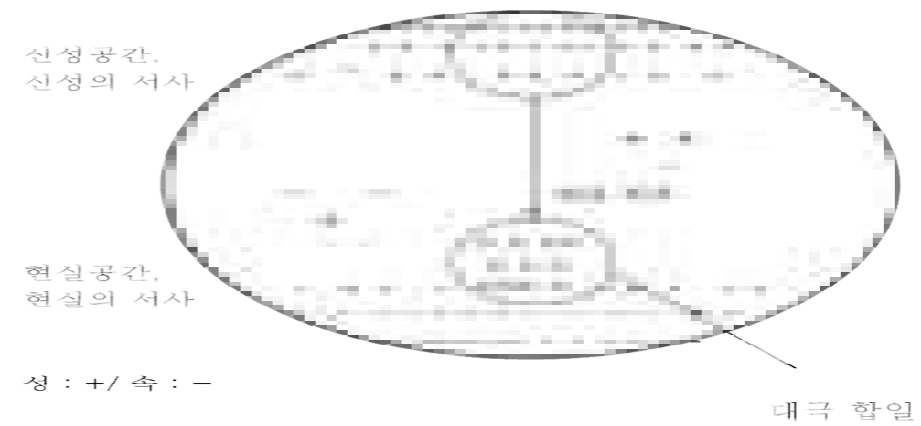
211) 앞의 논문, 21면.

고, 이미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적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자신의 부정적 현실이 완전한 파국으로 치닫게 됨으로써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자신을 둘러싼 가장 밑바닥의 현실공간을 벗어나게 된다. 콤플렉스로 인한 문제가 주인공의 존재적 위기로 이어지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순간이다.



〈그림 4-3〉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 - 2

현실을 떠나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간 주인공은 자신의 세계 이곳저곳에 놓인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신성은 자신의 현실적 관계가 지닌 가치, 생금(生金)과 같은 자기 존재적 가치를 상징한다. 중요한 것은 거북이·남생이, 활락궁이, 자청비가 그러했듯 그 신성이 이미 자신의 현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현실적 관계, 자신의 세계 안에 깃들여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신화 주인공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신성’, 즉 본래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해 나갈수록 주인공은 현실공간을 벗어나 신성공간에 다가서게 되고, 주인공의 서사도 현실의 서사에서 이상의 서사, 신성의 서사로 변해간다. 그러다가 신성의 공간, 자기 안에 있던 존재적 힘의 근원, 자기 세계의 가장 윗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이상적 존재성을 확신하고, 발견된 신성을 자기의 것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콤플렉스적 존재였던 주인공이 자신이 발견한 해결의 가능성들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림 4-4〉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 - 3

이처럼 그 존재 안에 신성을 품은 주인공들은, 다시 원래의 자기 현실공간, 가장 낮은 그 자리로 돌아와 자신이 품은 이상적 존재성, 신성으로써 그 공간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하여 전체 신화 서사의 공간 속에 구현된 대극 합일의 원리는 신화의 주인공 그 자신의 존재성을 통하여, 또 주인공이 돌아감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현실공간을 통하여, ‘현실공간/이상공간(신성공간)’, ‘현실(속)/이상(성)’, ‘현실의 서사/이상의 서사(신성의 서사)’ 모두가 대극합일의 원리로 관통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신화는 말한다. 자신의 세계, 자기의 존재 안에 감추어져있는 존재적 가능성, ‘신성’을 발견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신성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콤플렉스의 문제를 극복해나가라고 말이다.²¹²⁾

212) “인간은 천상적 형질의 신성성에 기원한 존재이며, 그 안에 천상과 지상의 형질을 동시에 지닌 천상적 존재이자 지상적 존재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신과 같은 속성을 지니지만, 신이라 할 수도 있고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존재임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신성계와 현실계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신과 인간은 둘 모두 ‘신성’이라는 속성을 지니지만, 그러한 ‘신성’이 발현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신과 인간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존재 태를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차이는 그대로 신성계와 현실계의 차이로 적용될 수 있다. 신성계와 현실계의 속성적 차이는 없으나, 그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것, 현실계가 가장 이상화된 모습이 바로 신성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논문 33면. 이에 대해서는 신동훈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신화의 원형적인 신 관념은 창세신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창세신화는 서로 혼합 상태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갈라지면서 인간세상이 열렸다고 하거니와 인간 세상이 본래 하늘과 땅의 신성과 연속된 세계임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신화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지상에 내려와 성장한 존재라고 함으로써, 인간이 그 안에 하늘의 신성을 내재한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창세신화 속의 인간은 신과의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이 더 두드러진다.”, 신동

4.2.2. 대극합일의 서사 체험을 통한 존재적 변화

그러한 콤플렉스 극복의 원리는 신화의 향유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전술한 바, 인간은 종교제의의 성현(聖現, hiérophanie) 체험을 통하여 세속적 시공간의 작용을 멈추고, 성스러운 시공간 속에서 ‘원형(元型, archétype)’을 발견하게 된다.²¹³⁾ 이때 신화의 역할은 세속적 인간을 성스러운 시공간으로 인도하는 매개체이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성스러운 시공간 그 자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신화 서사가 실제의 제의 현장에서 구송되는 실효적 신화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화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이상’, ‘현실의 서사’와 ‘이상의 서사’를 동시에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정적 현실이 눈앞에 놓여있을 때에는 그에 매몰되어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가, 이상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는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상승하면서, 그렇게 현실과 이상, 현실의 서사와 이상의 서사 사이를 중횡하는 것이 신화 주인공이다. 그러나 제의를 통하여 신화 주인공의 서사를 체험하는 이들은, 그 안에 구현된 두 층위의 서사, 현실의 서사와 이상의 서사를 동시에 인지한다. 따라서 부정적 주인공의 형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사실은 엄청난 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의의 참가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언제라도 이상적 존재상을 획득하여 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화 주인공들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제의 참가자들은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문제를 인지하지만, 신화의 주인공들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날아오르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혼,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비교민속학』 제43집, 2010, 349면 초록 인용.
213) 멀치아 엘리야데, 앞의 책, 61~89면.

사실 신화 내부적으로는 콤플렉스적 주인공의 인식 전환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의 서사가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 까닭은, 그러한 약점이 제의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신화의 서사를 체험하도록 하는 데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제의의 현장에서 신화 주인공들이 이끌어가는 현실의 서사와 이상의 서사를 동시에 인지한다. 그리고 그러한 서사의 체험은 일생을 거쳐 수도 없이 반복되는 구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적극적인 해석의 과정 없이도 자연스러운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신화가 보여주는 현실의 서사를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 문제를 인지하고, 이상의 서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완전한 존재성을 얻어가는 존재적 변화의 과정,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낸다.

현실의 서사를 살아가며 허우적거리는 주인공이 이미 이상의 서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현실의 서사가 작동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삶이 사실은 이상의 서사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내면화된다. 부정적 존재성을 보여주는 주인공 안에 깃든 이상적 존재성을 인지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 인식, 콤플렉스에 가려진 자신의 존재적 가치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내면화할 수 있다. 콤플렉스 극복의 신화 서사는 그 제의의 참가자들에게 이처럼 자연스러운 인지의 과정을 거쳐 내면화 된다. 그에 적극적인 해석의 과정이 없이도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콤플렉스를 극복할 힘, 자기 안에 깃든 존재적 가치와 자기 삶에 깃든 이상의 서사를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효적 제의의 서사로서 한국의 신화가 지니고 있는 원형적 콤플렉스 극복의 힘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의 참가가 일상화되지 않은 현대인들 또한 신화의 서사를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콤플렉스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사의 체험자들은 그 서사를 ‘신화’로서 인지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주인공이 사실은 이상적 존재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인공이 보여주는 부정적 현실의 서사가 사실은 이상적 신성

의 서사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목격하더라도 감추어진 이상적 존재성이 자기 안에 깃들어있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자기 삶이 자기만의 이상적 서사를 풀어나가는 과정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다. 서사의 추체험으로써도 제의의 참가와 같은 콤플렉스 극복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화의 원형은 강한 정동성(情動性)을 통하여 그 자체로 인간의 의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²¹⁴⁾ 신화는 바로 이러한 원형의 기능을 그대로 반영한다.²¹⁵⁾ 신화의 원형에 접속한 인간은 본인의 가치관이나 경험 세계, 본인에게 구조화되어 있는 인식의 체계나 행위방식에 구애됨 없이, 자연스럽게 신화의 원형이 추동하는 방향에 따라 인식하고 행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서사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힘, 이것이 무의식에 고착된 부정적 자기 인식,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신화 서사의 힘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화 서사의 추체험이란, 그 체험의 반복성 측면에서, 삶의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접속과 내면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제의 참가자들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콤플렉스의 극복의 서사로서 신화의 서사를 연구하는 작업을 통해 그러한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신화 주인공의 무의식에 얽혀 작용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각 콤플렉스 문제의 적용에 적합한 신화의 서사를 선택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콤플렉스 극복의 과정을 서사적 맥락으로 재구하고 각 국면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신화 서사의 체험자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서사적으로 재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신화 주인공의 형상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 극복과정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콤플렉스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감상자들은 각 신화 주인공들의 서사를 통해, ‘현실을 떠남 → 존재적 가치 발견 → 존재적 가치 확신 → 존재적

확신을 통한 현실적 삶’의 서사적 단계를 추체험하면서, 신화의 주인공들이 문제해결의 단서가 되는 표지들을 발견하고 획득하여 현실로 복귀하는 과정에 동참한다. 이때 신화의 주인공들이 ‘존재적 가치의 발견’ 단계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들을 발견하는 것에 반해, 서사 체험의 당사자들은 주인공이 거치는 서사의 전 단계를 통해 자신의 문제와 그 해결의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신화 서사의 추체험을 통하여 자신만의 존재적 가치, 부정적 자기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적 확신을 얻은 감상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신화 서사의 대극 합일 원리가, 감상자의 삶을 통하여 확장 구현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4.3. 한국 신화의 원리로 보는 인간 존재의 원형과 콤플렉스 - ‘현실-신성’의 서사와 인간의 본원적 가치

이제 한국 신화가 지닌 콤플렉스 극복의 원리를 좀 더 신화 일반의 차원으로 확정하여 한국의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원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신화가 그 서사체계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명함으로써, 한국 신화의 콤플렉스 극복 원리로 작용하는 원형적 인식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앞에서 정리한 바, 한국 신화의 일반적인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신화 일반의 서사구조

- 대립구조 = 현실(속) / 이상(성),
현실의 서사 / 신성의 서사

- 순차구조 = 현실을 떠남 → 신성의 발견 → 신성 획득 → 현실 복귀 → 신적 좌정

214) C. G. Jung, *Theoretische Überlegungen zum Wesen des Psychischen*, in: G. W. Bd. 8, p.109; 이유경, 앞의 책, 120면에서 재인용.
215) 이유경, 앞의 책, 120~121면.

제시된 대로 한국의 신화 서사는 ‘현실(세속)’과 ‘이상(신성)’,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라는 대극의 합일을 그 원리로 하고 있다. 그 합일은 신성을 획득한 주인공의 현실 복귀를 통해 ‘현실의 서사’가 곧 ‘신성의 서사’가 되는 방향이다. 따라서 신화의 서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주인공이 처한 부정적 현실 문제의 해결이며, 이를 통해 신화 향유자들의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한다. 한국 신화의 서사에 이러한 원리가 깃들여 있기에, 신화의 향유자들은 주인공의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신화의 원리를 내면화하고, 내면화된 신화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 한국 신화의 서사가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한국 신화의 원리가 이야기하는 인간 존재의 원형이란 무엇인지 고찰해보도록 한다. 이는 한국 신화 일반의 서사구조를 통하여 가장 원형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원천강본풀이>, <바리데기>를 분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시간의 신·운명의 신의 내력에 대한 특수본풀이로서 그 제차가 남아있지는 않다. 현재 연행되지 않고 있는 한계로 인한 것인지, 이본의 경우에도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의 두 편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인데, 이 중 박봉춘본의 원형성이 인정받고 있다.²¹⁶⁾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야기 한다.

<원천강본풀이>에 제시된 첫 장면은 아무도 없는 ‘적막한 들’에 홀로 존재하는 주인공 오늘이의 모습이다.²¹⁷⁾ 이는 거친 세상 한 가운데 던져져 홀로 한 세상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²¹⁸⁾ 부모도 없고, 이름도 없이, 태어난 날도 알지 못한 채, 홀로 광야를 걷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완전히 혼자가 된 듯한 고독감에 몸부림치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

216) 이수자는 두 이본의 비교를 통해, 박봉춘본이 뚜렷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조술생본은 에피소드의 나열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가 원래적 형태일 것이라 주장한 바 있고, 그 주장이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학의 진진』, 태학사, 1998, 783~818면.
 217) 옥갓튼계집에가적막한드름에웨로히낫타나니 - 적송지성·추엽용, 앞의 책, 292면.
 218)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7, 122면.

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공 오늘이가 놓여있는 부정적 ‘현실’이란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고독’이다.²¹⁹⁾ 그리고 오늘이가 추구해야 할 ‘이상’은 ‘고독의 해결’이 될 것이다. 이 양 극단이 오늘이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대립구조를 이룬다.

○ 핵심 대립구조

현실(세속) / 이상(신성) = 고독 / 고독의 해결

그간 <원천강본풀이>가 이야기하는 오늘이의 신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간의 신·운명의 신이라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²²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오늘이가 좌정하는 ‘시간의 신’, ‘운명의 신’의 성격과 오늘이의 문제인 ‘고독’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시공간을 포함한 전체 세계의 모든 인식 대상이 ‘삶’에서 유리되어 인식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도 주체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²²¹⁾ 인간 삶의 주요한 조건 중 하나가 관계맺음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시간이 잘 흘러간다는 것의 의미는, 인식 주체의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며, 그의 관계맺음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뜻한다. 그러나 인식 주체가 ‘고독’의 상황,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 상황 속에 놓여있다면, 그 시간의 흐름은 멈추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이의 ‘고독’은 그녀의 삶이 멈추어진 상태, 삶의 시간이 멈추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고독이 해결된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다시금 온전히 움직여 감을 뜻하며, 그녀의 시간이 원활하게 흘러감을 의미한다.²²²⁾ 그러므로 완전한 고독자였던 오늘이가 자신이 지닌 고독

219) ‘고독’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란 없다. 만약 스스로 고독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그것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구나 피할 수 없고, 또 누구나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고독’을 인간의 근원적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바이다.
 220) 이수자는 원천강의 형상이 춘하추동이 있는 시간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신화적 인식이 표현된 것이라 보고, 주인공인 오늘이는 이러한 원천강을 주체하는 신격으로 보았다. 이수자, 앞의 논문, 783~818면.
 221) 홍일희, 『니체의 생철학 담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15~38면.

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간의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맥락도 이해할 수 있겠다.²²³⁾

○ 대립구조

현실 / 이상, 현실의 서사 / 신성의 서사 = 고독 / 고독의 해결,
삶의 멈춤 / 원활한 삶,
시간의 멈춤 / 시간의 원활한 흐름

그렇다면 오늘이의 고독은 어떻게 해결 되어 가는지 앞에서 정리된 순차구조, ‘현실을 떠남 → 신성의 발견 → 신성 획득 → 현실 복귀 → 신적 좌정’의 과정을 통해 이야기 해본다. ‘현실을 떠남’에 해당하는 오늘이의 서사는, 들판위에 서있던 오늘이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존재가 지닌 문제를 깨닫게 되고,²²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백씨 부인을 만나 부모의 소재를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진다.²²⁵⁾

들판에 서있는 소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 정체를 묻는다. 그 물음에 소녀는 “나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답한다. 이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녀가 홀로 있을 때에는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부모가 누구인지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이 없어도, 부모를 알지 못해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오늘이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적 문제를 인지하게 된다.²²⁶⁾ 실상 인간이 고독을 느끼는 것에는, 주위

222) <원천강본풀이>의 서사가 내포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학』 제23집, 2011을 통하여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223)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름을 뜻한다. 따라서 누군가의 운명을 오늘이가 알게 되는 맥락도 자연스럽다. 그에 ‘운명의 신’이라는 신격은 ‘시간의 신’이라는 신격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겠다.

224) 나는강님드름에서소사났습니다
성이무엇이며일음이무엇이나
나는성명도몰고아모것도몰습니다
이러저러사람사람들이, 너는나흔날을몰으니
오날을나흔날로하야일음을오날이라고하라, 적송지성·추엽용, 앞의 책, 292면.

225) 너는오날이가안이나, 네오날이올시다
너의부모국을아느냐
물음니다, 너의부모국은원천강이라, 앞의 책, 292면.

226) “적막한 들을 지나 세상과 조우하며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오늘이, 적막한 들에 놓여

를 둘러싼 타인과의 관계가 전제된다. 홀로 존재할 수 없어 무리를 이루어 사는 것이 인간이기에, 그 무리에서 외따로 떨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고독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자신의 존재적 문제, ‘고독’을 알게 된 오늘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씨부인의 조언을 얻는다. 그리고 “너의 부모는 원천강에 있다.”는 백씨부인의 말을 들은 오늘이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²²⁷⁾ 고독한 존재로서의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부모를 찾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것인가. 주어진 부정적 ‘현실’에 안주할 것인지, 현실을 떠나 고독의 해소라는 ‘이상’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기로에 서서 오늘이는 용감하게 ‘이상’을 위한 험난한 여행을 선택한다. 이로써 오늘이의 서사를 이루는 첫 번째의 순차 ‘현실을 떠남’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오늘이가 자신의 존재적 문제, 고독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그 해결을 위해 부정적 현실을 떠나는 과정이다.

A 현실을 떠남 = 고독의 문제에 대한 인지와 그 해결을 위한 떠남

이어지는 ‘신성의 발견’에 관한 서사는 오늘이가 원천강으로의 여정 중 조우하게 되는 여러 고립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각의 고립자들과의 만남은 오늘이가 원천강을 찾아가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바, 그들이 표상하는 것이 오늘이가 해결해야 할 고독의 일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이가 만난 고립자, ‘장상’, ‘매일’, ‘연꽃’, ‘뱀’, ‘궁녀’의 ‘고립’이 표상하는 의미를 통해 오늘이가 발견한 신성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겠다.

‘장상’과 ‘매일’은 각각의 ‘별충당’에 앉아 계속 책을 읽으면서도, 늘 책만 읽어야 하는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들은 오늘이와 조우하여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며, “원천강에 가거든 왜 내가 책만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 오라”며 부탁한다.²²⁸⁾ 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는

있을 때에는 자신의 성이나 이름, 나이에 대해 궁금하게 여길 이유가 없었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는 부모도 없이,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조홍윤, 앞의 논문, 418면.

227) “백씨 부인이 오늘이가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최초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면서, 그 만남은 오늘이에게 부모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멈추어진 현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되었다.”, 앞의 논문, 419면.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의 탐색에 몰두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주변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별충당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직면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수록, 개인적인 문제일수록, 그래서 그에 대한 혼자만의 몰두가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고립시켜 고독 속에 던져 넣기 쉽다. 이를 ‘삶의 시간’에 대한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관계의 단절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문제에 직면한 ‘현재’에 멈추어두게 되는 것이다.²²⁹⁾ 그렇다면 장상과 매일의 고독의 문제, 멈추어진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 둘이 만나게 됨으로써 그들의 문제는 해결된다. 혼자서 아무리 해결책을 궁구해도 답을 알 수 없던 문제가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결국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고립되기보다, ‘관계맺음’을 통해 해결함이 옳다는 것을 장상과 매일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상과 매일을 만남으로써 오늘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고독의 해결을 위한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연꽃’과 ‘뱀’은 현재 가진 것을 놓아버리지 못해 고립된 존재를 표상한다. 연꽃은 자신의 상가지 위에만 꽃이 피고 나머지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²³⁰⁾ 뱀은 야광주(여의주)를 셋이나 물고도 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²³¹⁾ 그런데 그 해결책이란 연꽃이 지닌 하나의 꽃송이를 꺾어내는 것, 뱀이 물고 있는 세 개의 야광주 중에 둘을 버리는 것이다. 연꽃은 현재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그

228) 원턴강에가거든
 웨, 내가밤낮글만읽어야하고
 이성밖그로외출치못하는지
 그리유를물어다가전하야줍시오, 적송지성·추엽음, 앞의 책, 293면.
 229) 조홍윤, 앞의 논문, 420~422면 참조.
 230) 삼월이나면꽃이되는데
 상가지에만피고, 달은가지에는아니피니
 이팔자를물어줍소, 적송지성·추엽음, 앞의 책, 294면.
 231) 달은베암들은
 야광주(夜光珠)를하나만물어도
 룡(龍)이되여승탄을하는데, 나는야광주를
 셋이나물어도룡이못되고잇스니
 엇턴면쫓켓는가무려다주시오, 앞의 책, 294면.

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뱀은 현재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관계를 위해 때때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혹은 많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남이 가진 것을 나누어 받는 것이 인간의 삶을 이루는 원리일진대,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삶은 고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시간’의 의미로 해석하자면 ‘현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멈추어진 시간’이라고 함이 옳겠다.²³²⁾ 따라서 연꽃과 뱀을 만남으로써 오늘이 발견하게 되는 의미는 ‘가진 것의 포기과 나눔의 중요성’이라고 하겠다.

오늘이가 만난 ‘궁녀’의 경우는 죄를 지어 천상에서 떨어져 지상에 고립된 존재이다. 그들은 웅덩이의 물을 퍼내는 과업을 완수해야만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깨진 바가지로 물을 퍼낼 수 없어 울고 있었다.²³³⁾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멍난 바가지를 막아야 한다’는 현재의 과제를 무시한 채, ‘물을 퍼내어 천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미래의 성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에 오늘이가 진흙으로 깨진 바가지를 막아 줌으로써 물을 다 퍼내게 되고, 궁녀들은 감사의 표시로 오늘이를 데리고 천상에 오른다. 미래의 성취에 대한 집착으로 현재의 관계와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은 우리 삶에 흔히 있는 일이다. 그에 미래의 성취에만 집착한 궁녀들이 고립자로서의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를 ‘시간’에 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미래에 대한 집

232) 조홍윤, 앞의 논문, 16~17면 참조.
 233) 그리하야앞으로앞으로가다보니
 아닌게아니라시녀궁녀가늦겨울머잇는데
 그리유를무르니, 그리유는달은게아니라
 전일에는그들이하날옥황시녀엿섯는데
 우연이득죄하야, 그물을푸고잇는바
 그물을다-퍼내기전에는
 옥황으로올나갈수가없는데
 아모리풀야하야도푸는박아지에
 큰구멍이쓸버져잇기싸담에
 죽음도물을뱃그로퍼낼수가업는것이였다, 적송지성·추엽음, 앞의 책, 295면.

착에 의해 멈추어진 시간'이라고 하겠다.²³⁴⁾ 그렇다면 '궁녀'와의 만남을 통해 오늘이가 발견하게 되는 의미는 '현재의 관계, 현재의 삶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신성의 발견'에 해당하는 오늘이의 서사, 고립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고독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과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 신성의 발견

- 장상·매일과의 만남 = 관계 맺음의 중요성
- 연꽃·뱀과의 만남 = 가진 것의 포기과 나눔의 중요성
- 궁녀와의 만남 = 현재의 관계, 현재의 삶의 중요성

오늘이의 '신성 획득'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원천강²³⁵⁾을 둘러보고 여러 고립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품게 된 의문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오늘이의 '신성 획득'에 대한 서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C 신성 획득 = 고독의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 맺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가진 것의 포기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현재의 관계, 현재의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오늘이의 '현실 복귀'는 원천강으로의 여정 중에 만난 고립자들에게 그

234) 조홍윤, 앞의 논문, 425~428면.

235) '원천강'은 사계절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형상으로 제시된다. 하나의 시공간에 '사계절의 순환'으로 표상되는 '영원'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원천강을 '순간/영원'의 대극 합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근원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원천강의 문을 열어본 오늘이가 여러 고립자들의 운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녀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을 관장할 수 있는 원천강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 연구」, 『겨레어문학』 제52집, 겨레어문학회, 2014;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256~258면 참조.

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전해주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그녀가 고독의 문제에 대해 이해한 그대로를 실천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천강을 향한 오늘이의 여정 자체가, 여러 고립자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받은 도움을 통해 원천강에 도달한 오늘이가 그들의 부탁을 완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의 관계 맺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고립자들의 도움을 받아 원천강에 가서 얻은 답을 다시 고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관계를 만들어가고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맥락이다. 그리고 '신녀가 된다'라는 자신의 미래를 인지한 상태에서, 지상의 현실세계로 복귀한다는 것이 현재의 관계와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오늘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이의 '현실 복귀'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고독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실천'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이는 고독한 존재로서의 부정적 현실을 완전히 극복하고,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의 대극 합일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고독한 존재로서 멈추어진 삶의 시간 속에 존재하던 오늘이가, 모든 존재들의 시간을 온전히 흐르게 하는 시간의 신으로 좌절하게 된 것이다.

D 현실 복귀 = 고독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실천



E 신적 좌절 = 시간의 신으로 좌절

<원천강본풀이>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였는가에 대해, 무속인들의 입무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²³⁶⁾ 이는 서사의 맥락을 살펴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견해이거니와, '고독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더라도 납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무속인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바로 고독의 문제일지 모른다. '미신'으로 치부되는 무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경원시되고 때때로 모욕을 당하기 마련인 것이 무속인의 삶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

236)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8~43면.

서는 필연적인 고독의 문제를 풀어내고 무속인으로서의 숙명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들의 입무의례에 오늘이의 서사가 구송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이다. 경원과 멸시의 시선을 감당해가며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평범한 삶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꾸준히 무업을 수행해 가면서 그들은 자신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품에 안음으로써 숙명적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닌다.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품에 안음으로써 숙명적인 고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 맺어 그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고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눔으로써 타인을 돕고, 그러한 도움이 나에게 대한 도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고독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현재의 관계와 현재의 삶을 팽개쳐 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돌아보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고독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천강으로의 여정을 통해 오늘이가 발견하고 획득한 신성이 그녀의 현실적 고독의 문제를 치유하고 그녀를 완전한 존재로 살게 하였듯, 오늘이의 서사가 보여주는 ‘현실의 서사/신성의 서사’가 우리 고독의 문제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이로써 인간 존재의 가장 원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독’의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 한국의 신화가 구현하고 있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천강본풀이>에 형상화된 문제가 인간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것이라면, <바리데기>는 말 그대로 ‘버려진 존재’로서의 주인공 바리데기에 의해 콤플렉스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그에 한국 신화의 원리를 통해 바리데기의 버려짐의 문제를 짚어 봄으로써, 가장 원형적인 콤플렉스 문제와 그 극복의 과정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1937년, 일본인 학자 적송지성(赤松智城, 아카마스 지쥬)과 추엽옹(秋葉隆, 아키바 다카시)에 의해 배경재본 <무조전설 바리공주>가 소개된 이

후로, <바리데기>는 대표적인 한국의 서사무가로 자리매김하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²³⁷⁾ 특히 90년대 이후로 페미니즘 담론의 장이 활기를 띠면서, ‘여성 주인공에 의한 세계의 회복’을 골자로 하는 <바리데기>의 서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바리데기의 서사에 나타난 여성 형상에 초점을 둔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바리데기의 형상이, 남성지배질서에 의해 억눌린 여성의 모습을 표상한다는 관점과, 그렇게 버려진 바리데기가 병든 부왕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남성지배질서에 의해 배제된 여성의 표상이 남성지배질서의 병폐를 해소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이다.²³⁸⁾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주목된 바리데기 형상의 두드러진 성격은 콤플렉스의 측면에서 분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버려졌다’는 점에서 바리데기는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관계적 결핍의 문제,

237) 다양하고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온 바, 기술적 편의와 논의의 효율을 고려하여 그 전부를 열거하는 것은 피하기로 한다. 대신 핵심이 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주석으로 제시한다. (1)초기 연구: 김태근,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서대석, 「바리공주 연구-일본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논총』 8, 계명대출판부, 1972; 서대석, 「바리공주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2)문학적 원리·구조·의의 등에 대한 연구: 장석환, 「바리공주 무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노영근,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김화경, 「바리공주 신화의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김정은, 「동해안 무가의 화자별 변이 양상과 의미 - 구연자 성향에 따른 서사적 초점의 이동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심우장, 「「바리공주」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 『인문논총』 제67집,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3)여성주의적 연구: 김영숙, 「여성 중심 시각에서 본 <바리공주>」, 『페미니즘 문학회』, 한국문화사, 1996; 이정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강진옥,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이병순, 「<바리공주>와 여성 리더십」, 『숙명리더십연구』 제1집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2005. (4)비교신화학적 연구: 서대석,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김현선,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종교와 문화』 10,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4; 김환희, 「<바리공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 외국인 생명수 탐색담 및 <니산사만>과의 비교연구」, 『동화와 번역』 10,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05; 이정재, 「실크로드 신화 <애전이어 춤춰라>와 한국 무가 <바리공주>의 비교 연구」,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6; 이정재, 「한국 무조신화와 네팔 신화의 상관성 연구 - 바리공주 일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5)문학치료 및 교육 연구: 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무속신화의 동화화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관한 고찰」, 『동화와 번역』 2,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01; 정운채, 「바리공주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독해」,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2004; 박현숙, 「무속신화 <바리공주>의 현대적 재창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을 통한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38) 김영숙, 앞의 논문 참조.

사회적 관념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내면화하였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버린 이유가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회적 관념의 문제가 더 강하게 내면화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총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콤플렉스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바리데기는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되살린다. 그러한 점에서 바리데기의 서사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콤플렉스의 문제, ‘버려짐’에 대한 해결의 과정을 담고 있으리라 본다.

바리데기의 서사에 있어서 ‘현실의 떠남’ 순차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버려지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를 희생시킬 약수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떠나게 되는 것이 그러하다. 그에 따라 뒤따르는 ‘신성의 발견 → 신성 획득 → 현실 복귀’의 서사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리데기가 직면한 부정적 현실의 문제가 ‘버려짐’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에, 그에 해당하는 해결의 과정이 각각 존재해야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어 작용하고 있기에, 궁극적으로 둘 모두가 해결됨으로써 ‘신적 좌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중의 문제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짚어 가며 전체적인 바리데기의 문제 해결 과정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

‘버려짐’에 해당하는 1차적인 문제해결 과정은, 버려진 존재로서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을 이루는 대립구조는 ‘버려짐’과 ‘받아들여짐’이다.

○ 핵심 대립구조

현실 / 이상 = 버려짐 / 받아들여짐

자신을 버려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우선 관계적 대상인 부모로부터의 거부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에 더하여 자신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존재일 수 있다는 인식,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 관계의 대상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부당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총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리데기의 경우처럼 버려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버려진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라면, 그 모든 경우에서 버려진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관계적 결함의 문제, 사회적 관념에 의한 문제가 복합된 양상으로 바리데기의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²³⁹⁾ 그러한 인식으로 바리데기는 스스로 존재적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존재적으로 무가치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고 버려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 대립구조

현실 / 이상, 현실의 서사 / 신성의 서사 = 버려짐 / 받아들여짐,
존재적 무가치 / 존재적 가치 획득

버려짐의 문제에 대한 ‘현실을 떠남’ 순차의 서사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 하고, ‘신성의 발견’ 서사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바리데기는 전술 한 바 그대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바리데기는 것처럼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마저도 귀히 여기고 품어 키운 비리공덕 부부와 관계 맺고 있었다.²⁴⁰⁾ 자신처럼 무가치한 존재마저도 품을 수 있는 비리공덕 부

239) 이에 대해서는 노성숙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바리공주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예 가족 안에서나 사회,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으며, 더욱이 이미 여섯 명의 언니들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딸로서 언니들이 많다는 사실은 바리공주가 더 이상 가족의 틀 안에 머물 수조차 없게 만들며,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여분의 존재로 밀려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될 뿐이다.” 노성숙, 「신화를 통해 본 여성 주체의 형성 - 『바리공주』 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5, 25면. 본고의 논의에서는 버려짐에 대한 바리데기의 시각에 초점을 두었지만 ‘버려짐’이라는 사건에 대하여 버려진 바리데기가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바리데기를 버린 유기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맥락이 다르지는 않다.

240) 거기서 얘기를 기르는데
어늘은 할머니 할애비가 음식을 잡썬
뜻없는 음식은 할머니 할애비가 잡썬고
뜻있는 음식은 얘기를 맥이고
젖은 데는 할머니 할애비가 잠을 자고
마른 데는 얘기를 잠을 재고 -박금순분,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4, 민속원, 2004.

부의 존재는 아무리 약하고 추한 것이라도 그 안에 품어내는 대자연의 형상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그리고 대자연이 모든 존재를 품어 오롯하듯이, 자신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온 세상을 자신이 먼저 품어 자신의 존재성을 오롯이 하고자 했을지 모른다. 말하자면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이를 통해 버려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자연물인 왕대나무와 머구나무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아 제를 올리는 바리데기의 모습은, 버려진 존재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자연을 부모로 삼아 그 포용의 존재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바리데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²⁴¹⁾ 그렇다면 이모든 과정은 바리데기가 ‘버려짐’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발견하고, 그러한 해결의 방법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비리공덕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포용을 통한 존재가치 획득의 방법을 발견하고, 대자연을 자신의 부모로 삼음으로써 발견된 포용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B 1 신성의 발견 = 비리공덕 부부와의 관계 → 포용의 힘 발견

C 1 신성 획득 = 대자연을 부모로 삼음 → 포용의 힘 획득

그런데 이때 자신의 힘으로 삼은 포용의 힘은 온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자연물에 대한 봉양을 통해 대자연과도 같은 포용의 힘을 획득하려는 바리데기의 노력이, 실상 극히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포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버려진 이유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근본적인 원망과 자괴감은 풀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삼시 문안하며 봉양하던 나무 등걸을 붙들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바리데기의 모습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녀의 심리적 갈등을 잘 보여준다.²⁴²⁾

64면.

241) 뒷동산 올라가서 서해수 남해수 서해수 정한수 떠 바치시고

한 손에 대지팽이 짚으시고

한 손에는 나무 지팽이 짚으시고

삼시 문안을 디리시니 - 박금순본, 앞의 책, 65면.

242) 애기가 나무를 껴안고 통곡을 하시기를

그럼에도 포용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불필요하다며 버린 자식을 필요해지니 다시 찾는 부모의 부름에 응답하여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²⁴³⁾ 바리데기의 ‘현실 복귀’는 이처럼 포용의 힘을 불완전하게 획득한 채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아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바리데기의 원망과 자괴감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머니와 조우한 바리데기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퇴행적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이는 버려진 딸로서 받지 못한 애정을 보상받고자 하는 행위로, 그녀의 심리적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²⁴⁴⁾ 따라서 바리데기의 버려짐의 문제는 불완전하게 해소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다시금 현실을 떠나 그러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여행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D 1. 현실복귀 = 불완전한 포용, 불완전한 문제해결

그에 두 번째 ‘현실을 떠남’ 서사가 전개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의 과정을 다시 거친다. 여기서는 부모와 조우한 바리데기가 아버지를 회생시키기 위한 구약행(求藥行)에 자청하여 떠나게 되는데, 이때에 바리데기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부모가 자신을 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된 바리데기는 스스로도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긍정할 수 없는

어마 덕도 끄적히도 없나니다

아바 덕도 끄적히도 없나니다

어디다 대구 내가 삼시문안을 디린단 말씀이나 - 박금순본, 앞의 책, 65면.

243) 바리데기를 찾아 온 신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단순히 화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해졌기에 바리데기를 찾는 부모의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들은 바리데기가 스스로 부모를 향해 나아간 것은, 불완전하지만 포용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는 바리데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곳이 어덴 줄 알고 드러왔느냐 하고 무르니

신하가 하는 말이 나는 소한국 신하로서 국은이 땅극하야

칠공주님 시체 찾으에 왔나이다 하니 - 권정옥본, 앞의 책, 380면.

244) 엄마야 엄마야, 나는 젖도 실컷 못 먹어 봤이니 젖줄이나 한번 먹어 보세.

가슴에 젖을 내야 입에다가 디려 넣고 빨아 보기도 하고 엄마 가슴에 손을 넣고 만져 보기도 하고 볼때기에 얼굴을 대 입을 맞춰 보기도 하고 어리광대를 쳐 보기도 하고 이어안었다가 업었다가 어떻게 맞대 놓고 치 등글 내리 등글 울어 보고 웃어 보고. - 김복순본, 서대석·박경신, 『한국고전문학전집』 30권 -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274면.

상황에 놓인다.²⁴⁵⁾

비록 자신을 버린 죄로 병을 얻었다는 부모의 회생을 위해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 애초의 원인이 되었던 ‘여성’이라는 존재태는 그대로인 상황인 것이다. 특히나 아버지를 위한 구약행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말을 빼는 여섯 언니들의 모습이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추긴다.²⁴⁶⁾ “후원에 꽃구경을 갔다가도 궁을 못 찾아오는데 그 험로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며 고개를 짓는 언니들의 무능한 모습이 곧 ‘여성의 무능’인 것처럼 보여 자신의 버려짐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듯 여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바리데기에게는 자신이 버려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했다. 누구나 고개를 짓는 구약행을 자처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내면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이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구약행을 자처하는 바리데기의 행위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그녀의 서사가 ‘효(孝)’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남성지배의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효’의 덕목이 강조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바리데기의 서사를 ‘효’의 구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성지배에 대한 옹호로 이어지는 오독의 우려가 있다. 이에 바리데기의 구약행은 표면적으로 ‘효’의 실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무능한 언니들과 다른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고자 한 바리데기의 결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²⁴⁷⁾

245) 내가 너를 버리려 버렸느냐
여섯슬 맞고 일곱 번째 너를 또 받으니
종묘사직에 죄가 되 었지 화가 아니 나겠느냐
찾김에 너를 버렸구나 너를 보기 안됐구나 하시면서
용루를 흘리시는지라 - 권정옥본, 흥태한, 앞의 책, 382면.

246) 일공주 문안이오
부모 소양 가겠느냐
뒷동산 후원 꽃구경 갔다가도
궁안을 못찾아 오는데
어찌 부모 소양 간단 말씀이오
(중략)
물리시거라 육공주 불러들여
부모소양 가겠느냐
형님들 못가는데 소녀가 어찌
부모소양을 간단 하겠소니까 - 이영희본, 흥태한, 앞의 책, 409~410면.

247) 이에 대하여 강은혜는, “바리데기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들임으로써 저승여행을 결단 내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바리데기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존재성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부정적 자기 인식 타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 쌍으로서 이두 번째 ‘현실을 떠남’을 통해 이어지는 서사의 주축이 되는 핵심적인 대립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처음 문제가 되었던 ‘버려짐/받아들여짐’의 문제가 미완된 상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 대립구조

현실 / 이상, 현실의 서사 / 신성의 서사 = 버려짐 / 받아들여짐,
존재적 무가치 / 존재적 가치 획득,
부정적 자기 인식 / 부정적 자기 인식 타파

그에 두 번째 ‘현실을 떠남’ 순차가 의미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의혹과 확인을 위한 구약행’이라고 하겠다.

A 2 현실을 떠남 =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의혹과 확인을 위한 구약행

이어지는 ‘신성의 발견’ 서사는 서천서역으로의 구약 여정 중 조우하게 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리데기는 서천서역 가는 길을 알기 위해 노중에 만나는 이에게 길을 묻고, 길을 알려주는 값으로 일정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²⁴⁸⁾ 이는 바리데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바리데기가 몸소 수행한 과업이 그녀를 서천서역으로 인도하였다는 점에서, 각각의 과업수행이 지닌 의미가 바리데기가 자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힘이 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리데기가 길을 묻고, 그 값으로 과

것을 ‘효’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역설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강은혜, 「<바리데기> 형성의 신화, 심리학적 두 원리」, 『한국어문연구』 1, 한국어문연구회, 1984, 66쪽.

248) “석가세존으로부터 받은 라화로 노중의 장애를 해결하고 곧장 무장신선의 처소에 도달하는 서울본과는 달리, 동해안본에는 노정에서의 부연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석가세존에게 예배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바로 제공받는 서울본의 서술의도가 석가세존의 위엄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다면, 동해안본에서 강조된 노정의 험난함은 바리데기의 고난을 부각하면서 그 인간적 깊이와 과업성취의 의의를 한껏 드높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강진옥, 앞의 논문, 24면.

업을 수행하는 대목들을 짚는 것으로 ‘신성의 발견’에 해당하는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해당 내용은 이본마다 다르게 제시되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과업이 ‘빨래’와 ‘쟁기질’에 대한 것이므로, 이 두 가지 과업수행의 의미를 짚어본다.

바리데기는 노중에서 ‘검은 저고리’와 ‘검은 버선’을 빨고 있는 천태산 마고할머니를 만난다. 그에 서천서역으로 가는 길을 묻자 할머니는 “검은 빨래를 백설같이 빨아주면 가르쳐 주마”하고 답한다. 이에 응하여 바리데기는 검은 빨래를 희게 빠는 과업을 수행하여 길을 알게 된다.²⁴⁹⁾ ‘빨래하기’는 여성의 일상적 노역을 대표하는 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빨래하기를 수행함으로써 서천서역 가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리데기의 구약행이 여성적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검은 빨래를 희게 빠는 것’이 상징하는 여성의 힘이란 무엇인가. ‘검은색’이 어둠, 음(陰), 땅, 무거움, 죽음 등을 상징한다면, ‘흰색’은 밝음, 양(陽), 하늘, 가벼움,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은 빨래를 희게 빠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 놓인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변환함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검은 빨래를 희게 빠는 일을 통해 바리데기는 여성이 지닌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이는 바리데기의 구약행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상통한다. 여성적 생명력을 발견한 바리데기였기에 그러한 생명력을 통해 죽음의 상태에 놓인 아버지를 회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천태산 마고할머니로부터 가르침 받은 길로 여행을 지속하던 바리데기는 다시 쟁기로 논을 갈고 있는 노인과 조우하여 길을 묻게 된다. 그러자 노인은 논을 갈기 바쁘니 길을 가르쳐줄 틈이 없노라 답한다. 그에 바리데기는 자신이 대신 쟁기질을 하는 대가로 길을 알려달라며 쟁기질을 시작한다.²⁵⁰⁾ 그런데 논이 끝도 없이 넓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쟁기

249) 얼마만침만 가드라니야 천태산아 마고 할머니
검은 저고리에 검은 보선에 씨끌라고 이불한다.
천태산아 마고할머니야. 서천서역을 가자며는 어드메로 가오리까?
야야 검은 저고리에 검은 빨래를 백설같이 씨겨 주면 내 가리켜 주마 - 김복순분, 서대석·박경신, 앞의 책, 282~283면.
250) 얼마만침 가드라니 논을 풀쟁기를 거머쥐고 이라 소야 어서 가자 논을 매고 온다.
여보시오 노인요. 서천서역을 가자며는 어디루 가옵나이까?

질을 끝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그에 답답함을 울음으로 터뜨린 바리데기에게 두더지가 감응하여 대신 논을 갈아줌으로써 쟁기질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논을 가는 과업 그 자체보다, 두더지와 감응할 수 있는 바리데기의 능력이 두드러진다. 두더지는 땅속에 숨어 사는 존재이다. 것처럼 세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작고 하찮은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녀가 그 작고 하찮은 생명체를 소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서 대자연을 부모로 삼아 그와 같은 포용력을 내면화하고자 했던 바리데기였다. 비록 완전하게 그것을 내면화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이 부모를 다시 찾게 하고, 서천서역으로의 여정 중에도 낯선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의 이면에 숨죽이고 웅크려 있는 작고 하찮은 생명체까지도 감응하여 움직이도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기질’의 수행을 통해 바리데기가 발견하게 된 의미는 ‘포용의 힘에 대한 재발견’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서천서역에 당도한 바리데기는 약수를 지키는 무장승의 거처에서 다시 ‘꽃밭에 물주기 삼 년’, ‘불 때기 삼 년’, ‘낮 없이 나무하기 삼 년’의 과업을 수행한다.²⁵¹⁾ 이 또한 여성의 일상적인 과업으로서 여성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일일 수 있다. 꽃밭에 물을 주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것도 그러하고, 불을 댐다는 것은 체온의 유지, 혹은 삶의 원동력이 될 음식의 조리에 연관 지을 수 있다. 낮 없이 나무를 한다는 것도, 죽어 떨어진 나뭇가지를 불이라는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빨래’가 상징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또 무장승으로 하여금 아내가 되어 일곱 아들을 출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데, 생명의 출산이 여성적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것은

야야 끝없는 논을 한없이 갈자면 해로 다 갈아도 못 다 가는데 내 언제 너 길 가르쳐 주고 있겠노? - 김복순분, 앞의 책, 284면.
251) 그리하면은 오늘은 꽃밭에 물 삼 년 길어 붓고
불씨 삼 년 물어 주고 낮 없는 낭구 삼 년을 대령하고
밑없는 물에 물 삼 년 길어 붓고 어두 이룬다
꽃밭에 물 삼년 길어 붓고 불씨 삼 년 물어 주고
그것도 부모 봉양이라면 그것도 그리 하라 하오시고 - 박금순분, 홍태한, 앞의 책, 74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지상의 여인과 결연하여 아들을 낳아 야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무장승의 청을 수락한다는 점에서,²⁵²⁾ 그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겨 자신의 품에 감싸 안는 포용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쟁기질’이 상징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²⁵³⁾

그렇다면 ‘신성의 발견’ 서사에서 발견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서천서역으로의 노정 중에는 ‘빨래’하기를 통해 여성적 생명력을, ‘쟁기질’을 통해 포용의 힘을 발견할 수 있겠다. 이는 무장승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주기’, ‘불때기’, ‘나무하기’, ‘출산’을 통하여 여성적 생명력을, 무장승의 청을 수락하여 결연함으로써 포용의 힘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B 2 신성의 발견

[빨래 = 여성적 생명력의 발견

• 노정 중

[쟁기질 = 포용의 힘에 대한 재발견

[물주기, 불때기, 나무하기, 출산 = 여성적 생명력의 발견

• 무장승의 집

[무장승과 결연 = 포용의 힘에 대한 재발견

이처럼 바리테기는 부정적 존재인식을 타파하기 위한 구약행을 통해, 문제적으로 여겼던 자신의 여성성이 지닌 생명력을 발견하고, 자신이 늘 내면화하기 위해 애썼던 포용의 힘을 재발견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신성 획득’의 서사를 통해 그러한 힘들을 온전히 내면화하기에 이른다. 바리테기의 ‘신성 획득’을 표상하는 것은, 그녀의 손에 약수와 환생꽃이 쥐여지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바리테기가 얻게 된 약수가 그녀가 삼 년 내

252) 여보시오 부인이요. 당신이 그거 몰랐소. 나는 금세상에 하늘 나라 사람이거니, 지하 땅에 내려와서 지하 땅 사람과 부부를 언약을 맺어서 아들 삼형제를 놓아야 내 약물 있는데를 가르쳐 주지 안그러면 못 가르쳐 준다 - 김복순본, 서대석·박경신, 앞의 책, 292면.

253) 대부분의 서울·경기지역 <바리테기> 이본에 서천서역으로 가는 길을 묻고 길 값을 제공하는 서사가 생략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장승의 거처에서 수행하는 과업의 의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되더라도 전체 서사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인 듯하다.

도록 길어 올리던 물이었다는 점, 손에 꺾어든 환생꽃이 늘 주위와 불을 때던 나무였다는 점이다.²⁵⁴⁾ 여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여성의 일상적 과업이, 여성으로서 바리테기가 지닌 존재적 힘으로 확인되는 과정이다. 보잘 것 없어 보이던 일상의 과업이 실상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수와 환생꽃이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던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존재인식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성의 획득’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적 생명력의 확인과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다. 또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일관된 포용의 노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노정에서 만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길을 묻고, 그들의 과업을 대신 짊어지기를 자청함으로써, 무장승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무장승의 딱한 처지를 연민하여 그를 끌어안음으로써 바리테기는 자신이 지닌 여성적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바리테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확신함으로써 바리테기의 포용의 힘 또한 완전해질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포용은, 포용이라기보다 약자의 굴종에 가깝다. 그저 받아들여지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가슴을 열어봤자 자신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할 뿐이다. 구약행 이전의 바리테기에게 완전한 포용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신성의 획득’ 서사를 통해 바리테기가 얻은 것은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 뿐 아니라 진정한 포용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C 2 신성의 획득

• 약수, 환생꽃 = 여성적 생명력의 확인과 획득,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

진정한 포용의 힘 획득

254) 그대 깃든물 약려수이니// 금장군에 지고가요.

그대 비든 나무는 살살이 썩살이니 가지고 가요. - 배경재본, 앞의 책, 243면.

따라서 바리데기는 ‘현실 복귀’ 서사를 통해 아버지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존재성을 증명하기에 이른다. 공로에 대한 대가로 왕국의 반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발언은, 그가 ‘무가치한 여성’이라는 인식으로 버렸던 바리데기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바리데기의 ‘버려짐’의 문제가 완전한 해결을 이룬다. 중요한 점은 바리데기가 단순히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자기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부왕의 통치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 저승의 영혼을 인도하는 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는 그녀가 늘 내면화하고자 했던 포용의 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통해 완성됨으로써, 그녀를 세상 모든 버려진 영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우주적 존재로 변모시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현실복귀’와 그에 이어지는 ‘신직 좌정’의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D 2 현실 복귀

- 아버지 희생 = 자기 존재성 증명
- 통치권의 승계 = ‘버려짐’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
- 통치권의 거부 = 자기 존재로서의 삶 실현

E 신직 좌정 = 저승의 영혼을 인도하는 신으로 좌정

<원천강본풀이>가 제주도의 무조신화(巫祖神話)라면, <바리데기>는 내륙의 무조신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둘 모두 무속인으로서 겪어 내야 하는 ‘고독’, ‘버려짐’의 문제에 대한 원형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원천강본풀이>의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근원적 고독이 무속인의 입장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양상이 고려되었다면, <바리데기>의 ‘버려짐’은 세상과 타인, 나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끝없이 거부당해야 하는 더욱 더 절망적인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세상 모두

가 자신을 거부하는 듯한 느낌, ‘버려짐’에 대한 실감이란 그러한 것이리라. 그리고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도록 하는 자신의 존재성을 그들은 긍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성을 거부하고 싶은 그들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리데기의 서사는, 망자의 원한을 씻어내고 버려진 영혼을 건져 올려 재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이야말로 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성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 모든 영혼을 가슴에 품는 무속의 길을 걸으라 이야기한다.²⁵⁵⁾

우리 평범한 이들에게도 그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 스스로 버려졌다고 느낄 때, 오히려 먼저 포용의 몸짓으로 다가서 끌어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을 구하라 말한다. 자신이 버려졌다 여길수록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잘못된 존재라 여기기 쉬운 우리에게, 정말로 버려질 만큼 잘못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 확인해보라 말한다. 그 결과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우리를 버린 사람, 우리를 버린 세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사람과 세계를 끌어안아 고치라 이야기한다. 것처럼 바리데기의 서사는 평범한 우리의 ‘버려짐’에 대해서도 원형적인 해결의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와 바리데기의 원형적 문제해결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오늘이와 바리데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인간으로서 가장 극악한 존재적 문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의 표상이다. 그러나 이처럼 가장 원형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신성한 존재로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낸 인물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그 신성을 발견했는가. 다름 아닌 자신의 현실 자리, 자신의 존재 안에서 발견한 신성이다. 그것은 인간의 안에 존재하는 신성, 인간의 존재 안에 이미 깃들여 있는 신성한 존재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이와 바리데기의 서사는 원형적 인간 존재의 가치, 그 안에 신성한 가치가 깃들여 있는 존재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원형적 인식을 이야기하는 서사

255) “많은 무당들이 재가집이야 듣거나 말거나 애써 자신이 알고 있는 <바리공주> 무가를 부른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부르는 <바리공주> 무가에서 바리공주와 같이 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큰머리를 엮고 장구를 치며 방울을 흔드는 무당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답다.” 홍태한, 앞의 책, 3면.

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한국 신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원형이다.

한국 신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형적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은, 그 서사를 내면화함으로써, 그러한 가치를 확신하고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다. 자기 가치를 확신하고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신화 주인공은,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기이다. 앞에 제시된 다른 주인공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반해, 감은장아기의 서사는 자기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일관된다. 그렇기에 감은장아기의 서사를 콤플렉스의 서사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주인공의 콤플렉스적 형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고의 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앞의 논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의 주인공들이 콤플렉스의 원형으로서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면, 감은장아기는 콤플렉스 치유에 대한 원형으로서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은 자기 안에 있다는 확신, 감은장아기의 그 확신을 내면화하는 것이 한국 신화가 이야기하는 콤플렉스 치유의 일반 원리일 것이다.

그 밖에도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한국 신화는 주인공의 원형적 형상을 통하여 이야기한다. 그 한 예로서 본고에서 제외된 바의성(性)에 관련한 콤플렉스 문제는 <광청아기본풀이>의 광청아기나,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 서사를 통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음으로서 서사가 마무리되는 광청아기의 경우, 성적인 콤플렉스의 극복 과정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성적인 욕망에 대한 콤플렉스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어내는 것에는 적합한 서사일 것이다. 당금애기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의 추구가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불러온 상황을, 모성을 통하여 극복해내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성적인 콤플렉스의 극복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본고에서 사회적 관념의 문제로 논의되었던 자청비의 서사도, 성적인 콤플렉스의 문제로 다시 분석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맥락으로 <천지왕본풀이>에 제시된 대별왕과 소별왕의 서사는, '형제 갈등'이라는 원형적 문제에 대한 의미를, 문헌 신화인 <주몽신화>

의 경우에는 '부자 갈등'이라는 원형적 문제에 대한 극복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콤플렉스 문제들에 대해, 그 콤플렉스의 구조와 극복의 과정이 드러나는 신화 서사를 탐색하고 분석해 나감으로써 본고의 논의를 확장해나가는 일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면서, 이와 같이 그러한 논의 확장의 가능성을 즐겁게 가늠해 보는 것으로 일단락 한다.

5.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에 대한 실제적 적용 가능성 탐색

5.1. 대학생 집단의 사례를 통해 본 콤플렉스의 양상

지금까지 현대인의 정신적 문제로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콤플렉스의 문제에 관하여, 그 극복과 치유를 위한 신화 연구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콤플렉스의 해결이라는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한국 신화의 서사체계와 그 원리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러한 신화의 서사체계와 원리를 통해 구명된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 구조와 그 극복과정이 실제의 콤플렉스 구조와 극복과정에 얼마만큼의 적용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밝힌 바 있는 서울·경기 지역 대학생들의 콤플렉스 사례를 통하여 그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례는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관계적 결핍의 문제, 사회적 관념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콤플렉스 신화 서사의 실제적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콤플렉스의 원인이나 구조, 극복 과정이 신화 주인공의 경우와 유사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이다.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은, 이 장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실제의 콤플렉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생 사례와 신화 서사의 비교는, 콤플렉스 측면의 신화 연구가 실제의 차원과 동떨어진 문학 텍스트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안배이다. 또한 인용된 사례들은 콤플렉스의 개념에 대한 강의 후에, 각 사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콤플렉스가 형성된 원인이나 과정, 그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일화들, 그러한 콤플렉스의 현재적 상황을 자유롭게 기술하라는 본 연구자의 주문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그러한 사례 작

성에 대하여 본 연구자의 의도적 조정이나, 원하는 방향으로의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신화 서사의 소개 과정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인간의 콤플렉스란 무의식의 영역에서 형성되고 작용하기에 어느 정도 극복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 그에 신화 서사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이루어진 사례들로써 제시된 점은 어쩔 수 없다. 사례자들은 콤플렉스의 극복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며, 그로 인한 콤플렉스 관련 작문도 콤플렉스적 반응 경험에 대한 것으로 한계 지어져, 그 원인과 경과를 맥락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것이다. 이 장의 논의 목표가, 신화와 실상이라는 양자의 유사성을 통해 콤플렉스 신화 서사의 실제적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 세부적 맥락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설정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임을 밝혀둔다.²⁵⁶⁾

첫 번째,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에 관하여는 거북이·남생이의 서사와 유사한 문제의 양상을 보이는 사례로써 그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보도록 한다. 우선은 거북이·남생이와 같은 신체적 장애의 문제를 안고 있는 L군의 사례를 이야기 하겠다.²⁵⁷⁾

어렸을 때는 팔과 다리에 털이 많은 것이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반팔티도 입습니다. 현재

256) 이러한 점들에서 현실의 콤플렉스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본 연구조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본고의 목적이 본격적인 서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한국 신화 서사의 연구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격적인 서사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수차례의 회기에 걸친 1대1 상담을 통해 사례가 축적되었다면, 보다 내밀하고도 심각한 콤플렉스 사례들이 수집되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과제의 형태로 작문에 의한 콤플렉스 사례가 수집되었기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짜 콤플렉스들을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대 남녀에게 있어서 내밀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리라 판단되는 성(性)적인 콤플렉스 사례가 수집되지 않은 것에서 조사 방법의 한계를 실감한다. 그러나 콤플렉스의 극복과 치유에 대하여, 한국 신화 서사의 연구가 지닌 가능성과 그 원리를 확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본고에 인용된 조사 결과로도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257) 본 연구에 사례를 인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익명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신체적 장애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자들이 인용을 거부하였고, 인용된 L군의 경우만이 유일하게 인용을 허락해주었다. L군의 사례는 매우 피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인용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북이·남생이의 서사와 비교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신체적 장애에 관련한 사례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에 인용을 결정하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L군의 정보를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는 오히려 왼쪽 다리에 있는 흉터가 크게 있어 반바지는 물론 치마 바지도 입지 않습니다. 이 흉터는 발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중학생 때 수술에 의해 생긴 흉터인데 그로 인해 뛰지도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쪽 다리만으로 걷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콤플렉스입니다. 특히 뛰지 못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겠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나 싶을 정도로 콤플렉스가 심합니다. 또 처음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에도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내색하질 않았고 오히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대해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몇 년이면 왼쪽 다리의 인공관절의 내구성이 다해 다시 인공관절을 가는 수술을 한다는 데에 대한 부담과 재활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인공관절을 가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관절의 내구성이 다하면 그 때 가는거라서 그 때가 언제 올지 몰라 시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관절을 갈게 되면 그 때의 수술 성과와 재활운동에 의해 신체적인 부분에서 지금보다 나빠 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수술과 재활운동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뛰지는 못해도 계단을 일반 사람들처럼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으니 그 때가 되면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 신체적인 장애를 좀 더 극복해낼 생각입니다.²⁵⁸⁾

사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면, L군은 초등학교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가 될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한 중에 왼쪽 다리에 골육종(osteosarcoma), 일명 ‘뼈암’이 발생함으로써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체장애와 함께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푸른 잔디 위를 질주할 꿈을 꾸던 소년이 일상의 보행마저 부담스러운 장애를 안게 됨으로써 받았던 절망감의 크기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거북이·남생이의 경우처럼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던 중 직면하게 된 장애의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을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적 열등감을 지적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축구가 전부였던 L군에게 있어, 자신을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만든 장애는, 스스로 ‘나는 이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거북이·남생이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부모의 판단을 자신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내면화하

258) L(21세, 남),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 2014. 10 작성 제출.

였다면, L군의 경우에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된 절망감에 스스로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 ‘무능력한 존재’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이후의 행보가 유사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운동부원으로서 학업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살았던 L군은, 어쩔 수 없이 보통의 학생들처럼 학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만 했다. 아무런 기초 없이 중학교 2학년 과정 교과를 따라가기란 너무나 막막한 일이었다고 한다. 꿈꾸던 미래를 잃어버리고 뒤바뀐 운명을 채 받아들이기도 전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쳐진 학업을 따라가야만 했던 상황이 숨 막히도록 버겁고 절망스러웠노라 이야기하였다. 뒤쳐진 학업을 보강하기 위해 L군은 전 과목에 걸쳐 학원에 등록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리를 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학원에 다니는 일은 정말로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었다. 절망감에 젖어있는 자신에게, “남은 길은 공부뿐이다.”,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밖으로 몰아세우는 어머니가 너무나 미웠다고 한다. 자신은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 절망감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만 같아 원망스러웠다고 한다. 자연히 학원에 나가서도 공부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그저 감당하기 힘든 책무였을 뿐이다.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기에 그러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L군도 아무 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밖으로 내몰리면서도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을 뿐이다. 자연히 공부는 뒷전이 되었고, 자신의 장애를 사람들에게 내보이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자극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L군의 당시 심정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은 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량을 선보여야 하는 축구선수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내보여야 하는 일이 더 고통스러웠으리라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가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고 그에 따라 무기력한 모습을 내보였기에, 교사들

도 L군을 장애를 입은 무기력한 아이로 여기고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던 상황이다. 거북이와 남생이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무기력한 존재성을 내보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무기력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듯이 말이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수학 학원을 옮기게 되었던 일이 L군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었다. 만약 ‘수학’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절망한 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기존의 학원 공부에서 별반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L군은, 새로 옮긴 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내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놀이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수수께끼 놀이에 상당히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거북이와 남생이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몰려서야 비로소 부정적 현실에 웅크려 있던 자세를 버리고 움직여 나갈 방향을 찾게 된다. 그에 비하면 그러한 극단적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주저앉아 머물러있고 싶었을지 모른다. 다만 그의 어머니가 L군이 부정적 현실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것이, 거북이·남생이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세세한 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두 경우 모두 부정적 현실에 웅크려 있던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삶을 이어갈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거북이·남생이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표상하는 생금(生金)을 발견하였듯이, L군은 ‘수학’이라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다른 과목의 공부는 지지부진 하였지만, 수학만큼은 누구보다 즐겁게,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었고, 그만큼 수학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금상사에 들어간 거북이와 남생이가 “생금같은 아이들이다”라는 생불성인의 말을 듣고 공부에 임했던 것처럼, “수학을 통해서라면 너는 누구보다 유능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동기 유발은 L군이 수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

고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몇 차례 수학 경시대회에 입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등을 통해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L군은 수학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일찌감치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본격적인 수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못의 생금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기 위한 거북이와 남생이의 공부과정이 있었듯, L군도 수학 연구자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금상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상사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거북이와 남생이를 억눌렀던 불목하니처럼, 여전히 그가 지닌 지체장애는 그의 콤플렉스로 남아 있다. 그러나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는 그에게 지체장애는 더 이상 예전의 절망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수학 연구자로서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세우고, 자신만의 ‘생금(生金)’을 온전히 품속에 끌어안게 될 미래에는 그러한 콤플렉스도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한다.

제시된 사례는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로서, 거북이와 남생이의 경우와는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이나 불편의 심각성도 다르고, 그 세부적인 맥락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콤플렉스에 얽매이는 양상이나 그로인한 고통의 양상, 그 해결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거북이·남생이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해당 사례가 콤플렉스의 극복의 단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볼 때, 그 유사성은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에 대해 거북이·남생이 서사의 적용이 적합한 치유와 극복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관계적 결함의 문제에 대한 사례는 할락궁이의 서사를 중심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할락궁이와 같이 ‘아버지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이 콤플렉스로 작용한 C양의 사례이다. C양의 아버지는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이제와서 돌아보며 짐작컨데, 당시 매우 유능했던 아버지는 나이에 비비해 상당히 빠른 진급과 승승장구로 우리 집은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덕분에 나는 부족함 없이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모자람이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다정하고 위트가 있었으며 주변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부하직원들에게까지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 어린 나이에도 내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매 명절마다 친가친척하나 없는 우리집은 아버지의 인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별일없이 산다’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현실에서, 우리 집은 그렇게 ‘별탈없이’ 살고 있었다.²⁵⁹⁾

C양의 기억에 의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유능했으며, 성품에 있어서도 나무랄 데 없는 이상적인 아버지였다. 그러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자리잡고 있던 그녀의 가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상적인 모습은 분명히 실제 그녀의 아버지가 지닌 모습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후 부정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대하여 그녀가 아버지의 부재를 문제 삼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환경 속에 존재하던 아버지의 존재상을 미화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현실에 부재하고 있는 기억속의 아버지가 매우 이상적인 관계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고, 그 부재가 그녀 자신을 결함의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다.

몇 일간의 장례와 발인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장기결석으로 인해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 또한 나를 애처롭게 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안정적이었던 집안환경들이 만들어줬던 나의 자신감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느낌이었다. 뭔가 내가 부족해진 느낌이 들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은 이사를 했다.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의지를 하고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목동으로 이사를 결정하셨다. 나도 좋았다. 왜냐하면 새로 전학하는 학교 친구들은 내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것을 모를테니까. 나도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싶던 차였다. 물론 이사를 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이미지 만들기.²⁶⁰⁾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시선들로 인하여, C양은 ‘뭔가 내가 부족해진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한다. 자현장자의 억압이 할락궁이를 결함의 존

259) C(26세, 여),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2015. 4 작성 제출.
260) 앞의 글.

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C양은 사람들이 보내는 동정의 눈길로 인해 자신이 동정 받아야만 하는 결함의 존재가 되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다르지 않다. 둘 모두 자신이 인식한 존재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가 부재한 자리에 가상의 이상적 아버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기 이상화에 집중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전학은 후에 나는 계속 아버지가 돌아가시(기)²⁶¹⁾ 전 나의 모습을 흉내냈다. 나는 분명히 같지만 달랐다. 은연 중에 친구들에게 묘사하는 우리집은 여전히 더할나위없이 안정적 인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에게 유쾌하고 자상하며 우리집은 평화로웠다. 어머니가 매점을 운영한다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 ‘자영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실재론 우리 집 내부에서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중학생이던 오빠는 집에 반항하기 시작했고 이미 많이 성장해버린 오빠를 어머니 혼자 제어하기가 벅찼다. 집에 무서운 사람이 없었던 오빠는 더욱더 막 나가기 시작했다. 집이 조금씩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런 오빠가 너무 싫어서 나와 오빠와(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다. 나도 그런 집구석이 싫어서 밖을 나돌았다. 밖에다기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다. 목동이라는 동네에서 한부모 가정은 꽤 드른 편이었고, 많은 친구들의 부모님의 직업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더욱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과해져서 나는 내가 ‘강하게’ 보여(이)는 것에 재미를 들었다. 나의 허점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과하게 행동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거라고 생각된다.²⁶²⁾

C양은 여전히 이상적인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스스로도 그것이 허상임은 알고 있다. 그에 점점 더 ‘강하게 보이는’ 방식으로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는 할락궁이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이 허상이 아님을 증명하려 애를 쓰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 또한 엇나가기 시작하는 형제의 존재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싫어서 밖으로 나도는 모습에서는, 존재적 결함의 증거처럼 인식되는 어머니의 존재를 거부하고 장자의 집을 뛰쳐나갔던 할락궁이의 모습이 투영된다. C양의 경우에도 자신의 존재적 결함을 자극하고 이상적인 자기상 구축에 장애로 여겨

261) ()는 원문에서 보이는 뚜렷한 오류를 필자가 수정한 내용을 표시한다. 그 밖에도 문법적인 오류나 맞춤법의 오류가 많이 눈에 띄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인용한다.

262) 앞의 글.

지는 가족과 가정이 장애처럼 여겨졌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일진’이라는 오명을 달고다닐 때에도 나의 성적은 꽤 좋았다. 우습게도 나는 불량그룹의 리더처럼 여겨졌지만 나의 성적이 좋았고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심하게 몰아부치지 않았다. (중략) 어쩌다 생겨버린 ‘놀 땀 놀고, 공부할 땀 공부한다’는 나의 이미지가 무척 마음에 들었기에 나는 공부쪽에 좀 더 힘을 실었다. 나는 이미 전형적인 범생이의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성적을 낼 수록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실체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나의 이미지가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느낄 때 기분이 좋았다.(중략) 내가 너무 지독해졌는데 이런 원인들이 다 아버지때문인 것 같았고, 또 그때 아버지가 제일 필요했다. 그 때까지 나의 가장 힘들 시절이었던 그 때에 아버지가 절절하게 필요했다. 장례식장에서 쫓지 않았던, 그간 쫓지 않았던 나의 모든 눈물을 아마도 수험생시절 내 방에서 다 흘렸으리라 생각된다. (중략) 성적이 좀 낮아도 그것은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가 아니었는데, 남들이 원하는 성공에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다. 보라고 내가 아버지가 없어도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냐고²⁶³⁾

이후로도 C양은 이상적인 자기상을 증명하기 위한 인정투쟁의 나날을 보낸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소위 ‘일진’이라는 오명도 얻었고, 그 와중에도 학업 성적을 통해 자신의 평판을 올리기 위해 애를 썼다.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 아니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돋보이게 될 것이란 계산에서였다. 자신의 존재성을 돋보이도록 만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 했다. 특히 누구나 매달리는 ‘대입’이라는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기 위해, 고3 시절의 그녀는 말 그대로 ‘지독하게’ 공부에 매달린다. 그렇게 지독한 인정 투쟁에 매달리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아버지의 부재가 원망스러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또한 아버지의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말한다. 할락궁이가 부재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또 회귀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C양의 현재가 어떤가하면, 그녀의 자기 이상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전의 그녀처럼 그에 과도하게 매달리지는 않고 있다고 자평한다. 그것은 ‘성장’이라는 이름의 열매이다.

263) 앞의 글.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집에 대한 약간의 과장을 섞거나 심지어는 스킵이 생겨서 이미지를 내가 편집한다. 거짓말은 하고싶지 않으니, 들리고 싶지 않은 치부같은 것들은 내용에서 내가 빼버린다. 그렇지만 많이 변했다고는 하겠다. 솔직해졌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예전에는 내가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너무 싫었다. 예를 들면, 이성과 밥을 먹고 계산하는데 돈 계산해야하는 그 잠깐 순간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돈이 많은 적든 마치 나는 항상 여유롭고 넉넉하다는 듯 행동했다. 지금은, 잘 얻어먹고 다닌다. ‘나 지금 돈 없어 그러니까 사줘’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줄도 안다. 아버지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 입을 떼기가 무척 어려웠지 이제 는 꽤나 담담하다. 눈물부터 닦았는데, 감정의 동요도 거의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20 대가 되어 세상에 나오니, 즉 우리동네를 벗어나니 사실 나의 환경은 양반 중의 양반이었다. 먹고사는데 지장도 없으며, 심지어 주변에서는 나는 ‘능력자’로 꽤 인정해 준다. 그래서 더 내가 나에게 대해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진 걸 수도 있다. 사람의 이미지라는 것은 어느정도 포장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나를 포장해서 말하는대신 나에게 대해서 상대방이 좋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건 내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의 진심과 됴됨이와 내공이 적절히 녹아서 자연스럽게 풍겨나는거라고 믿는다.

이상적 자기상을 증명하기 위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 할락궁이가, 삶의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현실이 지닌 가치를 깨닫게 되었듯이, C양도 넓은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삶과 관계맺음을 통해 자신이 ‘결함’으로 느꼈던 현실이 실상은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에 허상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디까지나 진실하게 자신의 현실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냄으로써만 자기를 증명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은 그녀의 콤플렉스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에 놓인 어머니, 형제와의 관계를 풀어내고, 진실 된 현실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순간 꾸미지 않아도 오롯이 드러나 있는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락궁이가 한때는 거부했던 자신의 현실적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닌 가치를 재인식하고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이상으로 만들었듯이 말이다.

세 번째, 사회적 관념의 문제에 대한 사례는 자청비의 서사를 중심으로 그 적용의 문제를 검증해보도록 한다. 우선 자청비와 유사한 모습으로 남성우월주의적 편견에 대항하여 남성성을 발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던 G

양의 사례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G양은 자신의 콤플렉스로 ‘우유부단함’과 ‘다이아나 콤플렉스’를 제시하였는데, 우유부단함의 경우는 아무 것도 놓치지 않은 성취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이아나 콤플렉스에 통합될 수 있겠다. 심리학적 콤플렉스 개념인 다이아나 콤플렉스는, 남성우월적 편견을 인식한 여성이 남성성을 발현함으로써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양상을 말하는데, 이는 자청비의 콤플렉스적 행동양상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G양의 사례는 사회적 관념의 문제에 대한 자청비 서사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내게 또 하나의 두드러지는 콤플렉스가 있는데, 다이아나 콤플렉스이다. 일반적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는 달리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직업을 선호하며 이성과의 자리에서도 남성이 제시하는 호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특징일 것이다. (중략) 나의 경우는 이러한 특징들이 조금은 지나쳐 이성적 매력을 오히려 반감시킨다는 말 또한 많이 들었었다. 현재 00대학교 학군단 00기 학군사관 후보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후보생 생활을 하는 동기들이 보기에 여자다운 구석이라곤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편이다. (중략) 목소리나 행동 등의 평소 생활 태도를 보면 남자같이 하려고 한다, 라는 말들을 듣고 보니 예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이 보였다. 단지 장교 예비 후보생이라는 길을 택한 것 외에도 머리로 남자처럼 하고, 옷도 남자처럼 입으면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여자들과 다른 면들이 있었다. 사실 옷을 때 입 가리고 웃는 것조차 어색하긴 하다. 그리고 딸이면서 부모님께도 애교를 부리지 않는 무뚝뚝한 면이 많이 있어 부모님께서도 거의 아들처럼 여기시는 편이다.²⁶⁴⁾

제시된 바와 같이, G양은 평소의 말씨나 몸짓, 외양을 꾸미는 방식, 선호 직업 등 전체적인 행동양상에 있어서 남성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며, 그로 인해 매력이 없다는 평가까지 들은 바 있다. 이는 문도령과의 경쟁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청비의 남성적 행동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G양의 경우에도 자청비와 마찬가지로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여성성을 억누르고 우월하다고 평가되는 남성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다. G양은 남성성 발현의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으로 그러한 차별의 논리에 대한 인식을 자각하고 있다.

264) G(23세, 여), <우유부단함, 그리고 다이아나 콤플렉스>, 2014. 10 작성 제출.

이러한 콤플렉스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최근에 형성되기보다는 꽤나 오랜 기간 과거의 경험에서 쌓여왔던 비교와 선입견, 그리고 과거 인연에 이러한 원인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느꼈다. 어릴적 우리 집안의 환경적 요인이 일차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 태어났을 무렵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맞아들이던 아버지와 어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살았었는데, 대기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었다. 친할머니께서는 굉장히 남녀차별적 성향을 가지고 계셨다. 물론 과거의 일이라 지금 와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성향이 짙어서 나보다 5살 어린 사촌 남동생과 비교를 하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당시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여겼지만 그러한 주변에서의 반응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로 남았었고, 또한 그러한 점들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남자에게 어느 것 하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형성되어 왔던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으로 관례라고 여겨지는 것들조차 어느 새부터 나는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⁶⁵⁾

G양이 인식한 최초의 원인은 친할머니의 영향이다. 5살이나 어린 남동생과 G양을 비교하며,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할머니의 존재가 그녀의 무의식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리라 보인다. 어린 시절에는 한두 살 터울이라고 해도 그 신체적·지적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물며 5살의 차이가 내포한 존재성의 차이는 그야말로 까마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사촌동생과 G양을 비교하며 그녀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할머니에 대하여,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가늠할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눈에는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아 보이는 사촌 남동생과 비교당하고 열위를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이 그녀의 무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성이 모자란 태어난 존재’로 여겨졌던 자청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러한 상처를 지닌 G양에게, 그녀가 성장해 온 사회 환경은 그녀가 지닌 내면의 상처를 계속 자극하게 된다. 사회 일반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 논리가 계속 그녀를 자극하면서, 그녀는 그에 맞서 자신이 남성들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 받고 싶었던 듯 보인다.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265) 앞의 글.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사회적 차별의 논리를 그대로 내면화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인식되는 여성성을 억누르고 우월하다고 인식되는 남성성을 발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차별의 논리를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차별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G양의 남성적 모습은, 자칭비가 그녀의 차별의 논리를 통해 차별의 논리에 대항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양상과 같은 맥락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G양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취한 방식도 자칭비의 경우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는 남녀의 자연스러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려고 노력했다. 사실 예전에는 내가 남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계 훈련 당시 모두가 똑같은 군장을 메고 교장을 이동할 때 고개를 넘을 때에는 동기들끼리 서로 군장을 밀어주고 받쳐 주었는데, 자존심에 그런 도움을 모두 거절하고 남자 동기생들보다 뒤처지기 싫어 안감함을 다했던, 정말 힘든 기억이 있었다. 사실 같은 분대원들끼리는 서로 도와주면서 친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었지만 분대에 하나뿐인 여후보생인 나에게는 내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못 도와줬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는데, 디아나 콤플렉스로 인해 동기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예였었다. (그 후) 여자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일은 없었지만 남자와 똑같이 하려고 애쓰거나 하지 않고 샤워실 청소나 체력 구분과 같이 남녀 구분이 생기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남자와 같이 하려는 자세를 잃었다. 그리고 머리를 억지로 남자처럼 자르지 않고 여후보생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했다. 덕분에 이번 학기에는 하계 훈련과 같은 일이 없고 같은 학군단 안에서 더욱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또, 학군단 안에서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나 부모님에게도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전보다 여자처럼 보인다는 소릴 들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남자처럼 하려고 애쓰는 버릇을 고친 덕분에 여성스러움을 얻어 좀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²⁶⁶⁾

차별의 논리로서 차별의 논리에 맞서는 일은, G양으로 하여금 그녀의 현실적 삶의 기반 중 하나인 학군단 동기집단과의 관계를 저해하는 폐단을 만들었다. 기실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이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나보다 나은가, 모자란가’를 가늠하는 시선일 것이다. 자신에게 그러한 평가의 시선을 보내는 이와 진정으로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는

266) 앞의 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차별의 논리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녀’의 구분을 떠나 ‘동료’라는 입장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도움을, 차별의 논리로 인해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 거절함으로써 더 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부의 세계와, 관계의 대상,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까지 차별의 논리를 투사하여 모든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스스로의 현실적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말았던 자칭비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게 된 G양은 남녀의 자연스러운 차이를 받아들여기로 함으로써 그러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는 ‘진정한 자기 되기’를 통해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자신을 억누르던 차별의 논리에서 벗어났던 자칭비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억지로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고, 억지로 남자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 진정한 해답이라 생각된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계의 대상과 외부의 세계에 내보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일 없이 온전한 존재성을 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방식은 현실의 관계맺음에 있어서도 진전을 가져온다. 억지로 꾸며진 모습이 아닌 본래의 존재성을 통해, 위아래로 나누어 평가하는 시선이 아닌 존재 그대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존재’ 대 ‘존재’로의 진정한 관계 맺음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까지도 G양은 외적으로 매우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콤플렉스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랜 시간동안 남성의 모습을 고집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있어서, 남성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그녀만의 개성으로 자리 잡았을 수 있다. 오히려 그녀가 완전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그녀가 억지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존재성을 통해 살아가기로 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 이처럼 G양의 사례는 사회적 관념의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콤플렉스의 해결에 대한 자칭비 서사의 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2. 신화를 통한 실제적 콤플렉스의 진단과

치유의 가능성

신체적 열등감, 관계적 결함, 사회적 관념에 관련한 L군과 C양, K양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콤플렉스의 형성과 그로 인한 반응, 치유의 경과에 있어서까지 본고에서 논의된 거북이·남생이, 할락궁이, 자청비 서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²⁶⁷⁾ 이처럼 보편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신화의 서사가 개인적 차원의 콤플렉스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신화가 보편적 서사이기 때문’이다. 신화가 함유하고 있는 신화소인 원형은 집단무의식으로 지칭된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 인류의 기억과 유사한 형상을 띤다. 신화가 그 서사를 접하는 누구에게나 유사한 신성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원리는, 신화의 원형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된 집단무의식의 자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화의 원형이 담보하는 그러한 보편성이 인간 누구에게나 누미노즘(Numinosum, 신성한 힘)을 경험하게 하고, 누미노즘을 통한 존재적 근원의 경험은 신화의 원형을 접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 무의식에 내재한 원형의 힘을 체험하게 한다.²⁶⁸⁾

비록 신화가 보여주는 주인공의 ‘원형적 콤플렉스가’,²⁶⁹⁾ 개인마다 각기 다른 심상들이 착종되어 형성되는 개인적 콤플렉스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콤플렉스라고 해도, 보편적 원형과 관계없는 것이 아님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한 개인의 콤플렉스 형성에는 개인적 심리 경험의 심상들이 착종되는 기반으로, 그와 계열성을 지니는 집단 무의식의 심상들, 즉 원형들도 함께 작용하여 심리적 업힘을 만들어내는

267) 이는 본고에서 논의된 콤플렉스 치유 관점의 신화 서사 연구가 허망한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268) 김병주, 앞의 논문, 563면.

269) 원형적 콤플렉스라는 표현은 보편적 원형의 서사인 신화 속 주인공을 통하여 형상화된 콤플렉스라는 점에서 사용된 것이다. 원형과 콤플렉스가 각기 보편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원형적 인간형상으로서 ‘보편적 개인’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신화 주인공이 내면화한 콤플렉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틀린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것이다. 따라서 콤플렉스의 신화 서사는 실제의 콤플렉스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의 콤플렉스와 일정한 공통분모를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의 콤플렉스의 기반이 되는 것이 보편적 원형이라고 할 때에는, 신화가 보여주는 콤플렉스의 형상과 실제의 콤플렉스 매우 깊은 층위에서 유사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⁷⁰⁾ 요컨대 어떠한 개인도 인간이 아닐 수는 없으므로, 인간 정신의 보편적 원형을 담보하는 신화와 관계없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개인도 신화가 이야기하는 콤플렉스의 문제와 관련지어지지 않을 수 없다.

자청비의 서사를 예로 들어, G양의 경우처럼 자청비의 콤플렉스 양상과 유사성이 큰 개인일수록 자청비의 서사를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를 직시하고 그 치유의 과정을 내면화하기 쉬워질 것이다. 사례로 제시된 G양의 경우에 것처럼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 양상과 큰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경우가 사회적 편견을 원인으로 하는 콤플렉스의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이기에 인류 보편에 수렴하는 신화의 콤플렉스 양상과 그와 같은 상동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하기에 보편적인 신화 서사를 적용한 개인적 콤플렉스의 치유가 실효적일 수 있다. 보편적인 신화의 콤플렉스가 전형적인 콤플렉스와의 상동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또한 가장 전형적인 콤플렉스 유형에 대한 신화 서사의 적용성을 담보한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콤플렉스란 곧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유형의 콤플렉스로 고통 받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콤플렉스의 문제에 치유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신화 연구가 곧 많은 개인의 콤플렉스 치유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 개인이 자청비와 전혀 다른 콤플렉스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그 서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청비에게 전혀 동조할 수 없어서 그녀의 서사에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은 유효하다. 그러한 개인의 경우에는 자청비의 대척점에 놓인 인물이

270) C. G. Jung, 앞의 책, 2002, 105~106면.

지닌 형상이 그 콤플렉스를 직시하고 이해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청비를 향하여 ‘요망하다,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하던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로서, 그 개인의 콤플렉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 그러했듯이, 신화 속에 투영된 콤플렉스의 양상을 하나씩 밝혀 나가고, 신화의 서사를 통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서사를 발견해나갈 수 있다면, 것처럼 다양한 신화의 서사를 각 개인이 하나하나 추체험함으로써, 각 서사가 담보하는 여러 원형적 문제의식들을 하나씩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콤플렉스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의 발견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원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리라 본다.

신화의 주인공은 그 앞에 놓인 현실의 서사와 신성의 서사만을 인식할 뿐이지만, 신화를 체험하는 우리들은 그 두 층위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신화의 체험자가 신화의 서사를 통하여 자신의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그 치유의 방법, 그것을 치유할 정신적 힘을 발견하게 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화 주인공은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서사만을 인식할 뿐이지만, 신화를 체험하는 우리는 전혀 다른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천차만별의 서사에서 모두 자신의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그 치유의 방법과 힘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신성의 발견 → 신성 획득’의 과정에서만이 그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결할 존재적 가치, 신성의 발견과 획득이 이루어지지만, 신화를 체험하는 우리들은 주인공이 움직여나가는 전 과정을 통하여, 나아가 여러 다른 신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한 다양한 신화 서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신성의 발견 → 신성 획득’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화의 서사를 통한 실제적 콤플렉스 치유에 있어서는, 신화 주인공이 보여주는 콤플렉스와 개인의 콤플렉스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콤플렉스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은 원형적 보편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콤플렉스 신화 서사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콤플렉스의 구조적 작용을 하나씩 밝혀나가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과 힘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씩 발견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양자의 상동성이 높을수록 그 치유의 길을 찾기가 수월해질 것은 분명하

다. 그러나 치유의 가능성 여부만을 따진다면 양자의 유사성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본고의 논의 결과와 그로부터 확장되어갈 콤플렉스의 신화연구는, 다양한 신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현대인에게 실제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콤플렉스의 모습들을 포착해내고, 치유의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실제의 많은 콤플렉스 문제들에 대한 치유와 극복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의 단계에 놓여있는 이러한 연구의 방향에 여러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혹자는 보편적인 신화의 서사를 통해, 각 개인의 콤플렉스에 대한 보편적인 치유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콤플렉스 치유 관점의 신화 연구 그 자체가 개인의 정신을 억압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본고의 논의가 다양한 개인의 정신생활에 대한 일률적 지침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러한 우려도 타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극단적인 예로서, 신화를 도구로 한 종교의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의식을 좌우할 때 거듭 인류사의 비극이 초래되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다행히도 본고의 논의는 신화 주인공의 서사에서 뽑아낸 정신적 대응의 방식을 설파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롭고도 다채로운 정신의 문제를 의도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기 위한 기반작업이 아니다. 하나의 서사를 낱것 그대로, 하나씩 추체험하는 방식을 통하여 서사 체험자의 자연스러운 콤플렉스 발견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 치유의 주요한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그러한 콤플렉스 치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콤플렉스 신화 서사를 발견하고 그 의미와 효용을 제시하는 정도의 ‘발굴 및 색인’ 작업을 위한 방법론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데올로기적 작용과 같은 거대한 폭력이 아니라고 해도, 신화의 서사를 통해 개인의 콤플렉스를 발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콤플렉스로 인한 불편을 인식하지 않고 있던 한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일부러 초래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콤플렉스는 방치되어 있을 때 유사한 부정적 심리 경험을 계속 누적시켜 그 심각성을 키워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이상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관습적 언어 표현에 콤플렉스의 심화에 대한 인식이 녹아든 것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콤플렉스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일이 오히려 사후적인 처방보다 중요할 수 있다. 무의식적 착종으로 인해 고착된 부정적 자기 인식, 것처럼 왜곡된 심리가 콤플렉스라고 하였다. 이를 부러졌다가 잘못 붙은 팔로 대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잘못 붙었다고 해도, 이미 뼈가 아물었다면 특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 팔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하여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자기 신체적 능력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다시 부러뜨리고 똑바로 바로잡아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함에도, 부러져 잘못 붙은 팔을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는 없다. 콤플렉스의 치유에 관해서도 그러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고 일상의 영위나 관계 맺음에 있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지금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그 치유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신화 주인공의 콤플렉스 극복과정이 ‘대극의 합일’로 귀결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²⁷¹⁾ 신화 주인공을 모델로 한 개인적 콤플렉스 치유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칭비와 같은 경우, 숯불이 타오르는 칼선 다리를 맨발로 건너는 초월적 행위가 요구되었는데, 실제적 콤플렉스의 치유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극한의 행위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삶의 단계를 무리 없이 거쳐 가는 보통의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와 직면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성장을 이룬다.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어린 아이는, 어느 순간 부모와의 분리를 감당해야만 정상적인 삶의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 그런데 부모와 분리되는 그 순간이란, 아이에게 있어 존재적 위기에 준하는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²⁷²⁾ 그럼에도 대부분의 어린 아이는 어느 순간 그러한 한계를

271) 길태숙, 앞의 논문, 292면.

272) 김태련 외, 『발달장애심리학』, 학지사, 2004. 360~365면.

뛰어넘어 부모와의 분리를 이루어낸다. 이와 같은 일례로써도 알 수 있듯, 인간의 정신적 성장이란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는 초월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여성의 출산과정은,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많은 여성이 그러한 과정을 무리 없이 감당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차례에 걸쳐 거듭 그러한 자기 초월의 과정을 경험한다. 이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은 인간 삶의 과정에 필연적인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신화 주인공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초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인간 삶의 질곡에서부터 천상적 초월의 삶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층위를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신화주인공의 경우는, 평범한 한 개인의 경우에 비하여 극한의 초월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그 심층적 원리는 신화 주인공의 자기 초월과 우리의 그것이 다르지 않다.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한국 신화 서사의 원리, 신화 주인공이 보여주는 ‘대극 합일의 원리’를 통한 콤플렉스의 치유란 그러한 원리차원의 것을 말한다. 자신의 실제적 삶을 운용하기 위한 심층적이고 원형적인 원리를 신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내면화하여, 그러한 원리, ‘신성’을 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신화의 서사를 적용한 실제적 콤플렉스 치유의 전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예상되는 우려나 의혹에 대해 답함으로써,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신화의 서사 연구라는 서사적 콤플렉스 연구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곧바로 신화 치료나 서사 치료를 실행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의 적합성이나 실효성을 따지고, 기반이 될 방법론을 구상하는 차원이다. 아직은 새로운 개념의 신화연구로서 그 시작점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미비점이 많은 실정이나, 현대인의 실제적인 콤플렉스 문제를 치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추후의 논의 확장과 실제적 치유에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바이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표는 현대인의 정신적 문제로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 신화의 서사 연구를 통한 치유와 극복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이나 전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부분적 유사성을 띠는 정신분석학 기반의 신화연구나 신화 텍스트를 활용한 서사치료연구의 선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정신분석학적 연구의 경우나, 서사치료 연구의 사례에서 유사한 한계성이 포착되었다. 융 심리학에 기반 한 원형 비평의 방법론이든, 라캉(Jacques Lacan)의 분석틀을 활용한 경우이든, 개성화 과정을 통한 치유 과정의 연구,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을 통한 연구에서도 분석의 틀이나 구조의 적용에 치우침으로써 상세한 서사적 국면이나 주인공의 형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그에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서사 구조의 분석, 대립구조와 순차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콤플렉스의 구조를 밝히고 그러한 콤플렉스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신화의 서사를 콤플렉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가장 대중적인 신화체계라 할 수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형성 원리와, 신화 속에 투영된 인간적 콤플렉스의 형상들을 드러내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신화의 형성과 그 체계의 발전 과정에까지 압도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콤플렉스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형성 원리로 구성된 신화 체계 안에 인간적 한계로 인한 콤플렉스적 형상의 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로써 신화의 서사를 통한 콤플렉스의 연구가 오히려 적합한 것일 수 있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 본 것은 콤플렉스의 극복과 치유 문제 연구에 대한 한국 신화 서사의 적합성 문제였다. 이에 인간이 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으

로 좌정하는 한국 신화 서사의 주류적 특성이,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간의 삶의 문제를 서사적으로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한국 신화만의 특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로써 인간의 삶을 표상하고, 인간의 내면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러한 문제적 존재성을 자신의 문제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실마리를 제공하며, 풍부한 원형성으로써 콤플렉스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서사적 특질이 논의 되었다. 이는 세계의 어떤 신화 서사보다도, 한국 신화의 서사가 인간 삶의 원형적 문제들을 더 잘 감당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콤플렉스에 대한 서사적 접근은 새로운 분석의 틀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 신화의 서사가 함의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문제에 대하여, 그에 접근하기 위한 서사적 분석의 방법을 고찰해보았다. ‘콤플렉스(Complex)’라는 개념은 본디 정신분석학 연구에 뿌리를 둔 것인 바, 콤플렉스의 문제에 서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정신분석학적 개념 기반에 대한 고려는 배제될 수 없었다. 이에 콤플렉스의 발견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S. Freud), 그의 제자로서 자신만의 콤플렉스 이론으로 일가를 이룬 융(C. G. Jung),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콤플렉스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 아들러(A. Adler)의 콤플렉스 구조를 개괄하여, 그들의 콤플렉스 이론에 주축을 이루는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나름의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인간의 인식 기제로 작용하는, ‘외부의 세계-나’, ‘관계의 대상-나’, ‘나-나’의 세 관계 축이다. 이로써 콤플렉스 치유와 극복의 측면에서 한국 신화의 서사를 분석해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의 확인과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마련될 수 있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주요한 현실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하여 그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신화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2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콤플렉스가 어떠한 것인지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현대인의 콤플렉스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기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로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은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의 순서대로 ‘신체적 열등감의 문제’, ‘관계적 결함의 문제’, ‘사회적 관념의 문제’였다. 조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 각 소장이 구성되면서 각 유형의 전형이 되는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거북이·남생이의 콤플렉스는 관계 대상인 아버지의 ‘무능한 존재’라는 평가를 자기 존재성 판단의 기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존재성을 행위를 통해 내보였던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이는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통해 존재적 근원인 신성공간인 금상사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 여로에서 발견한 생금(生金)을 자신의 존재적 가치로 확신하게 됨으로써 치유될 수 있었다.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부재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상적 환상으로 대치하고 그 증명을 위한 자기 이상화에 매달린 것이 문제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콤플렉스는 어머니로 표상되는 현실 관계의 가치, 즉 현실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었다. 자청비의 문제는 여성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의 시선에 대응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차별의 논리를 내면화한 것이 문제 되었다. 위로는 관계적 우위를 점하여 자신의 존재성을 내보이며 하고, 아래로는 멸시와 배제의 시선을 투사하는 그녀의 관계 방식은, 중국에 그녀의 모든 관계를 단절 시키고 그녀를 세계로부터 축출당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녀는 정수남의 재생을 통하여 아래의 존재가 지닌 가치를 재인식하고, 여성의 일을 통하여 자신이 지닌 존재적 가치를 재인식하였으며, 문도령에게 먼저 나아가 손을 내미는 것으로 위의 존재와 새로이 관계 맺을 수 있었다. 본래적 존재의 차이와 역할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아래로는 땅, 짐승과 관계 맺고, 위로는 하늘과 관계 맺은 자청비는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인간의 표상으로서 자기 자신의 본래적 존재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차별의 논리로 인해 만들어진 남성의 형상을 벗어던지고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어, 자기 자신을 그 존재 그대로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지상으로 돌아와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냄으로써 그녀는 신성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숙영랑·앵연랑신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분석이, 그

에 부합하는 각각의 콤플렉스 문제를 치밀하게 파헤쳐가는 개별 서사에 대한 연구라면, 세 신화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콤플렉스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 신화의 원리와 서사체계를 구명한 것은, 콤플렉스의 문제를 비롯한 원형적 인간 존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일반론적 연구방법론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현실’, ‘성/속’, ‘이상의 서사(신성의 서사)/현실의 서사’의 핵심 대립구조가 성립되고, ‘현실을 떠남 → 존재적 가치 발견(신성의 발견) → 존재적 가치 확신(신성 획득) → 존재적 확신을 통한 현실적 삶(현실 복귀) → 콤플렉스의 극복(신적 좌정)’이라는 핵심 순차구조가 성립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인공들이 발견한 이상적 존재성, 즉 신성이라는 것이, 이미 그들의 현실에 존재하던 것이었고, 그들이 신적 좌정하기 이전에 꼭 자신이 떠난 현실의 자리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한국 신화가 말하는 신성이란,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정신적 깨달음, 존재성에 대한 확신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면 한국의 신화에는 신으로 좌정하는 인간의 서사가 주를 이루고, 신으로서의 구분됨 보다는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재성을 지닌 신들의 서사가 구현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한국의 신화는 그 서사 원리와 체계를 통하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가능성, 위대한 존재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신화의 원리를 통해 가장 원형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신화가 그 서사 원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원형적 인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원천강본풀이>와 <바리데기>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표상하는 오늘 이는 관계에 대한 인식, 현재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고독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 모든 존재와 관계 맺는 우주적 존재로의 변모를 이룬다. 바리데기의 경우에도 ‘버려진 존재’로서의 인식이라는 극악의 콤플렉스를, 일관적인 포용의 자세를 통하여, 또한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이중의 깨달음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포용의 화신으로서 버림받은 세상 모든 영혼을 건져 올리는, 저승 한 가운데 놓인 생명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이들이 보여주는 존재적 역변의 과정은, 부정적 현실에 억눌려 신음하는 인간 존재들에게 빛을 전해준다. 그들의 서

사가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과 존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원형적 인간 존재의 가치, 신성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의 콤플렉스 문제를 한국 신화의 원리 그 자체로서 이해 가능하도록 할 일반론적 연구 방법론과, 그 콤플렉스의 구조가 정밀하게 분석되도록 할 개별 신화 서사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완성되었다. 이로써 한국 신화의 서사를 통해 현실적인 콤플렉스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그에 대한 최종적 검토의 단계로서, 본고를 통해 정리된 최종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보았다.

실상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방법론의 설정은 개별사례에 대한 콤플렉스 구조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일반론으로 이어가는 귀납적 방식으로써 ‘개별 신화에 대한 방법론 설정과 검증 → 신화 일반에 대한 방법론 설정과 검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실의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신화 서사의 적용 문제는 ‘신화 일반에 대한 방법론 → 개별 신화에 대한 방법론’의 순서를 통해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세부적 단계로 깊이 파고드는 연역적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에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200여 명의 콤플렉스 사례를 중심으로, 신화 서사 일반의 원리와 개별 서사 분석의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북이·남생이, 할락궁이, 자청비 서사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거북이·남생이의 경우에는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L군의 사례, 할락궁이의 경우에는 C양의 사례, 자청비의 경우에는 G양의 사례를 통해 그 분석 내용이 타당하고 치유 방법의 적용이 실효적일 수 있음을 검증했다. 이처럼 신화의 서사를 통하여 다양한 현대인의 콤플렉스 문제를 감당할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이 본고의 연구가 지닌 가치를 증명한다. 아직은 시작 단계의 논의로써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의가 이제 겨우 이루어졌을 뿐이지만, 결국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실제적 콤플렉스 문제에 대한 치유와 극복을 논의함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참 고 문 헌

- 강정식, 『한국 음악』 제31집, 국립국악원, 2000.
 광금주, 『마음에 박힌 못 하나』, 쌤앤파커스, 2014.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김태곤, 『한국무가집』 Ⅲ,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79.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김태련, 『발달장애심리학』, 학지사, 2004.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2008.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 전통문화 연구소, 2001.
 문화재관리국 편,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3집, 한국인문과학원, 1998.
 사재동, 『불교계국문소설의 형성과정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서대석·박경신, 『한국고전문학전집』 30권 - 서사무가 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1930.
 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5, 태학사, 1981.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5.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신화』, 한겨레출판, 2004.
 신동훈,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9.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 신화』, 한겨레출판, 2014.
 이유경, 『원형과 신화』, 분석심리학연구소, 2008.
 이정은, 「내러티브 분석의 이론 동향」, 『내러티브 연구의 현황과 전망』,

박이정, 2014.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망목굿 - 베를 갈라 저승길을 닦아주는 굿』, 열화당, 1985.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적송지성·추엽용,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91(1937년 초판).

정승아, 『컴플렉스는 나의 힘』, 좋은책만들기, 2012.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 치료, 2007.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조현설,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신화』, 여름언덕, 20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집 1책, 1991.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80.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풍속무음』, 제주대학교, 1994.

홍일희, 『니체의 생철학 담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4, 민속원, 2004.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강은혜, 「<바리데기> 형성의 신화, 심리학적 두 원리」, 『한국어문연구』 1, 한국어문연구회, 1984.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강진옥,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 <바리공주>와<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권복순, 「자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 배달말학회, 2012.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 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권태효,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제32집, 한국민속학회, 2000.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길태숙,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 <밭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 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16, 열상고전연구회, 2002.

김광일, 「한국신화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韓國文化人類學』 제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김난주, 「한국창조신화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대숙,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김대행, 「현대 사회와 구비문학 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편, 『구비문학 연구의 길찾기』, 박이정, 2003.

김병주, 「여성신화 <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집, 한국심리학회, 2010.

김영숙, 「여성 중심 시각에서 본 <바리공주>」, 『페미니즘 문학회』, 한국문화사, 1996.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김정은, 「동해안무가의 화자별 변이 양상과 의미 - 구연자 성향에 따른 서사적 초점의 이동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김종균, 「현대 드라마의 구비문학적 위상」, 『구비문학연구』 제1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김종균, 「조선시대 가인들의 활동 고찰」, 『판소리학회지』 21권, 판소리학회, 2006.

김종균, 「고소설 유형의 형성과 변이 양상: 남녀결연서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4권, 어문연구학회, 2007.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충렬, 「한과 콤플렉스의 병리적 비교와 상담적 대안」, 『신학과실천』 28호, 한국실천학회, 2011.

김현선,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종교와 문화』 10,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4.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2010.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권 3호, 일지사, 1982.

김화경, 「바리공주 신화의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김환희, 「<바리공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 외국인 생명수 탐색담 및 <니산샤만>과의 비교연구」, 『동화와 번역』 10,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05.

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무속신화의 동화화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관한 고찰」, 『동화와 번역』 2,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01.

김희진,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치료과정고찰 : 융 심리학에 근거한 페르세포네 신화분석」, 『어문집』 제11집, 평택대학교, 1998.

김희진, 「신화해석을 통해 본 개성화 과정 : 융 분석심리학에 근거하여」,

『독서치료연구』 제2집, 한국독서치료학회, 2006.

노성숙, 「신화를 통해 본 여성 주체의 형성 -『바리공주』 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5.

노영근,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노영근, 「신화와 친부탐색 모티프」, 『어문학논총』 2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3.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試論)」, 『여성문학연구』 30권, 여성문학연구회, 2013.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박아청, 「인간이해를 위한 개념들」, 『사회과학논총』 제18권 1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박재인, 「<주몽신화>의 “유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양육”의 덕문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고찰」, 『겨레어문학』 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박현숙, 「무속신화 <바리공주>의 현대적 재창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을 통한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현순, 「수로왕 탄생신화의 심리학적 분석-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7집, 한국심리학회, 2005.

서경림, 「濟州 神話와 女性の 位相-<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 4,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1998.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8, 서울대학교 국문학 연구회, 1968.

서대석, 「바리공주 연구-이본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논총』 8, 계명대출판부, 1972.

서대석,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송지원, 「<프시케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성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여대

생 상담에서의 적용」, 『학생생활연구』 제24집,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1.

신동훈, 「경기지역 성주풀이 무가의 신화적 성격」, 『태릉어문연구』 5·6, 서울여자대학교, 1995.

신동훈, 「치유의 서사로서의 무속신화 - 그 문학치료학적 힘에 대한 단상」, 『문학치료연구』 제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비교민속학』 제43집, 2010.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2.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신태수, 「세경본풀이 세계관적 기저와 담론구조」,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신현기, 「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정과 부모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6집,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993.

신호림,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심우장,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 찾기: <슈렉>과 <바리공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9권, 어문연구학회, 2009.

심우장, 「이야기 스키마와 구비설화의 전승과 변이」, 『실천민속학연구』 제16호, 실천민속학회, 2010.

심우장, 「문화변동과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심우장, 「「바리공주」에 나타난 승고의 미학」, 『인문논총』 제67집,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학회, 2006.

양민주,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男裝)의 기능과 의미 - 여성영웅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오대혁,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의 전승관계」, 『불교어문논집』 6, 한국불교어문학회, 2001.

오세정, 「유화와 자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 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집, 겨레어문학회, 2006.

유제상, 「원저 :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창조신화 : “알”의 상징성 중심으로」, 『심성연구』 제27집, 한국분석심리학회, 2012.

윤찬주,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윤혜신, 「어머니신을 낳은 신화적 주체의 시선과 표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병순, 「<바리공주>와 여성 리더쉽」, 『숙명리더십연구』 제1집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2005.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수자, 「농경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1, 이화어문학회, 1990.

이수자, 「백중의 기원과 성격 -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1993.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이수자,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1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1998.

이수자,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 『역사민속학』 19, 역사민속학회, 2004.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유경, 「巫俗神話에 나타난 女性正體性 探索의 樣相과 意味」, 『어문연구』 1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이은희,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트릭스터 ‘정수남’의 존재 양상과 의미 연구」,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이은희, 「무속신화의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연구: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경본풀이>의 활용방안」,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7집,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3.

이정재, 「실크로드 신화 <애견이여 춤춰라>와 한국 무가 <바리공주>의 비교 연구」, 『한국민속학』 45, 한국민속학회, 2006.

이정재, 「한국 무조신화와 네팔 신화의 상관성 연구 - 바리공주 일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이창재, 「동아시아 신화 해석을 위한 정신분석 관점 및 개념 고찰」, 『기호학연구』 제15집, 한국기호학회, 2004.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임보연, 「<세경본풀이>와 <양산백전>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의미연구」, 『고황논집』 44,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임석재,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 - 함경도 무속의 성격」, 『함경도 망목굿 - 베를 갈라 저승길을 닦아주는 굿』, 열화당, 1985.

장석환, 「바리공주 무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장주근, 「서사무가의 시원과 민속문예사상의 위치」, 『한국문화인류학』 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정운채, 「한국고전문학과 문학치료」, 『조선학보』 제183집, 조선학회,

2002.

정운채, 「바리공주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독해」,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2004.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 중(中)세경 자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정진희,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정진희, 「풍농(豐農)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1.

조동일, 「구비문학과 구비철학」, 『구비문학연구』 제23집, 한국 구비문학회, 2006.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9.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1) -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 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제1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의 세계인식과 철학적 우주론의 관계」, 『구비문학연구』 제13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조현설, 「근대계몽기 단군 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학사연구』 제3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 제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조현설, 「여성주의와 고전문학연구의 접점과 향방」, 『민족문학사연구』 제3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조현설,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도연구회, 2011.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 모석(母石)·기자석(祈子石)·망부석(望夫石)」, 『구비문학연구』 제3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조홍윤, 「〈월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민속학』 제23집, 남도민속학회, 2011.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공간인식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홍윤, 「콤플렉스 극복 서사로서의 〈이공본풀이〉 연구」,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조홍윤, 「서사무가를 통해 본 한국 신화의 시간인식체계 연구」, 『겨레어문학』 제52집, 겨레어문학학회, 2014.

좌혜경, 「자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0, 한국민속학회, 1998.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최원오, 「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홍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학회, 2006.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황혜진, 「설화를 통한 자기성찰 방법의 실행 연구」, 『독서연구』 17, 한국독서학회, 2007.

황혜진, 「설화를 통한 자기 성찰의 사례 연구」, 『국어교육』 제12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황혜진, 「〈단군신화〉에 대한 현대 독자의 수용 양상과 특성」, 『국어교육학연구』 제4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2.

Alfred Adler, 라영균 역, 『인간 이해』, 일빛, 2009.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문예출판사, 1998.

B. 말리노우스키, 서영대 역, 『원시신화론』, 민속원, 1996.

B. D. Lewin, *The Psychoanalysis of Elation*. New York: Norton, 1950.

C. Baudouin, *The mind of Child: a psychoanalytical study*, George Allen & Unwin Ltd: First English Edition edition, 1933.

C. A. Meier, *Die Empirie des Unbewussten*, Zuerich: Rascher Verlag, 1968.

C. G. Jung, *The Psycgogenesis of Mental Diseas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2-원형과 무의식, 솔, 2002.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4-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 2008.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5-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2002.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8-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2006.

C. G. Jun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 『융 기본 저작집』 9-인간과 문화, 솔, 2004.

칼 G. 융 외,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1996.

크리스토프 앙드레, 이세진 역, 『나답게 살아갈 용기』, 더퀘스트, 2014.

D. Schultz, *Intimate freinds, dangerous rivals: The turbulent relationship between Freud and Jung*. Los Angeles: Jeremy Tarcher, 1990.

Donald E. Polkinghorne, 강현석 외 역,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2009.

E. Jacobson, *Depression*. New York: Int. Univ. Press, 1971.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에리히 프롬, 황문수 역, 『인간의 마음』, 문예출판사, 1977.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Gerald C. Davison 외, 이봉건 역,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 문학과 지성사, 1988.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K. K. Ruthvan, 『신화』, 서울대출판부, 1987.
 미케 발,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멀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1995.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 한길사, 2011.
 Mircea Eliade, *Le sacré et le profane*, Paris: Gallimard, 2003
 N. K. 샌다즈, 이현주 역, 『길가메시 서사시』, 범우사, 1999.
 H. Parens,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New York: Jason Aronson, 1979.
 Hesiod, *Homeric Hymns. Epic Cycle Homerica*, trans by Hugh G.
 Evelyn-Whi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Hesiod, *Theogonie, Werke und tage*, übersetz und hrsg, von Otto
 Schönberger, Stuttgart, 1999.
 헤시오도스, 김원익 역, 『신통기-그리스 신들의 계보』, 민음사, 2003.
 호메로스, 천병희 역, 『일리아스』, 숲, 2007.
 J. Lacan, *The Language of the Self*, trans. by Anthony Wilde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J. 모러스, 박용희 역, 『콤플렉스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성바오로출판
 사, 1997.
 J. A. Arlow & C. Brenner, *Psychoanalytic Concepts and Structural
 Theory*. New York: Int. Univ. Press, 1964.
 J. Sandler & A. Freud, *The Analysis of Defense*. New York: Int.
 Univ. Press, 1985.

조지프 캠벨, 이진구 역, 『신의 가면』 I-원시신화, 까치글방, 2003.
 조지프 캠벨, 이진구 역, 『신의 가면』 II-동양신화, 까치글방, 1999.
 조지프 캠벨, 정영목 역, 『신의 가면』 III-서양신화, 까치글방, 1999.
 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조지프 캠벨, 다이엔 K. 오스본 편, 박중서 역, 『신화와 인생』, 갈라파고
 스, 2009.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죠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즘』, 민음사, 1993.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플래닛, 2007.
 레비-스트로스, 임봉길 역, 『신화학』 1~2, 한길사, 2005.
 오비디우스, 이윤기 역, 『변신이야기』 1~2, 민음사, 1998.
 O. Rank, *A Psychology of Difference: The American Lectures*, Pri
 nceton University press, 1996.
 R. H. Bowlby, *Freudian Mythologies: Greek Tragedy and Mordern
 Ident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로버트 솔즈 외,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2007.
 Sigmund Freud, 정장진 역,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1996.
 Sigmund Freud, 임홍빈·홍혜경 역,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1997.
 Sigmund Freud, 이한우 역, 『일상생활과 정신병리학』, 열린책들, 1997.
 Sigmund Freud, 박성수·한승완 역, 『정신분석학 개요』, 열린책들,
 1997.
 Sigmund Freud,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Sigmund Freud,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Sigmund Freud, 김인순 역, 『꿈의 해석』, 열린책들, 2003.
 Sigmund Freud,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 책들, 2003.
 스티스 톰슨, 황폐강 감수, 윤승준 외 역, 『설화학원론』, 계명문화사,
 1992.
 T. R. Frosch, *Shelly and the Romantic Imagenation: A Psychologic
 al Study*, Danvers: Rosemont Publishing & Printing Corp, 2

007.

움베르토 에코, 이현경 역, 『미의 역사』, 열린책들, 2005.

움베르토 에코, 오숙은 역, 『추의 역사』, 열린책들, 2008.

W. 베란 울프, 박광순 역,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매일경제신문사, 2012.

A. Balint, "Love for mother and mother love", *IJP*. 46, 1949.

Alan Dundes, "Texture, Text, Context", *Interpreting Folklo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Edmund R. Leach, "Kimil: A category of Andamanese thought", *Creativity/Anthropolog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J. A. Arlow, "The structural hypothesis", *PQ*. 44, 1975.

M. Choisy, "Le complexe de Phaëton", *Psychè*, 5, 1950.

Roland Barthes,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narrative", *Image, Music, Text*, trans. Stephen Heath, New York: Hill & Wang, 1977.

V. Clower, "Significance of masturbation in female sexual development and function", *Masturbation from Infancy to Senescence*, ed. I. Marcus & J. Francis. New York: Int. Univ. Press, 1975.

